

제 21집

逍遙의脈



동두천문화원



A000114

東豆川文化院

제21집

逍遙의脈

東豆川文化院

차례

발간사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영사

특집 I	조선왕만(朝鮮王滿)이 한(漢)을 건국(建國) 동두천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택기	26
특집 II	기자조선(箕子朝鮮)과 마한(馬韓) / 소장 김택기	42
특집 III	삼묘족(三苗族)의 발생(發生) / 소장 김택기	49
상식교실	아호고(雅號考)	76
기행문	강원도 영월 장릉을 다녀와서 / 동두천문화원 이사 김택기... 148 영월을 다녀와서 / 동두천문인협회 白蓮 원화윤	152
유적답사	단종애사 / 동두천문인협회 이사 이미라	156

제 19회 백일장 우수작품

< 산문 >

고등부	대상_장덕진(신흥고 2년)	158
	차상_지성현(동두천외고 2년)	160
	차상_윤승준(동두천외고 2년)	162
중등부	대상_정다연(동두천여중 3년)	164
	차상_김정민(생연중 3년)	166
	차상_허예은(동두천여중 1년)	168
초등부	대상_함현진(동두천초등 6년)	170
	차상_이소미(생연초등 5년)	172
	차상_김아람(이담초등 2년)	174

< 시 >

고등부 대상_김성국(신흥고 2년)..... 176
차상_김성국(신흥고 3년).....177
차상_정진희(중앙고 1년)..... 179

중등부 대상_박고운(동두천중앙중 2년).....180
차상_강하늘(보영여중 3년)..... 182
차상_박선주(중앙중 3년)..... 184

초등부 차상_이수목(소요초등 4년)..... 186
차상_안슬희(신천초등 6년)..... 188
차상_이희수(생연초등 1년)..... 189

시민의 장 수상자.....190

동두천문화원 회원 명단.....194

동두천문화원 보산분원..... 197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8

동두천문화원 여성회 회원 명단..... 199



표지사진_박주가리
촬영_전동배(동두천중학교 교사)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 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환경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발간사

동두천문화원장 안민규



기쁨과 슬픔, 보람과 안타까움이 뒤범벅된채 한 걸음 하루씩 숨 가쁘게 달렸던 정해년을 아쉬움과 함께 마무리하고 무자년의 새로운 태양을 소요산 공주봉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 창달과 지역문화와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해온 『소요의 맥』 제21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훌륭한 문화를 가진 국가나 도시는 오랫동안 존속하고 후세대에 많은 발전과 번영을 해왔습니다.

문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삶을 이룩해가려는 뜻에서 비롯되며 사람이 없다면 문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문화를 이루며 살려고 할까요? 사람은 미래의 삶을 보다 낮게 하려는 뜻을 지니고 사는 까닭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짐승들은 항상 같은 방법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나아야하고 내일의 삶은 오늘의 삶보다 더욱더 나아져야 한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으므로 사람에게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까닭에 서로 모여 문화를 창조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가꾸어 일등 국민, 일등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고도경제성장과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문화화로 무분별한 서구 문명의 유입과 물질만능풍조가 만연되고 핵가족화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성교육, 충·효·예 사상부재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성교육, 충·효·예 교육, 정신문화가 이를 따르지 못하여 험난한 세상, 불안한 사회, 각박한 이웃으로 변모해가는 안타까운 시점에 우리문화시민, 문화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무자년에는 살기 좋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밝은 세상, 행복한 사회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문화 환경 풍토조성을 위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참여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요의 맥』 제21집이 출간되기까지 고귀한 글과 자료, 성원과 참여를 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는 시민, 문화가족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2007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경연대회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통두천문화원 행사



전통성년례 (5월 21일)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향토문화유적 해설사 양성과정



전통예절반 발표회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자연생태 체험(전남 고창)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문화학교 - 탭댄스



문화학교 - 가요반



문화학교 - 서예반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문화학교 - 기타반



문화학교 - 사진반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문화학교 - 꽃꽂이반



문화학교 - 문인화반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동두내 두레소리」 장려상 수상



경기도 민속놀이 축제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중두천문화원 행사



삼충단 춘·추기제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유적해설사 양성반 현장학습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실버문화사랑축제



문화학교 평생학습관 전시회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향토 문화 유적답사(강원도 영월)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행사



어린이 전통 예절교육



2007년도 사진으로 보는 통두천문화원 행사



청소년 전통 예절교육



여 백

특 집

- I . 조선 왕만(朝鮮 王滿)이 漢을 建國
- II . 기자조선(箕子朝鮮)과 마한(馬韓)
- III . 삼묘족(三苗族)의 발생(發生)

동두천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택기

조선 왕만(朝鮮 王滿)이 漢을 建國

민족사바로찾기한수이복지부
대표 김택기

1. 조선 왕만(朝鮮 王滿)이 한나라를 건국

후한서(後漢書) 본문에서 우거(右渠)가 28만 명의 군졸을 거느리고 연조선(燕朝鮮)을 멸망시켰다고 했으므로 조선왕이었던 우거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상고사의 새발견 p.262과 사기사전 본문 p.534 및 조선왕만도 함께 참조함)

조선왕 우거(右渠 : B.C. 200년경)는 서한(西漢) 때 사람으로 조선왕이다. 조선왕만의 손자이다. 재위당시 광범위한 지역을 누렸다.

그 중 한나라에서 망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나라의 천자(天子)라고 하였다.

원봉(元封 : B.C. 110~105년) 2년 무제(武帝 : B.C. 140~135년)때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다가 옳지 못하게도 주목을 받게도 되었다. 그러자 맨 먼저 배를 타고 군인으로 뽑혀 파병되어 가는데 장군으로 앞장서게 되었다. 양부(楊仆)와 함께 군졸 5만명을 토벌했다. 한나라 병사들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누누이 좌절되면서 꺾이고 말았다. 그때 조선을 통치했지만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순 투성이었다.

내부에서는 투쟁과 싸움이 격렬 해졌다. 그 후 3년 조선의 여승들 간에도 서로서로 반목(反目)으로 인해 여러 파로 나누어졌다. 그러자 장수들 간에 죽이고 죽는 형세가 일어나 한(漢)나라에 투항해 버렸다.

한나라는 그 지역 즉 우거가 통치하던 지역을 진번(眞番)이라했다. 그 당시 임둔(臨屯), 낙랑(樂浪), 현도(玄菟)의 사군 즉 네 군을 두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왕 왕만은 분명히 조선왕이었다. 그런데 사기사전에 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왕 왕만(王滿)은 진번(眞番)의 도읍지를 버리고 왕검(王儉)으로 옮겨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 만큼 왕검에서 기반을 굳힌 것이다.

사기본문에서 보듯이 조선왕만은 서한 때 조선왕이라 했다. 전국시 연(燕)나라 왕이었던 노관(盧縮)의 반란으로 타 지역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고토(故土)를 버릴 수 없었던 왕만은 다시 수복하기 위해 수천 명의 조선인과 연나라에서 망명 온 사람들과 합세하여 재차 탈환(奪還)하려 했지만 실패한다.

그 후 하는 수 없이 조선왕만은 망명 온 연나라 사람과 조선인 그리고 동이(東夷)들을 규합하여 섬서성(陝西省), 왕검성(王儉城)에 도읍을 정하게 된다. 왕검은 현재 중국 서안(西安)에 있는 장안성(長安城)이다. <왕만에 대한 글>

그렇다면 조선왕만은 연(燕)나라 왕이었던 노관(盧縮)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섬서성(陝西省)으로 옮겨와 왕검성(王儉城)에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한(漢)나라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럼 한(漢)나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과연 한(漢)나라가 섬서성, 장안성에 도읍했는지 궁금하다.

2. 연(燕)왕 노관(盧縮)의 반란

중국 지명대사전(地名大辭典) 본문 1102 쪽 한(漢)에 대한 기록과 사기사전(史記辭典) 본문 48쪽 그리고 50쪽을 참고해 보기로 한다.

한(漢)나라는 조선의 대명사이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 BC 202년)은 진(秦)나라 천하를 통일했다. 진시황(秦始皇 : BC 255년)의 진나라는 한고조 유방에게 소멸되었다. 불과 만 14년이다. 선진(先秦 : BC 255년)이 선후 한고조에게 53년 만에 망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진(秦)나라는 진한(秦韓)이며, 한(漢)나라는 마한(馬韓)이다. 이들은 모두가 한(漢)의 후손들이다.

한고조 유방(劉邦 : BC 202년)은 천하를 통일한 뒤 도읍을 섬서성(陝西省) 서안

(西安)에 있는 장안성(長安城)에 두었다. 이곳은 장안성에서 서북쪽으로 30리 거리이다. 하지만 이곳도 장안성이라 한다. 지금 대륙의 황하(黃河)의 장강이 흐르는 곳과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삼대강(三大江: 황하, 양자강, 흑룡강) 모두의 지역이 한(漢)이다. 특히 봉천(奉天), 신강성(新疆省), 내몽고(內蒙古), 월남, 안남(安南) 그리고 인도와 접해 있는 서장성과 조선북부(조선북부 라고 쓴 것은 중국 고금지명대사전이 1931년도에 편찬되었으므로 조선 북부를 고의적으로 지목하여 쓴 것 같다.)이다.

한(漢)나라 때는 유럽일부, 몽고, 소련일부, 인도일부, 월남 등 전 세계의 2/3가 고조선이었다. 임금은 12명이고 모두 212년의 역사이다. 그런데 왕망(王莽: AD 9~13년)에 의해 한(漢)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선왕이었던 왕만은 연(燕)나라 왕이었던 노관의 반란으로 섬서성에 와서 왕검성(王儉城)을 건설할 수 있었으며 한(漢)나라가 건국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말해 조선왕만(朝鮮王滿)은 연조선(燕朝鮮)의 노관(盧綰)에게 쫓겨왔지만 한(漢)나라를 세우게 되었음을 무척 다행한 일이다. 이때 세운 한(漢)나라를 전한(前漢)이라 한다.

조선왕만이 한(漢)나라를 세운 뒤 왕만(王滿)의 손자였던 우거(右渠)가 할아버지인 조선왕만의 뒤를 이어 한(漢)나라의 천자(天子)가 되었다. 우거(右渠)는 한나라에서 쫓겨 도망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 당시 진번(眞番)은 허북성(河北省), 북경(北京)이 있는 연(燕)나라 지방이다.

우거(右渠)는 처음 진번(眞番) 즉 변한현(番汗縣)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왕만 할아버지가 연왕(燕王)이었던 노관에게 쫓겨난 후이다.

예맥의 왕족과 신하들이었던 남녀(南閩)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우거는 군졸 28만명을 이끌고 요동(遼東)의 안쪽에 있던 연조선(燕朝鮮)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곳에 창해군(蒼海郡)을 두었다가 파했다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연조선이 망한 후 원봉(元封: BC 110~105년) 32년에 낙랑(樂浪), 임둔(臨屯), 현도(玄菟), 진번(眞番)의 사군(四郡)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조선왕만은 서한 때 연(燕)나라 사람으로서 연왕이었던 노관에게 쫓겨 왕검성(王儉城)에서 도움을 했다. 왕만(王滿)의 손자인 우거(右渠)는 대신 연나라 사람이면서 서한 연(燕) 조선을 멸망시키고 한(漢)나라의 천자(天子)가 되는 것이다.

조선왕만(朝鮮王滿)이 연왕(燕王) 노관(盧綰)에게 쫓겨난 때가 한혜제(漢惠帝: BC 196~188년)사이므로 한고조 유방(劉邦: BC 202~195년)이 건국한 바로 뒤

인 한해제 인지 고후(高后 : BC 187~180년)가 조선왕만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진(秦)나라 말기 초한(楚漢)때(BC 206년) 한은 세워졌으나 한왕(漢王)이 등극하기는 사서(史書)에 BC 20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연왕인 노관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 BC 206년 한왕때 장량(張良)이 초왕(楚王)을 죽일 무렵 한왕 성(成)은 한나라에 돌아왔다는 기록이 국사년표(國史年表) 역대제왕년표에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사기사전 본문대로 조선왕만은 연나라에서 망명한 사람과 외지에 있던 동이(東夷)들을 규합해 조선왕에 다시 등극하고 도움을 왕검성(王儉城)에 두고 건국했다는 기록이다.

한나라 유방이 세운 나라도 한(漢)이며, 조선왕만이 세운 나라 역시 한(漢)나라이다. 이때 도움을 섬서성 서안(西安) 서북 30리에 있는 같은 장안성(長安城)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어찌된 사건인지 어리병병하다.

3. 왕검성(王儉城)은 서안(西安)

여기서 전한서(前漢書) 지리지(地理志) 본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전한서(前漢書) 28 下 지리지(地理志) 158~522쪽 참고)

한(漢), 조(趙), 위(魏) 세집[三家]은 소멸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스스로 일어선 제후집안이다. 그래서 한(漢), 조(趙), 위(魏)를 3진(三晉)이라 한다. 말하자면 진(晉)나라와 같은 조상이다.

그리고 한, 위, 조, 진 모두 같은 희씨(姬氏)성이다. (중략) 한(漢)나라가 소멸되자 진(陳)나라가 회양(淮陽)땅에 섰다. 진(陳)나라도 본시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가 뿌리였지만 망한 뒤 주무왕(周武王 : BC 1122년)이 봉해진 뒤 생기게 되었다.

본래 요(堯)왕검의 아버지 제곡고신씨의 외척이 규씨(媯氏)였지만 순(舜)임금 이후에 규만(媯滿)이란 사람이 진(陳)나라의 선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선왕만도 진(陳)나라의 후예 인듯하다. 어찌든 조선왕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우거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조선왕만과 그의 손자인 우거도 한(漢)나라의 천자가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앞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조선왕만이 연왕(燕王) 노관에게 쫓겨 섬서성 서안에 있는 왕검성(王儉城) 즉, 장안성(長安城)에 도읍했다고 했으므로 왕검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기에 소개해 보기로 한다.

사기사전(史記辭典) 본문 48쪽과 50쪽을 동시에 보기로 한다.

왕검(王儉)은 옛 성의 이름이다. 그때 당시 조선의 평양시이다. 한서(漢書) 지리지에 의하면 왕검성(王儉城)이 있던 곳이 낙랑군(樂浪郡)이다.

그러기에 조선현(朝鮮縣)이라 했다. 조선열전에 의하면 왕만은 진번(眞番)에서 노역(勞役)을 잠깐했다. 진번은 연나라 땅이다. 그 당시 조선인과 만이(蠻夷)들은 연나라 땅이 고향이었다.

그리하여 제(齊)나라에 왕만(王滿)과 함께 망명을 했다. 그 후 도읍하여 왕검(王儉)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검은 왕검성(王儉城)이며 옛 조선 즉 고조선(古朝鮮)의 성(城) 이름이 왕검(王儉)이다. 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왕검성은 고조선의 성(城)임이 분명해진다. 왕검성은 섬서성, 장안성(長安城)이며 서안은 옛날 장안성과 함께 옛 조선의 평양시임은 두말할 여지없는 자료이다.

4. 마한(馬韓) 사람이 진왕(辰王)을 세움

후한서(後漢書, 注 6) 본문을 연결해 풀어 보고자 한다.

조선왕만의 손자인 우거(右渠)가 연조선(燕朝鮮)을 멸한 뒤 사군(四郡)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때 우거는 본시 연(燕)나라의 조선(朝鮮)사람이다. 왕만(王滿)이 연왕이었던 노관의 반란으로 쫓겨난 후 우거는 연나라 조선을 멸망시킨다. 이때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됐다고 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왕만은 스스로 한나라 천자라고 했다. 한(漢)나라는 곧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임을 사서(史書)는 기록하고 있지만 조선왕만이 한(漢)나라를 세우면서 이름을 바꾸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옛날 고조선이나 상고시대에는 대권을 잡으면 마음대로 나라이름도, 본인의 이름도 다시 고쳐 쓰는 것이 역사의 순리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대신 반드시 선(禪)을 통한 사람만이 대권을 쥐는 국법이 있었던 것이다. 선을 통해 대권을 잡으면 그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만장일치의 완벽한 화백제도였던 것이다.

소제원년(昭帝元年 : BC 86~80년)시 임둔(臨屯)은 파하고 진번과 낙랑을 합병시켰다. 그 당시 현도는 있었지만 현도를 나누어 구려(句麗)라고 했다.

이중재씨가 1991년 7, 8월 서안에 갔을 때 그 당시도 구려산(句麗山)이 있고 그 위에 노자(老子)의 사당이 있음을 보았다.

한사군(漢四郡)은 조선왕이었던 연나라 사람[右渠] 한(漢)나라 천자가 된 후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고조선(古朝鮮)사람이 한나라를 세운 것으로 고대사서(古代史書)는 기록하고 있다.

후한서(後漢書) 한(漢) 전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왈 마한(馬漢)이요, 이왈 진한(辰漢), 삼왈 변진(弁辰)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어 54개국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한 북쪽에는 낙랑이 있고 남쪽으로는 왜(倭)가 인접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조선 왕준(王準)이 위만(衛滿)에게 격파되어 장수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수 천 명의 군중이 바다 쪽으로 갔으나 마한을 공격해 옴으로 인해 파하고 말았다. 그러나 스스로 자립했던 한왕(漢王)은 조선왕준 후 끊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마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립하여 진왕을 세웠다고 후한서는 적고 있다.

5. 북경대학 엄문명 주임교수와의 대담

이상 사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너무나 복잡하다.

한(漢)나라는 사서에서 보듯 마한의 뿌리임이 분명하다. 비록 연조선(燕朝鮮)에서 살았던 조선왕만이 한(漢)나라를 세웠더라도 한나라와 한의 강역은 모두 마한의 땅이었다. 그 당시 한을 살펴보면 전한(前漢)은 한고조(漢高祖 : BC 202~195년)이지만 그 후 왕망(王莽 : AD 9~13)이 나타나서 새 나라 즉 동명(東明)으로 이름을 고쳐 고구려(高句麗)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뒤 광무제(光武帝 : AD 25~56년)가 나타나 후한(後漢) 즉 동한(東漢)을 세웠다.

여기서 잠깐 한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서한(西漢)은 전한(前漢)이다. 도읍은 장안성이다.

후한은 동한(東漢)이다. 도읍은 낙양이다.

오대시(五大時)는 북한(北漢)이다. 진나라 때 흉노(匈奴)였던 유연(劉淵 : AD 304년)에 의해 산서성(山西省) 태원현(太原縣)에 도읍했다.

그러나 송(宋 : AD 420~479)나라에게 멸망했다. 남한(南漢)은 유은(劉隱)의 아우 유업에 의해 광동성(廣東省), 광주시(廣州市)에서 건국 하였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월(越)이라 했으나 뒤에 이름을 고쳐 한이라 했으며 이것이 남한(南漢)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한(成漢)이다. 진나라 때 열여섯 나라 중 하나이다. 씨족은 이씨(李氏) 이름은 이웅(李雄)이다. 처음은 촉나라라 했다. 도읍은 사천성 성도(成都)이다. 처음 나라이름은 성(成)이었으나 이수(李壽)에게 빼앗겼다. 이수는 나라이름을 고쳐 한이라 했는데 사가들은 성한이라 한다. 그러나 역시 후촉(後蜀)나라이다. 이때 도읍지는 섬서성(陝西省) 남부 운귀(雲貴) 북부지방이다. 임금은 다섯이며 45년간 지속하다. 동진에게 소멸되었다.

다음은 촉한(蜀漢)이다. 촉한은 소열제유비(昭烈帝劉備 : AD 220~223년)이다. 삼국시(三國時) 유비는 한나라 종실에서 왕이라 했다. 그리하여 촉(蜀)나라지만 따지고 보면 한나라를 계승했다고 해서 촉한이라 했다. 도읍은 사천성(四川省) 성도에 두고 섬서성, 귀주성 등 3주(三州)를 활동무대로 삼았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은 43년만에 후위(後魏)에게 망하고 말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나라의 활동무대는 현 지나 전 대륙이었다. 한나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왕만이 섬서성 서안에 있는 장안성(長安城)에 왕검성을 세운 것이 한나라이기 보다 고조선의 평양시 왕검성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사기(史記)나 사기사전 그리고 후한서 전한서의 지리지(地理志)편에 잘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다.

※ 이 어찌 한나라가 중국역사라고 하겠는가? 중국역사란 말은 없다.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지나'이다. "차이나" 즉 지나(支那)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지나역사(支那歷史)가 있는가? 없다 그렇다고 중화역사는 더 더욱 없다. 단지 세계 제2차대전 이 끝나고 광복되던 1945년 이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겼을 따름이다. 이름이 너무 길므로 줄여서 중국이라는 말이 생겼을 뿐이다.

그 후 한국에 있던 식민 사학자 친일파들이 한문의 역사원서가 너무 어려우므로 일본 놈들이 식민정책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짜 역사를 진짜인양 오늘날까지 가르쳐 온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그냥 역사라고 가르칠 뿐이지 중국사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어찌 통분하지 않겠는가?

※ 이중재 씨가 1991년 7, 8월에 북경에 갔을 때 북경대학 고고학 주임교수이신 엄문명(嚴文明)선생께서도 중국역사가 아니고 모두 동이역사(東夷歷史)라고 하였다. 이 사실을 이중재 씨는 녹음해 놓고 있으며 녹음된(내용을) 것을 상고사학회 연구위원인 이창원 시인은 자유문학 1991년 가을 창간지에 대담내용을 모두 발표했다.

앞에 사기에서 보듯 한(漢)은 한(韓)의 후예이자 삼한(三韓)의 후예이다.

3한의 후예이기에 마한의 혈통이다. 왕망(王莽: AD 9~13년)은 새 나라를 세웠다고 했는데 왕망의 이름은 분명히 동명(東明)이라 고쳤다는 기록이다. 특히 후한서(後漢書) 2814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6. 조선준왕(朝鮮準王)은 한나라를 건국

“망대설(莽大說)”, “개명고구려왕(更明高句麗王)”, “위하구려후(爲下句麗候)”라 하였다. 이 말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왕망의 큰 설에 의하면 이름을 고쳐 고구려왕이라 하고 아래 있는 구려는 제후국으로서 고구려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대 '지나' 즉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왕망이 한나라를 치고 세운 나라를 “고구려”라고 표시하지 않고 “신”으로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들 역사를 알고 있는 듯 했다. 특히 북경대학교수인 엄문명 씨의 대답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앞에서도 한나라에서 말한바 있지만 진(秦), 즉 진한은 6국을 통일했는가 하면 한, 마한과 마한의 후예인 고구려는 서한, 전한, 동한, 북한, 남한, 계한(季漢), 촉한, 성한 등에서 보여준 한의 강역은 천산(天山)으로 기준하여 일본과 현 지나대륙 모두이다. 바로 위의 땅들은 마한의 강역이자 고구려의 강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주

무왕(周武王 : BC 1122년) 때 기자조선(箕子朝鮮)을 봉한 뒤 40여세(四十餘世 : 여러 명의 임금)가 내려오면서 집권한 것을 뜻 함)를 거쳐 내려왔다.

한나라 초기 즉 진(秦)나라 말기이다.

기씨준왕(箕氏準王)이 있을 당시 한나라 초기에 큰 난이 일어났다. 이때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이 수 만가구가 피난가는 난리가 생겼다. 연나라 사람은 위만(衛滿)을 격파하자 준왕(準王)은 망명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조선을 세워 나라가 이어졌는데 준왕의 손자인 우거(右渠)까지 이어졌다고 후한서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숙제가 풀린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의 오묘한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다.

사기사전(史記辭典) 본문에서는 조선왕만은 서한(西漢) 때 조선국왕이었다. 전국시 연나라가 강해지자 연나라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한다. 진번(眞番)은 그 당시 조선의 땅이었다. 서한초(西漢初) 연왕 노관은 반란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꺾박당했다. 이때 조선왕만은 진번을 버리고 망명하였다. 그 후 많은 무리를 일으켜 진번 땅을 탈환하려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연나라에서 온 망명자들과 조선사람 즉 동이(東夷)들의 추대로 다시 조선왕이 되어 섬서성(陝西省) 서안에 있는 장안성(長安城)에 도읍을 정했다. 장안성에 도읍을 정한 것이 바로 왕검성(王儉城)이다. 왕검성은 평양시 왕검성이라고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대목에서 역사의 숙제는 풀리고 있다. 기씨준왕(箕氏準王) 옛날 기자조선으로부터 40여세 동안 내려온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라는 사실이다.

이때 연왕 노관의 반란으로 위만의 왕이었던 준왕은 망명한다.

다시 말해 위만조선 때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은 연나라 노관의 반란으로 진번의 고도를 버리고 망명하게 된다. 후한서 본문 2817쪽에서 보는바와 같이 준왕의 손자 우거에 의해 연조선(燕朝鮮)을 멸망시키고 한왕 즉 한나라 왕이 되어 한사군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사기사전 본문 534쪽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왕만도 서한 때 사람으로 연왕 노관의 반란 때문에 진번을 버리고 망명하였다고 적고 있다.

기자준왕의 손자도 우거이고, 조선왕만의 손자도 우거이다. 그렇다면 준왕과 왕망은 같은 사람이다. 기씨준왕(箕氏準王)이 조선왕만인 셈이다. 할아버지인 조선준왕

은 조선왕만인 것이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서한초(西漢初)에 연왕노관의 반란으로 꼭 같은 장소인 진번의 고도를 버리게 된다. 그것도 꼭 같은 시기에 꼭 같이 망명의 길을 떠나 꼭 같은 장소인 섬서성 서안 즉 왕검성을 세우게 된다. 바로 이곳이 조선의 평양시 왕검성이자 현재의 장안성이다. 그렇다면 위만조선이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뿌리인 셈이다. 다시 말해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바로 조선왕만이었다. 위만조선이란 기자조선의 뿌리이다.

주무왕(周武王 : BC 1122년)때 봉해진 기자조선은 춘추시 진나라 땅이다. 이곳은 산서성(山西省) 태곡현 동쪽 35리이다. 본래 백적(白狄)의 땅이다. 백적(白狄)이란 백이(白夷)의 후손으로 선을 통하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가 백적(白狄)이다. 흰핑의 부족이며 백적(白翟)이다. 이들은 주로 여자들의 부족국가이며 모권(母權) 사회제도이다. 지금의 산서성 태원(太原)의 동쪽 편이다.

기씨준왕(箕氏準王)이 있던 진번은 산서성 태곡현 즉 지금의 태원이란 사실이다. 조선왕만이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은 연왕인 노관의 반란으로 인하여 서안에 있는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7. 서안(西安)은 조선의 평양(현재 북한이 아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이 40대의 왕도를 거쳐 준왕(準王)이 연나라 노관의 반란으로 인하여 섬서성 서안에 왕검성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조선왕만이 역시 연나라 노관의 반란으로 서안에 왕검성을 세운 것과 똑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사전 본문 조선왕만과 후한서 본문 기자조선(箕子朝鮮)전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기 본문에도 기씨의 후예 준왕이 왕검성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전자지손우거(傳子至孫右渠)”, “기손명야(其孫名也)”라는 말은 기자조선이 내려오다 아들로 전하여져 그의 손자인 우거는 분명히 그 손자이다. 라는 기록이 잘 말해 준다. 여하간 준왕이 망명하여 조선의 왕검성을 세웠고 조선의 도읍지를 평양시에 두었는데 바로 그 곳이 섬서성 서안의 장안성(長安城)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하나는 조선왕망이 연왕인 노관의 반란으로 망명하여 왕검성을 세웠다는 것은 조선왕망이 준왕임을 말해준다.

준왕의 손자 우거는 연왕 노관의 반란에 의해 망명한 것을 분풀이나 하듯이 요동에 있는 연나라의 도읍지인 진번(眞番) 지금의 산서성 태원을 쳐서 연나라를 굴복시키게 했다는 사실이다.

사기사전 조선 우거는 조선왕만의 손자라 했으므로 왕만의 손자가 우거이고 준왕의 손자가 우거임을 말해준다. 여하간 조선왕이었던 만과 조선왕이었던 준은 같은 사람이며 한사람임을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삼서성 서안에 즉 조선의 평양시에 왕검성(王儉城은 王險城이라고도 함)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사기와 사기사전, 후한서, 중국고금지명대사전과 전한서, 수경주(水經注)에도 잘 고증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어쨌든 조선왕만 즉 준왕은 삼서성 서안에 조선의 평양시를 두고 도읍을 왕검성이라 한 것은 새로운 조선을 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다름 아니라 만(滿)은 이름인지 준왕(準王)이란 준(準)자가 이름인지 알송달송 하다. 사서에 확실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사가들이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장난을 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중재 씨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조선왕만은 역사학자들이 낮추어서 조선의 왕이었던 만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준왕이란 말은 기자조선 말기 마지막왕의 칭호인 듯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선준왕이다. 이름은 만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삼국유사 마한편에는 위만조선으로 적고 있다. 전한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이 생기게 되는 동기는 순임금 이후 규만(媯滿)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세우는 데부터 만자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되어 있다.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사서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조선왕만과 준왕이 같은 사람이라면 기자조선으로 내려오면서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으로 이름이 바뀌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하간 준왕이 왕검성을 세운 것이나 위만조선(衛滿朝鮮)이었던 조선왕만(朝鮮王滿)이가 왕검성을 세운 것은 똑같다. 왕검성은 조선 평양시에 건설된 조선의 도읍지의 성이 왕검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중요하다. 따라서 조선왕만이나 준왕이 망명해서 삼서성 서안에 조선의 평양시를 정하고 조선의 왕검성에 도읍했다는 것은 역사적이 사건이다. 따라서 국호를 한의 역사로 내려오고 있다.

한(漢)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인데도 그리고 바로 조선의 역사인데도 여태껏 우리 역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통분한일인가? 한국의 역사가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깊이 했더라면 진작 밝혀져 조국이 이처럼 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정말 무어라 표현해야 할런지 모르겠다. 필자인 이중재도 여태껏 한나라가 중국역사인 줄로만 알았다. 그리고 한사군도 중국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서를 통해 한나라는 기자준왕 즉 조선왕만에 의해 섬서성 서안에 조선의 평양시가 세워지고 조선의 왕검성이 도입된 이래 국호를 한이라 하였다는 사실은 전세계 사학자들은 경악을 금할 길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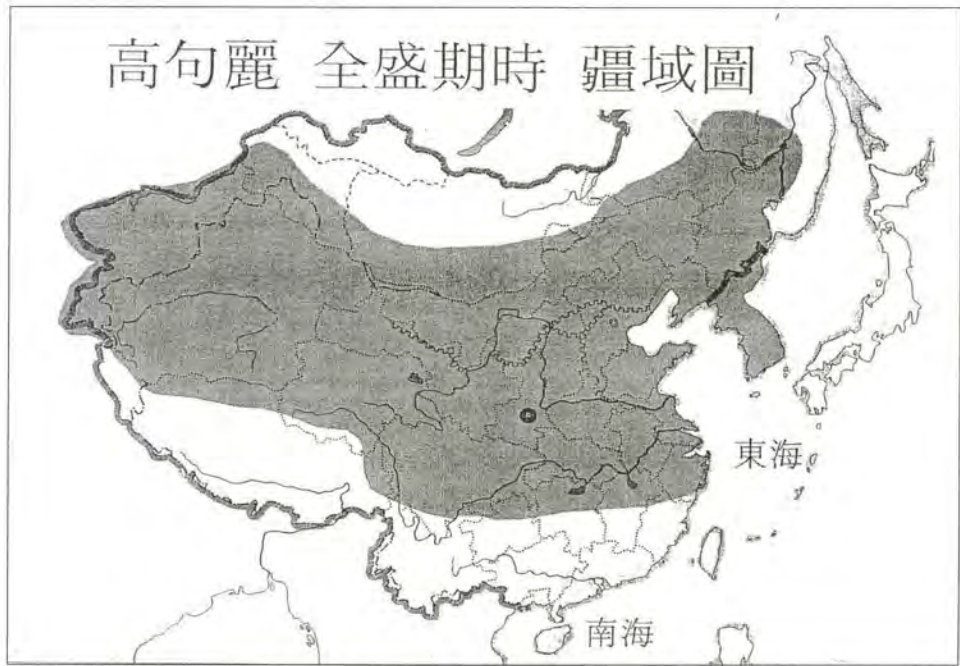
이 사실은 필자인 이중재 씨가 충분한 사서의 고증 자료로써 밝혀진 것이므로 한치의 의문도 있을 수 없음을 단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북경대학교 고고학 주임교수인 엄문명 선생은 1991년 8월초 이중재씨와의 대답에서 분명히 밝혔다. 자기가 십여 년간의 중국 전국에서 발굴 작업을 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두 동이문화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는 앙소문화연구(仰韶文化研究)란 책을 저술했다고 술회했다. 이중재 씨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사인까지 해 주었다.

여하간 조선왕만 아닌 준왕에 의해 새로운 조선이 세워지고 따라서 나라이름도 한이라 한것은 사서가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고금지명대사전 본문에서 한은 조선의 대명사임을 뚜렷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사군(漢四郡)은 조선사군(朝鮮四郡)임을 사기 본문에서 배인(裒人)은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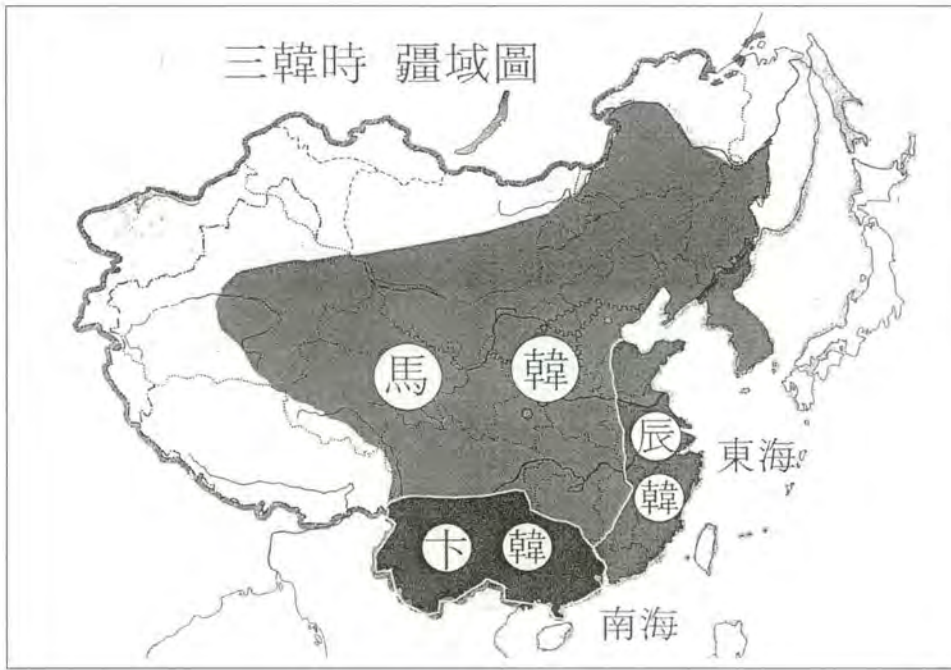
(이상의 자료는 상고사의 재발견 p.287)



高句麗 全盛時 疆域圖



馬韓의 疆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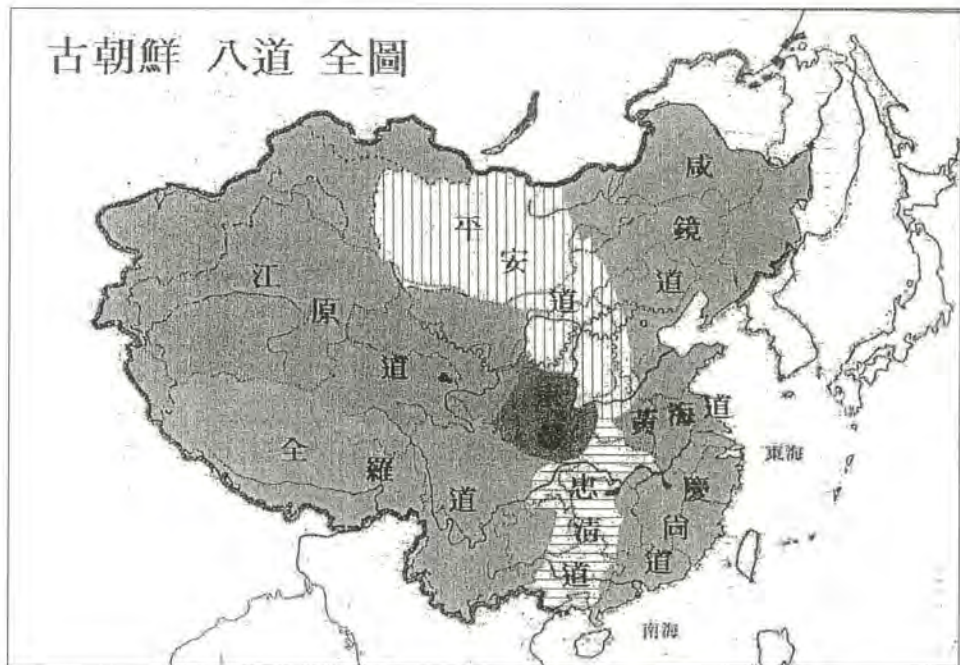
三韓時 疆域圖



百濟 全盛期 疆域圖



高麗 15代 肅宗 高麗國 疆域圖



古朝鮮 八道 全圖



* 1993년 7월 19일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서 왕건묘(王建墓) 앞에서 찍은 필자.

* 1961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전국 중요 문화유물로 지정하였다는 王建墓 현판과 같은 비석.



기자조선(箕子朝鮮)과 마한(馬韓)

민족사바로찾기한수이복지부

대표 김택기

※ 기자조선 애왕(準)이 마한왕(馬韓王)으로 마한왕이 한나라로 국명을 개칭하였음.

기자조선(箕子朝鮮)과 마한(馬韓)

마한은 BC 1285년 웅백다씨(熊伯多氏)로부터 무려 35대에 이르러 제후국(諸侯國)으로 시작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사의 기록에 빠져 있어 사학자들은 역사적 고증이 없다는 뜻에 부정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주무왕(周武王 : BC 1134~116년)의 연대는 역대제왕연대표에서는 BC 1134~1116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여러 정사를 고증해 본 결과 BC 1122년에서 1070년까지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 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이 기자조선(箕子朝鮮)은 엄연히 문헌으로 여러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한국의 교단 사학자들은 일제때 왜곡시킨 식민사학(植民史學)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다. 아예 기자조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역사가들의 견해에 따라 때로는 날조되고 조작되는 사례가 비밀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周)나라가 건국되기 151년 전에 이미 제후국으로서 마한 BC 134년까지 지금의 중국대륙에서 1134년간 면면히 이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천자국(天子國)임에도 불구하고 마한의 상고대 역사의 기록에서 정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처음에 건국된 마한에 망한 후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애왕(哀王) 준이 연나라 노관의 반란으로 인해 북쪽에서 흉노가 침입해 오자 산서성 태원에 도읍해 있던 기자조선은 남으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진나라가 망한 후 공지(空地) 즉 빈 땅으로 있던 지금의 서안(西安)에서 다시 마한으로 건국하게 된다.

BC 1285년에 웅백다씨(熊伯多氏)에 의해 세워진 마한이 망하게 된 것은 주나라 말기 군소국가 2천여 개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7웅시대(七雄時代)가 도래하면서 부터이다.

이때 칠웅이란 진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秦·韓·趙·魏·楚·燕·齊)였다. 이 무렵 연나라는 반란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면서 진나라가 득세하게 된다. 그리하여 BC 255년 7웅(七雄)이 힘을 겨루다가 진나라에 의해 6국은 망하게 된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시키고 단독으로 진천하(秦天下)가 시작되는 것은 BC 221년이다.

그러나 진나라가 통일한지 10년도 되지 않아 농민의 봉기가 일어나자 진시황은 아들 호해(胡亥)에 의해 살해되고 불과 48년만에 진나라는 망하게 된다.

진나라가 처음에 도읍한 곳은 감숙성 천수현이었다. 진시황제 37년(BC 210년)에 섬서성 함양(咸陽)으로 도읍을 옮기게 된다. 다시 말해 진시황 37년 아들 호해는 아버지 진시황을 살해 한 후 도읍을 옮긴 것이다. 하지만 진시황의 아들 호해가 함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왕위에 올랐으나 불과 3년 만에 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진나라가 6국을 통일시킨 강역은 한·조·위·초·연·제가 있었던 땅으로 진나라가 망하므로 인해 공지(空地)가 되었다. 이 시기에 기자조선은 연나라의 반란으로 산서성 태원에서 남으로 내려와 진나라가 도읍했던 함양의 바로 동쪽인 서안에 도읍을 정한 후 마한이란 국호로 건국하게 된다.

그때 기자조선 41대 마지막 왕이었던 애왕은 국호를 마한이라 하고 10대를 이어 내려왔다. 그리하여 마한의 강역 안에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마한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한의 강역은 중원대륙의 2/3 이상으로 세력이 확장되기에 이른다.

※ 마한에 속해 있던 55개국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유원양국(有爰襄國) (2) 모수국(牟水國) (3) 상외국(桑外國) (4) 소식색국(小

石索國) (5)대석색국(大石索國) (6)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 (7) 신분활국(臣濱活國) (8) 백제국(伯濟國) (9) 일화국(日華國) (10)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11)고탄자국(古誕者國) (12) 고리국(古離國) (13) 노람국(怒藍國) (14) 월지국(月支國) (15)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16) 소위건국(索謂乾國) (17) 고원국(古爰國) (18) 막로국(莫盧國) (19) 비리국(卑離國) (20) 점리비국(占離卑國) (21) 신흠국(臣夔國) (22) 지침국(支侵國) (23) 구로국(狗盧國) (24) 비미국(卑彌國) (25)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26) 고포국(古浦國) (27) 비리국국(卑利鞠國) (28) 염로국(冉路國) (29) 아림국(兒林國) (30) 사로국(駟盧國) (31) 내비리국(內卑離國) (32) 감해국(感奚國) (33) 만로국(萬盧國) (34) 벽비리국(辟卑離國) (35) 구사오단국(臼斯烏旦國) (36) 일리국(一離國) (37) 불미국(不彌國) (38) 지반국(支半國) (39) 구소국(拘素國) (40) 서로국(撻盧國) (41)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42) 신흠소도국(臣蘇塗國) (43) 막노국(莫盧國) (44) 고납국(古臘國) (45) 소반국(素半國) (46) 신흠신국(臣雲新國) (47)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48)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 (49) 일난국(一難國) (50) 구해국(狗奚國) (51) 불운국(不雲國) (52) 불사분사국(不斯濱邪國) (53) 원지국(爰池國) (54) 건마국(乾馬國) (55) 초리국(楚離國) 등 55개국으로 되어 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는 이와 같은 나라가 있었던 사실조차 없다. 다만 백제국(伯濟國)만은 만백 백(伯)자가 아닌 일백 백(百)자의 백제국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반도가 아닌 중원대륙에서 엄청난 강역의 강국으로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한은 고구려의 뿌리로서 진나라가 망한 후 한 나라 국호가 정해지기 전까지 152년간 마한으로서 대륙을 얼마동안 지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증거는 기자통기(箕子通紀)와 기자조선 성적사(聖蹟史)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자는 41대 애왕에서 망한 후 애왕은 대륙을 떠돌아 다녔다. 남으로 내려가 금마군(金馬郡)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금마군은 그 당시 익산이었다. 지명 사전에 보면 익산은 지금의 사천성 성도이다. 그 후 나라이름을 고치고 동으로 옮겨와 국호를 마한이라 했으며 평양에서 왕으로 등극하였다고 적고 있다. 고로 애왕은 마한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사실상 후대 사학자들은 한고조 유방이라 칭했다.

마한의 2대 왕은 강왕(康王)이다. 강왕은 죽은 후 휘호(諱號)를 혜제(惠帝)라 했는데 재위는 4년으로 되어 있으나 한나라 연대표에는 6년으로 되어 있다. 따지고 보면 기자조선(箕子朝鮮) 41대 애왕은 준이며 애왕의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만조선(衛滿朝鮮)이었던 위만이며 바로 왕만이다. 왕만은 한나라 2대인 혜제이다. 이러한 사실은 산동사학에서 출간된 사기사전에 보면 왕만의 손자인 우거는 한나라 무제(武帝)임을 기록하고 있다.

마한의 6대왕은 효왕(孝王)이다. 효왕이 죽은 후의 휘호는 한무제(漢武帝)이다. 왕만이었던 한나라 혜제의 손자가 바로 우거이며, 우거가 한무제라고 되어 있다.

※ 마한왕은 7대 양왕(襄王)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양왕은 후일 한나라 선제(宣帝)이며 양왕때까지 마한왕으로 불려오다가 마한왕의 8대에 해당하는 원왕 때와서 비로소 국호를 한나라로 개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원왕(元王)은 한나라 원제(元帝)이며, BC 48년에 이르러 국호를 한나라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사실상 8대 원제(元帝: BC 48년) 후부터 한나라로 불리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기자통기와 사기사전에서 잘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BC 1285년 웅백다씨에 의해 마한이 건국되었으나 진나라가 6국을 정벌할 때인 BC 244년에 전란이 심해지자 마한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기자조선의 마지막 애왕은 또 다시 마한을 건국함으로써 한나라가 세워져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상 자료는 고구려 뿌리역사 p.49~56〉

※ 현재 중국에서는 56개 민족으로 분리해 한족이 중국민족으로 최고인줄 알고 있으나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역사의 실체가 밝혀질 경우 중국은 치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화하족(華夏族)이라고 자칭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중국의 역사는 없다.

중국민족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중국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이니 하여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어떤 뿌리에서 건국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역사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고대부터 역사의 실상이 밝혀질 경우 중국대륙은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한나라와 당나라의 혈통과 계보가 밝혀질 경우 자동적으로 한민족의 역사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게 되고 민족정기가 살아나면 한국은 세계속의 일등국가로 부상하게 될 거서이다.

[※ 마한의 강역은 한반도의 30배 이상]

조선왕 준(準)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조선왕 준은 기자조선 41대 마지막 왕이었던 애왕이다. 연나라때 노관의 반란으로 산서성 태원에 있던 기자조선은 남으로 넓은 바다와 같은 땅으로 도망가 살았다. 그 곳은 진나라가 망한 후 빈 땅과 같은 곳이었다. 바로 그곳이 지금의 서안이다. 이때 기자조선 마지막 왕이었던 애왕이 세운 나라가 마한이다. 마한 왕이된 애왕이 바로 준이다. 그 후 강왕, 안왕, 혜왕, 명왕, 효왕, 양왕, 원왕으로 이어진다고 기자통기인 기자조선(箕子朝鮮) 성적사에는 기록하고 있다.

※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왕준이 망명하여 세운 마한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평양으로 정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마한왕인 준 이후 원제(元帝: BC 48년)때 한나라로 개칭하면서 한고조(漢高祖: BC 206~195년)로 기록되는 것이다. 한나라로 국호가 바뀌게 되는 것은 마한왕 8대인 원왕이다.

애왕 다음은 강왕이다. 강왕은 후일 한나라 2대인 혜제(惠帝: BC 194~188년)로 바뀌게 된다. 혜제가 바로 조선왕만이다.

현재의 역사기록에는 한나라 혜제의 이름이 영(盈)으로 되어 있다. 영은 가득찰 영(盈)자이며 만(滿)자도 같은 뜻이다. 그렇다면 한나라 혜제는 왕만인 셈이다. 마한왕인 강왕이 죽은 후의 휘호는 혜제라고 기자통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마천(司馬遷)이 쓴 기사를 산둥대학에서 사기사전으로 출간한 책에는 조선왕만은 한나라 2대 왕을 혜제로 밝히고 있다.

마한 왕인 효왕은 죽은 후의 휘호가 무제(武帝: BC 140~135년)라고 밝히고 있다. 무제는 한무제(漢武帝)이다. 바로 강왕인 왕만의 손자는 효왕이며 한무제로서 조선왕 우거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한고조 유방은 기자조선 마지막 왕인 애왕임을 부인할 수 없다.

마한왕의 7대왕은 양왕이다. 양왕이 죽은 후의 휘호는 선제(宣帝)이다.

선제의 뒤를 이은 왕이 원왕이다. 원왕은 한나라 원제(元帝 BC 48~44년)로서 죽은 후의 휘호 역시 선제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한왕으로 출발했으나 원왕인 원제때 와서 비로소 "한"나라로 이름을 고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처음에는 마한으로 시작되었으나 원제때 이르러 나라 이름을 한나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한나라는 마한으로부터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기자조선성적사 본문에서 양왕이 죽은 후의 휘호는 섭선제(變宣帝)로 되어 있고 원왕의 죽은 뒤의 휘호는 훈선제(勳宣帝)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것을 보면 이상하다. 또한 마한의 애왕 다음으로 강왕의 죽은 뒤의 휘호는 한나라 2대 왕인 탁혜제(卓惠帝)으로 되어 있고 3대 왕은 안왕으로서 죽은 후의 휘호는 감혜제(龕惠帝)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혜제는 왕자가 없어 모후가 왕위를 계승하여 집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 자료는 고구려 뿌리 역사 P. 49~74〉

- 1대 준왕이 죽은 후 휘호는 한고조이다.
- 2대 강왕은 죽은 후 휘호는 혜제이다.
- 3대 안왕은 죽은 후 휘호는 감혜제이다.
- 4대 혜왕은 죽은 후 휘호는 문제이다.
- 5대 명왕은 죽은 후 휘호는 무경제이다.
- 6대 효왕은 죽은 후 휘호는 한무제(右渠)이다.
- 7대 양왕은 죽은 후 휘호는 선제(宣帝)
- 8대 원왕 때 한 나라로 국호를 개칭(元帝) 따라서 한나라는 마한으로부터 생겨났음.

고조선-한사군 中대륙 깊숙한 곳에 위치

김종서씨 '수학적 고증'으로 기존 학설에 반론

고대 한반도 북부에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 허베이(河北)성 동쪽에서 라오허(遼河) 서쪽으로 길게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김종서(51 중앙대 강사)씨는 최근 중앙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해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에서 문헌 고증과 수학적 위치 고증방법을 통해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가 중국대륙 깊숙한 곳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논문에서 적용한 수학적 위치 고증방법은 중국 사서에 나오는 거리를 현재의 지도에 적용해 그 위치를 역추적 하는 방법.

중국 한 대의 역사서인 '후한서의 군국지(郡國地)에 당시 한의 수도였던 뤼양(洛陽·허난성 서쪽의 도시) 동북쪽으로 5000천리에 낙랑군이, 4000리에 현도군이 있었다고 기록 돼 있다.

또 '한서'의 무릉서(茂陵書)에는 장안(뤼양보다 더 서쪽에 있는 현재의 시안·西安)에서 6138리에 임둔군이, 7640리에 진번군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1리는 당대 이후 0.393km로 고정된다. 그러나 한나라 시절, 1리가 얼마인가에는 논란이 있다. 김씨는 위나라 기록에 등장하는 뤼양및 장안과 현재까지 남아있는 도시들의 거리를 비교해 한 대의 1리가 현대거리의 75%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의 기록과 현재 지도상의 거리 비교를 통해 한사군의 위치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평양지역으로 추정돼 온 낙랑군의 경우 중간에 산악지대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라오닝 성 서부 진저우(錦州)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 또 압록강 북쪽에 있었다고 알려진 현도군은 하베이 성 동쪽과 라오닝 성 서부를, 황해도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진번군은 압록강 서북쪽을 넘어설 수 없다.

김씨는 여기에 한대의 도로 굴곡지수를 감안할 경우 한반도에서 가장 멀었던 현도군은 현재 베이징(北京) 동북쪽지역,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진번군은 라오닝 성 서부 다링허(大凌河)유역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1990년대 초반 라오닝 성 진저우에서 '임둔태수장(臨屯太守章)'이라는 직인이 찍힌 봉니(封泥: 공문서 등을 봉할 때 사용한 진흙덩이)가 발굴된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일치한다.

이 논문은 라오허 동쪽의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초기 청동기 유물이 발굴되지 않아 고조선의 실재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물증부족'의 비판에 대한 새로운 반론이다.

또 홍릉와, 홍산, 하가점 등 라오허 강 유역의 고대 신석기·청동기 문명과 고조선의 연관관계를 뒷받침하게 된다.

삼묘족(三苗族)의 발생(發生)

민족사바로찾기한수이북지부
대표 김택기

1. 삼묘족(三苗族)의 분류와 분포

태고시대(太古時代)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인간의 힘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 시기는 대강 46억년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성시기를 38억년에서 46억년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중재 씨는 빙하기시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 짓고자 한다.

(1) 생성빙하기시대(生成氷河期時代)

제1차 극강빙하기시대(第一次 極強氷河期時代) 46억년에서 35억년전까지로 이 시기는 어둡고 캄캄한 암흑시대여서 생명체의 탄생이 불가능한 시대였다.

제2차 극심빙하기시대(第二次 極甚氷河期時代) 35억년에서 25억년사이를 말한다. 이때에도 공간과 대지는 극심하게 얼어붙어 생명체의 출현은 불가능했다고 했다.

제3차 극한빙하기시대(第三次 極寒氷河期時代) 25억년에서 15억년사이를 말한다. 이 시기는 공간과 대지가 부분적으로 녹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 혼돈한 시기이다. 이때는 어두운 공간이 열리려는 암흑의 시대로서 생명체의 생성이 시작될 수 있는 제3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태극시대(太極時代)라 말한다. 제왕운기 35역기(曆記)에 의하면 천지는 혼돈하여 마치 계란의 난자처럼 되어 있었다. 통감외기에도 역시 35역기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천지가 어둡고 혼돈한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규원사화(揆園史話)에 의하면 태고때 음양이 구분되지 않았고 천지는 단혀진 상태로 혼돈하였다. 그 당시 일월이나 별들도 생기지 않았다. 바다 밑도 무리가 지어져 있었던 자국도 없었다. 그리고 우주 역시 암흑 천지였다. 다만 물 기운과 불기운은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밀고 밀려 수백만년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함노(安含老)가 지은 환단고기(桓檀古記) 삼성기전(三聖記傳) 상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음을 참고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이었다. 최초에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의 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신은 흰 힘을 가지고 있었다. 흰힘이란 우주에서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하늘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힘인 것이다.

흰 힘이란 우주의 본체를 뜻한다. 만유만물의 본체는 흰것이다. 희다는 것은 단순히 흰 것이 아니라 공간세계의 본 바탕이 희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소립자의 무리가 뭉쳐진 것처럼 흰 공간 세계는 무한대의 힘으로 뭉쳐져 있음을 뜻한다.

환단고기(桓檀古記)에서 말하는 흰 힘은 무한대의 공간속에서 빈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본시 흰 것은 기체가 되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액체나 고체가 될 때만 비로소 우리들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눈과 얼음은 보이며 물도 보이는 것은 그러한 물질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한대의 우주공간 속에 수증기와 같은 기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한다. 흰 것은 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흰 힘은 가득 찬 공간속에서 무한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바로 흰 힘을 하나의 신 즉 하늘에서 유일한 신으로 보았던 것이다. 흰 힘은 하늘의 유일한 신이므로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함노(安含老)는 한민족의 선조들이 도통한 지혜를 알았던 것이다. 흰 힘은 스스로 홀로 신이 되어 밝은 빛을 비추고 그 힘으로 우주를 탄생케 하였다. 그리하여 만물은 오래도록 삶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 기운을 타고 즐겁게 윤택함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그 묘법은 자연의 형태가 알 수 없게 볼 수 없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다.

1965년 4월 15일 전문출판사에서 발행한 가정보감에는 논오행소생지편(論五行所生之篇)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개문천지미판(蓋聞天地未判) 기명혼돈(其名混沌) 건곤미분(乾坤未分) 시명배명(是名胚暝) 일월성진미생(日月星辰未生)] 천지가 덮혀서 들리지도 않고 판단 할 수도 없었다. 이름하여 혼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하늘과 땅은 분간할 수 없었으며 나뉘어 있지도 않았다. 뱃속에 있는 어린이가 눈을

감고 있듯이 일월성진(日月星辰)도 태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상 고 문헌들은 한결같이 암흑세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3차 극한빙하시대(第三次 極寒氷河期時代)는 인류가 나타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어떤 생명체의 출현이 가능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제4차 한난빙하시대(第四次 寒暖氷河時代)는 15억년에서 5억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온갖 생명체가 탄생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무렵을 뜻한다.

제5차 한온빙하시대(第五次 寒溫氷河時代)는 5억년에서 5천만년까지이다. 이때는 각종생물의 씨앗이 자라난다.

제6차 온기빙하시대(第六次 溫氣氷河時代)는 5천만년에서 5백만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온기빙하시대에 오면 동식물의 생명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며 생명의생성이 번창해지는 시기이다. 온기빙하시대의 제1기는 5천만년에서 5백만년으로 보지만 제2기는 5백만년에서 350만년으로 본다. 이때는 생명체의 생성에 최적기로서 지구의 북반부 남반부는 빙하시대였다. 중간부분은 제3기의 온기시대에 놓이게 되어 이 시기에 인류의 출현이 시작되는 시대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제6차 온기빙하시대는 지구의 3분의 2정도가 온난지대에 놓이게 되는 100만년까지 생명체의 조건이 완성한 분포로 시작된 때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제5기는 100만년에서 30만년까지이다. 이때 생명체는 물론 인간이 가장 지적으로 발달되어 가는 시대이다.

문화적 생활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조성되는 시기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고생물학자들은 인류의 출현 시기를 약 350만년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앤드매리(영국대학 맥브레어티 박사)는 최초의 인류가 생긴 곳을 아프리카 남부쪽이라 밝혔다. 최초로 처음 생긴 인종은 호모일렉투스족이라고 했으며 서에서 동으로 이주해 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재 씨가 전술한 바와 같이 350만년 이전에는 아프리카 남부 지방도 한난빙하시대이므로 인간의 생명체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때이다. 그러기에 아프리카 남부지방에서 인류가 최초로 생겼다는 것은 고고학적 추정을 잘못된 것이 분명해진다. 1926년 미국의 카네기재단 보고서 발표 내용을 보면 멕시코에 있는 잉카문명의 발생지원은 빙하시대에 북미 알라스카를 거쳐 남미로 옮겨 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잉카문명과 그의 종족은 한민족과 같았다는 주목할 만한 보고서였던 것이다.

인디안의 종족 중 "아팻치"라는 부족의 명칭은 함경도사투리 "아바 이"와 유사하다. 베링해로 건너간 것은 빙하기때 바다가 아니고 얼음이나 눈으로 덮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는냐는 결론을 학자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약 5000년전 현 중국 곤윤산 조서산(조선산(朝鮮山))에서 베링 해를 거쳐 북미로 이주해 온 삼묘족의 뿌리들이 술한 전란으로 참화를 피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분명해졌다.

그 하나의 증거로는 북미의 오리건 주에서 발굴된 쥘신 75켈레는 한민족의 조상이 신었던 삼묘족의 후예인 동이족의 것과 흡사했다. 9000년 전의 것으로 방사선탄소 측정 결과 밝혀진 것이다.

(2) 생명체의 생성요건

생명체의 발생요건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4대 원소가 모여 단백질의 업체인 미세유기체를 형성한다. 이 단세포 아메바가 생긴 것은 35억년 전후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미캘리포니아 대학의 고생물학자인 「윌리엄쇼프」 교수는 제8회 생명의 기원에 관한 국제회의 석상에서 42억년 전에도 생물화석이 호주 서부 "헤드랜드"항 남동쪽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발견된 새로운 소 화석은 지구생성 초기에 조그만한 생물체가 생겨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해 주었다.

공룡이 생기는 시기는 대체로 3억년 전후로 보는 경향이 많다. 1987년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익수공룡화석(翼手恐龍化石: 다리가 있고 날개가 달린 용)이 1억 54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화석이 북한 신의주 근교에서 약 40Km 지하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남해안 지대인 삼천포 늪도동 앞 바다 해변일대와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해안에서도 공룡뼈가 발견된 일도 있다. 생명체의 생성은 수십 억년 전후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간속에서 지나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생명체의 생성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출현은 하늘에서 생겼으므로 천손족(天孫族)이라고 한다. 즉 천인지의 삼원이 일체가 되어 인류가 생긴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이 하늘에서 왔다는 창조설이 있는가 하면 미세균으로 생겼다는 진화설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것이나 명확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 밝혀려 하고 있다.

* 고동영(高東永)이 지은 단군조선 47대에 보면 인류의 시원에 대하여 의문을 풀기 위해 과학자들이 유전인자를 추적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연구에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비교한 결과 아세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DNA를 통한 추적에서 미주지역의 인디언은 아세아에서 이주해 간 사실도 밝히고 있다.

멕시코의 마야문명은 한민족 문화와 꼭 같았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고자 한다. 그네를 그네로 꽃신은 코신으로 낮은 낮으로 부른다. 그 외 도자기, 꼬막단지, 멧돌, 팽이, 물레, 베틀, 물 두레박은 물론 물을 이고 다니는 것도 나무를 묶는 것을 다발이(경상도 강원도나 시골지방에서 한 다발 두 다발 하는 식으로 다발이라고함.)라고 하는 것도 꼭 같다. 그리고 새를 쫓을 때 새끼를 꼬아 만들어 휘 휘 돌려서 새를 쫓는 소리도 한민족의 풍속과 꼭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치기도 같다.

영국에서 발행한 대영백과사전에 보면 멕시코에 있는 마야문명이 한민족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발행한 의학대사전에 보면 아세아에서 인류가 미주로 이주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인간이나 만물은 우주가 행하는 자연법에 따라 순리적으로 하늘의 기운으로 사람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주의 신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는 느낌이 든다. 1987년 KBS에서 지구의 신비에 대하여 방송했었다. 남쪽 바다에 섬나라로 있던 인도가 지구의 생성과정에서 중국, 티베트, 고원과 합치게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때 합하는 과정에서 중국 땅 해변과 인도 땅 해변이 맞 부딪치면서 솟아난 것이 지금의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이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산맥에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굴 껍질, 조개류 등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남 통영군 육지면에 자리잡고 있는 천황봉 392Km의 고지인 바위에도 무수한 어패류가 붙어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

만유만물이 생기려면 하늘만으로는 안 되며 사람만으로 그리고 지구만으로도 안 된다. 천·인·지의 삼위일체 속에서만이 인간과 더불어 만물이 창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이 생기기 전에 하늘과 땅의 조화로움에서 성인이 최초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이 없었다면 만유만물이 있을 뜰 무슨 가치가 있으랴.

그러기에 물질의 창조는 하늘과 땅과의 조화 세계가 이룩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상과 문화와 학문과 지혜는 인간의 힘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사람은 소우주라는 비유가 정말 진리임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사람은 어

떤 경로를 통해 생겼는가? 에 대하여 희 남자 천문(天文) 훈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천지는 처음 형상이 없었다. 날개가 있는 듯 빙빙거리고 돌고 있었다. 그럴 때 마다 길고 밝게 나타났으며 빨리 흐르면서도 질서를 차분히 잘 지키며 끊임없이 진행되어 갔다.

수백억조년(數百億兆年)이 지나가는 동안 최초로 밝은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맨 처음 도(道)일 수 있었다. 그 도는 허(虛)하고 빈 공간이었다. 이때 우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 우주가 허하고 빈 공간속에서 기(氣)가 생기게 되었으며 기의 힘으로 인해 나타난 압력 때문에 겹겹으로 층이 생기게 되었다. 빈 공간 속에는 비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빈 것이 아니고 허한 가운데 기의 힘에 의해 겹겹으로 층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밝은 기는 점점 멀리 높게 되어 천공(天空)이 되었으며 탁한 기는 가라앉아 땅이 형성되고 일부는 별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생겨난 것이 지구였다.

천지는 기의 작용에 의해 음과 양이 저절로 만들어졌으며 음양의 이기(二氣)에서 사시(四時)인 춘하추동이 발생하였다. 사계절은 만물을 창조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우주의 작용따라 만유만물이 탄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시(四時)는 하늘의 천자(天子)이고 일월은 하늘의 사자(使者)이다. 성진(星辰)은 하늘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무지개와 혜성은 하늘을 기피하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구아가 생겼으며 9999의 모난 곳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9999의 둥근 우주가 있으나 우리가 보고 있는 무한대의 공간도 일부분에 지나지 못한다. 우리 눈으로는 단 하나의 우주공간 밖에 볼 수가 없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무한대의 공간세계가 단 하나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9999개의 둥근 우주공간이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다시말해 지구에서 재고 있는 거리 숫자를 따져 볼 때 5억만 리나 되는 9999개의 우주공간이 있다니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구의 직경이 십만이천리(102,000리)라고 한다면 5000억만배가 되는 거리이다. 이 거리를 우주공간의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공간 세계가 9999개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리 안에 있는(하나의 단위를 뜻함). 오성(금성, 수성, 목성, 화성, 토성)은 물론 이십 팔 속(二十八宿)의 별과 자궁(紫宮), 태미(太微), 현원(軒轅), 함지(咸池) 그리고 사수(四守)와 천하(天河), 은하수(銀河水)까지 모두 포함함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공간세계를 모두 포함한 우주의 구분

구분마다 공처럼 뭉쳐진 원이 생긴 것이 9999개 된다는 것이다.

(3) 인류의 발생요건

이와 같은 우주공간속에 천지가 생기고 사시가 있게 되었으며 음양의 조화에 따라 만상이 생기게 된 것은 자연의 이법(理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천지가 있어 태극이 있었고 태극에서 음양이 생겼으며 음양에서 오행(금, 수, 목, 화, 토)이 태어나 삼라만상이 태어난 것은 자연의 도법임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생기고 태어났으며 동물은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 희 남자의 설원초(說苑抄)에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최초로 인류시조(人類始祖)는 바다에서 작은 균이 발생하여 작은털이 많이 난 생명체로 태어났다. 바로 이것이 자라나 성인이 되었다. 성인은 서인(庶人)을 낳았다. 날짐승들의 시조는 최초로 작은 균과 같은 아름다운 세균이었다. 이 세균의 몸에 털이 생겨 점차로 자라나면서 비룡(飛龍)을 태어나게 했다. 봉황새는 비룡에서 태어났으며 앵무새와 같은 나는 새는 봉황새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은 깃털이 달린 작은 새들은 서조(庶鳥)에서 태어났다. 짐승들의 시조는 털이 있는 송아지와 같은 동물이룡을 낳았으며 룡은 건마(튼튼한 말)를 낳고 건마는 기린을 낳고 기린은 보통짐승들을 낳았고 보통짐승들은 서수(작고 평범한 짐승)을 낳았다.

고기의 시조는 큰 기린이 교룡(交龍: 용의 종류, 도룡용의 종류임)을 낳고 교룡은 곤경(鯤鯨: 물고기알을 낳아 뼈가 생긴 고기)을 낳았다. 곤경은 건사(建邪: 축축한 땅에서 사는 물고기)를 낳고 건사는 서어(庶漁: 작은 물고기 또는 보통 물고기)를 낳았다. 그리고 비늘있는 고기는 서어에서 태어났다.

큰 자라의 시조는 큰 못에 선룡(先龍)을 낳고 선룡은 현룡(玄龍: 검은자라)을 낳는다. 검은자라는 질 좋고 신통한 자라를 낳고 영구는 보통(普通)자라를 낳는다. 그리고 껍질이 단단한 자라와 종류는 서구(작은 자라 또는 거북)가 낳는다.

난습(爰濕: 따뜻하고 습한 곳)의 기는 어떤 물질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한다. 특히 난습한 기에 의해 털 바람[모풍(毛風)은 대기 속에서 생명체의 세균을 만들어 낼 최초의 미생물의 본질]을 낳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털 바람은 습하고 어둠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현습(玄濕: 습하고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근적근적한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본질)은 우풍(羽風: 날개가 달린 바람 즉 세균의 생명체)를 낳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풍은 단개(따뜻함 속에서 생명체가 생성할 수 있는 흙 짐승을 뜻함)를 낳고 단개는 인박(鱗薄: 얽은 비늘이 있는 생명체)을 낳는 것이다.

따라서 인박은 난개(煖介 : 음양이 결합된 생명체를 뜻함)를 낳게 되고 난개가 생긴 뒤 비로서 사람(人), 날개(羽), 털(毛), 비늘짐승(鱗), 홀짐승(介)의 다섯 종류가 외계 즉 땅에서 형태를 갖추고 생명체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하게 되었다.

인류는 물론 동물들도 이상과 같은 단계로 생명체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유전인자의 발생은 우주속에서 기(氣)의 무한한 에너지원의 작용으로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나무의 시조 뿌리의 시조도 희 남자의 설원 초편 지형 훈(地形訓)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생명체의 생성이 시작되었지만 인류의 최초 발상지는 과연 어디일까?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지구의 중부지방에서 먼저 인류가 탄생했다면 그 곳은 어디인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며 억설(臆說)이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희 남자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상고(上上古)시대 가장 좋은 조건 아래 인류가 발생 할 수 있었던 지리적인 여건은 중국의 곤륜산 주변을 낀 분지와 물 사막 나무 등 일 것이다.

희 남자 지형훈에서는 곤륜산 끝머리 부분에 있는 삼위산(三危山)을 가리키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체의 발생이 외계에서 자연계 즉 지구에 와 닿는 가장 가깝고 알맞은 곳은 기후 지리 기타 여러 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중국에 있는 곤륜산 밖에 없다. 상상고(上上古)시대 때 가장 인류의 발상지로서 고대 국가의 번창 등 찬란했던 인류문명을 고대 문헌이나 유물로 인해 엿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옛날 사막 가운데 왕국이 건설되었던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곳은 요즘 많이 알려진 실크로드이다. 황망한 벌판과 사막 가운데서 고대국가가 건설되었다는 것을 보면 현대인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중재 씨가 상고사의 사서를 조사해 본 결과 여러 문헌에서 삼묘족의 시원을 찾을 수 있었다. 삼묘족은 한민족의 선조이자 전인류의 조상이라는 인류의 최초 발상은 현 중국 곤륜산이다. 문헌상으로는 흑수삼위태백(黑水三危太白)인 중국의 돈황이었다는 구체적인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 숨겨진 역사를 밝혀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 따지고 보면 삼묘족은 삼국사기 백제 본기(百濟本紀) 제6 의자왕 마지막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삼국의 선조는 옛 성인이었던 묘족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다.

사기 첫 권에 보면 삼묘족은 삼위산에서 시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삼묘족이 삼위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곳은 뜻함.

마융(馬融)의 말에 의하면 숭산(崇山), 삼위산(三危山), 삼신산(三神山) 또는 삼숭산(三崇山), 흑수삼위산(黑水三危山)이라고 함. 중국 돈황은 돈황 남쪽에 있다고 했다. 신이경(神異經)에 의하면 남쪽 즉 곤륜산 남방은 산이 험하고 거칠었으나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지금 중국지도를 보면 차이탄분지와 곤륜산 그리고 알틴산맥과 토노번분지(吐魯番盆地) 타림분지 천산산맥 중가리아분지를 위시해서 광범위한 영역을 통해 삼묘족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사람이 태어나 먹이를 입을 쏘아 먹는 새들처럼 나타났으며 다음은 날개가 달리고 앞다리가 생겨 다니면서 먹이를 먹었다고 팔지 지를 인용하고 있다. 그 뒤에 바다고기가 사람이 되어 산으로 올라와 짐승을 죽이고 잡아먹고 난폭한 행동을 하여 죄를 범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외계에서 생긴 생명체가 바다에서 고기로 태어나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남만(南蠻 : 남이를 뜻하며 벌레에서 사람이 생겼다는 뜻이다. 즉 세균에 의해 사람이 생김을 의미함)이며, 남만이 변하여 차츰 옮겨져 삼묘족(한민족의 뿌리)이 된 것이다. 삼묘족은 곤륜산을 떠나와 흑수삼위태백(지금 중국의 돈황근처)에서 최초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한 것으로 상고사들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최초의 국가는 천제율국(天帝苑國)이었다.

천제율국(天帝苑國)은 곤륜산 남쪽 우전(중국의 곤륜산 남쪽 산맥 속에 있음)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이 옛날 천제율국이 자리였다. 그 후 천제율국은 붕괴되고 우전국으로 건설되었다. 우전국 옆에는 윤운국이 있었다.

삼묘란 인류최초의 뿌리 즉 싹이라는 뜻에서 묘자를 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제율국(天帝苑國)이 인류원시의 삼묘국이었고, 그 다음이 우전국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민족은 인류 최초의 시조로서 상상고시대(上古時代)때 중국 곤륜산을 배경삼아 삼묘국이 건설되었음을 엿 볼 수 있다. 고대에도 1800개국이었음. 삼묘족은 그 후 중국 남부지방으로 대거 진출하였고 삼묘국이라는 국호도 가지고 있었다고 사기에 전하고 있다. 삼묘족은 중국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는데 그 곳은 강희, 형주, 강주, 약주(岳州), 약주(鄂州) 등이었다. 몽고에서부터 만주 그리고 북경지방 산둥반도, 하북성, 하남성은 물론 감숙성, 호북성, 서강성, 귀주성, 사천성, 호남성, 광서성 등 중국전역에 걸쳐 삼묘족이 퍼져 나갔던 것이다. 사기본문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서쪽에서 시작 좌우 그리고 동으로 점차 팽창되어 갔다.

환인천황은 삼묘족의 후손으로서 우전국 신하로 있다가 우전국 장군의 반란으로 인하여 돈황으로 옮겨 올 때 삼천군도가 따라 오게 되었던 것이다. 환인천황은 서역

에서 왔다고 사기에 기록하고 있으며 규원사화에도 명백히 실려 있음을 본다.

(4) 한민족의 이동설

사기본문(史記本文)에서 서경환인시래(西傾桓因是來)라고 해야 할 것을 환인천황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문장을 바꿔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마융(馬融)의 말을 빌면 치서경산인환수시래(治棲傾山因桓水是來) 환인은 서쪽에서 산과 강을 타고 와 다스렸다는 뜻. 언무여도야(言無餘道也: 말없이 도를 깨우침)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환인천황은 분명히 서역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규원사화(揆園史話)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환인천황은 주신(主神)이므로 한토지인(漢土之人: 중국 중원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상제(上帝)라 하였으며 서역에서 온 사람이다. 따라서 불타(佛陀)의 대 진국(大秦國) 사람이며 하늘의 모든 주인이자, 우주 만상을 통솔하고 말과 모든 것을 내는 전지전능한 성품을 갖고 있다. 인류의 시조는 중국 곤륜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시조 이전의 삼묘족은 곤륜산 타이탄분지에서, 천산산맥, 토노번분지, 타림분지 과미르고원, 캐라 코람산맥,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낮은 사막지대는 아주 먼 옛날 바다였다는 사실이 요즘 고고학자들의 답사에서 밝혀졌다. 지금도 사막 가운데는 바다에서 서식한 어패류가 많이 보였다는 보도를 들을 수 있다.

중국 신강성 일부가 타림분지 그리고 토노번분지는 아득한 옛날 바다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신강성의 이름은 중 상고시대에 삼묘족의 건장한 장정들이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겨루는 궁터(활터)라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신강(新疆)이란 새로운 활터 즉 장정들이 새로운 활터에서 승부를 겨루는 곳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기원은 대체로 350만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고생물학자들 간에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확실하게 년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만 년전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나 인류의 문화생활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상 상고대국가 사회가 형성된 시기부터 인류역사의 시원으로 잡는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상고시대(上上古時代)에는 인간의 집단생활이 요구되었던 시대이다. 왜냐하면 짐승들의 출현과 무자비한 살생 등으로 슬한 참화를 겪는 때였으므로 불가분 집단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서이다.

* 치우천황(蚩尤天皇 : 어릴 때에는 치희라 불렀다함)의 서모(庶母)가 8명이었는데 거기서 낳은 형제가 73명이었다. 일설에는 81명이란 말도 있으나, 역대 신선통감(歷代神仙通鑑)에는 73명으로 되어 있다. 치우천황의 아들이 81명이라고 우왕때 한 집에 300명의 식구가 살았다는 믿기 어려운 기록이 역대 신선통감 제4권 4절에 있음을 본다.

고대 국가는 존망의 갈림길이 기할 때였으므로 인간의 생활터전을 높은 산인 고원 지대가 아니면 물가, 강변지대나 그리고 초원이 있는 사막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생활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자체가 자연의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강변주위에 살던 인간은 전란의 참화가 심했으므로 멀리 동으로 또는 북으로 아니면 서로 이주해 갔던 것이다. 상상고시대(上上古時代)라 해서 사람의 수가 결코 적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고문에서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윤내현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환인시대는 무리 사회였으므로 한 부락 또는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가 30명에서 많게는 100명 미만이라고 했으며 환웅시대에는 국가단계가 사회였으므로 인구가 많아졌다는 추정을 하였다. 이것은 학문적인 평가 위에서 문헌의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상상고시대(上上古時代)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었고 인간의 생활이 짐승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동굴을 배경으로 하여 생활하거나 아니면 초근목피로 삶을 살던 시대일 것이라는 가상적인 추정이라 환인시대는 무리사회니까 불과 30명에서 100명 정도로 집단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환단고기 삼성기전 상편에 보면 처녀와 총각 800명이 말없는 가운데 흑수백산의 땅에 내려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기전 하편에서도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정한 사람이 환웅천황이라고 하였다.

*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 환인천황(桓因天皇)은 서자 웅(雄)을 데리고 삼위태백산(三危太白山)에 3000명을 데리고 내려 왔다고 하였다.

* 역대 신선통감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본시 성모[복희씨(伏羲氏) 어머니 화서씨(華胥氏)를 뜻함]는 152세 때 병 없이 죽었다. 그때 복희씨와 여와(복희씨 여동생)도 크게 눈물 흘리며 통곡했다. 슬픔에 잠겨 음식 맛을 잃었고 잠자고 옷 입는 것조차 정신이 없었다. 양 새끼처럼 지새워야만 했다. 7일장을 치루었다. 화서씨가 장지로 떠날 때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통곡했다. 그 수는 무려 수천만이었다. 성모 화서씨는 3년상을 지냈다. 그 후 얼마동안 백성들의 놀이를 금했으며

북소리도 울리지 못하게 했다.

성모는 통소와 큰 거문고를 만든 선각자였다. 큰 거문고와 통소의 맑고 가득 찬 소리는 까마귀를 몰러나게 하였다. 어찌 그 은혜서린 회포를 갚지 않을 수 있을까 하여 3년상을 지냈다는 것이다. 복희씨 어머니가 죽은 뒤 수천만 명이나 길거리에 나와 장지로 가는 길목에서 곡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아도 중 상고시대때 얼마나 인구가 많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모 화서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통소와 큰 거문고를 처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해내경(海內經) 제 18권에 보면 이부하국(以扶下國: 나라이름)때 복희씨는 가야금을 신농씨(神農氏)는 큰 거문고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5) 삼묘족의 발생

삼묘족은 인류 최초로 중국대륙의 중원 곤륜산 주위에서 발생되었음을 쉽사리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아프리카가 인류의 원산지라고 우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대개가 유럽인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희남자전에 보는바와 같이 인류가 생기려면 지리적 조건은 물론 5수(백수, 청수, 적수, 황수, 흑수)의 조화와 산천의 묘함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위 3가지 조건이 가장 잘 맞는 곳이 바로 중국의 곤륜산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제시한 책이 산해경 제18권속에 있다.

사람의 형상이 짐승과 같고 혹은 원숭이와도 같았으나 귀가 흰 것이 특징이었다. 눈은 크고 붉었으며 꼬리가 길었다. 주로 남쪽이나 강남지방의 산속에 많이 살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곡식과 패물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조용함을 좋아했으며 물건은 탐내지 않았다. 원래 원숭이와도 같았고 소와도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 우자국(牛子國)이라 했다. 우자국이란 이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의 형상과 같고 원숭이의 형상도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나 원숭이와 소의 끝은 모두 윽고 있었다. 다만 목소리만은 원숭이와 비슷하게 닮았다. 이 사람들은 주로 엮드려 다니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잘 달렸으며 원숭이처럼 먹이를 먹으면서 달리기도 했다. 생기가 왕성했으며 짐승과도 같고 원숭이와도 같았지만 발로 잘 다니고 있었다. 잠을 잘 때는 서로 망을 보고 교대하면서 방에 들어가 자기도 하였다.

태고때 사람들은 말, 사슴과 같은 형상이었다. 왜냐하면 자연과 더불어 꾸밈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짐승처럼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호랑이 같았다. 꼬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노래소리와 같은 음이 들렸다. 그 사람들은 목청을 내어 노래도 잘 불렀다.

*서산경(西山經)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어 풀어 보기도 한다. 사람의 형상이 산닭과 같았고 몸은 검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말과 호랑이와 같은 문양을 했지만 날개가 달린 듯 새처럼 빠르게 다녔다. 사해(四海) 곳, 곳을 마음대로 다녔으며 지구 곳, 곳에 안기는 곳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가만있지 않고 주로 사방을 째싸게 돌아 다녔다. 꿈 음성은 짐승소리와도 같았다. 소리를 내지 않을 때는 혹 큰 글자를 쓰기도 했으나 그것은 무슨 일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남쪽에 있는 곤륜산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꿈과 같은 빛깔을 하고 있었으며 그 기상과 성품은 물론 혼백까지도 꿈과 닮아 있었다.

특히 삼묘족을 크게 구분한다면

첫째, 환족(桓族)을 들 수 있다. 환족은 고산족(高山族), 한족(韓族)은 유목민, 한족은 하천민 계열로서 순 동이족(東夷族)이며, 지혜가 뛰어났다. 다시말해 도통(道通)의 혈통이다. 상상고시대(上古時代)에 올라가면 동이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반고성인(盤固聖人)을 들 수 있다. 동이인인 환족은 사냥을 잘 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통해 생활화하면서 선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러기 때문에 도맥(道脈)이 몸에 스며들어 고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 동이족은 높은 산속에서 밤낮으로 선을 닦았으며 굴 속에서도 자아를 발견하고 만유의 법칙과 사상을 깨달은 성인들의 후손이었다. 동이의 최고 우두머리는 삼대수군(三大水君)이라 하여 반고씨(盤固氏)였다.

물론 삼묘족은 350만 년 전부터 생겨나 있었다. 고대 문헌중 역대신선통감 중에 사람이 처음 생기게 된 이론을 설명한 대목이 있어 본문을 옮겨 보기로 한다.

인간이 처음 왜 생겼으며 천지의 형체가 생긴 사실을 황로(黃老)가 물었다. 금색(金色)인이란 사람이 답하기를 모든 물질이 생길 때 반드시 난자처럼 태어나며 태어나는 난자는 둥근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因)하여 태어난다. 그러나 그냥 보통물이 아니고 하늘 밖에서 머금고 있는 물기에 의해서 태어남을 뜻한다. 그리하여 하늘을 안고 돌면서(또는 싸고 돈다는 말도 됨) 땅에 이른다. 그곳은 중국 땅 토번국이 있던 곤륜산 근처이며 적막하고 오직 적절한 곳이다. 토번(吐蕃)국은 중국 청해성 위쪽에 있는 돈황 근처이다. 토번국은 그 곳 뿐만 아니다. 곤륜산을 훨씬 넘어선 천산산맥이 있는 깊숙한 곳에서 영(靈)이 동하기 때문이다. 하늘은 하나라고

하여 물을 생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생기면서 피 즉 혈(血)이 만들어진 다. 땅은 돌이라 했다. 돌이 됨으로 인하여 뜨거운 불이 생기게 된다. 그 곳에는 반드시 불기운으로 사람의 몸 속에 기가 생기게 되므로 인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탄생 되는 것이다.

* 환(桓)이란 고산족이면서 기마민족(騎馬民族)이었다. 최초의 기마인을 환(驥)이라 하였다. 환은 하늘 사람이 말을 탄다는 뜻도 있었지만 청, 흑, 마를 타는 동이(東夷)를 가르키는 말이었다. 바로 최초의 동이인으로서, 말을 탄 사람은 반고씨였다. 300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왔고 많은 사람이 태어나 삼묘족의 뿌리는 같지만 말을 탄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고씨라는 이름은 말을 타고 편안한 자세로 살 수 있었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삼묘족은 앞에서 말한 환과 한족이 있으며 따라서 한족이 있는 것이다.

삼묘족의 환한(桓漢), 한족에 대한 상세한 논설은 뒤에서 지이생화(地二生火)란 땅이 돌이 아니라 땅의 기운이 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땅은 음과 양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돌이라 한다.

음양의 기운이 서로 결합하여 기의 작용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열기가 생기게 된다. 열기는 대단히 강한 작용을 지구 속에서 하므로 불이라고 표현하였다. 천일생수(天一生水)란 하늘을 하나라고 본 것은 삼원일체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은 무한대의 공간속에서도 결코 하나이다. 하늘이 하나이기에 물을 생한다는 것은, 우주전체가 물의 본체로서 소립자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물을 생(生)하게 한다고 하였다.

(6) 삼묘족의 분류

삼묘족의 종족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에 의하면 고지족은 모두 묘족(苗族)을 보았다. 고지족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묘족 요(搖: 개 같이 생긴 종류로서 주로 남역 오랑캐라 함)족, 이(夷: 東夷라는 뜻)족, 북(西南夷를 뜻함)족, 여(무리를 지어 다니는 족)족, 만(蠻: 오랑캐라는 뜻 주로 남쪽 오랑캐라는 뜻)족, 동(개 종류를 뜻함)족, 요(潦: 밤에만 사냥하는 부족)족, 힐로(남역 오랑캐)족, 노이(怒夷: 성질을 내며 노는 부족)족, 출이(두 머리짐승 같은 부족)족, 중가(仲家: 사람과 짐승의 중간쯤의 부족을 뜻함)족, 용가(龍家: 용같이 날카롭고 험상궂은 부족)족들은 하나의 명칭은 아니지만 모두가 삼묘족의 후손들인 구려군(句

黎君 : 치우천황의 군호임)의 빛나는 옛 후손들이었다. 특히 중국남부지방인 사천성, 호북성, 귀주성, 서강성, 운남성, 광서성 등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

어떤 부족들은 풍속을 위장하여 살기도 했다. 뽕뽕이 흩어져 바다로 또는 산중에 서 산 사람들은 모두가 상상고시대(上古時代)때 삼묘족의 후손들이었다. 한나라 때 저 멀리 월남지방으로 또는 높은 산을 넘어 서쪽으로 살러 갔거나 아니면 심산유곡이나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산 사람들은 모두가 고지족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고금지명사전에 보면 견융(犬戎)은 춘추전국시대 때 동이국이라고 적혀 있다. 아래 주석에 본문을 싣고 해설해 보려 한다. 견융편을 보면 춘추시대 때 동이의 나라라고 했다. 역시 그 이름은 견이(犬夷)이다. 또는 곤이(昆夷)라고도 한다. 중국의 섬서성 봉상현(鳳翔縣) 북에 살고 있었다. 한서(漢書)와 산해경을 인용한다면 황제도 묘용(苗龍)에서 태어났다. 묘용은 축융(祝融)의 소생이다. 그러므로 황제는 축융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묘용 또는 용묘(龍苗)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축융씨가 묘족이었기 때문이다.

역대신선통감 제1권 제9절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본다. 그 후손들은 무려 강씨의 후손이며 신농씨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깊숙한 계곡이나 들이 좋은 곳으로 찾아가 농사를 지었다. 이 모두가 축융씨의 후예였으며 축융씨 자신도 묘족이었다.

역대신선통감 제2권 제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황제의 아들이 무려 25명이었다. 그중 성을 받은 자식은 12명이다. 희성(姬姓)으로 자손이 번창하였으나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는 일이 많았다. 그 일부는 서역으로 갔다. 그들 중 흠아비도 있었고 예쁜 아가씨도 유독 하나 있었다. 서이와 동이는 같은 성씨로서 그들 중 첩의 자녀들은 멀리 서역으로 아니면 가까운 서쪽으로 동성자끼리 원비(元妃 : 본처를 뜻함)와 세 자식을 데리고 갔다. 그 후손들은 모두 천하를 떨치는 용묘(龍苗 : 왕손을 뜻함)의 소생인 축융씨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백견(白犬)족을 말하자면 서융의 조상이다. 견융의 넷째 부인 사비의 소생이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창림씨(蒼林氏)였으며 그들도 모두 희씨성(姬氏姓)을 가진 어머니 집안에서 태어났다.(백견이란 백이를 뜻함) 귀방씨(鬼方氏) 후손들은 처음부터 북적(北狄)이 조상이었으며, 첩의 자녀들이었으나 학문을 좋아했다. 비록 서역 끝 북방부에 갇혀있는 듯하지만 그림도 그리고 글을 써서 책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편지나 책을 지으면 음밀한 곳에 감추어 두기로 했다.

때로는 심산유곡을 다니면서 새와 더불어 살고 자연과 함께 사는 보람을 느꼈다. 큰

산이름은 대유(大酉)라고 했으며 작은 산은 소유라고 했으나 이 모두는 서역에 있었다.

* 이상과 같이 삼묘족은 단순한 동이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삼묘족을 분류하면 대략 3000족이나 된다. 그 이름을 일일이 찾아 기록해도 책 한 권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삼묘족의 대표적인 종족 중의 하나가 환족(桓族)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들은 무엇일까? 바로 한족(漢族)과 한족(韓族)이다. 흔히 한족(漢族)은 중국민족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한족은 하천족이라 해서 백이(伯夷)에 속한다. 이들 모두는 회성(姬姓)을 가진 백이이다. 백이의 본은 빙이(氷夷)로서 강씨성을 가진 회성이다. 회성을 살펴보면 본시 복희씨(伏羲氏)는 풍씨라 했지만 수덕왕(水德王)으로서 강씨로 고쳤으며 배를 타고 강위에서 아름다운 귀인과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물 강(姜)인 강씨로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본시는 회성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빙이(氷夷)였기 때문에 백이(伯夷)라 해서 얻어진 회성이기 때문이다. 하백여(河伯女)도 역시 백이의 딸이다. 그러니까 부여왕 해부루(解夫婁)의 성은 고씨이다. 고씨는 고신씨(高辛氏) 즉 요임금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성씨이다.

* 수덕왕(水德王)이란?

상고시대는 반고(盤固) 천황, 지황, 인황에서 수인씨까지 무려 5000년 이상 화덕왕(火德王)으로서 불을 다루던 정사를 복희씨(伏羲氏) 기원전 3512년 보다 4605년이나 이화세계(理化世界)를 구상하며 홍익인간 사상을 펼쳐 온 것이다. 화덕왕시대가 끝나고 복희씨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물을 이용하는 정사가 시작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수덕왕이라 한다. 복희씨 16대 1260년간 신농씨 8대 426년간 수덕왕으로서 모권사회로서 국가를 통치한다.

(7) 삼묘족의 생김새와 특성

삼묘족의 분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대륙 전역에 걸쳐 퍼져 나갔다. 그중 동이족의 우두머리격인 환(桓), 한(漢), 한(韓)은 동남쪽으로 많이 진출했으므로 동남묘 또는 동남이라고 하였다.

* 소련 유엠부진의 저서인 고조선 편에도 중국 돈황에 있는 삼위산이 그 모습을 갖추었을 때 삼묘족의 체제는 완전히 정비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 삼묘는 세 가지의 씨족으로 이루어졌다. 환, 한, 한은 인류의 시원이자 뿌리이다. 그렇다면 삼묘족의

세 가지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동이계(東夷系)의 환족(桓族)이다. 다시 말해 황색의 환족이다. 머리카락은 검고 피부는 누르며 코는 대체로 높지 않는 편이다. 키는 여자일 때 1m 50cm에서 1m 65cm이고 남자일 때 1m 68cm에서 1m 72cm가 보통이다. 얼굴은 대체로 둥글납작하고 얼굴 전체가 평평하며 눈동자가 순박하면서 예리하다. 눈의 모양은 가늘고 긴 편이며 눈동자는 검거나 진갈색이다. 얼굴이 넓은 편이면서 들쭉날쭉하지 전체 얼굴모양이 어질고 순박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키가 대체로 작지만 순박하면서도 정이 많고 깊으며 깊은 사고력과 끈기있는 집념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환경에 부딪쳐도 능히 헤치고 자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기에 상 상고시대 환족인 동인 즉 동이계는 선을 닦아 도를 통한 선조들이 많았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뺏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

단군조선 제2기 말기 때는 좋은 여자를 갖고 싶어 했으므로 알력이나 분쟁이 많았다. 하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평화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감을 염원하고 살았다. 경제적인 면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웃어른과 가족내에서 우애 깊게 살고자 하였다.

둘째 키가 작은 것이 한족(漢族)이다. 한족은 백이계이다. 물가나 하천부근에서 주로 생활터전을 잡았다. 그러기에 하백(河伯)이라고도 한다. 피부는 강물이나 바다에서 살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생활이 대부분이므로 햇볕에 그을려 검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날렵하고 재빠르고 기민한 행동으로 적응해 살아왔다.

코는 대체적으로 낮은편이며 피부색은 구리빛으로 검붉은 것이 특징이다. 코가 낮은데 비해 코끝은 뾰족하며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 흑인계통이라 할 수 있다. 본시는 검은 것이 아니고 구리빛의 검붉은 편이었으나 뜨거운 지방으로 이주해 가면서 차츰 차츰 검어진 것이다. 한족의 여자들은 땅땅하고 예쁘다. 키는 1m 40cm에서 1m 60cm정도가 보통이다. 남자들의 신장은 1m 60cm에서 1m 70cm로써 상당히 날렵하다. 백이들의 성격은 섬세하고 활달하지만 경계심이 많은 편이다.

주로 기마민족으로 유명했던 치우천황의 후손들이었다. 한편 흉노로서 고구려의 선조들이기도 했다. 요즘 몽고리안이라 불리우는 것은 주몽의 옛 땅이었던 몽고를 뜻하기도 한다. 기마민족은 백이(伯夷)의 후손이자 풍이(馮夷)라고도 한다. 풍이는 무사로써 말을 타고 수렵하고 싸우기도 잘하는 부족의 이름이다. 다시 말해 풍이는 벼슬이름으로서 법을 만드는 관직을 뜻한다. 주로 북인 즉 북이(北夷)를 뜻한다.

셋째 피부색이 희다. 코가 크면서 높다. 머리카락은 재빛이다. 또는 황금색이며

때로는 희고 황갈색이다. 피부는 대체로 깨끗하며 백황색도 있다. 눈은 꺼지고 눈동자는 푸른빛이 많은 편이다. 백인종에 가까운 삼묘족이다. 이것을 한족(韓族)이라고 하며 서이(西夷)라고 한다.

서이(西夷)의 여자는 키가 1m 52cm에서 1m 67cm가 보통이며 남자의 경우 신장이 1m 65cm에서 1m 80cm가 평균키이다. 한족(漢族)과 한족(韓族)은 판이하게 다른 면이 피부색깔이다. 한족(韓族)은 백호나 백견(白犬)이라 할 만큼 얼굴색이 흰 편이다. 성격은 영웅적이면서도 개척정신이 강하고 새로운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담한 기질을 갖고 있다. 정이 약하며 이기심이 강하고 이해타산을 철저히 하면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통 때에는 대담하고 웅장한 목적을 갖고 있다. 반면에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은 조직적이다. 그러나 자기와 맞지 않을 때는 환족과 달리 가차 없이 잘라 버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환족은 정에 끌려 실패하고 후회한다면 한족은 소심하고 경제적이다. 그러나 이 모두의 성격은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쪽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백견은 뛰어난 제주와 영웅적인 기질을 높이 평가하는 뜻에서 신격화한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백견은 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삼묘족을 크게 분류해 본 것이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황인종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화합하려는 정의를 갖고 있다면 한족은 대체로 잡종인이다. 작은 키가 많으나 때로는 큰 키도 볼 수 있다. 백이는 자기 방어적인 수비형에 속한다면 한족은 서이로서 완전히 공격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위험이 다치면 자기방어를 위해 가차 없이 살상도 불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황백색, 황적색, 적백색, 황흑색등의 인종이 있다. 이 모두는 황인종계로써 분포되었다. 삼묘족은 흉노(匈奴), 북이, 서이, 남이로 대별할 수 있다. 즉 동인, 북인, 서인, 남인이다.

(8) 삼묘족의 생활무대

특히 북쪽에서는 간적(簡狄), 북적(北狄), 흉노(匈奴), 북융(北戎), 북이(北夷), 고이(高夷)들이 있으나 통칭하여 북이라고 한다. 남쪽은 남융(南戎), 남만(南蠻) 등을 남이라고 부르며 서쪽은 서융 서남만이라 한다.

묘족이 제각기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 또 다른 지방으로 이름이 붙게 되어 다른족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남이라도 각 지방에 정착하면 그 지방 명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만현(萬縣)이면 만이(蠻夷), 혼명(昏明)이면 혼이(混夷), 남영(南寧)이면 남이(南夷), 남만(南蠻)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만자(蠻字)를 살펴보면 실사변이 양쪽으로 있고 말씀언변이 가운데 있다. 벌레충자가 아래에 붙어 있음을 본다.

만자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실날 같이 엉키고 또 엉켜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벌레들과 함께 우글거리며 생명을 형성해 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옥편을 찾아보면 벌레충자면에 있다. 남역 오랑캐 남이(南夷) 또는 새소리만(蠻)이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만(蠻)자의 본뜻은 최초로 생명체가 벌레로부터 서로 엉키고 덩어리져 큰 생명체로 자란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오랑캐만 오랑캐 이 이자는 본시 나쁜 뜻이 아니었다.

이(夷)자를 살펴보면 큰 대자 변에 활궁자이다. 큰 활자와 같은 자로서 하백(河伯) 중에서도 벼슬을 한 사람을 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관직명명이었다.

이는 어질다는 본 뜻이며 워낙 용맹하고 씩씩하고 활달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동이(東夷), 남이(南夷), 남만(南蠻), 남용(南戎), 흉노(匈奴) 북적(北狄), 북용(北戎)은 모두가 삼묘족이다. 새 국어사전에 묘족은 중국 운남성, 귀주성, 등지에 많이 사는 토족이라고 되어 있다. 묘족이 토족이라고 되어 있음은 한심한 일이다.

오늘날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역사교육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삼국사기 의자왕편에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의 조상은 옛 성인이었던 묘족의 후예라고 기록되어 있다. 토족이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자기 선조를 천시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에서도 묘족 자치주가 20여개소가 호북, 호남, 귀주, 운남성 일대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또한 이족 자치주도 많이 있다. 삼묘족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지혜가 출중하게 뛰어난 것은 역시 동이족이다. 동이족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환족과 백이 즉 한족 그리고 한족을 들 수 있다. 고산족인 고이와 백이가 부부지간이라고 한다면 한족과는 형제지간이다.

수많은 묘족 중에 환족(桓族), 한족(漢族), 한족(韓族)은 뛰어난 두뇌와 지, 인, 예, 용, 덕, 신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특성이다. 삼묘족의 뿌리에서 점차 갈라져 나간 것이 구이(九夷)이다. 구이는 구형제와 같다. 구형제란 환인천황의 형제들이라고 삼성기전 하편에 기록되어 있다.

본문을 잠깐 소개하면 인류시조인 나반(那般)과 아만(阿曼)이 맨 처음 만난 곳은 아이사타란 모래가 많고 넓은 사막이지만 바위와 산돌 등으로 굴곡이 많다. 평평하

지 못한 언덕을 뜻한다. 바로 여기가 중국의 돈황이며 동이지 즉 묘족들의 고토(古土)임을 뜻한다.

일설에서는 대륙수안 곡부(曲阜)의 언덕이라고 말하고 환단고기의 역자인 가지마 노부루(鹿島昇)는 아라랏다 산(山)일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으며 임승국은 바이칼호 부근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둘 다 잘못되었다. 상고사 문헌을 조사해 보면 진술한 바와 같이 삼묘족의 고토는 역시 돈황, 우전, 귀주의 세 곳을 중국고금지명사전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그 곳에서 현몽을 얻어 천신의 가르침으로 혼례를 하여 9환족은 구이를 뜻함. 9환족을 낳았는데 모두 나반과 아만의 후예였다고 적고 있다.

*해동역사와 중국고금지명대사전에 보면 구이(九夷)는 다음과 같다.

1. 현토(玄菟) 2. 낙랑(樂浪) 3. 고려(高麗) 4. 만식(滿飾) 5. 부유(夫婁) 6. 색가(索家) 7. 동도 8. 웨인 9. 천비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한 부유는 부여를 뜻한다고 하였다.

묘족의 발생지가 중국의 삼위산이라는 것은 중국지명대사전에 뚜렷이 밝혀져 있다.

아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구여족도 삼묘의 후손들이라 했다. 구여족(九黎族)이란 구이를 뜻한다. 본시 태서인이 있는 곳은 서쪽이라 한다. 실크로드에서 살았는데 모두들 깊은 산 계곡으로 들어가 높은 산에 사는 부족이 되었다. 여러 종류의 인종들은 중국의 대륙의 지방에서 사는 최고 오래된 토착인이었다.

그 후 황제와 치우는 지금의 북경의 들에서(옛날은 탁 녹이라 함) 10년간 73전을 싸웠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황하 이남으로 내려갔다.

도당씨(陶唐氏) 시대 때도 묘족이 항명을 했으며 요임금도 단수까지 원정을 갔다. 사실 강을 건너 무리들이 달아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순임금도 도망가서 삼묘의 본고향이었던 삼위산까지 숨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풀과 나무로 위장하여 숨어 살았다.]

이상의 글에서 본다면 반고씨(盤固氏),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인황씨(人皇氏), 복희씨(伏羲氏), 황제씨(黃帝氏), 당요씨(唐堯氏), 우순씨(虞舜氏) 등은 모두 중국 돈황을 무대삼아 같은 묘족으로서 맥을 이어온 것임이 분명해진다.

다음 장에서 삼묘족의 혈통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히겠지만 삼묘족인 북이는 북극 베링해를 넘어 북미 남미로 흘러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이중재 씨가 1989년

4월 28일에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캐논이란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사막으로 황폐한 곳에서 수백만평이나 되는 넓은 들판에 뜻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유일한 소나무(청송)가 웅장하게 치솟은 모습을 보고 향수를 느껴 시 한수를 남긴 일이 있다.

북이(불이, 흉노, 북적, 적적, 산융, 우선 선비)의 옛 조상들이 피땀한 고난을 겪으면서 빙해의 들판을 넘고 넘어 멀리 남미인 멕시코까지 자유와 평화를 찾아 갔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 주는 듯 했다. 서이를 보면 중국 곤륜산 주변에 있었던 약 1800개국의 나라가 부족끼리 다툼으로 인하여 서역으로 넘어 갔음이 분명해진다. 마치 헤초선사가 서역으로 넘어간 것과 다를 바 없다.

* 예수께서 13세 때 동이박사 3인에게 구출되어 중천축국으로 간 것처럼 서역으로 건너가 5000년전에 수메르 문화를 꽃 피운 것은 필연적이 사실이다. (천학초함)에 수는 불교의 승려였다. (저자 민희식 참고) 수메르 문화의 본질이 한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유명한 석상의 코가 망가진 것이 라든가, 호미 자치기 등에서)

그 후 고대 그리스에서 찬란히 서구철학이 번창을 누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기원전 611년에서 기원전 12년까지) 그 중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가지 예를 들자면 BC 493에서 BC 433년에 엠페도클레스(Empedokless)는 지수화풍의 사상을 주장한 점과 BC 641년에서 BC 546년에 탈레스(Thales)는 물(水)이 만유의 사상이라고 내세운 점이다. 이상의 두 가지는 모두 한민족의 시원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서이(서만, 서적, 서융, 견융, 백적, 의구, 융의, 양융)등은 한결같이 멀리 아프리카 대륙까지 넘어갔음을 엿볼 수 있다. 위서 일백일보 열전 제89 토곡혼(吐谷渾)편에 보면 토곡혼은 본래 서융에 속한다. 고향은 요동 북쪽에 있던 선비였다. 아버지는 섭귀자(涉歸子)로서 다른 이름은 혁낙한(奕洛韓)이다. 혁낙한이란 지금의 중국 낙양에 있던 한족 즉 동이의 후손이다. 그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장자가 토곡혼(吐谷渾)이었고 차자가 약낙외(若洛廬)이다. 아버지가 죽은 뒤 동생인 약낙외(若洛廬)가 대통을 이어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아버지 이름은 섭귀자(涉歸子)이고 임금의 칭호는 모용씨(慕容氏)였다) 장자인 토곡혼에게는 불과 700호에 해당하는 재산밖에 상속을 주지 못했다. 얼마 후 동생의 기마부족과의 싸움으로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형인 토곡혼은 워낙 유순한 성격이어서 아우인 왕에게 처분할 것을

맡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토곡혼을 따라 토룡(土龍: 중국 감숙성 천수현의 이름임)이 란 곳으로 갔다. 그 곳에는 희귀한 소나무와 잡목들이 뿅뿅하게 들어 차 있었다. 물줄기가 자주 흘러오는 남역 경계선을 넘어갔다. 청해성에 있는 룡서를 넘어 서녘쪽에 있는 물을 건너 남극으로 갔다. 백란까지는 수천리였다. 수초가 있는 구비를 따라가 풀집(움막집과 같음)을 짓고 살았다. 주식은 낙타고기를 양식으로 하였다. 서이(西夷)들 뿐만 아니라 북이(北夷)들도 움막집을 짓고 살았다. 토곡혼이 죽었다 아들 60명을 두었다. 장자는 토연으로 키가 7척 8촌(1척은 30cm)이나 되었으며 용기가 지나쳐 성격은 광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앞의 문장에서 남극까지 갔다고 했지만 실제로 남극까지는 가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이중재씨의 소견이다. 왜냐하면 백란 수천리라고 했으므로 남극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 불과 수천리라고 했으므로 인도(印度) 정도밖에 가지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니면 차이탄분지와 타림분지를 넘어 파미르 고원 쪽으로 넘어갔다 해도 아프카니스탄 정도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초를 뜯어 움막을 짓고 낙타고기를 주식으로 했다는 것을 보면 추정이 간다. 어쨌든 서이나 북이들이 서역으로 갔다는 증거는 확실하다.

남이, 남융, 남만, 여융(驪戎), 육혼융(陸渾戎)는 멀리 필리핀이나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갔다. 신라현이나 중국 남부에 있는 복건성에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아세아 형세도에 보면 중국대만은 이주로 되어 있다. 월남은 임읍(林邑)으로 태국은 남부(남부란 남쪽에 있고 부여 즉 이국이라는 뜻)되어 있고 10세기, 11세기 아세아 지도를 보면 대만은 유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10, 11세기 지도에는 월맹이 이씨 대월국(大越國)으로 되어 있고 미얀마는 백의만(白衣蠻: 남이로서 흰 옷을 입고 살았다)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보르네오는 발이국(渤泥國: 발해국 후손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뜻으로 세운 이름임).

전한(前漢) 후한시(後漢時) 아세아 지도를 살펴보면 처음으로 일본 구주에 왜노(倭奴)가 생긴다. 왜노란 것은 주나라 때 노예들을 귀양살이 시켰던 곳이라 했다. 새 국어사전에는 고려 때부터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했으나 주나라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원나라 때 까지 유구(琉球)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명나라 때 와서 동번(東蕃)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청나라 때 대만이란 이름을 쓰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위나라가 동쪽으로 오면서 세력이 약해져 왜라고 하였다. 위나라는 춘추

시대와 전국시대 때 중국 태원(太原) 및 중원에 한(韓)나라와 위(魏)나라가 함께 있었다.

주나라가 낙양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진, 한에 의하여 붕괴되자 삼국시대는 낙양 아래 도읍을 옮긴다. 이때는 한나라와 합하게 되고 한나라는 없어진다. 그러나 서역과 곤륜산 주위 그리고 도처에는 18세기까지 한나라가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삼묘족의 뿌리이다.

위의 세력이 약해져 발해쪽으로 옮겨와 세력을 뭉친다. 왜는 이때부터 바다와 섬으로 빠지고 계속 남진하여 중국 남쪽에 왜를 건설하게 된다. 이들 후손들이 대만으로 건너와 왜국을 세운다. 그 후 섬에서 섬으로 건너가 장이, 도이, 조이들은 일본 구주로 올라가 기원 후 1320년경에 처음으로 구주에 왜국이 건설된다. 장이, 조이, 도이는 바로 백제인이 선조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최초로 백제인들의 손에 의해 왜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1980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만든 사백만분지일 되는 지도에는 중국 청해성, 신강성, 저장성에는 지금도 몽고 자치주로 되어 있다. 이곳은 한국이라는 국명이 18세기 지도에 일본 글씨로 분명히 남아 있다. 이상 삼묘족의 분류와 분포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삼묘족의 혈통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2. 삼묘족의 혈통관계 고찰

삼묘족의 혈통은 상고 문헌상 구이(九夷)로 갈라져 나감을 볼 수 있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에 따르면 황이(黃夷)는 현이(玄夷), 백이는 낙랑, 현이는 고려, 적이(赤夷)는 만식(滿飾), 풍이는 부유(覺夷: 부여), 양이는 색가(索家), 우이(隅夷)는 동도(東屠), 방이(方夷)는 왜인(倭人), 묘이(苗夷)는 천비(天鄙)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만주, 조선, 일본은 모두 구이(九夷)라고 했다. 북이 중에는 적용(赤戎), 북용(北戎), 산용(山戎), 흉노(匈奴), 적적(赤狄), 험운(獫狁), 선비(鮮卑)가 있다.

황이[玄菟], 현이[高麗], 풍이[覺夷] 즉 부여 양이는 색가(索家)가 있다.

그리고 남이는 여용(麗戎), 남용은 남만, 육혼용(陸渾戎), 백이, 낙낭, 우이(婁夷)는 동도(東屠), 방이는 왜인이라 했다. 서이는 서용, 백적, 의거용이라는 별종도 있다. 북이는 주로 몽고, 만주, 중국, 서북부지방을 근거지로 했으며 서이는 중국 곤륜산, 천산산맥과 타림분지, 도는 신강성, 둔황 주위인 청해성을 주로 생활터전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남이는 낙양 아래쪽으로 이주해 살았다. 서이는 중국의 곤륜산 북쪽과주로 남쪽에 많은 나라가 있었고 둔황을 무대로 하여 청해성을 기점으로 변성하였다. 또 일부에서는 캐라코람 산맥과 파미르고원 쪽으로 서융(西戎)과 서적(西狄) 또는 건이(犬夷)들이 번창해 나갔다.

삼묘족의 이들은 따지고 보면 형제간이다. 맨 처음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더라도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함께 맺어진 인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부부가 남남이라고 하여 남이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헤어지면 남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부부일 것이다. 부부는 자식을 낳으므로서 혈족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과 같다.

삼묘족의 혈족은 서이일 경우 중국 곤륜산 남산을 배경한 우전국 주위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천제율국이 있었던 곳이며 상 상고시대에 많은 국가가 나타나고 있던 곳이다. 바로 이 지역이 삼묘의 고향이었으나 그 후 둔황과 귀주성에도 삼묘족이 혈족을 연계하여 삼묘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호남지방과 귀주, 운남, 서강, 사천, 광서성일대는 폭넓게 삼묘족이 뿌리를 내린 곳이다.

중국지명대사전 33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삼묘는 호남지방인 산악이나 벌이 잘 드는 언덕에 많이 살았다. 그리고 호북 또는 무창지방과 강서지방 9강일대 중국서역에서 중국 남부일대와 만주 몽고까지에 걸쳐 넓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삼묘족을 뿌리를 내렸다. 특히 우나라 우왕 때는 삼묘국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기에는 오나라가 일어설 무렵 삼묘국은 마치 나무속에 좀벌레가 성해 먹어 가는 것처럼 어디든지 안 가는 곳 없이 팽창되어 갔다. 지금의 강주, 악주, 악주등은 모두 호북성, 무창, 형주등지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삼묘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중원 땅인 호북성 무산을 무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1) 묘족의 혼란시기

묘족의 처음 시조는 과연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삼묘족이 뿌리를 내리고 혈통관계를 맺고 내려오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단고기 삼성기전 하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먼저 삼성기전 하편을 보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반(那般)과 아만(阿曼)이 처음으로 만난 곳은 아이사타였다고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이사타는 다름 아닌 천제율국(天帝苑國)이었다. 삼성기전 상편 본문을 보면

환국은 천제울국시 환인씨(桓因氏)를 말하는 것이다.

그 분은 안파견(安巴堅)이었다고 적고 있다. 년대는 7세로 전해져 내려왔으나 확실한 년 수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환단고기를 번역한 임승국의 글에서 보면 아이사타를 일본인 가지마 노보루(鹿島昇)의 번역본을 인용한 글에서 일본인은 노아의 방주와 관련지어 아리앗다 산이라고 했는데 임승국은 일본인의 말을 들을 것 없고 한국인의 본 고향은 어디인가라고 하면서 바이칼호 부근으로 간주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삼성기전 하편에 보이는 천제울국(天帝苑國)때의 천제환인씨가 안파견이며 안파견이 있었던 곳이 아이사타라고 서술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천제울국(天帝苑國)은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있었던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서산경(西山經) 제2 곽씨전(郭氏傳)에 보면 하늘에서 다스리는 9부족이 있었다. 이름하여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나라였다. 주로 9성이 있었는데 아홉 부족 사이를 경계로 하여 이루어져 있었다. 구부족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에 천제울국(天帝苑國)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아이사타는 곤륜산 남쪽 남산에 우전이 있었던 사실이 분명해진다. 우전국이 있던 곳이 바로 옛날 천제울국(天帝苑國)이 있었던 곳이다.

(이상의 자료는 한 민족사 13쪽에서 54쪽까지)

(2) 대륙의 연결시대

오늘의 우리를 현생인류(homo sapiens)는 카오스 개벽이 끝난 선천(先天) 5만 년전에 이 지상에서 화생되었다. 최초의 진짜 인간인 370만 년전 전의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나 두개골의 내부 피가 현대인과 동일한 150만년 전의 인류는 지금의 우리와는 관계없는 전(前) 전차(前次)문명의 인간입니다. 인간이 집단적인 경제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문명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는 시베리아의 지역과 비슷하여 생활양상이 시베리아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다음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고 아세아족으로서 본래 북방의 고 시베리아 인종이며 그 중에서 퉁구스 인종의 원주소는 바이칼호인데 이들이 이동해 와서 고 아세아 인종을 동북으로 밀었다는 것이다.(한국 상고사의 쟁점 24, 25쪽)

이상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본래 북방의 시베리아족으로서 동북방으로 이주해 온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최초의 고대

국가는 천산(2700m) 동방에 위치한 환국(桓國)이었다. 환국은 천산 동방으로 동서가 2만리 남북이 5만리의 방대한 문명의 대국으로 파내류국으로 불리웠다. 당시 천산에 거하며 득도하여 덕이 높던 성자가 천황으로 추대되어 환국(桓國)을 통치하였는데 그 이름을 안파견이라 하였다. 만인의 아버지라는 뜻의 안파견은 초대 한인으로서 환국(桓國)을 다스렸는데 환인이란 통치자와 제사장의 관직명이다. 당시 환국(桓國)은 12환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지 안파견 환인은 자신의 형제 9인으로 하여금 각 환국(桓國)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으며 이를 통칭하여(광명)의 환국]이라 불렀다. (삼성기전, 태백 일사, 규원사화)

제1번의 남북문명의 정통을 계승하여 중앙 아세아에서 태동한 이 환국(광명의 제국) 문명은 제2번의 동서(4대) 문명으로 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고고학적인 근거는 최근 120년 동안의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 중동의 메소포타니아 지역에는 약 5500년 전에 서양문화의 뿌리인 수메르문명이 있었으며 이 문명을 건설한 수메르족은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상일, 인류문명의 기원)

또 북미의 오리건주에서 발굴된 짚신 75켈레가 동이족의 짚신과 흡사하며 방사선 탄소의 측정에 의하면 이는 약 9000년 전의 것이라고 하였다. 송호수 교수는 1982년 10월 7일에 현지 조사를 하여 미국 워싱턴의 인디안 박물관(스미소니언)에는 이외에도 나무절구, 소쿠리, 광주리, 베틀, 어망, 물레 등 우리 선조들이 쓰던 생활도구와 동일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고 하였다. (한민족의 뿌리 사상 26쪽)

인류문명의 발상지인 천산산맥은 그 주맥이 동북쪽으로 뻗어나 소련과 캐나다의 국경인 베링해협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아세아대륙과 아메리카대륙이 붙어 있었던 약 25000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던 동방족의 이동은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육교의 역할을 하던 베링해협을 건너 아메리카대륙으로 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한국 상고사의 쟁점 24쪽)과 (한민족 증산도 20쪽).

상식교실

아호고(雅號考)

아호(雅號)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서생(書生)으로서 덕망있는 사부(師父 : 선생)를 정하여 학문을 연구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인증한다는 뜻으로 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의 스승인 사부가 호(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동배(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동문의 벗끼리 서로 호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마음에 맞는 시우(詩友)나 문우(文友)끼리 호를 지어 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다.

고려·조선시대에 유명한 인물들만 추려서 가나다 순으로 찾기 쉽게 정리하였다.

〈편집실〉

아호고(雅號考)

(가나다순)

이름	아 호	이름	아 호	이름	아 호
각민(覺敏)	송과(松坡)	강봉문(姜鳳文)	옥계(玉溪)	강언룡(姜彦龍)	초정(草亭)
각성(覺性)	벽암(碧巖)	강봉수(姜鳳壽)	송암(松庵)	강여종(姜汝宗)	기재(耆齋)
각안(覺岸)	범해(梵海)	강봉수(姜鳳壽)	송암(松岩)	강우규(姜宇奎)	일우(日愚)
각훈(覺訓)	고양(高陽)	강사상(姜士尙)	월포(月浦)	강원부(姜遠溥)	임와(任窩)
강겸(姜謙)	남재(南齋)	강사필(姜士弼)	소암(笑菴)	강위(姜瑋)	고권자(古權子)
강경서(姜景敍)	당초(堂草)	강서(姜緒)	난곡(蘭谷)	강위(姜瑋)	자기(慈記)
강경서(姜景敍)	초당(草堂)	강석규(姜錫奎)	오아재(鰲齋)	강위(姜瑋)	추금(秋琴)
강경선(康景善)	극재(克齋)	강석기(姜碩基)	월당(月塘)	강유(姜游)	남곡(南谷)
강계(姜楷)	기현(寄軒)	강석기(姜碩期)	삼당(三塘)	강유(姜瑜)	상곡(象谷)
강계부(姜啓溥)	국와(菊窩)	강석덕(姜碩德)	완역재(琬易齋)	강유선(姜惟善)	명암(明菴)
강구만(姜九萬)	남암(南岩)	강석범(姜碩範)	무암(無菴)	강유선(康惟善)	재천(再川)
강극성(姜克誠)	보만당(保晩堂)	강석태(姜錫泰)	행곡(杏谷)	강유선(康惟善)	주천(舟川)
강극성(姜克誠)	취죽(醉竹)	강석하(姜錫夏)	국은(菊隱)	강유후(姜裕後)	옥계(玉溪)
강노(姜潞)	정은(貞隱)	강선(姜璿)	사승자(四乘子)	강운형(姜允亨)	가정(柯亭)
강노(姜潞)	표운(豹雲)	강선(姜璿)	일진(一塵)	강은(姜隱)	규정(葵亭)
강대수(姜大逵)	춘간(春澗)	강선(姜銑)	자각(紫閣)	강응선(康應善)	남암(南岳)
강대수(姜大逵)	한사(寒沙)	강섬(姜暹)	낙봉(樂峰)	강응정(姜應貞)	중화재(中和齋)
강대적(姜大適)	구주(白鳥洲)	강섬(姜暹)	송월당(松月堂)	강응철(姜應哲)	남계(南溪)
강대호(姜大虎)	하음(河陰)	강섬(姜暹)	송일(松日)	강응태(姜應台)	성재(誠齋)
강문형(姜文馨)	난포(蘭圃)	강세귀(姜世龜)	삼휴당(三休堂)	강의영(姜義永)	유하(有廈)
강문회(姜文會)	소요당(逍遙堂)	강세진(姜世晉)	경현재(警弦齋)	강이(姜怡)	잠은(潛隱)
강백년(姜栢年)	설봉(雪峰)	강세형(姜世馨)	국당(國堂)	강이오(姜彝五)	약산(若山)
강백년(姜栢年)	청월헌(聽月軒)	강세황(姜世晃)	표암(豹菴)	강이오(姜彝五)	유당(留堂)
강백년(姜栢年)	한계(閑溪)	강숙경(姜叔卿)	수헌(守軒)	강이천(姜彝天)	중암(重庵)
강백진(康伯珍)	무명재(無名齋)	강신(姜紳)	동고(東臯)	강익(姜翼)	개암(介菴)
강보육(康寶育)	죽헌(竹軒)	강신문(姜信文)	소청(紹菁)	강익(姜翼)	송암(松菴)
강복(姜樸)	국포(菊圃)	강신문(姜信文)	청운(靑雲)	강익문(姜翼文)	당암(憺菴)
강복성(康復誠)	죽간(竹澗)	강씨(姜氏)	정일당(靜一堂)	강인(姜縝)	남음(藍蔭)

강인(姜綱) 시암(是菴)
 강인수(姜仁壽) 화재(和齋)
 강일순(姜一淳) 증산(甌山)
 강재천(姜在天) 송석(松石)
 강정(姜縱) 청천(靑川)
 강제(姜霽) 백석(白石)
 강종경(姜宗慶) 매서(梅墅)
 강종경(姜宗慶) 청서(靑墅)
 강주(姜籀) 죽창(竹窓)
 강주(姜籀) 채진자(采眞子)
 강주(姜澗) 일죽(一竹)
 강주완(姜柱完) 매고당(梅古堂)
 강준흠(姜浚欽) 삼명(三溟)
 강진(姜潛) 대산(對山)
 강진규(姜晉奎) 역암(櫟菴)
 강진조(姜璉照) 청운(靑雲)
 강진휘(姜晉暉) 호계(壺溪)
 강찬(姜燦) 동곽(東郭)
 강찬(姜鄴) 성재(省齋)
 강창제(姜昌濟) 창산(蒼山)
 강침(姜籤) 사봉(沙峰)
 강침(姜籤) 죽월헌(竹月軒)
 강침(姜籤) 추월당(秋月堂)
 강필경(姜必慶) 헌와(獻窩)
 강필신(姜必愼) 모헌(慕軒)
 강필효(姜必孝) 법은(法隱)
 강필효(姜必孝) 해은(海隱)
 강학년(姜鶴年) 복천(復泉)
 강학년(姜鶴年) 자운(紫雲)
 강한(姜漢) 금재(琴齋)
 강항(姜沆) 수은(睡隱)
 강헌규(姜獻奎) 농려(農廬)
 강헌규(姜獻奎) 수소재(守素齋)

강현(姜顯) 신안(新安)
 강현(姜覲) 백각(白閣)
 강호문(康好文) 매계(梅溪)
 강혼(姜渾) 목계(木溪)
 강홍렬(姜弘烈) 학암(鶴巖)
 강홍립(姜弘立) 내촌(耐村)
 강홍중(姜弘重) 도촌(道村)
 강희백(姜淮伯) 통정(通亭)
 강희중(姜淮仲) 통계(通溪)
 강희맹(姜希孟) 국오(菊塢)
 강희맹(姜希孟) 만송강(萬松岡)
 강희맹(姜希孟)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 운송(雲松)
 강희안(姜希顔) 인재(仁齋)
 거연(巨淵) 월초(月初)
 경상(慶祥) 월송(月松)
 경섬(慶暹) 삼휴자(三休子)
 경섬(慶暹) 석촌(石村)
 경섬(慶暹) 칠송(七松)
 경세인(慶世仁) 경재(敬齋)
 경순(敬淳) 영산(影山)
 경신(敬信) 자하(自下)
 경연(慶延) 남계도인(南溪道人)
 경열(敬悅) 해운(海運)
 경지(慶智) 호암(湖庵)
 경최(慶最) 공천(恭川)
 경취(慶取) 신강(新江)
 경헌(敬軒) 세월(霽月)
 경헌(敬軒) 허한(虛閑)
 경화(敬和) 화담(花潭)
 계덕해(桂德海) 봉곡(鳳谷)
 계생(桂生) 계랑(桂娘)
 계생(桂生) 계랑(葵娘)

계생(桂生) 매창(梅窓)
 계선(啓璇) 양악(羊岳)
 계오(戒悟) 월하(月荷)
 계응(繼膺) 태백(太白)
 계종(啓宗) 학명(鶴鳴)
 계화(桂和) 백연(白困)
 고경명(高敬命)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 태헌(苔軒)
 고경상(高敬相) 구암(龜岩)
 고광순(高光詢) 녹천(鹿泉)
 고득중(高得宗) 영곡(靈谷)
 고맹영(高孟英) 하천(霞川)
 고병간(高秉幹) 영서(瀛西)
 고부천(高傅川) 월봉(月峰)
 고상안(高尚顔) 태촌(泰村)
 고성후(高成厚) 죽촌(竹村)
 고송걸(高崇傑) 낙천당(樂天堂)
 고시연(高時彦) 성재(省齋)
 고시현(高時顯) 성재(惺齋)
 고여흥(高汝興) 요은(闇隱)
 고용후(高用厚) 청사(晴沙)
 고운(高雲) 하천(霞川)
 고유(高裕) 추담(秋潭)
 고유섭(高裕燮) 우현(又玄)
 고응계(高應繼) 두곡(杜谷)
 고응섭(高應涉) 사곡(社谷)
 고응척(高應陟) 두곡(杜谷)
 고응척(高應陟) 취병(翠屏)
 고인계(高仁繼) 월봉(月峰)
 고인후(高因厚) 학사(鶴沙)
 고적(高迪) 임계(林溪)
 고조기(高兆基) 계림(鷄林)
 고종(高宗) 성헌(誠軒)

고종(高宗) 주연(珠淵)
 고종후(高從厚) 부봉(阜峰)
 고종후(高從厚) 준봉(準峰)
 고중영(高仲英) 송설(松雪)
 고흥달(高弘達) 죽호(竹湖)
 고희(高晦) 관란재(觀瀾齋)
 고희동(高羲東) 춘곡(春谷)
 공민왕(恭愍王) 이재(怡齋)
 공민왕(恭愍王) 익당(益堂)
 공부(孔俯) 어촌(漁村)
 공서린(孔瑞麟) 휴암(休巖)
 공억(孔億) 고산(孤山)
 공진원(公震遠) 학은(鶴隱)
 광경(郭鏡) 초수(樵叟)
 광경(郭鏡) 초천(樵川)
 광세익(郭世翼) 둔계(遯溪)
 광수기(郭壽期) 석포(石浦)
 광순(郭珣) 경재(警齋)
 광시(郭詩) 탄암(坦菴)
 광시징(郭始徵) 경한재(景寒齋)
 광여(郭興) 동산(東山)
 광영(郭瓔) 우주암(宇宙庵)
 광원근(郭元根) 석천(石川)
 광월(郭越) 정암(定菴)
 광월(郭越) 정재(定齋)
 광울(郭起) 예곡(禮谷)
 광은(郭垠) 용촌(龍村)
 광재겸(郭再謙) 괴현(槐軒)
 광재우(郭再佑) 망우당(忘憂堂)
 광종석(郭鍾錫) 면우(旣宇)
 광준(郭越) 존재(存齋)
 광지운(郭之雲) 삼옥당(三玉堂)
 광지운(郭之雲) 연일당(燕日堂)

광지흠(郭之欽) 지포(芝浦)
 광진(郭璫) 단고(丹阜)
 광창(郭昶) 예촌(禮村)
 광천구(郭天衢) 구봉(九峰)
 광희태(郭希泰) 선주(仙舟)
 관식(慣拭) 경암(鏡巖)
 관식(慣拭) 응운(應允)
 광언(光彦) 남천(南泉)
 광열(廣悅) 연해(燕海)
 광활(宏濶) 환몽(幻夢)
 교웅(教雄) 묘응(妙應)
 구계우(具繼禹) 수암(睡菴)
 구굉(具宏) 군산(羣山)
 구규(具奎) 명곡(明谷)
 구문유(具文游) 예곡(禮谷)
 구본웅(具本雄) 서산(西山)
 구봉령(具鳳齡) 백담(栢潭)
 구봉서(具鳳瑞) 낙주(洛洲)
 구봉서(具鳳瑞) 죽릉(竹陵)
 구사맹(具思孟) 팔곡(八谷)
 구사민(具思閔) 치암(恥菴)
 구성(具成) 초당(草塘)
 구수복(具壽福) 병암(屏菴)
 구수복(具壽福) 수재(睡齋)
 구연영(具然英) 춘경(春景)
 구연태(具然台) 삼성재(三星齋)
 구영(具滢) 죽유(竹淵)
 구영안(丘永安) 호은(壺隱)
 구용(具容) 지도(渚島)
 구용(具容) 죽창(竹窓)
 구원지(具元之) 진휴당(眞休堂)
 구윤명(具允明) 겸산(兼山)
 구의강(具義剛) 해문(海門)

구인문(具人文) 수옹(睡翁)
 구인문(具仁文) 수재(睡齋)
 구인후(具仁厚) 유포(柳浦)
 구자균(具滋均) 일오(一梧)
 구장손(具長孫) 청헌(靑軒)
 구치곤(丘致崑) 죽문(竹門)
 구치용(具致用) 고산(高山)
 구치용(具致用) 우교당(于郊堂)
 구택규(具宅奎) 존재(存齋)
 구홍(具鴻) 송은(松隱)
 궁예(弓裔) 선종(善宗)
 궁인성(弓寅聖) 만취(晩翠)
 권감(權臧) 지수암(知守菴)
 권격(權格) 육유당(六有堂)
 권경(權敬) 죽거(竹居)
 권경(權敬) 죽군(竹君)
 권경명(權慶命) 강동(江東)
 권경완(權景完) 궁촌(窮村)
 권경유(權景裕) 치헌(痴軒)
 권계(權啓) 구촌(龜村)
 권고(權皐) 성재(誠齋)
 권광환(權光煥) 회음(檜陰)
 권굉(權宏) 진봉(震峯)
 권규(權槩) 병곡(屏谷)
 권규(權揆) 황정(萱亭)
 권규(權珪) 남록(南麓)
 권극중(權克中) 별봉(靑峰)
 권극중(權克中) 자하(紫霞)
 권극중(權克中) 청하(靑霞)
 권극중(權克中) 화산(花山)
 권극화(權克和) 슬한재(瑟憫齋)
 권근(權近) 양촌(陽村)
 권기(權紀) 용만(龍巒)

권기(權楮) 무수옹(無愁翁)
 권기언(權基彦) 죽오(竹塢)
 권내(權來) 석천(石泉)
 권단(權檀) 제촌(濟村)
 권단(權田) 몽암(夢菴)
 권달수(權達水) 동계(東溪)
 권담(權湛) 괴정(槐亭)
 권대기(權大器) 인재(忍齋)
 권대운(權大運) 석담(石潭)
 권대재(權大載) 둔간재(敦良齋)
 권대재(權大載) 소천(蘇川)
 권대재(權大載) 용문(龍門)
 권덕규(權惠奎) 애류(崖溜)
 권덕규(權惠奎) 한별
 권덕린(權德麟) 구봉(龜峰)
 권도(權壽) 동계(東溪)
 권도(權翰) 수은(修隱)
 권돈인(權敦仁) 과지초당(瓜地草堂)
 권돈인(權敦仁) 이재(霽齋)
 권동보(權東輔) 청암(靑巖)
 권동수(權東壽) 석운(石雲)
 권동진(權東鎭) 실암(實菴)
 권동진(權東鎭) 애당(愛堂)
 권동진(權東鎭) 우당(憂堂)
 권동진(權東鎭) 우당(愚堂)
 권두경(權斗經) 창설재(蒼雪齋)
 권두기(權斗紀) 청사(晴沙)
 권두남(權斗南) 육락당(六樂堂)
 권두문(權斗文) 남천(南川)
 권두인(權斗寅) 설창(雪窓)
 권두인(權斗寅) 하당(荷塘)
 권두추(權斗樞) 귀포(歸浦)
 권득기(權得己) 만회(晩晦)

권렴(權廉) 송재(松齋)
 권만(權萬) 강좌(江左)
 권만두(權萬斗) 지족당(知足堂)
 권맹손(權孟孫) 송당(松堂)
 권맹손(權孟孫) 송옹(松翁)
 권문해(權文海) 초간(草澗)
 권미(權微) 송암(松菴)
 권민수(權敏手) 퇴재(退齋)
 권반(權昉) 한려(閑廬)
 권반(權昉) 한호(閑戶)
 권발(權撥) 충재(沖齋)
 권벽(權壁) 슬한재(瑟憫齋)
 권변(權忭) 수초당(遂初堂)
 권별(權隨) 죽소(竹所)
 권병덕(權秉惠) 우운(又雲)
 권병덕(權秉惠) 정암(貞菴)
 권병덕(權秉惠) 청암(靑菴)
 권병훈(權丙勳) 성대(性臺)
 권보(權堡) 회정(檜亭)
 권부(權溥) 국재(菊齋)
 권사복(權思復) 신촌(愼村)
 권산해(權山海) 죽림(竹林)
 권상(權常) 남강(南岡)
 권상구(權尙矩) 남당(南塘)
 권상길(權尙吉) 근리재(近裏齋)
 권상길(權尙吉) 남곡(南谷)
 권상로(權相老) 퇴경당(退耕堂)
 권상신(權常愼) 서어(西漁)
 권상신(權常愼) 일홍당(日紅堂)
 권상유(權尙游) 구계(榰溪)
 권상일(權相一) 청대(淸臺)
 권상하(權尙夏)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 황강(黃岡)

권섭(權燮) 옥소(玉所)
 권성(權潑) 제월당(霽月堂)
 권성구(權聖矩) 구소(龜巢)
 권성오(權省吾) 동암(東巖)
 권세숙(權世楸) 도계(道溪)
 권세장(權世樟) 운파(雲波)
 권수(權修) 칠와(漆窩)
 권수(權授) 운곡(雲谷)
 권순(權恂) 쌍천(雙泉)
 권시(權諤) 탄옹(炭翁)
 권시(權諤) 휴재(休齋)
 권시경(權是經) 칠휴(七休)
 권식(權寔) 풍암(楓巖)
 권양(權讓) 지족당(知足堂)
 권엽(權溱) 기오당(寄傲堂)
 권엽(權日業) 구사(龜沙)
 권영(權垓) 우곡(愚谷)
 권예(權輓) 마에(磨厓)
 권오기(權五紀) 졸재(拙齋)
 권오복(權五福) 수헌(守軒)
 권오복(權五福) 조현(眺軒)
 권용(權埔) 선계(仙溪)
 권용(權容) 기재(奇齋)
 권용정(權用正) 소유(小游)
 권우(權宇) 송소(松巢)
 권우(權遇) 매헌(梅軒)
 권우(權隅) 동곡(東谷)
 권운(權雲) 제월당(霽月堂)
 권원(權瑗) 제남(濟南)
 권위(權暉) 만수(漫叟)
 권위(權韙) 성재(誠齋)
 권유(權愈) 하곡(霞谷)
 권유(權裕) 국포(菊圃)

권운(權綸) 소요정(逍遙亭)
 권율(權慄) 만취당(晩翠堂)
 권율(權慄) 모악(暮嶽)
 권응생(權應生) 노현(魯軒)
 권응수(權應銖) 백운재(白雲齋)
 권응시(權應時) 송학헌(松鶴軒)
 권응인(權應仁) 송계(松溪)
 권응정(權應廷) 나암(懶菴)
 권응정(權應挺) 묵암(默菴)
 권응창(權應昌) 지족당(知足堂)
 권이중(權履中) 남애(南崖)
 권이진(權以鎭) 만수헌(漫收軒)
 권이진(權以鎭) 수만헌(收漫軒)
 권이진(權以鎭) 유회당(有懷堂)
 권일신(權日身) 이암(移庵)
 권임(權恁) 퇴암(退庵)
 권장(權樺) 우암(寓菴)
 권재운(權載運) 여택재(麗澤齋)
 권적(權禾商) 남애(南厓)
 권적(權嫡) 창백헌(蒼白軒)
 권적(權蹟) 호은(壺隱)
 권적(權適) 계정(繼亭)
 권절(權節) 을정(栗亭)
 권정(權定) 사복재(思復齋)
 권정기(權正己) 각회(愨悔)
 권정침(權正枕) 평암(平菴)
 권제(權蹠) 지재(止齋)
 권조(權釣) 유연당(悠然堂)
 권종해(權鍾海) 성파(惺波)
 권주(權柱) 화산(花山)
 권주(權鑄) 규헌(葵軒)
 권준(權雋) 월천초수(月川樵叟)
 권준(權準) 송재(松齋)

권준(權濬) 상암(霜巖)
 권중경(權重經) 손재(巽齋)
 권중경(權重經) 정묵당(靜默堂)
 권중도(權重道) 퇴암(退菴)
 권중현(權重顯) 경농(經農)
 권중화(權仲和) 동고(東臯)
 권중휘(權重徽) 둔곡(敦谷)
 권지(權訥止) 만송(萬松)
 권진(權縉) 수은(叵隱)
 권진(權軫) 경재(敬齋)
 권진(權軫) 독수와(獨樹窩)
 권진응(權震應) 산수헌(山水軒)
 권집(權集) 묵옹(默翁)
 권찬(權纘) 기정(岐亭)
 권창업(權昌業) 번곡(樊谷)
 권철(權轍) 쌍취헌(雙翠軒)
 권초(權惇) 동리(東里)
 권춘란(權春蘭) 회곡(晦谷)
 권태익(權泰益) 남인(納人)
 권필(權譯) 석주(石洲)
 권필칭(權必稱) 오담(梧潭)
 권한공(權漢功) 일재(一齋)
 권항(權伉) 송암(松菴)
 권해(權璫) 남곡(南谷)
 권협(權挾) 석담(石潭)
 권협(權挾) 석당(石塘)
 권협(權鞞) 초루(草樓)
 권형(權瑩) 의침옹(欵枕翁)
 권호(權鎬) 정재(靜齋)
 권호문(權好文) 송암(松巖)
 권호신(權好臣) 도은(陶隱)
 권호윤(權豪胤) 동빈(東濱)
 권홍(權弘) 송설헌(松雪軒)

권홍(權弘) 쌍당(雙塘)
 권확(權鑊) 석계(石溪)
 권환(權煥) 제남(濟南)
 권황(權愧) 치암(恥菴)
 권휘(權暉) 성재(誠齋)
 권흥익(權興益) 사물재(四勿齋)
 권희(權禧) 남악(南岳)
 권희맹(權希孟) 수암(水菴)
 권희인(權希仁) 삼암(三巖)
 권홍(軌泓) 완월(翫月)
 금각(琴恪) 조대(釣臺)
 금난수(琴蘭秀) 성성재(惺惺齋)
 금난수(琴蘭秀) 성재(惺齋)
 금보(琴輔) 매헌(梅軒)
 금원정(琴元貞) 농수(聾叟)
 금응협(琴應莢) 일휴당(日休堂)
 금응훈(琴應薰) 면진재(勉進齋)
 기건(奇虔) 청파(靑坡)
 기대승(奇大升)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존재(存齋)
 기만헌(奇晩獻) 백봉(栢峰)
 기삼연(奇參衍) 성재(省齋)
 기우만(奇宇萬) 송사(松沙)
 기자헌(奇自獻) 만전(晩全)
 기자헌(奇自獻) 만전당(晩全堂)
 기정룡(奇挺龍) 낙암(樂岩)
 기정익(奇挺翼) 송암(松岩)
 기정진(奇正鎭) 노사(蘆沙)
 기준(奇遵) 덕양(德陽)
 기준(奇遵) 복재(服齋)
 기향(寄迥) 물재(勿齋)
 기화(己和) 득통(得通)
 기화(己和) 무준(無準)

기화(己和) 함허(涵虛)
 기효간(奇孝諫) 금강(錦江)
 길선주(吉善宙) 영계(靈溪)
 길영(吉詠) 조계(藻溪)
 길재(吉再) 금오산인(金烏山人)
 길재(吉再) 야은(冶隱)
 김가진(金嘉鎭)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 동암(東巖)
 김각(金磬) 독성(獨醒)
 김간(金幹) 후재(厚齋)
 김감(金勘) 선동(仙洞)
 김감(金勘) 일재(一齋)
 김개(金愷) 독송정(獨松亭)
 김개국(金蓋國) 만취당(晩翠堂)
 김거(金擧) 남애(南厓)
 김건(金健) 삼청(三清)
 김건순(金健淳) 가굴(嘉橋)
 김경념(金敬念) 신암(愼菴)
 김경문(金慶門) 소암(蘇巖)
 김경문(金敬文) 만교(晩橋)
 김경수(金景壽) 별천(隴川)
 김경여(金慶餘) 송애(松厓)
 김경용(金景勇) 매죽당(梅竹堂)
 김경유(金景游) 후촌(後村)
 김경조(金慶祖) 심곡(深谷)
 김경직(金敬直) 식재(息齋)
 김경직(金敬直) 우정(憂亭)
 김경창(金慶昌) 계동(溪東)
 김경하(金景河) 국산(菊山)
 김경희(金景熹) 노계(蘆溪)
 김계(金啓) 운강(雲江)
 김계금(金係錦) 서강(西岡)
 김계금(金係錦) 육일(六一)

김계상(金啓祥) 소은(素隱)
 김계우(金季愚) 응흥(雄欽)
 김계행(金係行) 보백당(寶白堂)
 김계휘(金繼輝)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 황악(黃岳)
 김곤(金滾) 성곡(星谷)
 김곤(金鎡) 검암(劔岩)
 김공(金缸) 옥담(浴潭)
 김관(金罐) 명천(鳴川)
 김관(金罐) 묵재(墨齋)
 김관근(金灌根) 운곡(雲谷)
 김관보(金官寶) 석산(石山)
 김관추(金觀秋) 사서(沙西)
 김관호(金觀鎬) 동우(東愚)
 김광(金光) 장암(壯菴)
 김광(金鑣) 죽계(竹溪)
 김광백(金光伯) 매석(梅石)
 김광수(金光粹) 송은(松隱)
 김광수(金光濬) 상고당(尙古堂)
 김광약(金光岳) 독좌옹(獨坐翁)
 김광엽(金光燁) 죽일(竹日)
 김광욱(金光煜) 죽소(竹所)
 김광원(金光遠) 월봉(月峰)
 김광재(金光載) 송당(松堂)
 김광재(金光載) 송옹(松翁)
 김광찬(金光燦) 운수헌(雲水軒)
 김광철(金光轍) 둔재(鈍齋)
 김광철(金光轍) 둔헌(鈍軒)
 김광택(金光澤) 존오재(存吾齋)
 김광혁(金光赫) 동림(東林)
 김광현(金光炫) 수북(水北)
 김굉(金坵) 구와(龜窩)
 김굉필(金宏弼) 사옹(養翁)

김굉필(金宏弼) 한훤당(寒暄堂)
 김교제(金敎濟) 아숙(啞俗)
 김구(金九) 백범(白凡)
 김구(金九) 연하(蓮下)
 김구(金丘) 지포(止浦)
 김구(金構) 관복재(觀復齋)
 김구(金構) 시복재(視復齋)
 김구(金絳) 자암(自菴)
 김구(金鉤) 귀산(歸山)
 김구(金槩) 청창(聽蒼)
 김구겸(金久謙) 진재(眞齋)
 김구명(金九鳴) 묵와(默窩)
 김구석(金龜錫) 유암(儒岩)
 김구용(金九容) 척약재(惕若齋)
 김국광(金國光) 서석(書石)
 김군수(金君綏) 설당(雪堂)
 김권(金權) 졸탄(拙灘)
 김귀영(金貴榮) 동원(東園)
 김귀영(金貴榮) 동포(東圃)
 김규(金蚰) 탄수(灘叟)
 김규(金戔) 수촌(水村)
 김규식(金奎植) 우사(尤史)
 김규오(金奎五) 최와(最高)
 김규진(金圭鎭) 해강(海岡)
 김규철(金奎喆) 비장(飛將)
 김규택(金奎澤) 웅초(熊超)
 김극검(金克儉) 괴애(乖崖)
 김극기(金克己)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 동봉(東峯)
 김극념(金克恬) 창주(滄洲)
 김극민(金克敏) 아암(我岩)
 김극전(金克銑) 반송(伴松)
 김극성(金克成) 관란(觀瀾)

김극성(金克成)우정(憂亭)
 김극성(金克成)청라(靑蘿)
 김극일(金克一)모암(慕庵)
 김극일(金克一)약봉(藥峯)
 김극현(金克顯)호은(壺隱)
 김극형(金克亨)무위당(無爲堂)
 김극형(金克亨)사천(沙川)
 김극형(金克亨)운촌(雲村)
 김근공(金謹恭)척암(惕庵)
 김근배(金根培)매하(梅下)
 김근순(金近淳)십청(十靑)
 김근순(金近淳)귀연(歸淵)
 김근태(金謹泰)척재(惕齋)
 김근행(金謹行)용재(慵齋)
 김금수(金錦秀)진솔(眞率)
 김기(金圻)북애(北厓)
 김기서(金麒瑞)돈목재(敦睦齋)
 김기성(金箕性)이길현(頤吉軒)
 김기수(金綺秀)창산(蒼山)
 김기전(金起田)소춘(小春)
 김기종(金起宗)청하(聽荷)
 김기중(金祺中)원파(圓坡)
 김기찬(金基贊)석거(石居)
 김기한(金起漢)직재(直齋)
 김기형(金基滢)해악(海岳)
 김길통(金吉通)월천(月川)
 김낙서(金洛瑞)호고재(好古齋)
 김낙춘(金樂春)인백당(忍百堂)
 김낙행(金樂行)구사당(九思堂)
 김난상(金鸞祥)매양(梅陽)
 김난상(金鸞祥)병산(餅山)
 김난순(金蘭淳)벽곡(碧谷)
 김남중(金南重)야당(野塘)

김내성(金來成)아인(雅人)
 김노(金魯)동고(東臯)
 김노(金鏘)설암(雪岳)
 김노경(金魯慶)유당(酉堂)
 김노응(金魯應)일와(一窩)
 김농(金農)화남(華南)
 김단(金端)수분(守分)
 김달순(金達淳)일청(一靑)
 김담(金淡)무송헌(撫松軒)
 김담(金湛)부가(浮家)
 김담(金潭)보진자(葆眞子)
 김담수(金聃壽)서계(西溪)
 김대(金臺)반곡(盤谷)
 김대경(金臺卿)월당(月塘)
 김대기(金大器)만덕(晩德)
 김대덕(金大德)소봉(蘇峰)
 김대덕(金大德)이안당(易安堂)
 김대립(金大立)월봉(月峰)
 김대명(金大鳴)백암(白岩)
 김대석(金台錫)성재(惺齋)
 김대유(金大有)삼족당(三足堂)
 김대택(金待澤)평당(苹堂)
 김대허(金大虛)박연정(淵亭)
 김대현(金大賢)유연당(悠然堂)
 김덕겸(金德謙)청륙(靑陸)
 김덕룡(金德龍)낙곡(駱谷)
 김덕배(金德培)난계(蘭溪)
 김덕성(金德成)현은(玄隱)
 김덕성(金德誠)성옹(醒翁)
 김덕성(金德誠)취옹(醉翁)
 김덕수(金德秀)나진자(懶眞子)
 김덕수(金德秀)이진자(頤眞子)
 김덕승(金德崇)모암(慕菴)

김덕승(金德承)소전(少痊)
 김덕승(金德承)소첩(巢睫)
 김덕오(金德五)치현(痴軒)
 김덕운(金德運)진정재(眞靜齋)
 김덕원(金德遠)휴곡(休谷)
 김덕원(金德遠)휴암(休岩)
 김덕진(金德鎭)낙계(樂溪)
 김덕진(金德鎭)낙계(駱溪)
 김덕행(金德行)공명재(恭命齋)
 김도(金壽)나복(蘿菴)
 김도(金壽)묵당(默堂)
 김도기(金道器)매곡(梅谷)
 김도수(金道洙)춘주(春洲)
 김도현(金道賢)벽서(碧棲)
 김도희(金道喜)주하(柱下)
 김돈희(金敦熙)성당(性堂)
 김동삼(金東三)일송(一松)
 김동성(金東成)천리구(千里駒)
 김동인(金東仁)금동(琴童)
 김동준(金東準)봉곡(鳳谷)
 김동춘(金同春)우화(雨華)
 김동필(金東弼)낙건정(樂健亭)
 김동환(金東煥)파인(巴人)
 김동홀(金東屹)가재(佳齋)
 김두남(金斗南)과강(巴江)
 김두남(金斗南)과릉(巴陵)
 김두량(金斗樑)남리(南里)
 김두량(金斗樑)운천(雲泉)
 김두명(金斗明)만향(晩香)
 김두열(金斗烈)예원(藝園)
 김둔(金鈍)졸재(拙齋)
 김득광(金得光)월은(月隱)
 김득신(金得臣)구석(龜石)

김득신(金得臣) 긍재(肯齋)
 김득신(金得臣)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 홍월헌(弘月軒)
 김득원(金得元) 완물재(院物齋)
 김령(金靈) 백강(白江)
 김령(金玲) 계암(溪巖)
 김륙(金玊) 백암(栢巖)
 김립(金笠) 난고(蘭臯)
 김만균(金萬均) 사휴(思休)
 김만균(金萬均) 이호(梨湖)
 김만균(金萬均) 취선(醉仙)
 김만기(金萬基) 서석(書石)
 김만식(金晩植) 취당(翠堂)
 김만용(金萬容) 금화(金華)
 김만중(金萬鍾) 북저(北渚)
 김만중(金萬重) 서포(西浦)
 김만중(金萬增) 돈촌(遯村)
 김만중(金萬增) 육화당(六花堂)
 김말(金沫) 송정(松亭)
 김매순(金邁淳) 대산(臺山)
 김맹권(金孟權) 만취당(晩翠堂)
 김맹절(金孟節) 지지당(止止堂)
 김맹창(金孟昌) 독곡(獨谷)
 김면(金沔) 송암(松菴)
 김면(金沔) 송암(松岩)
 김명(金銘) 대곡(大谷)
 김명국(金命國) 국담(菊潭)
 김명국(金命國)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 취옹(醉翁)
 김명규(金明奎) 근원(槿園)
 김명석(金命錫) 우계(雨溪)
 김명순(金明淳) 탄실(彈實)
 김명원(金命元) 주은(酒隱)

김명일(金明一) 운곡(雲谷)
 김명현(金命賢) 기오당(寄傲堂)
 김명희(金命喜) 산천(山泉)
 김몽호(金夢虎) 옥봉(玉峰)
 김문(金汶) 서헌(西軒)
 김문기(金文起) 백촌(白村)
 김문하(金文夏) 동교(東郊)
 김민순(金敏淳) 매월송풍(梅月松風)
 김민재(金敏材) 보가재(寶稼齋)
 김민재(金敏材) 우계(愚溪)
 김민택(金民澤) 죽헌(竹軒)
 김민행(金敏行) 고애(孤厓)
 김반(金槃) 허주(虛舟)
 김반(金泮) 송정(松亭)
 김방한(金邦翰) 오정(鰲亭)
 김범(金範) 동계(東溪)
 김범(金範) 후계(后溪)
 김법린(金法麟) 범산(梵山)
 김병국(金炳國) 영어(穎漁)
 김병기(金炳冀) 사영(思穎)
 김병덕(金炳德) 약산(約山)
 김병로(金炳魯) 가인(街人)
 김병시(金炳始) 용암(蓉庵)
 김병연(金炳淵) 난고(蘭臯)
 김병조(金秉祚) 일재(一齋)
 김병학(金炳學) 영초(穎樵)
 김보(金寶) 술고재(述古齋)
 김보근(金輔根) 삼송(三松)
 김보남(金寶男) 신곡(新谷)
 김보택(金普澤) 척재(惕齋)
 김보현(金輔鉉) 난재(蘭齋)
 김복일(金復一) 남악(南岳)
 김복일(金復一) 남악(南嶽)

김복진(金復鎭) 정관(井觀)
 김복한(金福漢) 지산(志山)
 김복흥(金復興) 계곡(谿谷)
 김봉조(金奉祖) 학호(鶴湖)
 김부륜(金富倫) 설월당(雪月堂)
 김부식(金富軾) 뇌천(雷川)
 김부신(金富信) 양정당(養正堂)
 김부의(金富儀) 음청당(挹靑堂)
 김부인(金富仁) 산남(山南)
 김부필(金富弼) 후조당(後凋堂)
 김비(金斐) 묵옹(默翁)
 김빈(金鑛) 졸재(拙齋)
 김사목(金思穆) 운소(雲巢)
 김사원(金士元) 만취당(晩翠堂)
 김사형(金士衡) 낙포(洛圃)
 김사형(金士衡) 익원공(翼元公)
 김상(金尙) 사은(仕隱)
 김상건(金尙鑾) 만사(晩沙)
 김상관(金尙寬) 금시재(今是齋)
 김상기(金相機) 성암(省菴)
 김상로(金尙魯) 만하(晩霞)
 김상로(金尙魯) 하계(霞溪)
 김상리(金相離) 송옹(松翁)
 김상무(金相茂) 고암(固菴)
 김상복(金相福) 자연(自然)
 김상복(金相福) 직하(稷下)
 김상복(金相福) 죽하(竹下)
 김상석(金相奭) 수은(市隱)
 김상성(金尙星) 도계(陶溪)
 김상성(金尙星) 손곡(損谷)
 김상숙(金相肅) 매와(杯窩)
 김상숙(金相肅) 초루(草樓)
 김상악(金相岳) 위암(韋庵)

김상옥(金相玉) 소와(疎窩)
 김상용(金尙容)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풍계(楓溪)
 김상용(金尙鎔) 석과(石坡)
 김상용(金尙鎔) 월과(月坡)
 김상옥(金祥郁) 난고(蘭臯)
 김상일(金相日) 농수(壘叟)
 김상일(金相日) 일엄(一嚴)
 김상정(金尙廷) 기기재(棄齋齋)
 김상정(金相定) 석당(石堂)
 김상정(金象靖) 대산(大山)
 김상준(金尙肅) 휴암(休菴)
 김상진(金相進) 농헌(農軒)
 김상철(金尙喆) 화서(華西)
 김상태(金尙台) 백우(白愚)
 김상헌(金尙憲) 석실(石室)
 김상헌(金尙憲) 청음(淸陰)
 김상현(金尙鉉) 경대(經臺)
 김서경(金瑞慶) 담계(淡溪)
 김서일(金瑞一) 전궁재(戰兢齋)
 김석문(金錫文) 대곡(大谷)
 김석신(金碩臣) 초원(蕉園)
 김석일(金錫一) 허주와(虛舟窩)
 김석주(金錫胄) 식암(息菴)
 김석준(金奭準) 묵지도인(墨指道人)
 김석준(金奭準) 소당(小棠)
 김석진(金奭鎭) 오천(梧泉)
 김석홍(金錫弘) 웅천(瓮川)
 김석훈(金碩勛) 수약재(守約齋)
 김선(金鎔) 서원(犀園)
 김선(金腕) 시서(市西)
 김선(金腕) 지서자(之西子)
 김선여(金善餘) 백천(栢川)

김선영(金善英) 동호(東湖)
 김설(金高) 정헌(靜軒)
 김섭(金涉) 나곡(蘿谷)
 김성(金聲) 천관(川觀)
 김성갑(金聖甲) 채진자(采眞子)
 김성구(金聲久) 팔오헌(八吾軒)
 김성근(金聲根) 해사(海士)
 김성기(金聖器) 어은(漁隱)
 김성기(金聖器) 조은(釣隱)
 김성대(金盛大) 지명당(知命堂)
 김성립(金誠立) 서당(西堂)
 김성발(金聲發) 창구당(倉丘堂)
 김성수(金性洙) 인촌(仁村)
 김성숙(金星淑) 운암(雲岾)
 김성원(金成遠) 서하당(棲霞堂)
 김성일(金誠一) 학봉(鶴峯)
 김성적(金盛迪) 일한(一寒)
 김성진(金聲振) 어야옹(於野翁)
 김성최(金盛最) 일로당(佚老堂)
 김성탁(金聖鐸) 제산(霽山)
 김성후(金盛後) 초창(蕉窓)
 김세균(金世均) 만재(晩齋)
 김세림(金世濂) 동명(東溟)
 김세필(金世弼)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 지비옹(知非翁)
 김세호(金世鎬) 구주(龜洲)
 김세호(金世鎬) 수재(修齋)
 김수(金銖) 송정(松亭)
 김수(金晔) 몽촌(夢村)
 김수경(金壽卿) 양한재(養閒齋)
 김수근(金洙根) 계산(溪山)
 김수남(金秀南) 만치당(萬痴堂)
 김수녕(金壽寧) 소양당(素養堂)

김수동(金壽童) 만보당(晩保堂)
 김수동(金壽童) 미수(眉叟)
 김수렴(金守廉) 야당(野堂)
 김수민(金壽民) 사포(沙浦)
 김수온(金守溫) 괴애(乖崖)
 김수온(金守溫) 식우(拭疣)
 김수옹(金守雍) 기재(棄齋)
 김수익(金壽益) 청구(靑丘)
 김수익(金壽益) 청악(靑岳)
 김수일(金守一) 구봉(龜峰)
 김수장(金壽長) 노가재(老歌齋)
 김수증(金壽增) 곡운(谷雲)
 김수철(金秀哲) 북산(北山)
 김수항(金壽恒) 문곡(文谷)
 김수현(金壽賢) 둔곡(遁谷)
 김수흥(金壽興) 퇴우당(退憂堂)
 김숙자(金叔滋) 강호(江湖)
 김순명(金順命) 월봉(月峰)
 김순선(金崇善) 용재(雍齋)
 김습(金習) 안식재(安息齋)
 김승만(金承萬) 죽림(竹林)
 김승서(金承緒) 구암(龜岩)
 김승적(金承績) 용암(龍岩)
 김승학(金承學) 희산(希山)
 김시(金視) 양송당(養松堂)
 김시(金視) 양송헌(養松軒)
 김시걸(金時傑) 난곡(蘭谷)
 김시관(金時觀) 절곡(節谷)
 김시국(金蕃國) 동촌(東村)
 김시모(金時模) 창진(蒼塵)
 김시민(金時敏) 동포(東圃)
 김시민(金時敏) 초창(蕉窓)
 김시번(金始蕃) 면호(眠湖)

김시번(金始蕃) 수호(壽湖)
 김시보(金時保) 모주(茅洲)
 김시빈(金始鑛) 백남(白南)
 김시서(金時瑞) 자연(自然)
 김시성(金始聖) 도계(陶溪)
 김시성(金是聲) 금포(錦浦)
 김시습(金時習) 동봉(東峯)
 김시습(金時習)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벽산(碧山)
 김시습(金時習) 청한자(淸寒子)
 김시습(金時習) 채세옹(贅世翁)
 김시양(金時讓) 하담(荷潭)
 김시언(金時彦) 수와(壽窩)
 김시온(金是溫) 표은(瓢隱)
 김시준(金時準) 의인재(依仁齋)
 김시진(金始振) 반고(盤臯)
 김시찬(金時燦) 초천(苕川)
 김시창(金始昌) 남정(嵐亭)
 김시탁(金時鐸) 이호(梨湖)
 김시태(金時泰) 사물제(四勿齋)
 김시하(金時和) 죽하(竹下)
 김시혁(金始火奕) 매곡(梅谷)
 김시현(金始顯) 하구(何求)
 김시현(金始顯) 학우(鶴右)
 김시환(金始煥) 낙파(駱坡)
 김시황(金時晄) 도암(道巖)
 김시회(金時晦) 양직재(養直齋)
 김식(金植) 죽서(竹西)
 김식(金植) 죽창(竹窓)
 김식(金植) 청포(淸浦)
 김식(金植) 퇴촌(退村)
 김식(金湜) 동천(東泉)
 김식(金湜) 사서(沙西)

김식(金湜) 야은(野隱)
 김식(金湜) 정당(靜堂)
 김식(金湜) 정우당(淨友堂)
 김신겸(金信謙) 노천(櫓泉)
 김신국(金薰國) 후추(後瘳)
 김신국(金薰國) 후추당(後瘳堂)
 김신윤(金莘尹) 동각(東閣)
 김신행(金信行) 송파(松坡)
 김씨(金氏) 의유당(意幽堂)
 김안국(金安國) 모재(慕齋)
 김안로(金安老) 용천(龍泉)
 김안로(金安老) 퇴재(退齋)
 김안로(金安老) 희락산(希樂山)
 김안로(金安老) 보락당(保樂堂)
 김안실(金案實) 영암(楹菴)
 김안절(金安節) 낙예(洛厓)
 김암(金措) 훈재(訓齋)
 김약(金籥) 오자옹(五子翁)
 김약로(金若魯) 지족당(知足堂)
 김약로(金若魯) 만휴당(晩休堂)
 김약묵(金若默) 성재(誠齋)
 김약연(金若淵) 연암(淵庵)
 김약연(金躍淵) 규암(圭巖)
 김약항(金若恒) 척약재(惕若齋)
 김양근(金養根) 동아(東埜)
 김양기(金良驥) 긍원(肯園)
 김양순(金陽淳) 건옹(健翁)
 김양원(金陽元) 노저(鷺渚)
 김양진(金楊震) 허백당(虛白堂)
 김양택(金陽澤) 건암(健庵)
 김양택(金陽澤) 건재(健齋)
 김양행(金亮行) 여호(驪湖)
 김양행(金亮行) 지암(止菴)

김억(金億) 안서(岸曙)
 김억일(金億鎰) 만휴당(晩休堂)
 김언거(金彦踞) 풍영정(風詠亭)
 김언거(金彦踞) 풍영헌(風詠軒)
 김언건(金彦健) 예정(藝亭)
 김언기(金彦幾) 유일재(惟一齋)
 김언옥(金彦鬪) 서석(書石)
 김언희(金彦希) 창양(蒼泮)
 김여(金鱣) 담정(澗庭)
 김여물(金汝物) 피구자(披裘子)
 김여물(金汝物) 외암(畏菴)
 김여옥(金汝鈺) 미산(薇山)
 김연(金淵) 이력정(李櫟亭)
 김연(金演) 노암(魯庵)
 김연(金演) 퇴수당(退修堂)
 김연(金緣) 운암(雲巖)
 김연(金緣) 죽연(竹淵)
 김연(金緣) 후조당(後凋堂)
 김연광(金鍊光) 송암(松巖)
 김연국(金演局) 구암(龜菴)
 김연년(金延年) 화산(華山)
 김연로(金鍊老) 심적당(心適堂)
 김연택(金延澤) 만죽(萬竹)
 김영(金寧) 둔봉(遯峯)
 김영(金榮) 이정(梨亭)
 김영(金瑛) 삼당(三塘)
 김영(金瑛) 춘방(春舫)
 김영군(金永群) 백원(栢園)
 김영남(金穎男) 소설옹(掃雪翁)
 김영돈(金永墩) 구봉(龜峰)
 김영돈(金永墩) 균헌(筠軒)
 김영렬(金英烈) 맹암(孟岩)
 김영상(金永相) 춘우정(春雨亭)

김영수(金永壽) 하정(荷汀)
 김영숙(金永肅) 백주(白舟)
 김영순(金英淳) 석릉(石菱)
 김영일(金榮一) 죽정(竹亭)
 김영작(金永爵) 소정(邵亭)
 김영조(金榮祖) 망와(忘窩)
 김영행(金令行) 필옹(弼翁)
 김오(金浩) 칠매당(七梅堂)
 김옥균(金玉均) 고균(古筠)
 김옥균(金玉均) 고우(古愚)
 김은(金穩) 학천(鶴川)
 김완규(金完圭) 송암(松巖)
 김요립(金堯立) 서봉(西峰)
 김요명(金堯命) 해촌(海村)
 김용(金涌) 운천(雲川)
 김용겸(金用謙) 교교재(膠膠齋)
 김용배(金龍培) 만학(晩學)
 김용석(金用石) 담암(潭菴)
 김용원(金庸源) 강산(剛山)
 김용진(金容鎭) 경운(穎雲)
 김용진(金容鎭) 구룡(九龍)
 김용진(金容鎭) 향석(香石)
 김용택(金龍澤) 고송헌(孤松軒)
 김용행(金龍行) 석파(石坡)
 김우(金顥) 외재(畏齋)
 김우굉(金宇宏) 개암(開巖)
 김우급(金友掇) 추담(秋潭)
 김우생(金佑生) 양산(陽山)
 김우석(金禹錫) 귀래당(歸來堂)
 김우옹(金宇顥)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顥) 직봉(直峰)
 김우진(金佑鎭) 초성(焦星)
 김우태(金宇泰) 도촌(道村)

김우항(金宇杭) 갑봉(甲峰)
 김우현(金禹鉉) 죽포(竹圃)
 김우형(金宇亨) 기오당(寄傲堂)
 김운택(金雲澤) 백운헌(白雲軒)
 김원근(金元根) 성재(誠齋)
 김원근(金元根) 청암(淸巖)
 김원량(金元亮) 미촌(麋村)
 김원량(金元亮) 율촌(栗村)
 김원발(金元發) 국파(菊坡)
 김원식(金元植) 학해(學海)
 김원행(金元行)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 운루(雲樓)
 김위(金偉) 만취당(晩翠堂)
 김위남(金偉男) 요산(樂山)
 김유(金紐) 상락(上洛)
 김유(金瀏) 굴은재(橘隱齋)
 김유(金紐) 쌍계재(雙溪齋)
 김유(金紐) 취헌(翠軒)
 김유(金樑) 검재(劍齋)
 김유(金塗) 북저(北渚)
 김유경(金有慶) 용곡(龍谷)
 김유경(金有慶) 용주(龍洲)
 김유근(金道根) 황산(黃山)
 김유성(金有聲) 서암(西巖)
 김유신(金庾信) 용화(龍華)
 김유연(金有淵) 약산(藥山)
 김유현(金裕憲) 추산(秋山)
 김욱(金埵) 잠곡(潛谷)
 김욱(金埵) 회정당(晦靜堂)
 김윤(金倫) 죽헌(竹軒)
 김윤겸(金允謙) 진재(眞宰)
 김윤식(金允植) 영랑(永郎)
 김윤식(金允植) 운양(雲養)

김윤신(金潤身) 괴당(槐堂)
 김윤안(金允安) 동리(東籬)
 김윤제(金允悌) 사촌(沙村)
 김응(金隆) 물암(勿巖)
 김응근(金應根) 의석(宜石)
 김응기(金應箕) 병암(屏菴)
 김응남(金應男) 두암(斗巖)
 김응남(金應男) 두정(斗亭)
 김응명(金應鳴) 취죽당(翠竹堂)
 김응엽(金應燁) 죽일(竹日)
 김응원(金應元) 소호(小湖)
 김응조(金應祖)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祚) 아헌(啞軒)
 김응하(金應夏) 정수재(靜修齋)
 김응환(金應煥) 복헌(復軒)
 김응희(金應會) 청계(淸溪)
 김의(金巖) 남곡(南谷)
 김의순(金義淳) 산목헌(山木軒)
 김의원(金義元) 곤육재(困六齋)
 김의정(金義貞) 잠곡(潛谷) 〇〇〇
 김의행(金義行) 삼류재(三留齋)
 김이경(金以鏡) 수졸재(守拙齋)
 김이곤(金履坤) 봉록(鳳麓)
 김이교(金履喬) 죽리(竹里)
 김이구(金履九) 자연와(自然窩)
 김이기(金以器) 어초자(魚樵子)
 김이도(金履度) 송원(松園)
 김이련(金履鍊) 문암(文庵)
 김이만(金履萬) 청전(靑田)
 김이상(金履祥) 심적당(心適堂)
 김이성(金履成) 수은(市隱)
 김이소(金履素) 용암(庸菴)
 김이원(金履元) 소암(素菴)

김이음(金爾音) 삼로(三老)
 김이익(金履翼) 유와(膺窩)
 김이재(金履載) 강우(江右)
 김이타(金履妥) 삼산재(三山齋)
 김이형(金履衡) 석계(石溪)
 김익(金翼) 북일(北逸)
 김익(金翼) 정일우수(靜一迂叟)
 김익(金翼) 약현(藥峴)
 김익(金翼) 죽하(竹下)
 김익겸(金益謙) 잠재(潛齋)
 김익렴(金益廉) 적곡(赤谷)
 김익빈(金益彬) 탁계(濯溪)
 김익성(金益成) 취헌(翠軒)
 김익제(金益濟) 수졸재(守拙齋)
 김익제(金益齊) 천졸재(天拙齋)
 김익창(金益昌) 국당(菊堂)
 김익호(金翼虎) 독성재(篤誠齋)
 김익훈(金益勳) 광남(光南)
 김익희(金益熙) 창주(滄洲)
 김인(金鎭) 사지당(四止堂)
 김인(金寅) 노암(魯庵)
 김인후(金麟厚) 담재(澹齋)
 김인후(金麟厚) 담재(湛齋)
 김인후(金麟厚) 하서(河西)
 김일경(金一鏡) 아계(丫溪)
 김일손(金駟孫) 탁영(濯纓)
 김잉석(金莠石) 현석(玄石)
 김자각(金子覺) 거천(居川)
 김자수(金子粹) 상촌(桑村)
 김자점(金自黠) 낙서(洛西)
 김자지(金自知) 일계(逸溪)
 김작(金確) 상곡(相谷)
 김장생(金長生) 사계(沙溪)

김재건(金在健) 운봉(雲峰)
 김재로(金在魯) 청사(淸沙)
 김재로(金在魯) 허주자(虛舟子)
 김재욱(金在埵) 운고(雲阜)
 김재찬(金載贊) 해석(海石)
 김재창(金在昌) 향포(香圃)
 김재철(金在喆) 노정(蘆汀)
 김전(金典) 구봉(九峰)
 김전(金詮) 나헌(懶軒)
 김전(金詮) 능인(能人)
 김전(金銓) 의사(義士)
 김절(金節) 월곡(月谷)
 김점(金玷) 매당(梅堂)
 김정(金淨) 충암(沖菴)
 김정견(金廷堅) 국포(菊圃)
 김정국(金正國)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 팔여(八餘)
 김정균(金鼎均) 서어(鋤漁)
 김정남(金正男) 용계(龍溪)
 김정대(金鼎大) 휴각재(休殼齋)
 김정목(金庭睦) 서촌(西村)
 김정묵(金正默) 과재(過齋)
 김정식(金廷湜) 소월(素月)
 김정지(金鼎之) 나재(懶齋)
 김정집(金鼎集) 석세(石世)
 김정현(金鼎鉉) 송림(松林)
 김정현(金鼎鉉) 추곡(楸谷)
 김정호(金正浩) 고산자(古山子)
 김정후(金靜厚) 동리산인(東籬散人)
 김정희(金正喜) 과과(果坡)
 김정희(金正喜) 노과(老果)
 김정희(金正喜) 시암(詩庵)
 김정희(金正喜) 예당(禮堂)

김정희(金正喜) 완당(院堂)
 김정희(金正喜) 추사(秋史)
 김제(金濟) 백암(白岩)
 김제(金濟) 백암(白巖)
 김제(金禪) 취면(醉眠)
 김제갑(金梯甲) 의재(毅齋)
 김제겸(金濟謙) 죽취(竹醉)
 김제민(金齊閔) 오봉(鰲峰)
 김제신(金梯臣) 초헌(眺軒)
 김제안(金齊顔) 죽당(竹堂)
 김제안(金齊顔) 죽헌(竹軒)
 김제장(金濟章) 삼금당(三鎬堂)
 김제현(金齊賢) 안식와(安息窩)
 김제환(金濟煥) 소당(素堂)
 김조근(金祖根) 자오(紫塢)
 김조성(金肇盛) 춘광(春光)
 김조순(金祖淳) 풍고(楓阜)
 김존경(金存敬) 죽계(竹溪)
 김존경(金存敬) 죽당(竹堂)
 김종경(金鍾正) 운계(雲溪)
 김종남(金宗南) 해은(海隱)
 김종서(金宗瑞) 절재(節齋)
 김종선(金宗善) 송재(松齋)
 김종수(金鍾秀) 몽오(夢梧)
 김종수(金鍾秀) 몽촌(夢村)
 김종일(金宗一) 노암(魯菴)
 김종직(金宗直) 점필재(佔畢齋)
 김종진(金宗鎭) 시야(是也)
 김종필(金終弼) 풍담(楓潭)
 김종필(金終弼) 풍암(楓巖)
 김종한(金宗漢) 유하(遊霞)
 김종한(金鍾漢) 을파소(乙巴素)
 김종후(金從厚) 동명(東屏)

김종후(金鍾厚) 본암(本菴)
 김종후(金鍾厚) 진재(眞齋)
 김종휴(金宗休) 서소(書巢)
 김좌근(金左根) 하옥(荷屋)
 김좌명(金佐命) 성암(性岩)
 김좌명(金佐明) 귀계(歸溪)
 김좌명(金佐明) 귀천(歸川)
 김좌진(金佐鎭) 백야(白冶)
 김주(金澍) 농암(籠巖)
 김주(金澍) 우암(寓菴)
 김주(金澍) 농암(籠巖)
 김주선(金柱善) 죽농(竹濃)
 김주신(金柱臣) 세심재(洗心齋)
 김주신(金柱臣) 수곡(壽谷)
 김주우(金柱宇) 이면(易眠)
 김주현(金周鉉) 경암(景庵)
 김준(金準) 죽봉(竹峰)
 김준(金俊) 지재(遲齋)
 김준상(金僑相) 호은(壺隱)
 김준손(金俊孫) 주현(酒軒)
 김준영(金俊榮) 동계(東溪)
 김준현(金俊鉉) 가농(茄濃)
 김중은(金仲隱) 수은(樹隱)
 김중청(金中淸) 허당(許鎬)
 김중청(金中淸) 만퇴현(晩退軒)
 김중청(金中淸) 퇴현(退軒)
 김지남(金指南) 광천(廣川)
 김지대(金之岱) 쌍수당(雙修堂)
 김지백(金之白) 담허(澹虛)
 김지섭(金祉燮) 추강(秋岡)
 김지수(金地粹) 천태(天台)
 김지수(金地粹) 태천(苔川)
 김지순(金之純) 용암(春岩)

김지행(金砥行) 밀암(密庵)
 김지행(金砥行) 밀옹(密翁)
 김진(金鎭) 일포(日圃)
 김진(金振) 낙봉(駱峯)
 김진(金鎔) 영재(詠齋)
 김진(金鎔) 추담(秋潭)
 김진(金鎔) 춘담(春潭)
 김진(金晉) 죽강(竹岡)
 김진(金璉) 청계(淸溪)
 김진(金鎭) 매헌(梅軒)
 김진(金榛) 운암(雲岩)
 김진귀(金鎭龜) 만구와(晩求窩)
 김진규(金鎭圭) 죽천(竹泉)
 김진상(金鎭商) 퇴어자(退漁子)
 김진섭(金晉燮) 청천(淸川)
 김진수(金進洙) 벽노재(碧蘆齋)
 김진수(金進洙) 연파(蓮坡)
 김진악(金鎭岳) 난곡(蘭谷)
 김진양(金震陽) 송곡(松谷)
 김진양(金震陽) 초로(草廬)
 김진양(金震陽) 초옥자(草屋子)
 김진옥(金鎭玉) 온재(溫齋)
 김진옥(金鎭玉) 유하(柳下)
 김진우(金震羽) 죽은당(竹隱堂)
 김진중(金振宗) 신재(新齋)
 김진표(金震標) 오애(梧涯)
 김진호(金鎭浩) 중파(中波)
 김진홍(金振興) 송계(松溪)
 김질(金磧) 쌍곡(雙谷)
 김질간(金質幹) 쌍매당(雙梅堂)
 김집(金集) 애경당(愛景堂)
 김집(金集) 신독재(愼獨齋)
 김정(金澄) 감지당(坎止堂)

김찬(金瓚) 놀암(訥菴)
 김창립(金昌立) 택재(澤齋)
 김창숙(金昌淑) 벽옹(覽翁)
 김창숙(金昌淑) 심산(心山)
 김창숙(金昌肅) 삼고재(三古齋)
 김창업(金昌業) 가재(稼齋)
 김창업(金昌業) 노가재(老稼齋)
 김창일(金昌一) 사색(四塞)
 김창일(金昌一) 취병(翠屏)
 김창즙(金昌緝) 포음(圃陰)
 김창집(金昌集)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 은야(隱野)
 김창집(金昌集) 춘범(春帆)
 김창협(金昌協) 삼주(三洲)
 김창훈(金昌翕) 삼연(三淵)
 김창희(金昌熙) 둔재(鈍齋)
 김창희(金昌熙) 석릉(石菱)
 김처선(金處善) 직신(直臣)
 김천일(金千鎰)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 극연재(克念齋)
 김철근(金鐵根) 절우당(節友堂)
 김철희(金喆熙) 우호(友壺)
 김침(金瞻) 남악(南岳)
 김침(金瞻) 동강(東岡)
 김침(金瞻) 연계(蓮溪)
 김침(金瞻) 하당(荷塘)
 김침경(金添慶) 동강(東岡)
 김침경(金添慶) 장주(漳洲)
 김총(金聰) 우헌(迂軒)
 김축(金紉) 관후암(觀後庵)
 김축(金紉) 금현(琴軒)
 김춘택(金春澤) 북촌(北村)
 김춘택(金春澤) 북헌(北軒)

김충(金冲) 서대(西臺)
 김충남(金忠男) 칠촌(漆村)
 김충렬(金忠烈) 옥호(玉壺)
 김충선(金忠善) 모하당(慕夏堂)
 김충용(金忠用) 구암(龜巖)
 김취려(金就礪) 잠재(潛齋)
 김취문(金就文) 구암(久庵)
 김취성(金就成) 서산(西山)
 김취성(金就成) 진락당(眞樂堂)
 김치(金緻) 남봉(南峰)
 김치(金緻) 심곡(深谷)
 김치락(金致樂) 천졸재(天拙齋)
 김치만(金致萬) 고은당(高隱堂)
 김치원(金致遠) 탁계(濯溪)
 김치인(金致仁) 고월(古月)
 김치후(金致厚) 사촌(沙村)
 김태(金兌) 구담(九潭)
 김태국(金泰國) 송고(松阜)
 김태암(金泰巖) 희암(希菴)
 김태일(金兌一) 노주(蘆洲)
 김태현(金台鉉) 쾌헌(快軒)
 김태흠(金泰洽) 대은(大隱)
 김태흠(金泰洽) 소하(素荷)
 김택(金澤) 양진당(養眞堂)
 김택룡(金澤龍) 조성당(操省堂)
 김택삼(金宅三) 농암(農巖)
 김택영(金澤榮) 소호당(韶護堂)
 김택영(金澤榮) 창강(滄江)
 김팔원(金八元) 지산(芝山)
 김팔화(金八和) 노촌(老村)
 김팔휴(金八休) 수구재(守口齋)
 김평묵(金平默) 중암(重庵)
 김평식(金平植) 문곡(文谷)

김필(金璣) 추강(秋江)
 김필(金泌) 모기재(慕箕齋)
 김필진(金必振) 평옹(萍翁)
 김필진(金必振) 풍에(楓崖)
 김하규(金夏圭) 기암(奇岩)
 김하옥(金夏玉) 기석(奇石)
 김학성(金學性) 송석(松石)
 김학진(金鶴鎭) 후몽(後夢)
 김한동(金翰東) 와은(臥隱)
 김한록(金漢祿) 한간(寒澗)
 김항(金伉) 돈은(遯隱)
 김해(金漑) 설송(雪松)
 김해경(金海卿) 이상(李箱)
 김해일(金海一) 단계(檀溪)
 김핵(金垓) 근시재(近始齋)
 김행(金行) 장포(長浦)
 김헌(金憲) 송만(松灣)
 김헌(金獻) 무원(茂園)
 김헌기(金憲基) 요천(堯泉)
 김헌기(金憲基) 초암(初庵)
 김혁(金赫) 오석(吾石)
 김현(金倪) 월오(月梧)
 김현도(金玄度) 인현(認軒)
 김현성(金玄成) 남창(南窓)
 김협(金協) 충효당(忠孝堂)
 김협(金欽) 매헌(梅軒)
 김형원(金炯元) 석송(石松)
 김호(金灝) 심낙재(尋樂齋)
 김호(金灝) 축락당(築樂堂)
 김홍(金鑿) 고산(孤山)
 김홍근(金弘根) 춘산(春山)
 김홍도(金弘度) 남봉(南峰)
 김홍도(金弘道) 고면(高眠)

김홍도(金弘道) 단구(丹邱)
 김홍도(金弘道)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서호(西湖)
 김홍도(金弘道) 칩취옹(軋醉翁)
 김홍민(金弘敏) 사담(沙潭)
 김홍복(金洪福) 동원(東園)
 김홍우(金弘宇) 백강(白江)
 김홍옥(金弘郁) 학주(鶴洲)
 김홍운(金鴻運) 동곡(東谷)
 김홍원(金弘遠) 해옹(海翁)
 김홍익(金弘翼) 묵재(默齋)
 김홍집(金弘集) 도원(道園)
 김홍집(金弘集) 이정학재(以政學齋)
 김홍휘(金弘徽) 성극당(省克堂)
 김화식(金化湜) 이련(泥蓮)
 김화준(金華俊) 당계(棠溪)
 김학(金爍) 금사(金沙)
 김환(金鑣) 낙애(樂崖)
 김황(金滉) 어촌(漁村)
 김회(金淮) 후송당(後松堂)
 김회신(金懷愼) 초당(草堂)
 김회연(金會淵) 호운루(曉雲樓)
 김회조(金懷祖) 치당(致堂)
 김효건(金孝建) 경현(警弦)
 김효극(金孝克) 사매당(四味堂)
 김효급(金孝給) 원봉(圓峰)
 김효선(金孝善) 호풍(虎風)
 김효원(金孝元) 성암(省菴)
 김효일(金孝一) 국담(菊潭)
 김효정(金孝貞) 주촌(注村)
 김후신(金厚臣) 이재(彝齋)
 김훤(金畵) 둔촌(鈍村)
 김훤(金畵) 철촌(鐵村)

김휘(金徽) 만은(晩隱)
 김휘(金徽) 사휴정(四休亭)
 김흠(金審) 매사(梅沙)
 김흔(金訢) 안락당(顔樂堂)
 김흔(金訢) 안락정(安樂亭)
 김흥경(金興慶) 급류정(急流亭)
 김흥국(金興國) 수북정(水北亭)
 김흥근(金興根) 유관(遊觀)
 김흥락(金興洛) 서산(西山)
 김희(金熙) 근와(芹窩)
 김희년(金禧年) 분성자(盆城子)
 김희삼(金希參) 칠봉(七峰)
 김희설(金希說) 가정(柯亭)
 김희우(金希禹) 적송헌(赤松軒)
 김희철(金希哲) 휴계(休溪)
 나결(羅潔) 월봉(月峯)
 나급(羅級) 후곡(後谷)
 나덕헌(羅德憲) 장암(壯巖)
 나만갑(羅萬甲) 구포(白鳥浦)
 나무송(羅茂松) 물염정(勿染亭)
 나무춘(羅茂春) 구화(九華)
 나빈(羅彬) 도향(稻香)
 나성두(羅星斗) 기주(碁洲)
 나세찬(羅世縉) 송재(松齋)
 나수연(羅壽淵) 소봉(小蓬)
 나식(羅湜) 장음정(長吟亭)
 나안세(羅安世) 건계(建溪)
 나안의(羅安義) 낙선당(樂善堂)
 나안인(羅安仁) 내빈당(耐貧堂)
 나양좌(羅良佐) 명촌(明村)
 나열(羅烈) 주계(朱溪)
 나열(羅烈) 해양(海陽)
 나영학(羅泳學) 노향(老香)

나용환(羅龍煥) 택암(澤菴)
 나운규(羅雲圭) 춘사(春史)
 나운명(羅允明) 간암(艮菴)
 나응두(羅應斗) 기암(畸菴)
 나응삼(羅應參) 구산(龜山)
 나응서(羅應瑞) 남간(南澗)
 나응허(羅應虛) 행정(杏亭)
 나의(羅辰) 행은(杏隱)
 나이준(羅以俊) 매음(梅陰)
 나인협(羅仁協) 홍암(泓菴)
 나준(羅浚) 동현자(洞玄子)
 나중소(羅仲昭) 포석(拋石)
 나창(羅利) 지재(止齋)
 나철(羅喆) 홍엄(弘嚴)
 나태일(羅泰一) 장곡(藏谷)
 나표(羅表) 계이당(繼怡堂)
 나학천(羅學川) 창주(滄洲)
 나해봉(羅海鳳) 남간(南澗)
 나혜석(羅蕙錫) 정월(晶月)
 나흥유(羅興儒) 중순당(中順堂)
 나흥유(羅興儒) 충순당(忠順堂)
 낙현(樂玟) 이봉(離峰)
 남격(南格) 용문(龍門)
 남계명(南季明) 해운당(海雲堂)
 남계우(南啓宇) 일호(一濠)
 남계하(南啓夏) 구봉(龜峰)
 남계하(南啓夏) 구봉(龜峰)
 남계하(南啓夏) 은계옹(隱溪翁)
 남계하(南啓夏) 은계옹(隱几翁)
 남곤(南袞) 지정(止亭)
 남곤(南袞) 지족당(知足堂)
 남공보(南公輔) 성재(省齋)
 남공철(南公轍) 금릉(金陵)

남공청(南公轍) 사영(思穎)
 남구만(南九萬) 미재(美齋)
 남구만(南九萬) 약천(藥泉)
 남구명(南九明) 우암(寓菴)
 남궁경(南宮敬) 풍계(楓溪)
 남궁령(南宮靈) 안재(安齋)
 남궁벽(南宮璧) 초몽(草夢)
 남궁수(南宮棼) 계춘당(几春堂)
 남궁억(南宮億) 한서(翰西)
 남궁옥(南宮鈺) 창주(滄洲)
 남극관(南克寬) 사시(謝施)
 남근명(南近明) 청암(靑岩)
 남급(南磔) 유유헌(由由軒)
 남기만(南基萬) 묵산(默山)
 남기제(南紀濟) 설하(雪下)
 남노성(南老星) 운곡(雲谷)
 남대원(南大源) 묵우당(默愚堂)
 남도진(南道振) 농환재(弄丸齋)
 남두침(南斗瞻) 성와(醒窩)
 남맹하(南孟夏) 동교(東郊)
 남명익(南溟翼) 주은(酒隱)
 남명학(南溟學) 오룡재(五龍齋)
 남몽오(南夢鼈) 삼송(三松)
 남발(南撥) 화음(華陰)
 남병철(南秉哲) 강설(絳雪)
 남병철(南秉哲) 계당(桂塘)
 남병철(南秉哲) 구당(鷗堂)
 남병철(南秉哲) 규재(圭齋)
 남봉년(南鳳年) 우천당(雨泉堂)
 남사고(南師古) 격암(格菴)
 남상교(南尚教) 우촌(雨村)
 남상길(南相吉) 만향재(晩香齋)
 남상길(南相吉) 육일재(六一齋)

남상문(南尙文) 쌍호(雙湖)
 남상치(南尙治) 쌍청당(雙淸堂)
 남선(南銑) 대몽(大夢)
 남선(南銑) 회곡(晦谷)
 남성훈(南聖熏) 약리(藥里)
 남세주(南世周) 송파(松坡)
 남수문(南秀文) 경재(敬齋)
 남언경(南彦徑) 동악(東岳)
 남언경(南彦慶) 동강(東岡)
 남언기(南彦紀) 고반(考槃)
 남언기(南彦紀) 정재(靜齋)
 남언진(南彦鎭) 설애(雪厓)
 남영(南嶸) 고산(孤山)
 남영로(南永魯) 담초(潭樵)
 남용만(南龍萬) 활산(活山)
 남용익(南龍翼) 호곡(壺谷)
 남유상(南有常) 태화자(太華子)
 남유용(南有容) 뇌연(雷淵)
 남유용(南有容) 박연(靄淵)
 남유용(南有容) 소화(小華)
 남응룡(南應龍) 이락당(二樂堂)
 남응운(南應雲) 관원(灌園)
 남응운(南應雲) 국창(菊窓)
 남응운(南應雲) 난재(蘭齋)
 남응침(南應琛) 송파(松坡)
 남이공(南以恭) 설사(雪簑)
 남이성(南以星) 의졸재(宜拙齋)
 남이신(南以信) 직곡(直谷)
 남이웅(南以雄) 시북(市北)
 남이흥(南以興) 성은(城隱)
 남익훈(南益薰) 파은(坡隱)
 남재(南在) 구정(龜亭)
 남정(南靜) 한곡(寒谷)

남정중(南正重) 기봉(基峰)
 남정진(南廷縉) 여정(黎亭)
 남정철(南廷哲) 하산(霞山)
 남지언(南知言) 삼괴당(三槐堂)
 남추(南趨) 서계(西溪)
 남추(南趨) 선은(仙隱)
 남치리(南致利) 분지당(賁趾堂)
 남치원(南致元) 금현(琴軒)
 남치훈(南致薰) 지산(芝山)
 남탁(南卓) 백석(白石)
 남태기(南泰耆) 죽리(竹裏)
 남태량(南泰良) 광릉(廣陵)
 남태재(南泰齋) 담정(淡亭)
 남태재(南泰齋) 학야(鶴野)
 남하정(南夏正) 동소(桐巢)
 남하행(南夏行) 돈암(遯庵)
 남하행(南夏行) 잠옹(潛翁)
 남학명(南鶴鳴) 회은(晦隱)
 남한기(南漢紀) 기옹(寄翁)
 남해준(南海準) 신촌(新村)
 남효온(南孝溫) 최락당(最樂堂)
 남효온(南孝溫)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행우(杏雨)
 남효의(南孝義) 지소재(志素齋)
 남효의(南孝義) 지재(志齋)
 남훤(南詡) 창명(滄溟)
 낭오(郎昨) 대은(大隱)
 노경린(盧慶麟) 사인당(四印堂)
 노경임(盧景任) 경암(敬菴)
 노계원(盧啓元) 운음(芸陰)
 노계원(盧繼元) 체화당(楝華堂)
 노극복(盧克復) 월화당(月華堂)
 노극성(盧克成) 매죽와(梅竹窩)

노극신(盧克愼) 후재(厚齋)
 노극홍(盧克弘) 옥천(沃川)
 노극(盧兢) 한원(漢源)
 노문한(盧文漢) 죽문(竹門)
 노백린(盧伯麟) 계원(桂園)
 노병대(盧炳大) 금원(錦園)
 노분(盧吩) 줄존재(拙存齋)
 노사신(盧思愼) 보진재(葆眞齋)
 노사신(盧思愼) 천은당(天隱堂)
 노송필(盧松弼) 국일재(菊逸齋)
 노수(盧遂) 소암(小菴)
 노수성(盧守誠) 송암(松菴)
 노수신(盧守愼)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암실(巖室)
 노수신(盧守愼) 여봉(茹峰)
 노수신(盧守愼) 이재(伊齋)
 노숙(盧瑀) 관류당(觀流堂)
 노숙동(盧叔仝) 송재(松齋)
 노순(盧鎔) 매와(梅窩)
 노승(盧嵩) 상촌(桑村)
 노식(盧植) 별유(別有)
 노심(盧沈) 만취(晩翠)
 노우명(盧友明) 신고당(信古堂)
 노응환(盧應暉) 수암(守庵)
 노인(盧禔) 나암(懶菴)
 노인(魯認) 금계(錦溪)
 노자영(盧子泳) 춘성(春城)
 노직(盧植) 호한현(好閑軒)
 노진(盧禎) 옥계(玉溪)
 노필(盧王筆) 흑재(黑齋)
 노필(盧璋) 묵재(墨齋)
 노한(盧閑) 효사성(孝思亭)
 노협(盧協) 일소(一笑)

노형필(盧亨弼)운제(雲堤)
 노홍기(盧弘器)하빈(河濱)
 노흠(盧欽)만세(晩歲)
 노흠(盧欽)입재(立齋)
 노흠(盧欽)죽천(竹泉)
 노흠(盧洽)상청당(常靑堂)
 능원대군(綾原大君)담은당(湛恩堂)
 단종(坦鍾)대응(大應)
 달공(達空)본숙(本寂)
 대우(大愚)벽하(碧霞)
 대현(大賢)청구사문(靑丘沙門)
 덕진(德眞)허주(虛舟)
 도경유(都慶兪)낙음(洛陰)
 도성유(都聖兪)양직(養直)
 도신수(都愼修)지암(地巖)
 도신징(都愼徵)죽헌(竹軒)
 도안(道安)월저(月渚)
 도연(禱演)백련(白蓮)
 도윤(道允)쌍봉(雙峰)
 도응(都膺)청송당(靑松堂)
 도응유(都應兪)취애(翠崖)
 도의(道義)원적(元寂)
 도형(都衡)행정(杏亭)
 동주(洞珠)백화(白華)
 두운(斗云)은봉(隱峯)
 류간(柳澗)복촌(復村)
 류간(柳澗)후촌(後村)
 류감(柳堪)지재(芝齋)
 류감(柳堪)호은(壺隱)
 류격(柳格)청만(晴巒)
 류겸명(柳謙明)만수(晩修)
 류경농(柳慶農)추사(秋沙)
 류경심(柳景深)구촌(龜村)

류경종(柳慶種)해암(海岩)
 류경창(柳慶昌)미천(薇川)
 류경창(柳慶昌)성단(聲灘)
 류계린(柳桂隣)성은(城隱)
 류계분(柳桂芬)녹군(綠筠)
 류곡(柳穀)독락정(獨樂亭)
 류곤수(柳崑壽)칠송(七松)
 류공량(柳公亮)둔옹(屯翁)
 류관(柳灌)송암(松菴)
 류관(柳寬)하정(夏亭)
 류광선(柳廣善)매돈(梅墩)
 류광익(柳光翼)풍암(楓巖)
 류광익(柳光翼)항재(恒齋)
 류귀삼(柳貴三)수진당(守眞堂)
 류규(柳埴)임어재(臨汝齋)
 류극(柳極)하오(霞塢)
 류근(柳根)고산(孤山)
 류근(柳根)서경(西峒)
 류근(柳瑾)석농(石儂)
 류근후(柳謹厚)결청재(潔淸齋)
 류내(柳袞)서림(徐林)
 류달존(柳達尊)대암(臺岩)
 류담(柳談)묵재(默齋)
 류대원(柳大源)자겸와(自謙窩)
 류대춘(柳帶春)동촌(東村)
 류덕장(柳德章)가산(茄山)
 류덕장(柳德章)수운(岫雲)
 류도(柳棹)반곡(盤谷)
 류도발(柳道發)회은(晦隱)
 류도삼(柳道三)경암(敬庵)
 류도삼(柳道三)산암(散菴)
 류도원(柳道源)노애(蘆涯)
 류득공(柳得恭)고운당(古芸堂)

류득공(柳得恭)냉암(冷庵)
 류득공(柳得恭)냉재(冷齋)
 류뢰(柳耒)후돈(後遁)
 류만중(柳萬重)죽포(竹浦)
 류명건(柳命堅)모산(茅山)
 류명재(柳命才)사재(思齋)
 류명천(柳命天)퇴당(退堂)
 류명현(柳命賢)정재(靜齋)
 류몽인(柳夢寅)간재(艮齋)
 류몽인(柳夢寅)묵호자(默好子)
 류몽인(柳夢寅)아우당(於于堂)
 류몽정(柳夢鼎)학곡(鶴谷)
 류몽정(柳夢鼎)학암(鶴岩)
 류몽학(柳夢鶴)고암(古菴)
 류문원(柳文遠)삼우당(三友堂)
 류발(柳發)수촌(秀村)
 류방선(柳方善)태재(泰齋)
 류백승(柳伯淳)위촌(葦村)
 류백승(柳百乘)불후당(不朽堂)
 류백유(柳伯濡)저정(桴亭)
 류병우(柳秉禹)해사(海史)
 류복기(柳復起)기봉(岐峰)
 류복립(柳復立)묵계(墨溪)
 류복명(柳復明)만촌(晩村)
 류봉(柳奉)망기정(忘機亭)
 류봉휘(柳鳳輝)만암(晩菴)
 류분(柳朶)정재(定齋)
 류사(柳泗)설강(雪江)
 류사(柳泗)운강(雲江)
 류사경(柳思敬)유월정(六月亭)
 류사규(柳思規)상유자(桑榆子)
 류상운(柳尙運)누실(陋室)
 류상운(柳尙運)약재(約齋)

류석(柳碩) 개산(皆山)
 류성룡(柳成龍) 서애(西厓)
 류성운(柳成運) 묵수(默守)
 류성원(柳誠源) 낭간(琅玕)
 류성익(柳聖翊) 수은(市隱)
 류성춘(柳成春) 나옹(懶翁)
 류성춘(柳成春) 나재(懶齋)
 류세린(柳世麟) 활탄(活灘)
 류세린(柳世麟) 팔우당(八友堂)
 류세명(柳世鳴) 우현(寓軒)
 류세훈(柳世勛) 치현(耻軒)
 류송재(柳松齋) 후조현(後凋軒)
 류숙(柳淑) 사암(思菴)
 류숙(柳淑) 취홀(醉吃)
 류순(柳洵) 노포(老圃)
 류순(柳淳) 송암(松岩)
 류순선(柳順善) 소재(素齋)
 류순익(柳舜翼) 지강(芝岡)
 류송조(柳崇祖) 석헌(石軒)
 류송조(柳崇祖) 진일재(眞一齋)
 류승(柳乘) 성재(誠齋)
 류승(柳乘) 현강(玄江)
 류승판(柳承判) 돈암(遯菴)
 류시발(柳時發) 정헌(禎軒)
 류시행(柳時行) 기정(碁汀)
 류신영(柳臣榮) 하은(霞隱)
 류심(柳諶) 지재(止齋)
 류심(柳諶) 도계(道溪)
 류엄(柳嚴) 성암(省菴)
 류여격(柳汝恪) 명촌(明村)
 류여항(柳汝恒) 문옹(汶翁)
 류염(柳琰) 점재(點齋)
 류영(柳煥) 엄재(濂齋)

류영(柳穎) 유암(柳菴)
 류영경(柳永慶) 춘호(春湖)
 류영근(柳永謹) 죽비(竹屨)
 류영길(柳永吉) 월봉(月蓬)
 류영순(柳永詢) 두호(斗湖)
 류영충(柳永忠) 만휴당(晩休堂)
 류영충(柳永忠) 평호(萍湖)
 류영하(柳榮河) 보산(甫山)
 류영효(柳永孝) 죽간(竹澗)
 류옥(柳沃) 석헌(石軒)
 류우(柳藕) 서봉(西峰)
 류운(柳漚) 인와(忍窩)
 류운(柳雲) 성재(醒齋)
 류운(柳雲) 항재(恒齋)
 류운룡(柳雲龍) 겸암(謙庵)
 류원지(柳元之) 졸재(拙齋)
 류유일(柳維一) 상유(桑楡)
 류의건(柳宜健) 정묵재(靜默齋)
 류의건(柳宜健) 화계(花溪)
 류의손(柳義孫) 농암(農巖)
 류의손(柳義孫) 농암(龔岩)
 류의손(柳義孫) 회헌(檜軒)
 류의양(柳義養) 후송(後松)
 류의정(柳宜貞) 사와(思窩)
 류의함(柳宜涵) 백졸암(百拙菴)
 류이승(柳以升) 동호(東湖)
 류인석(柳麟錫) 의암(毅庵)
 류인숙(柳仁淑) 정수(靜叟)
 류인숙(柳仁淑) 촉암(蜀菴)
 류인식(柳寅植) 동산(東山)
 류인홍(柳仁洪) 죽계(竹溪)
 류인홍(柳仁洪) 죽당(竹堂)
 류인황(柳仁黃) 수재(睡齋)

류임(柳林) 단주(旦那)
 류자미(柳自湄) 서산(西山)
 류자후(柳子厚) 동초(東礎)
 류자후(柳子厚) 송주(松洲)
 류장(柳檣) 사호(沙湖)
 류장원(柳長源) 동암(東巖)
 류재건(劉在建) 겸산(兼山)
 류전(柳琰) 우복(愚伏)
 류정량(柳廷亮) 소한당(素閑堂)
 류정수(柳廷秀) 관재(觀齋)
 류정원(柳正原) 삼산(三山)
 류정한(柳鼎漢) 화곡(花谷)
 류정현(柳廷顯) 월정(月亭)
 류조순(柳祖諄) 소암(笑菴)
 류조인(柳祖詵) 범애(泛愛)
 류종선(柳從善) 겸재(謙齋)
 류종인(柳宗仁) 취미헌(翠微軒)
 류종지(柳宗智) 조계(潮溪)
 류종흥(柳宗興) 월곡(月谷)
 류주(柳澗) 청현(淸軒)
 류준(柳浚) 사교(四矯)
 류준근(柳濬根) 우록(友鹿)
 류중교(柳重教) 성재(省齋)
 류중영(柳仲郢) 입암(立巖)
 류지발(柳之發) 도옹(陶翁)
 류지영(柳志永) 팔극(八克)
 류지화(柳志和) 반구당(伴鷗堂)
 류진(柳軫) 수암(修菴)
 류진동(柳辰仝) 죽당(竹堂)
 류집(柳楫) 백석(白石)
 류청신(柳淸臣) 신암(信庵)
 류최진(柳最鎭) 산초(山樵)
 류최진(柳最鎭) 정암(鼎庵)

류최진(柳最鎭) 학산(學山)
 류최진(柳最鎭) 학산목재(學山木齋)
 류충걸(柳忠傑) 금사(錦沙)
 류치명(柳致明) 정재(定齋)
 류치환(柳致環) 청마(靑馬)
 류탁(柳濯) 성재(誠齋)
 류태좌(柳台佐) 학서(鶴棲)
 류팽로(柳彭老) 월파(月坡)
 류평(柳平) 송암(松菴)
 류포(柳砲) 가촌(嘉村)
 류필훈(柳必勳) 묵당(墨塘)
 류항(柳恒) 구봉(九峰)
 류항(柳恒) 봉창(蓬窓)
 류현(柳軒) 낙봉(駱峯)
 류혁연(柳赫然) 야당(野塘)
 류혁연(柳赫然) 야당(野堂)
 류형(柳珩) 석담(石潭)
 류형원(柳馨源) 반계(磻溪)
 류활(柳活) 태우(泰宇)
 류후조(柳厚祚) 낙파(洛波)
 류후조(柳厚祚) 매산(梅山)
 류훈(柳埴) 두포(杜浦)
 류흠(柳欽) 용문(龍門)
 류흥룡(柳興龍) 숙옹(塾翁)
 류희(柳僖) 남악(南嶽)
 류희(柳僖) 방편자(方便子)
 류희(柳僖) 서파(西坡)
 류희구(柳希耆) 화남(華南)
 류희량(柳希亮) 봉음(峰陰)
 류희량(柳希亮) 제교(霽嶠)
 류희령(柳希齡) 기와(寄窩)
 류희령(柳希齡) 몽암(夢菴)
 류희령(柳希齡) 몽와(夢窩)

류희서(柳熙緒) 남록(南麓)
 류희춘(柳希春) 미암(眉巖)
 마사종(馬嗣宗) 낙포(樂圃)
 마상규(馬湘圭) 해송(海松)
 마응방(馬應房) 용암(龍庵)
 마하수(馬河秀) 주촌(舟村)
 마희경(馬義慶) 죽계(竹溪)
 만우(卍雨) 천봉(千峰)
 맹만시(孟萬始) 백평(栢坪)
 맹사서(孟思誠) 동포(東浦)
 맹사성(孟思誠) 고경불(古卿佛)
 맹세형(孟世衡) 만은(晩隱)
 맹세형(孟世衡) 하곡(霞谷)
 맹희도(孟希道) 동포(東浦)
 명광계(明光啓) 모암(慕庵)
 명완벽(明完璧) 진당(眞堂)
 명이항(明以恒) 성재(成齋)
 명정기(明廷耆) 광암(廣巖)
 명조(明照) 허백당(虛白堂)
 목낙선(睦樂善) 호옹(壺翁)
 목내선(睦來善) 수옹(睡翁)
 목내선(睦來善) 수헌(睡軒)
 목대흠(睦大欽) 다산(茶山)
 목대흠(睦大欽) 죽오(竹塢)
 목만중(睦萬中) 여와(餘窩)
 목서흠(睦敍欽) 매계(梅溪)
 목성선(睦性善) 병산(瓶山)
 목세칭(睦世稱) 현현(玄軒)
 목수흠(睦守欽) 하담(荷潭)
 목임일(睦林一) 청헌(靑軒)
 목장흠(睦長欽) 고석(孤石)
 목창명(睦昌明) 취강(翠岡)
 목창명(睦昌明) 취원(翠園)

목천성(睦天成) 죽과(竹波)
 목천임(睦天任) 묵암(默菴)
 목첨(睦詹) 두일당(逗日堂)
 목첨(睦詹) 시우당(時雨堂)
 목취선(睦取善) 죽오(竹塢)
 목취선(睦取善) 죽일(竹一)
 목행선(睦行善) 남간(南澗)
 무기(無寄) 부암(浮庵)
 무기(無己) 대혼자(大昏子)
 무상(無相) 송계(松溪)
 무염(無染) 무주(無住)
 문경동(文敬全) 창계(滄溪)
 문경호(文景虎) 역양(嶧陽)
 문계동(文啓東) 전와(荃窩)
 문관(文權) 죽계(竹溪)
 문근(文瑾) 매계(梅溪)
 문덕교(文德教) 동호(東湖)
 문몽원(文夢轅) 환성(喚醒)
 문세영(文世榮) 청람(靑嵐)
 문신(文信) 화악(華岳)
 문여(文礪) 설계(雪溪)
 문위(文緯) 모계(茅溪)
 문위세(文緯世) 풍암(楓庵)
 문익성(文益成) 옥동(玉洞)
 문익점(文益漸) 삼우당(三憂堂)
 문익주(文益周) 백련당(白蓮堂)
 문일평(文一平) 호암(湖岩)
 문종도(文宗道) 경암(敬菴)
 문환(文喚) 극재(克齋)
 문희지(文繪地) 추과(錐螺)
 문희지(文繪地) 추라(錐累)
 문효종(文孝宗) 자락당(自樂堂)
 문후개(文後開) 화봉(花峰)

민광윤(閔光尹) 유계(楡溪)
 민구령(閔九齡) 옥재(鬲齋)
 민구서(閔九敍) 삼매당(三梅堂)
 민구소(閔九韶) 경재(敬齋)
 민구연(閔九淵) 우우재(友于齋)
 민구주(閔九疇) 무명당(無名堂)
 민규호(閔奎鎬) 지당(芝堂)
 민규호(閔奎鎬) 황사(黃史)
 민기(閔機) 서한당(棲閑堂)
 민기(閔箕) 관물재(觀物齋)
 민기(閔箕) 호학재(好學齋)
 민기문(閔起文) 역암(櫟菴)
 민기현(閔耆顯) 이송거사(二松居士)
 민노행(閔魯行) 기원(杞園)
 민몽룡(閔夢龍) 운와(雲窩)
 민변(閔栴) 서한당(棲閑堂)
 민변(閔栴) 용암(龍巖)
 민병길(閔丙吉) 소운(蘇雲)
 민병석(閔丙奭) 시남(詩南)
 민사평(閔思平) 급암(及菴)
 민석(閔善) 우천(牛川)
 민성도(閔聖徒) 수졸당(守拙堂)
 민성휘(閔聖徽) 졸당(拙堂)
 민순(閔純) 습정(習靜)
 민순(閔純) 행촌(杏村)
 민시중(閔著重) 인재(認齋)
 민신(閔伸) 돈암(遯菴)
 민암(閔黯) 차호(叉湖)
 민업(閔業) 양호(楊湖)
 민여검(閔汝儉) 운곡(雲谷)
 민여검(閔汝儉) 운촌(雲村)
 민여임(閔汝任) 진의(振衣)
 민여임(閔汝任) 취옹(醉翁)

민여진(閔汝鎭) 석담(石潭)
 민영기(閔泳綺) 만암(滿庵)
 민영기(閔泳綺) 포암(蒲庵)
 민영달(閔泳達) 우당(藕堂)
 민영목(閔泳穆) 천식(泉食)
 민영익(閔泳翊) 운미(芸楣)
 민영익(閔泳翊) 원정(圓丁)
 민영익(閔泳翊) 죽미(竹楣)
 민영익(閔泳翊) 천심죽재(千尋竹齋)
 민영화(閔泳煥) 계정(桂庭)
 민우수(閔遇洙) 섬촌(蟾村)
 민우수(閔遇洙) 정암(貞菴)
 민옥(閔昱) 석계(石溪)
 민유(閔楡) 급암(及巖)
 민유경(閔有慶) 도촌(陶村)
 민유경(閔有慶) 풍돈(楓墩)
 민유부(閔有孚) 양졸당(養拙堂)
 민유의(閔由諱) 어일(漁逸)
 민유중(閔維重) 둔촌(屯村)
 민응기(閔應祺) 우수(尤叟)
 민응기(閔應祺) 우수(迂叟)
 민응기(閔應祺) 경퇴재(景退齋)
 민응수(閔應洙) 오현(梧軒)
 민응식(閔應植) 우당(藕堂)
 민응협(閔應協) 명고(鳴臯)
 민의현(閔依賢) 일재(一齋)
 민이승(閔以升) 성재(誠齋)
 민이현(閔彝顯) 삼곡(三谷)
 민익수(閔翼洙) 숙야(夙夜)
 민인백(閔仁伯) 태천(苔泉)
 민재남(閔在南) 자소옹(自笑翁)
 민재남(閔在南) 청천(聽天)
 민재남(閔在南) 회정(晦亭)

민재문(閔在汶) 구연당(白蓮堂)
 민점(閔點) 쌍오(雙梧)
 민정란(閔廷鸞) 지휴(止休)
 민정중(閔鼎重) 노봉(老峰)
 민제(閔霽) 어은(漁隱)
 민제연(閔齊淵) 쌍매헌(雙梅軒)
 민제인(閔齊仁) 입암(立岩)
 민종묵(閔種默) 한산(翰山)
 민주면(閔周冕) 수월당(水月堂)
 민지(閔漬) 묵軒(默軒)
 민진량(閔晉亮) 구졸(九拙)
 민진원(閔鎭遠) 단암(丹巖)
 민진원(閔鎭遠) 세심옹(洗心翁)
 민진후(閔鎭厚) 지재(趾齋)
 민창도(閔昌道) 국재(菊齋)
 민창도(閔昌道) 화은(化隱)
 민치복(閔致福) 활재(擴齋)
 민치상(閔致庠) 하당(荷堂)
 민태원(閔泰瑗) 부춘(富春)
 민태원(閔泰瑗) 우보(牛步)
 민태중(閔泰重) 평사(平沙)
 민태호(閔台鎬) 표정(杓庭)
 민택기(閔宅基) 설해(雪海)
 민필호(閔弼鎬) 석린(石麟)
 민형남(閔馨男) 지애(芝厓)
 민형식(閔衡植) 우하(又荷)
 민회삼(閔懷參) 의암(義庵)
 민회현(閔懷賢) 일재(一齋)
 민희(閔熙) 석호(石湖)
 민희(閔熙) 설루(雪樓)
 박강생(朴剛生) 나산경수(蘿山耕叟)
 박건(朴建) 해사(海簑)
 박건중(朴建中) 전곡(仙谷)

박건희(朴健會) 쾌재(快齋)
 박격(朴激) 지포(芝浦)
 박경(朴璟) 죽림(竹林)
 박경신(朴慶新) 한천(寒泉)
 박경업(朴慶業) 암수(巖叟)
 박경업(朴慶業) 추탄(秋灘)
 박경옥(朴景玉) 평주(平洲)
 박경응(朴慶應) 일옹(一翁)
 박경후(朴慶後) 만오(晩悟)
 박경후(朴慶後) 취옹(醉翁)
 박계(朴桂) 우망옹(雨忘翁)
 박계강(朴繼姜) 수은(市隱)
 박계주(朴啓周) 박진(朴進)
 박계주(朴啓柱) 서운(曙雲)
 박계현(朴啓賢) 관포(灌圃)
 박공달(朴公達) 강호(江湖)
 박공달(朴公達) 사지(四止)
 박관(朴寬) 고암(孤岩)
 박광옥(朴光玉) 회재(懷齋)
 박광우(朴光佑) 잠소당(潛昭堂)
 박광우(朴光佑) 필재(萸齋)
 박광일(朴光一) 손재(遜齋)
 박광전(朴光前) 죽천(竹川)
 박구(朴球) 정재(貞齋)
 박권(朴權) 귀암(歸菴)
 박규수(朴珪壽) 환재(桓齋)
 박규수(朴珪壽) 환재(蹶齋)
 박근원(朴謹元) 망일재(望日齋)
 박근제(朴根悌) 옥현(玉峴)
 박근효(朴根孝) 만포(晩圃)
 박기년(朴耆年) 동재(東齋)
 박기양(朴箕陽) 석운(石雲)
 박기양(朴箕陽) 쌍오(雙梧)

박기준(朴基駿) 운초(雲樵)
 박길응(朴吉應) 진정재(眞靜齋)
 박내홍(朴來弘) 현파(玄波)
 박노(朴藹) 대호(大瓠)
 박노현(朴魯賢) 사탄(槎灘)
 박녹(朴瀾) 취수옹(醉睡翁)
 박담(朴潭) 지포(芝浦)
 박대덕(朴大德) 합강(合江)
 박대립(朴大立) 무위당(無違堂)
 박대립(朴大立) 무환당(無患堂)
 박대하(朴大夏) 송곡(松谷)
 박돈(朴墩) 지정(芝亭)
 박동량(朴東亮) 기재(奇齋)
 박동량(朴東亮) 봉주(鳳洲)
 박동량(朴東亮) 오창(梧窓)
 박동명(朴東命) 매은당(梅隱堂)
 박동보(朴東普) 죽리(竹里)
 박동보(朴東普) 청구자(靑丘子)
 박동선(朴東善) 서포(西浦)
 박동열(朴東說) 남곽(南郭)
 박동완(朴東完) 근곡(槿谷)
 박동현(朴東賢) 활당(活塘)
 박두성(朴斗星) 송암(松庵)
 박둔(朴楯) 존성재(存誠齋)
 박만정(朴萬鼎) 동계(東溪)
 박명벽(朴命璧) 금호(錦湖)
 박명벽(朴命璧) 슬한재(瑟憫齋)
 박명부(朴明博) 지족당(知足堂)
 박명숙(朴明淑) 송암(松岩)
 박명원(朴明源) 만보정(晩葆亭)
 박명이(朴明履) 도천(道川)
 박문규(朴文逵) 운소자(雲巢子)
 박문규(朴文逵) 천유자(天游子)

박문모(朴文模) 용호(龍湖)
 박문수(朴文秀) 기은(耆隱)
 박문오(朴文五) 성암(誠菴)
 박문일(朴文一) 운암(雲庵)
 박문일(朴文一) 운재(雲齋)
 박문일(朴文一) 징암(懲菴)
 박미(朴彌) 분서(汾西)
 박민(朴敏) 능허(凌虛)
 박민웅(朴敏雄) 서호(西湖)
 박민현(朴民獻) 의숙헌(醫俗軒)
 박민현(朴民獻) 저헌(稭軒)
 박민현(朴民獻) 정암(正庵)
 박번(朴蕃) 인덕정(仁德亭)
 박병익(朴炳翼) 파산(波山)
 박사수(朴師洙) 내재(耐齋)
 박사수(朴師洙) 내헌(耐軒)
 박사익(朴師益) 노주(鷺洲)
 박사종(朴嗣宗) 음청당(挹淸堂)
 박사해(朴師海) 창암(蒼巖)
 박상(朴祥) 눌재(訥齋)
 박상현(朴尙玄) 우헌(寓軒)
 박서(朴瑞) 주천(朱川)
 박서생(朴瑞生) 율정(栗亭)
 박석명(朴錫命) 이헌(頤軒)
 박선(朴璿) 도와(陶窩)
 박선(朴鈺) 지관재(止觀齋)
 박선수(朴瑄壽) 온재(溫齋)
 박성(朴惺) 대암(大庵)
 박성묵(朴性默) 양암(陽巖)
 박성원(朴性源) 포암(圃菴)
 박성원(朴聖源) 겸재(謙齋)
 박성원(朴聖源) 광암(廣巖)
 박성인(朴成仁) 지족당(知足堂)

박세견(朴世堅) 고옹(槁翁)
 박세구(朴世壽) 한천(寒泉)
 박세당(朴世堂) 서계(西溪)
 박세무(朴世茂) 소요당(逍遙堂)
 박세영(朴世永) 백하(白河)
 박세조(朴世照) 인재(認齋)
 박세중(朴世重) 무은(霧隱)
 박세증(朴世拯) 호계(壺溪)
 박세채(朴世采)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현석(玄石)
 박세화(朴世和) 의당(毅堂)
 박세후(朴世煦) 눌재(訥齋)
 박세희(朴世熹) 도원재(道源齋)
 박세희(朴世熹) 이소재(履素齋)
 박소(朴紹) 야천(冶川)
 박손(朴選) 오암(梧巖)
 박수검(朴守儉) 사우정(四愚亭)
 박수검(朴守儉) 임호(林湖)
 박수량(朴遂良) 삼가정(三可亭)
 박수일(朴遂一) 건재(健齋)
 박수일(朴遂一) 명경(明鏡)
 박수춘(朴壽春) 국담(菊潭)
 박수충(朴守冲) 대선(對仙)
 박수현(朴守玄) 초정(草亭)
 박순(朴淳) 사암(思菴)
 박순(朴淳) 사암(思菴)
 박술(朴述) 낙도당(樂道堂)
 박승원(朴承源) 설파(雪坡)
 박승임(朴承任) 남계(南溪)
 박승임(朴承任) 소고(嘯阜)
 박승중(朴承宗) 퇴우당(退憂堂)
 박승현(朴承賢) 국담(菊堂)
 박승휘(朴承輝) 사호(社阜)

박시원(朴時源) 일포(逸圃)
 박신(朴信) 설봉(雪峰)
 박신(朴愼) 무진재(無盡齋)
 박신(朴紳) 도곡(桃谷)
 박신규(朴信圭) 죽촌(竹村)
 박신운(朴身潤) 우곡(愚谷)
 박실(朴實) 정재(貞齋)
 박심문(朴審問) 청재(淸齋)
 박안조(朴安朝) 나선(螺山)
 박안행(朴安行) 석곡(石谷)
 박안현(朴顔賢) 선곡(仙谷)
 박양동(朴陽東) 관어헌(觀魚軒)
 박양한(朴亮韓) 매옹(梅翁)
 박언서(朴彦誠) 낙지정(樂志亭)
 박여룡(朴汝龍) 송애(松厓)
 박연(朴璉) 명주(明洲)
 박연(朴堧) 난계(蘭溪)
 박연(朴演) 환성당(醒堂)
 박연(朴筵) 현계(玄溪)
 박엽(朴廉) 오한(梧漢)
 박엽(朴曄) 약창(葯窓)
 박엽(朴燁) 국창(菊窓)
 박영(朴英) 송당(松堂)
 박영원(朴永元) 오서(梧墅)
 박영진(朴永鎭) 춘사(春史)
 박영철(朴永哲) 남계(藍溪)
 박영효(朴泳孝) 현현(玄玄)
 박영희(朴英熙) 송은(松隱)
 박영희(朴英熙) 회월(懷月)
 박용만(朴蓉萬) 우성(于醒)
 박용철(朴龍喆) 용아(龍兒)
 박우(朴祐) 육봉(六峰)
 박우식(朴祐植) 남저(南樗)

박운(朴雲) 운암(雲巖)
 박운수(朴雲壽) 덕은(德隱)
 박운수(朴雲壽) 죽계(竹溪)
 박원경(朴元慶) 죽창(竹窓)
 박원도(朴元度) 용탄(龍灘)
 박원정(朴元禎) 귀암(歸岩)
 박원형(朴元亨) 만절당(晩節堂)
 박윤(朴潤) 죽연(竹淵)
 박윤묵(朴允默) 존재(存齋)
 박윤원(朴胤源) 근재(近齋)
 박율(朴栗) 둔계(遯溪)
 박율(朴縠) 오리(梧里)
 박융(朴融) 우당(憂堂)
 박은(朴閔) 음취헌(挹翠軒)
 박은(朴崑) 조은(鈞隱)
 박은(朴崑) 표은(豹隱)
 박은식(朴殷植) 겸곡(謙谷)
 박은식(朴殷植)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 태백광노(太白狂奴)
 박은춘(朴殷春) 동계(東溪)
 박응남(朴應南) 간재(良齋)
 박응남(朴應男) 남일(羅逸)
 박응남(朴應男) 퇴암(退庵)
 박응복(朴應福) 줄헌(拙軒)
 박응선(朴應善) 창강(滄江)
 박응선(朴應善) 초정(草亭)
 박응수(朴應秀) 매헌(梅軒)
 박의(朴潏) 중봉(中峰)
 박의중(朴宜中) 정재(貞齋)
 박이관(朴以寬) 보옹(葆翁)
 박이룡(朴以龍) 학촌(鶴村)
 박이문(朴履文) 고심재(古心齋)
 박이문(朴而文) 남계(藍溪)

박이서(朴彝敘) 비천(泌川)
 박이서(朴彝瑞) 동고(東臯)
 박이서(朴彝叙) 필천(泌川)
 박이양(朴頤陽) 동계(東溪)
 박이장(朴而章) 도천(道川)
 박이장(朴而章) 용담(龍潭)
 박이장(朴而章) 용주(龍洲)
 박인(朴隣) 남촌(南村)
 박인(朴隣) 청라(靑蘿)
 박인(朴綰) 무한당(無閑堂)
 박인량(朴寅亮) 소화(小華)
 박인로(朴仁老)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무하옹(無何翁)
 박인석(朴仁碩) 회곡(檜谷)
 박인호(朴寅浩) 춘암(春庵)
 박일운(朴一雲) 용암(龍巖)
 박임종(朴林宗) 율촌(栗村)
 박자응(朴自凝) 읍백당(挹白堂)
 박장원(朴長遠) 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 습천(濕川)
 박장호(朴長浩) 화남(華南)
 박전(朴全) 송과(松坡)
 박전지(朴全之) 행산(杏山)
 박점(朴漸) 복암(復菴)
 박정(朴征) 하석(霞石)
 박정(朴炆) 금주(錦洲)
 박정로(朴廷老) 나진자(懶眞子)
 박정번(朴廷璠) 학암(鶴岩)
 박정양(朴定陽) 죽천(竹泉)
 박정원(朴鼎元) 동호(東湖)
 박정현(朴鼎賢) 응천(應川)
 박정현(朴鼎賢) 의곡(義谷)
 박제가(朴齊家) 위항(葦杭)

박제가(朴齊家) 정유(貞莪)
 박제가(朴齊家) 초정(楚亭)
 박계관(朴濟寬) 울암(栗菴)
 박제근(朴齊近) 경암(敬菴)
 박제순(朴齊純) 평재(平齋)
 박제우(朴悌祐) 눌재(訥齋)
 박제인(朴齊仁) 정묵(靜默)
 박제인(朴齊仁) 황암(篁巖)
 박종(朴琮) 단구자(丹邱子)
 박종경(朴宗慶) 둔계(敦溪)
 박종경(朴宗慶) 둔암(敦巖)
 박종악(朴宗岳) 창암(蒼巖)
 박종여(朴宗興) 냉천(冷泉)
 박종원(朴宗元) 묵재(默齋)
 박종유(朴宗儒) 만봉(晩峰)
 박종정(朴宗挺) 난계(蘭溪)
 박종훈(朴宗薰) 두계(荳溪)
 박종희(朴宗喜) 만촌(晩村)
 박주운(朴周雲) 경당(鏡塘)
 박주종(朴周鍾) 산천(山泉)
 박준승(朴準承) 비암(沘菴)
 박준승(朴準承) 자암(泚菴)
 박준원(朴準源) 금석(錦石)
 박준철(朴溶哲) 기양(岐陽)
 박중림(朴仲林) 한석당(閑碩堂)
 박중손(朴仲孫) 묵재(默齋)
 박중손(朴仲孫) 백당(栢堂)
 박중희(朴重澮) 소은(素隱)
 박증(朴增) 암천(岩川)
 박증영(朴增榮) 눌재(訥齋)
 박증휘(朴增輝) 낙정(洛汀)
 박지경(朴知警) 오암(娛菴)
 박지성(朴知誠) 잠야(潛冶)

박지양(朴知讓) 도촌(陶村)
 박지원(朴趾源) 연암(燕巖)
 박지화(朴枝華) 수암(守菴)
 박진록(朴晋祿) 국간(國磻)
 박진연(朴震愷) 남강(南岡)
 박진영(朴震英) 애서(厓西)
 박진원(朴震元) 장주(長洲)
 박찬(朴潑) 설봉(雪峰)
 박찬계(朴燦啓) 남파(南坡)
 박찬익(朴贊翊) 남파(南坡)
 박창하(朴昌夏) 여락당(余樂堂)
 박철(朴徹) 기와(棄窩)
 박추(朴樞) 쌍계(雙溪)
 박춘무(朴春茂) 화천당(花遷堂)
 박춘수(朴春秀) 아수당(我誰堂)
 박춘호(朴春豪) 해월당(海月堂)
 박충원(朴忠元) 낙촌(駱村)
 박충원(朴忠元) 정관재(靜觀齋)
 박충좌(朴忠佐) 치암(坵菴)
 박치화(朴致和) 설계(雪溪)
 박치화(朴致和) 손재(巽齋)
 박치화(朴致和) 읍건재(泣愆齋)
 박타(朴埴) 몽촌(夢村)
 박탄(朴灘) 관해(觀海)
 박태(朴兌) 암둔(岩遁)
 박태관(朴泰觀) 응재(凝齋)
 박태보(朴泰輔) 정재(定齋)
 박태상(朴泰尙) 만휴당(萬休堂)
 박태상(朴泰尙) 존성재(存誠齋)
 박태순(朴太淳) 동계(東溪)
 박태원(朴泰遠) 송담(松潭)
 박태원(朴泰遠) 회와(悔窩)
 박태유(朴泰維) 백석(白石)

박태은(朴泰殷)극재(克齋)
 박태정(朴泰定)경신재(敬愼齋)
 박태징(朴泰徵)둔계(遯溪)
 박태창(朴泰昌)운계(雲溪)
 박택(朴澤)낙당(樂堂)
 박팔양(朴八陽)김여수(金麗水)
 박팽년(朴彭年)취금현(醉琴軒)
 박필기(朴弼琦)무취옹(無臭翁)
 박필리(朴弼理)성암(醒菴)
 박필부(朴弼傅)성암(省菴)
 박필성(朴弼成)설송재(雪松齋)
 박필익(朴弼益)노주(鰲洲)
 박필정(朴弼正)일휴(逸休)
 박필주(朴弼周)여호(黎湖)
 박필주(朴弼周)요계(蓼溪)
 박필호(朴弼琥)홍의재(弘毅齋)
 박하담(朴河淡)소요당(逍遙堂)
 박한(朴簡)오정(梧亭)
 박한영(朴漢永)석전(石巔)
 박한주(朴漢柱)우출재(迂拙齋)
 박해(朴海)후포(後浦)
 박현규(朴玄圭)가리(稼里)
 박형(朴河)정산(鼎山)
 박호(朴浩)청파(靑坡)
 박호원(朴好元)송월당(松月堂)
 박홍미(朴弘美)관포(灌圃)
 박홍식(朴弘式)추산(秋山)
 박홍중(朴弘中)추산(秋山)
 박환(朴煥)수와(守愚)
 박황(朴煥)유현(儒軒)
 박회무(朴檜茂)송정(崇禎)
 박회무(朴檜茂)육우당(六友堂)
 박회수(朴晦壽)호곡(壺谷)

박효관(朴孝寬)운애(雲崖)
 박효남(朴孝男)일암(一菴)
 박효성(朴孝誠)진천(眞川)
 박효수(朴孝修)석재(石齋)
 박훈(朴薰)강수(江叟)
 박훈(朴薰)수심정(收心亭)
 박흥거(朴興居)이락당(二樂堂)
 박흥민(朴興民)구암(龜巖)
 박흥발(朴興淳)운암(雲巖)
 박흥생(朴興生)국당(菊塘)
 박희수(朴希壽)회현(梅軒)
 박희중(朴熙中)위남(葦南)
 박희현(朴希賢)간암(迂菴)
 반석평(潘碩秤)송애(松厓)
 방귀온(房貴溫)금서(錦西)
 방성길(方成吉)혜연(惠淵)
 방우정(方禹鼎)휘재(暉齋)
 방원진(房元震)만오(晩悟)
 방유녕(方有寧)무기당(無欺堂)
 방응모(方應謨)계초(啓礎)
 방응현(房應賢)사계(沙溪)
 방정환(方定煥)소파(小波)
 방중현(方鍾鉉)일사(一簑)
 방효원(方孝元)요산(樂山)
 배극렴(裴克廉)필암(筆菴)
 배극렴(裴克廉)주금당(畫錦堂)
 배대유(裴大維)모정(慕亭)
 배삼익(裴三益)임연재(任淵齋)
 배상룡(裴尙龍)등암(藤庵)
 배상설(裴相說)괴담(槐潭)
 배상유(裴尙瑜)만학당(晩學堂)
 배상익(裴尙益)치암(痴巖)
 배상지(裴尙志)백죽당(栢竹堂)

배석지(裴錫祉)율리(栗里)
 배세적(裴世績)정곡(靜谷)
 배신(裴紳)낙천(洛川)
 배용길(裴龍吉)금역당(琴易堂)
 배용길(裴龍吉)장륙당(藏六堂)
 배유장(裴幼章)유암(楡菴)
 배유화(裴幼華)팔사헌(八斯軒)
 배응경(裴應羹)안촌(安村)
 배일장(裴一長)계현(桂軒)
 배중부(裴中孚)눌촌(訥村)
 배홍중(裴弘重)막암(幙菴)
 배홍중(裴弘重)모암(慕菴)
 배후도(裴後度)회봉(晦峰)
 백경한(白慶翰)부호(鼻湖)
 백경해(白慶楷)수와(守窩)
 백관수(白寬洙)근촌(芹村)
 백광언(白光彦)풍암(楓巖)
 백광홍(白光弘)기봉(岐峰)
 백광훈(白光勳)옥봉(玉峰)
 백낙관(白樂寬)추강(秋江)
 백낙귀(白洛龜)운정(雲亭)
 백대진(白大鎭)설원(雪園)
 백문보(白文寶)담암(淡庵)
 백분화(白賁華)남양(南陽)
 백분화(白賁華)참선거사(參禪居士)
 백삼규(白三奎)온당(溫堂)
 백상규(白相奎)용성(龍城)
 백수희(白受繪)송담(松潭)
 백시원(白時源)노포(老圃)
 백영수(白榮洙)운초(雲樵)
 백은배(白殷培)임당(琳唐)
 백이정(白頤正)이재(彝齋)
 백이정(白頤正)이헌(彝軒)

백인걸(白仁傑) 휴암(休菴)
 백인해(白仁海) 심재(審齋)
 백인환(白仁煥) 송담(松潭)
 백일규(白一圭) 약산(藥山)
 백중렬(白鍾烈) 혜원(惠園)
 백진남(白振南) 송호(松湖)
 백홍준(白鴻俊) 북산(北山)
 백휘(白揮) 포주(浦洲)
 범세동(范世東) 복애(伏厓)
 법견(法堅) 기암(奇巖)
 법종(法宗) 허정(虛靜)
 변경복(卞景福) 백음(栢陰)
 변경운(邊慶胤) 자하(紫霞)
 변계량(卞季良) 춘정(春亭)
 변벽(卞璧) 구산(龜山)
 변사정(邊士貞) 도탄(桃灘)
 변삼근(卞三根) 오정(吾亭)
 변상벽(卞相璧) 화재(和齋)
 변성온(卞成溫) 호암(壺岩)
 변성진(卞成振) 인천(仁川)
 변시환(卞時煥) 일공(一筇)
 변영로(卞榮魯) 수주(樹州)
 변영만(卞榮晩) 곡명(曲明)
 변영만(卞榮晩) 백민(白旻)
 변영만(卞榮晩) 산강재(山康齋)
 변영만(卞榮晩) 삼청(三清)
 변영청(邊永淸) 동호(東湖)
 변영태(卞榮泰) 일석(逸石)
 변옥희(卞玉希) 평천(坪川)
 변원규(卞元圭) 길운(吉雲)
 변원규(卞元圭) 주항(蛛缸)
 변유(邊瑜) 정묵재(靜默齋)
 변이중(邊以中) 망암(望菴)

변중운(卞鍾運) 소재(肅齋)
 변중량(卞仲良) 춘당(春堂)
 변지정(卞至鼎) 매평(梅坪)
 변창후(卞昌後) 월담(月潭)
 변처후(邊處厚) 수정(水亭)
 변헌(卞獻) 삼일산인(三一山人)
 변헌(卞獻) 우옹(寓慵)
 변헌(卞獻) 팔계(八溪)
 변협(邊協) 남호(南湖)
 변휴(邊休) 청류당(聽流堂)
 병연(秉演) 금봉(錦峰)
 보우(普愚) 태고(太古)
 보우(普雨) 허응당(虛應堂)
 보환(普幻) 한암(閑庵)
 복구(復丘) 무능수(無能叟)
 복수(復丘) 무언수(無言叟)
 봉벽(奉璧) 창연(蒼淵)
 봉석주(奉石柱) 서관(墅觀)
 봉시중(奉時中) 죽계(竹溪)
 봉여해(奉汝諧) 묵헌(默軒)
 봉형(奉珩) 망악(望岳)
 사선(師璿) 회광(晦光)
 사성(師誠) 극암(克庵)
 사일(獅駟) 보경(寶鏡)
 삼우(三愚) 취여(醉如)
 상득용(尙得容) 덕옹(德翁)
 상언(尙彦) 설파(雪坡)
 상진(尙震) 범허정(泛虛亭)
 상진(尙震) 송현(松峴)
 상진(尙震) 향일당(嚮日堂)
 서거정(徐居正)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정정정(亭亭亭)
 서견(徐甄) 여와(麗窩)

서경덕(徐敬德) 복재(復齋)
 서경덕(徐敬德) 화담(花潭)
 서경보(徐峴輔) 묘옹(卯翁)
 서경우(徐景雨) 만사(晩沙)
 서경우(徐景雨) 한사(寒沙)
 서경주(徐景鬪) 송강(松岡)
 서곤(徐滾) 충효재(忠孝齋)
 서관(瑞寬) 경담(鏡潭)
 서광범(徐光範) 위산(緯山)
 서기(徐起) 고청(孤靑)
 서기(徐起) 구당(龜堂)
 서기(徐起) 이와(頤窩)
 서기순(徐箕淳) 매원(梅園)
 서능(徐稜) 모암(慕菴)
 서당보(徐堂輔) 다사(茶史)
 서매수(徐邁修) 당헌(顛軒)
 서명구(徐命九) 약허(若虛)
 서명균(徐命均) 보졸재(保拙齋)
 서명균(徐命均) 소고(嘯臯)
 서명균(徐明均) 재간(在澗)
 서명서(徐命瑞) 만옹(晩翁)
 서명선(徐命善) 귀천(歸泉)
 서명선(徐命善) 동원(桐源)
 서명응(徐命膺) 담옹(澹翁)
 서명응(徐命膺) 보만재(保晩齋)
 서문상(徐文尙) 나산(羅山)
 서문상(徐文尙) 송파(松坡)
 서문중(徐文重) 몽어정(夢漁亭)
 서미(徐澗) 석사(石史)
 서백일(徐白日) 진공(眞空)
 서백일(徐白日) 현무(玄武)
 서번(徐忭) 용계(龍溪)
 서병오(徐丙五) 석재(石齋)

서봉령(徐鳳翎) 매학(梅壑)
서봉영(徐鳳英) 용구(龍邱)
서사원(徐思遠)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미락재(彌樂齋)
서상렬(徐相烈) 경암(敬菴)
서상봉(徐相鳳) 포송(抱松)
서상일(徐相日) 동암(東庵)
서선(徐選) 해화당(海華堂)
서성(徐潯) 약봉(藥峯)
서성구(徐聖耆) 눌헌(訥軒)
서세충(徐世忠) 춘강(春江)
서시립(徐時立) 전귀당(全歸堂)
서식(徐湜) 명암(銘巖)
서엄(徐崦) 춘헌(春軒)
서영보(徐榮輔) 죽석(竹石)
서용보(徐龍輔) 심재(心齋)
서원리(徐元履) 화곡(華谷)
서유구(徐有槩) 풍석(楓石)
서유방(徐有防) 봉헌(奉軒)
서유본(徐有本) 가운(稼雲)
서유본(徐有本) 농장(農丈)
서유본(徐有本) 좌소(左蘇)
서유수(徐迪修) 직재(直齋)
서응수(徐應淳) 경당(綱堂)
서익(徐益) 만죽(萬竹)
서익(徐益) 만죽헌(萬竹軒)
서일(徐一) 백보(白甫)
서일(徐一) 백포(白圃)
서장보(徐長輔) 장계(長溪)
서정연(徐挺然) 사봉(沙峰)
서종급(徐宗汲) 퇴헌(退軒)
서종태(徐宗泰) 단곡(端谷)
서종태(徐宗泰) 만정(晩靜)

서종태(徐宗泰) 서곡(瑞谷)
서종태(徐宗泰) 송애(松厓)
서준보(徐俊輔) 죽과(竹坡)
서지(徐祉) 나정(懶亭)
서지수(徐志修) 송옹(松翁)
서찬규(徐贊奎) 임재(臨齋)
서창재(徐昌載) 오산(梧山)
서춘(徐椿) 오봉(五峰)
서춘(徐椿) 일초(日超)
서침(徐枕) 구계(龜溪)
서필원(徐必遠) 육곡(六谷)
서한주(徐漢柱) 복재(復齋)
서해(徐懈) 함재(涵齋)
서헌순(徐憲淳) 석운(石耘)
서형수(徐滢修) 명고(明阜)
서호(徐皞) 거정(居正)
서희(徐熙) 복천(福川)
서희순(徐熹淳) 우란(友蘭)
서희적(徐希績) 청호(聽湖)
석만재(石萬載) 두촌(豆村)
석지형(石之珩) 수현(壽峴)
석희복(石希璞) 남천(南川)
선거이(宣居怡) 친친재(親親齋)
선세강(宣世綱) 매곡(梅谷)
선수(善修) 부휴(浮休)
선영(善影) 역산(櫟山)
선영(善影) 영허(穎虛)
선우협(鮮于浹) 돈암(遯菴)
선윤지(宣允祉) 퇴휴당(退休堂)
선흠(善欽) 환암(幻庵)
설경수(設慶壽) 용재(慵齋)
설문우(薛文遇) 죽정(竹亭)
설사(薛思) 소성(少性)

설손(契遜) 근사재(近思齋)
설의식(薛義植) 계산도인(桂山道人)
설의식(薛義植) 만각탑(晩覺塔)
설의식(薛義植) 무고자(撫古子)
설의식(薛義植) 묵호(默湖)
설의식(薛義植) 소오(小梧)
설의식(薛義植) 호고자(好古子)
설장수(契長壽) 운재(芸齋)
설제(雪霽) 월담(月潭)
설총(薛聰) 빙월당(氷月堂)
설총(薛聰) 홍유후(弘儒候)
섭민(攝旻) 환봉(煥峰)
성간(成侃) 진일재(眞逸齋)
성규(聖奎) 영과(影坡)
성규현(成揆憲) 명탄(明灘)
성규현(成揆憲) 원당(圓塘)
성근(成近) 경재(敬齋)
성근묵(成近默) 과재(果齋)
성급(成汲) 순학(馴鶴)
성기동(成耆童) 습정(習靜)
성노(成略) 석전(石田)
성노(成略) 잠곡(潛谷)
성노(成略) 잠암(潛巖)
성노(成略) 평량자(平涼子)
성눌(聖訥) 부암(斧巖)
성눌(聖訥) 화월(華月)
성능(聖能) 계과(桂坡)
성담년(成睟年) 정재(靜齋)
성담령(成聘齡) 두문산인(斗文散人)
성담수(成聘壽) 문두(文斗)
성담수(成聘壽) 인재(仁齋)
성담중(成聘仲) 회재(晦齋)
성대수(成大壽) 송당(松堂)

성대중(成大中) 청성(靑城)
 성담(成澗) 청죽(聽竹)
 성력(成櫟) 진부(鎭孚)
 성만징(成晩徵) 추담(秋澗)
 성몽기(成夢箕) 구산(龜山)
 성몽량(成夢良) 장소현(長嘯軒)
 성몽선(成夢宣) 강호(江湖)
 성몽정(成夢井) 장암(場巖)
 성문준(成文濬) 창랑(蒼浪)
 성사달(成士達) 역암(易菴)
 성사달(成士達) 이암(易菴)
 성삼문(成三問) 매죽헌(梅竹軒)
 성석괴(成石王回) 갈정(葛亭)
 성석린(成石璘) 독곡(獨谷)
 성석연(成石珣) 상곡(桑谷)
 성석용(成石溶) 회곡(檜谷)
 성세명(成世明) 일로당(逸老堂)
 성세순(成世淳) 죽헌(竹軒)
 성세장(成世章) 사암(思菴)
 성세준(成世俊) 송암(松菴)
 성세준(成世俊) 송암(松庵)
 성세창(成世昌) 돈재(遯齋)
 성세창(成世昌) 화왕(火旺)
 성수익(成壽益) 칠봉(七峰)
 성수침(成守琛) 우계한민(牛溪閭民)
 성수침(成守琛) 절효당(節孝堂)
 성수침(成守琛) 죽우당(竹雨堂)
 성수침(成守琛)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 과산청은(坡山淸隱)
 성승(成勝) 적곡(赤谷)
 성시량(成時亮) 국포(菊圃)
 성신징(成信徵) 송죽당(松竹堂)
 성안의(成安義) 부용당(芙蓉堂)

성여백(成汝栢) 노계(魯溪)
 성여신(成汝信) 부사(桴槎)
 성여신(成汝信) 부사(浮查)
 성여완(成汝完) 이현(怡軒)
 성여학(成汝學) 쌍침당(雙尖堂)
 성여학(成汝學) 학천(鶴泉)
 성여훈(成如堧) 서강(西岡)
 성영(成泳) 태정(苔庭)
 성완(成琬) 취허(翠虛)
 성운(成運) 대곡(大谷)
 성원(成遠) 무고자(撫古子)
 성윤해(成允諧) 판곡(板谷)
 성이도(成以道) 두회자(斗回子)
 성이문(成以文) 은귀옹(隱几翁)
 성이민(成以敏) 삼고당(三古堂)
 성이민(成以敏) 천유(天游)
 성이성(成以性) 계서(溪西)
 성인동(成麟童) 덕파(德坡)
 성임(成任) 안재(安齋)
 성임(成任) 일재(逸齋)
 성자제(成子濟) 송재(松齋)
 성제원(成悌元) 동주소선(東洲笑仙)
 성제원(成悌元) 소선(笑仙)
 성준구(成俊壽) 장곡(藏谷)
 성준득(成準得) 동고(東阜)
 성중엄(成仲淹) 청호(淸湖)
 성중엄(成重淹) 청호(淸湖)
 성지선(成至善) 제안재(制安齋)
 성직(成稷) 매변(梅邊)
 성직(成稷) 정옹(鼎翁)
 성진(成晉) 금음(錦陰)
 성진(成晉) 보한당(保閑堂)
 성진령(成震齡) 양천(陽川)

성진선(成晋善) 연강(烟江)
 성진승(成震昇) 동교(東郊)
 성진항(成震恒) 화은(華隱)
 성총(性聰) 백암(栢庵)
 성팽년(成彭年) 석곡(石谷)
 성하정(成夏挺) 오광(五狂)
 성해(成諧) 송곡(松谷)
 성해응(成海應) 연경재(研經齋)
 성헌징(成獻徵) 동허재(洞虛齋)
 성현(成倪) 국오(菊塢)
 성현(成倪) 부휴자(浮休子)
 성현(成倪) 허백당(虛白堂)
 성현(成倪) 용재(慵齋)
 성호(成浩) 성암(省菴)
 성호선(成好善) 월사(月叢)
 성훈(成渾) 묵암(默庵)
 성훈(成渾) 우계(牛溪)
 성화(成弼) 나진(懶眞)
 성효기(成孝基) 소계(疎溪)
 성효원(成孝元) 어부(漁夫)
 성흔(成忻) 삼괴당(三槐堂)
 성희(成熺) 인재(仁齋)
 성희안(成希顔) 인재(仁齋)
 성희주(成熙胄) 구전자(求全子)
 소광진(蘇光震) 후천(后泉)
 소동도(蘇東道) 면와(眠窩)
 소두산(蘇斗山) 월주(月洲)
 소세량(蘇世良) 곤암(困菴)
 소세량(蘇世良) 명암(屏巖)
 소세양(蘇世讓)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퇴재(退齋)
 소세양(蘇世讓) 퇴휴당(退休堂)
 소시만(蘇始萬) 국헌(菊軒)

소영복(蘇永福) 사은(四隱)
 소제(蘇濟) 적은(迪隱)
 손기양(孫起揚) 오한(壑漢)
 손기양(孫起陽) 송간(松澗)
 손덕침(孫德沈) 모헌(慕軒)
 손만웅(孫萬雄) 야촌(野村)
 손명래(孫命來) 창사(昌舍)
 손병희(孫秉熙) 의암(義菴)
 손비장(孫比長) 입암(笠巖)
 손숙돈(孫叔噸) 망우재(忘憂齋)
 손순효(孫舜孝) 물계(勿齋)
 손순효(孫舜孝) 칠휴(七休)
 손양원(孫良源) 산돌
 손여성(孫汝誠) 용담(龍潭)
 손영제(孫英濟) 추천(鄒川)
 손인(孫漣) 문탄(聞灘)
 손일민(孫一民) 회당(晦堂)
 손정도(孫貞道) 석해(石海)
 손조서(孫肇瑞) 격재(格齋)
 손조서(孫肇瑞) 면재(勉齋)
 손중돈(孫仲噸) 우재(愚齋)
 손진태(孫晉泰) 남창(南滄)
 손처눌(孫處訥) 모당(慕堂)
 손척(孫僖) 응교(應教)
 손천우(孫天祐) 무송헌(撫松軒)
 손필대(孫必大) 세한당(歲寒堂)
 손홍록(孫弘祿) 한계(寒溪)
 손홍적(孫弘績) 도봉(道峰)
 송간(宋侃) 서재(西齋)
 송갑조(宋甲祚) 수옹(睡翁)
 송강석(宋康錫) 운곡(雲谷)
 송개신(宋介臣) 휴재(休齋)
 송계간(宋啓幹) 추양(秋陽)

송광연(宋光淵) 범허정(泛虛亭)
 송구(宋枸) 오당(午堂)
 송구(宋駒) 청심헌(淸心軒)
 송국택(宋國泰) 사우당(四友堂)
 송국헌(宋國憲) 안소당(安素堂)
 송귀수(宋龜壽) 서부(西阜)
 송규렴(宋奎濂) 제월당(霽月堂)
 송극인(宋克訥) 정곡(靜谷)
 송근수(宋近洙) 남곡(南谷)
 송근수(宋近洙) 입재(立齋)
 송기수(宋麒壽) 추과(楸坡)
 송기후(宋基厚) 문도재(聞道齋)
 송남수(宋衮壽) 상심헌(常心軒)
 송남수(宋衮壽) 송담(松潭)
 송남수(宋衮壽) 오도(五道)
 송내희(宋來熙) 금곡(錦谷)
 송능상(宋能相) 동해자(東海子)
 송능상(宋能相) 운평(雲坪)
 송단(宋端) 현암(玄巖)
 송달수(宋達洙) 수종재(守宗齋)
 송대립(宋大立) 외암(畏菴)
 송덕영(宋德榮) 사정(四貞)
 송덕일(宋德駟) 조은(釣隱)
 송도남(宋圖南) 서촌(西村)
 송량(宋亮) 우암(寓菴)
 송명석(宋命錫) 난곡(蘭谷)
 송명휘(宋明輝) 강촌(綱村)
 송명휘(宋明輝) 학천(學川)
 송명흠(宋明欽) 역천(櫟泉)
 송몽인(宋夢寅) 금암(琴巖)
 송문재(宋文載) 행수(幸叟)
 송문중(宋文仲) 축은재(築隱齋)
 송문흠(宋文欽) 한정당(間靜堂)

송민길(宋民吉) 난곡(蘭谷)
 송방조(宋邦祚) 습정(習靜)
 송병선(宋秉璿) 연재(淵齋)
 송병순(宋秉珣) 심석(心石)
 송복흥(宋復興) 곡봉(鶴峰)
 송사이(宋師頤) 신연(新淵)
 송상기(宋相琦) 옥오재(玉吾齋)
 송상덕(宋相德) 과암(果菴)
 송상도(宋相燾)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 미헌(眉軒)
 송상도(宋相燾) 연파(蓮坡)
 송상림(宋祥濂) 과치(果痴)
 송상민(宋尙敏) 석곡(石谷)
 송상운(宋相允) 위와(韋窩)
 송상인(宋象仁) 서곽(西郭)
 송상철(宋相哲) 득우재(得寓齋)
 송상현(宋象賢) 천곡(泉谷)
 송상현(宋象賢) 한천(寒泉)
 송석(宋錫) 지계(支溪)
 송석경(宋錫慶) 졸암(拙菴)
 송석하(宋錫夏) 석남(石南)
 송선(宋瑄) 목옹(木翁)
 송선(宋瑄) 양지정(養志亭)
 송성명(宋成明) 송석(松石)
 송세림(宋世琳) 수은(睡隱)
 송세림(宋世琳) 고송(孤松)
 송세림(宋世琳) 고은(孤隱)
 송세림(宋世琳) 눌암(訥庵)
 송세림(宋世琳) 취은(醉隱)
 송세림(宋世琳) 호은(壺隱)
 송세정(宋世貞) 도봉(道峰)
 송세형(宋世珩) 반곡(盤谷)
 송수만(宋秀萬) 성암(醒菴)

송순(宋純) 기촌(企村)
 송순(宋純) 면양정(俛仰亭)
 송순(宋諄) 망촌(忘村)
 송순년(宋順年) 소요당(逍遙堂)
 송승희(宋承禧) 반국헌(伴菊軒)
 송시담(宋時儉) 부훤당(負暄堂)
 송시도(宋時燾) 세한당(歲寒堂)
 송시열(宋時烈)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화양(華陽)
 송시영(宋時榮) 야은(野隱)
 송시철(宋時哲) 촌설(村雪)
 송시철(宋時喆) 설촌(雪村)
 송신용(宋申用) 필관(必觀)
 송실(宋實) 신암(頤庵)
 송언신(宋言愼) 호봉(壺峯)
 송연(宋淵) 둔암(菴菴)
 송엽수(宋燁壽) 청죽(淸竹)
 송영구(宋英耆) 백련(白蓮)
 송영구(宋英耆) 일표(一彪)
 송영구(宋英耆) 표옹(瓢翁)
 송우(宋愚) 송정(松亭)
 송우(宋愚) 우암(寓菴)
 송우항(宋宇杭) 좌은(坐隱)
 송원기(宋遠器) 아헌(啞軒)
 송유(宋愉) 쌍청당(雙淸堂)
 송유순(宋維諄) 옥계(玉溪)
 송유원(宋有源) 종암(宗菴)
 송응상(宋應祥) 쌍계(雙溪)
 송이창(宋爾昌) 정존재(靜存齋)
 송이창(宋爾昌) 청좌와(淸坐窩)
 송익필(宋翼弼) 현승(玄繩)
 송인(宋因) 행정(杏亭)
 송인(宋寅) 녹피옹(鹿皮翁)

송인(宋寅) 이암(頤菴)
 송인명(宋寅明) 장밀헌(藏密軒)
 송인수(宋麟壽) 규암(圭庵)
 송일(宋駟) 반학(伴鶴)
 송일(宋駟) 반학헌(伴鶴軒)
 송일중(宋日中) 송재(松齋)
 송전(宋驥) 빙호(氷壺)
 송정규(宋廷奎) 이호(梨湖)
 송정기(宋廷耆) 죽계(竹溪)
 송정순(宋廷筍) 물염정(勿染亭)
 송정조(宋廷祚) 장주(長洲)
 송제민(宋齊民) 해광(海狂)
 송조동(宋祖同) 국파(菊坡)
 송종익(宋鍾翊) 우강(友江)
 송주빈(宋周賓) 숙헌(夙軒)
 송주석(宋疇錫) 봉곡(鳳谷)
 송준(宋駿) 성암(省菴)
 송준(宋駿) 성암(省菴)
 송진명(宋眞命) 소정(疎亭)
 송진우(宋鎭禹) 고하(古下)
 송질(宋軼) 취춘당(醉春堂)
 송징은(宋徵殷) 약재(約齋)
 송징은(宋徵殷) 약헌(約軒)
 송찬(宋贊) 치암(恥菴)
 송찬(宋贊) 서교(西郊)
 송추(宋樞) 정산(鼎山)
 송치규(宋趾圭) 강재(剛齋)
 송치중(宋致中) 호암(湖岩)
 송타(宋裕) 화암(花菴)
 송한필(宋漢弼) 운곡(雲谷)
 송환기(宋煥箕)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심재(心齋)
 송흠(宋欽) 관수정(觀水亭)

송흠(宋欽) 지지당(知止堂)
 송희규(宋希奎) 야계(仰溪)
 송희규(宋希奎) 야계(治溪)
 송희규(宋希奎) 야로(治老)
 송희명(宋希命) 취옹(醉翁)
 송희업(宋熙業) 호은(壺隱)
 수미(守眉) 묘각(妙覺)
 수초(守初) 취미(翠微)
 시연(示演) 낭암(朗巖)
 시연(示演) 영암(靈巖)
 시오(始悟) 호의(縞衣)
 신감(申鑑) 만옹(慢翁)
 신감(申鑑) 소선(笑仙)
 신개(申槩) 인재(寅齋)
 신거관(愼居寬) 독재(獨齋)
 신건식(申健植) 삼강(三岡)
 신경(申暻) 직암(直菴)
 신경(申昞) 화은(華隱)
 신경(申慶) 곤촌(困村)
 신경(辛慶) 요호(了湖)
 신경락(申景洛) 송촌(松村)
 신경연(辛景衍) 금정(錦汀)
 신경제(申慶濟) 석헌(石軒)
 신경준(申景濬) 여암(旅庵)
 신경진(申景進) 육우당(六友堂)
 신경진(辛慶晉) 아호(丫湖)
 신경행(辛景行) 조은(釣隱)
 신계성(申季誠) 송계(松溪)
 신계영(身啓榮) 기촌(企村)
 신계영(辛啓榮) 기석(企石)
 신계영(辛啓榮) 선석(仙石)
 신공유(愼公有) 매천(梅川)
 신공제(申公濟) 이계(伊溪)

신광수(申光洙)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오악(五嶽)
 신광업(辛光業) 구계(龜溪)
 신광필(申光弼) 교봉(郊峰)
 신광하(申光河) 진택(震澤)
 신광한(申光漢)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 낙봉(駱峯)
 신광한(申光漢) 석선재(石仙齋)
 신광한(申光漢) 청성(青城)
 신권(愼權) 이수(樂水)
 신규(申奎) 취은(醉隱)
 신규식(申圭植) 예관(悅觀)
 신근(申近) 퇴수재(退修齋)
 신급(申玘) 취한(就閑)
 신기선(申箕善) 양원(陽園)
 신달도(申達道) 만오(晩悟)
 신담(申澗) 인재(忍齋)
 신담(申澗) 어성(漁城)
 신대우(申大猷) 완구(宛丘)
 신덕균(申德均) 몽암(蒙菴)
 신덕린(申德鄰) 취은(醉隱)
 신덕린(申德麟) 순은(醇隱)
 신돈(辛垧) 청한(淸閑)
 신돈복(辛敦復) 학산(鶴山)
 신득연(申得淵) 현포(玄圃)
 신득홍(申得洪) 지담(芷潭)
 신만(申曼) 주촌(舟村)
 신말주(申末舟) 귀래정(歸來亭)
 신맹경(申孟慶) 운계(雲溪)
 신명귀(申命龜) 양재(養齋)
 신명규(申命圭) 묵재(默齋)
 신명규(申命圭) 적안(適安)
 신명연(申命衍) 애춘(靄春)

신명인(申命仁) 구봉(龜峰)
 신명인(申命仁) 풍류(風流)
 신명준(申命準) 소하(少霞)
 신명화(申命和) 송정(松亭)
 신명화(申鳴華) 나재(懶齋)
 신무(愼懋) 만호(晩湖)
 신문제(申文濟) 용계(龍溪)
 신민일(申敏一) 화당(化堂)
 신방(申昉) 둔암(鈍菴)
 신백우(申伯雨) 경부(耕夫)
 신변(辛蕃) 이계(伊溪)
 신변(申拊) 귤우(橘宇)
 신복진(愼復振) 야담(夜潭)
 신사운(申思運) 낙운(樂耘)
 신사임당(申師任堂) 사임당(思任堂)
 신사임당(申師任堂) 임사재(任師齋)
 신삼익(愼三益) 사교재(四矯齋)
 신상(申恂) 은휴와(恩休窩)
 신상(申鎰) 위암(葦菴)
 신색(申穡) 암헌(巖軒)
 신석구(申錫九) 은재(殷哉)
 신석우(申錫愚) 해장(海藏)
 신석우(申錫雨) 우창(于蒼)
 신석조(辛碩祖) 연수당(淵水堂)
 신석헌(申錫憲) 해장(海莊)
 신석희(申錫禧) 위사(韋史)
 신성하(申聖夏) 화암(和庵)
 신소(申韶) 함일재(涵一齋)
 신숙(申淑) 이지당(二知堂)
 신수이(愼守彝) 황고(黃臯)
 신수주(新叔舟) 희현당(希賢堂)
 신숙(申瀾) 삼외당(三畏堂)
 신숙주(申叔舟) 보한재(保閑齋)

신승선(愼承善) 사지당(仕止堂)
 신식(申湜) 용졸당(用拙堂)
 신식(申湜) 임곡(臨谷)
 신식(申湜) 졸재(拙齋)
 신심(申鐔) 봉주(鳳洲)
 신악(申岳) 뇌호(籟湖)
 신양(申養) 관와(寬窩)
 신양(申瀆) 호은(湖隱)
 신여량(申汝樑) 봉헌(鳳軒)
 신여식(申汝拭) 석호(石湖)
 신열도(申悅道) 나재(懶齋)
 신영희(辛永禧) 안정(安亭)
 신예(辛裔) 초정(草亭)
 신완(申琬) 경암(絳菴)
 신완(申琬) 형암(荇菴)
 신요(申燒) 운와(雲臥)
 신용(申涌) 하은(霞隱)
 신용개(申用漑) 송계(松溪)
 신용개(申用漑) 수옹(匪翁)
 신용개(申用漑) 이락당(二樂堂)
 신우(申祐) 퇴재(退齋)
 신우현(申禹鉉) 자운(紫雲)
 신원록(申元祿) 회당(晦堂)
 신위(申緯) 자하(紫霞)
 신유(申愈) 회곡(晦谷)
 신유(申濡) 이옹(泥翁)
 신유(申濡) 죽당(竹堂)
 신유(申維) 경수당(警脩堂)
 신유한(申維翰) 청천(淸泉)
 신운복(申潤福) 혜원(蕙園)
 신응구(申應渠) 만퇴헌(晩退軒)
 신응시(辛應時) 백룡(白龍)
 신응조(申應朝) 계전(桂田)

신응조(申應朝) 구암(苟菴)
 신응태(申應泰) 용애(龍崖)
 신의화(申義華) 사아(四雅)
 신의화(申義華) 사치(四痴)
 신이강(辛以剛) 청파(靑坡)
 신이우(申易于) 도촌(道村)
 신이의(愼爾儀) 명발와(明發窩)
 신이의(愼爾儀) 취촌(醉村)
 신익량(申翊亮) 상봉(象峰)
 신익룡(申翊隆) 호량(濠梁)
 신익상(申翼相) 성재(醒齋)
 신익선(申益善) 애산(艾山)
 신익성(申翊聖) 낙재(樂齋)
 신익성(申翊聖) 동회(東淮)
 신익전(申翊全) 동강(東江)
 신익황(申益火晃) 극재(克齋)
 신익희(申翼熙) 해공(海公)
 신인손(辛引孫) 석천(石泉)
 신임(申姪) 죽리(竹里)
 신임(申鎡) 한죽당(寒竹堂)
 신자건(愼自健) 송재(松齋)
 신작(申綽) 석천(石泉)
 신잠(申潛) 아차(峨)
 신잠(申潛) 영천자(靈川子)
 신재식(申在植) 취미(翠微)
 신재효(申在孝)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 호장(戶長)
 신점(申點) 척재(惕齋)
 신정(申最) 분애(汾厓)
 신정백(申正栢) 남강(南岡)
 신정하(申靖夏) 서암(恕菴)
 신정희(申正熙) 향농(香農)
 신종호(申從濩) 삼괴당(三槐堂)

신좌모(申佐模) 담인(澹人)
 신준(申浚) 나현(懶軒)
 신중경(申重慶) 금서당(琴書堂)
 신지제(申之梯)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梯) 오재(梧齋)
 신직(申稷) 백하(白河)
 신진(申津) 풍암(楓岩)
 신집(申楫) 하음(河陰)
 신집(申漑) 종산(鍾山)
 신집(申鍊) 독송(獨松)
 신채호(申采浩) 단재(丹齋)
 신천(辛薦) 덕재(德齋)
 신천익(愼天翊) 소은(素隱)
 신초(辛礎) 문암(聞巖)
 신최(申最) 춘소(春沼)
 신팔균(申八均) 동천(東川)
 신평무(申包懋) 호촌(壺村)
 신평정(申弼貞) 병옹(病翁)
 신평청(申必淸) 죽헌(竹軒)
 신희경(辛河鏡) 암곡(岩谷)
 신희학(申澗) 만회(晩晦)
 신희익(愼海翊) 취병(醉病)
 신희익(愼海翊) 호산(湖山)
 신희현(申櫛) 위당(威堂)
 신희호(申濩) 연사(烟沙)
 신희호(申濩) 유암(惟菴)
 신희혼(申混) 초암(初菴)
 신희혼(申混) 초암(草菴)
 신희망(申弘望) 고송(孤松)
 신희화(信和) 자응(慈應)
 신희활(申活) 죽로(竹老)
 신희호(申曉) 만창(晩窓)
 신희호(申曉) 서호(西湖)

신희호(申曉) 효재(曉齋)
 신희호(申曉) 효창(曉窓)
 신희담(愼後聃) 하빈(河濱)
 신희목(愼後睦) 돈와(遯窩)
 신희윤(愼後尹) 대곡(大谷)
 신희재(申厚載) 규정(葵亭)
 신희재(申厚載) 서암(恕菴)
 신희흥(申欽) 방옹(放翁)
 신희흥(申欽) 상촌(象村)
 신희흥(申欽) 여암(旅菴)
 신희흥(申欽) 현옹(玄翁)
 신희흥(申欽) 현헌(玄軒)
 신희우(申興雨) 금하(錦霞)
 신희희남(愼喜男) 영계(滢溪)
 신희복(愼希復) 관천사(觀泉寺)
 신희복(愼希復) 매천(梅川)
 심건영(沈健永) 한계(寒溪)
 심광세(沈光世) 휴옹(休翁)
 심광수(沈光洙) 노계(魯溪)
 심광수(沈光洙) 노연(魯淵)
 심광언(沈光彦) 둔암(鈍菴)
 심광언(沈光彦) 순암(純庵)
 심귀령(沈龜齡) 병담(屏潭)
 심극명(沈克明) 취면(醉眠)
 심기(沈機) 가곡(稼谷)
 심낙수(沈樂洙) 은파(恩坡)
 심노(沈廩) 죽계(竹溪)
 심노(沈廩) 죽사(竹沙)
 심능규(沈能圭) 월포(月浦)
 심단(沈檀) 약봉(藥峯)
 심단(沈檀) 약현(藥峴)
 심단(沈檀) 추우당(追尤堂)
 심대(沈岱) 서둔(西墩)

심대부(沈大孚) 범제(泛齋)
 심대부(沈大學) 가은(嘉隱)
 심대섭(沈大燮) 심훈(沈熏)
 심대섭(沈大燮) 해풍(海風)
 심대승(沈大承) 이안(伊安)
 심덕부(沈德符) 노당(蘆堂)
 심덕부(沈德符) 허강(虛江)
 심동귀(沈東龜) 청봉(淸峰)
 심동로(沈東老) 신재(信齋)
 심민각(沈民覺) 구암(龜巖)
 심민겸(沈敏謙) 두암(杜菴)
 심봉원(沈逢源) 만창(晩窓)
 심봉원(沈逢源) 효창(曉窓)
 심봉의(沈鳳儀) 규봉(圭峰)
 심빈(沈濱) 기수(磯叟)
 심사순(沈思) 묵재(默齋)
 심사정(沈師正) 현재(玄齋)
 심사주(沈師周) 한송(寒松)
 심상규(沈象奎) 두실(斗室)
 심상규(沈象奎) 이하(霧下)
 심상길(沈尙吉) 연옹(蓮翁)
 심상경(沈尙鼎) 몽오재(夢梧齋)
 심수경(沈守慶) 청천당(聽天堂)
 심수현(沈壽賢) 지산(止山)
 심안세(沈安世) 묵재(默齋)
 심액(沈謖) 학계(鶴溪)
 심약기(沈若沂) 외삼재(畏三齋)
 심언경(沈彦慶) 동해당옹(東海浪翁)
 심언광(沈彦光) 어촌(漁村)
 심연(沈演) 규봉(圭峰)
 심연원(沈連源) 보암(保菴)
 심열(沈悅) 남파(南坡)
 심염조(沈念祖) 함재(涵齋)

심영(沈荅) 우청(雨晴)
 심은(沈穩) 청전(靑田)
 심우승(沈友勝) 만사(晩沙)
 심운(沈雲) 서하(棲霞)
 심원준(沈元俊) 안소재(安素齋)
 심유(沈攸) 오탄(梧灘)
 심의(沈義) 대관재(大觀齋)
 심의겸(沈義謙) 간암(艮菴)
 심의겸(沈義謙) 병암(並菴)
 심의겸(沈義謙) 손암(巽菴)
 심의겸(沈義謙) 손재(巽齋)
 심의겸(沈義謙) 황재(黃齋)
 심익운(沈翼雲) 지산(芝山)
 심익현(沈益顯) 죽오(竹塢)
 심일삼(沈日三) 월계(月溪)
 심자(沈梓) 양졸재(養拙齋)
 심장세(沈長世) 각금당(覺今堂)
 심장원(沈長源) 경호조은(鏡湖釣隱)
 심정(沈貞) 소요정(逍遙亭)
 심정진(沈定鎭) 제현(霽軒)
 심제(沈悌) 덕암(德菴)
 심제(沈濟) 사천(沙川)
 심조(沈潮) 정좌와(靜坐窩)
 심종민(沈宗敏) 청만(淸灣)
 심종직(沈宗直) 죽서(竹西)
 심준(沈濬) 망세정(忘世亭)
 심중식(沈重湜) 허촌(虛村)
 심지명(沈之溟) 농암(龍岩)
 심지원(沈之源) 만사(晩沙)
 심지원(沈之源) 한사(寒沙)
 심지택(沈之澤) 누암(陋菴)
 심지한(沈之漢) 창주(滄洲)
 심진(沈璿) 일한당(一漢堂)

심집(沈集) 치헌(耻軒)
 심집(沈諱) 남애(南崖)
 심징(沈澄) 의곡(義谷)
 심척(沈楊) 적약재(楊若齋)
 심충겸(沈忠謙) 사양당(四養堂)
 심택(沈澤) 취죽(翠竹)
 심통원(沈通源) 옥재(岳齋)
 심풍지(沈豐之) 기기재(頤頤齋)
 심헌영(沈獻永) 장재(莊齋)
 심형구(沈亨求) 운봉(雲峰)
 심호(沈鎬) 일재(逸齋)
 심홍모(沈弘模) 간재(簡齋)
 심환지(沈煥之) 만포(晩圃)
 심희수(沈喜壽) 수뢰루인(水雷累人)
 심희수(沈喜壽) 일송(一松)
 심희순(沈熙淳) 동암(桐庵)
 약진(樂眞) 오공통혜(悟空通慧)
 안건(安堅) 주경(朱耕)
 안건(安堅) 현동자(玄洞子)
 안경공(安景恭) 관동(關東)
 안경창(安慶昌) 사내(四耐)
 안계송(安繼宋) 박전(萆田)
 안계송(安繼宋) 박천야수(박田野叟)
 안곽(安廓) 자산(自山)
 안구(安觀) 태만(苔縹)
 안국선(安國善) 농구실인(弄球室人)
 안귀행(安貴行) 백산(白山)
 안극가(安克家) 뇌곡(磊谷)
 안기(安岐) 녹둔(麓)
 안기(安岐) 송천(松泉)
 안기종(安起宗) 지헌(止軒)
 안노생(安魯生) 춘곡(春谷)
 안담(安曇) 송애(松厓)

안당(安塘) 영모당(永慕堂)
 안덕린(安德麟) 사촌(沙村)
 안명설(安命說) 수심암(睡心庵)
 안목(安牧) 겸재(謙齋)
 안문개(安文凱) 질재(質齋)
 안문영(安文英) 주옹(周翁)
 안민학(安敏學) 풍애(楓厓)
 안민행(安敏行) 하산(霞山)
 안방경(安方慶) 구배헌(灸背軒)
 안방준(安邦俊)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 은봉(隱峰)
 안병찬(安秉瓚) 규당(規堂)
 안상계(安桑鷄) 전은(田隱)
 안상억(安相億) 송재(松齋)
 안서우(安瑞羽) 양기옹(兩葉翁)
 안서익(安瑞翼) 일당(逸堂)
 안석경(安錫敬) 삽교(雪橋)
 안석주(安碩柱) 석영(夕影)
 안성(安省) 설천(雪川)
 안성(安省) 천곡(泉谷)
 안세언(安世彦) 빙호(氷壺)
 안수(安璉) 창주(滄州)
 안수(安隧) 창랑(滄浪)
 안숙(安壽) 약포(藥圃)
 안순(安純) 죽계(竹溪)
 안승선(安崇善) 용재(雍齋)
 안승효(安崇孝) 한백당(寒栢堂)
 안승우(安承禹) 하사(下沙)
 안신(安珮) 오휴자(五休子)
 안여경(安餘慶) 옥천(玉川)
 안연석(安鍊石) 보만당(保晩堂)
 안영(安瑛) 사재(思齋)
 안완경(安完慶) 정암(貞菴)

안우(安遇) 노계(蘆溪)
 안우기(安宇器) 죽옥자(竹玉子)
 안욱(安旭) 청천(淸川)
 안유(安裕) 회헌(晦軒)
 안응개(安應漑) 동곡(東谷)
 안응로(安應魯) 취치(醉癡)
 안응세(安應世) 월창(月窓)
 안응창(安應昌) 우졸재(愚拙齋)
 안의(安義) 물재(勿齋)
 안재홍(安在鴻) 민세(民世)
 안전(安琰) 반송(蟠松)
 안전(安瑑) 죽암(竹岩)
 안정(安挺) 죽창(竹窓)
 안정(安珽) 식창(拭瘡)
 안정복(安鼎福) 상헌(橡軒)
 안정복(安鼎福) 우이자(虞夷子)
 안정복(安鼎福) 한산병은(漢山病隱)
 안정복(安鼎福) 순암(順菴)
 안정섭(安廷燮) 만오헌(晩悟軒)
 안종도(安宗道) 세한당(歲寒堂)
 안종무(安宗茂) 설재(雪齋)
 안종원(安宗源) 쌍청당(雙淸堂)
 안종원(安鍾元) 석정(石丁)
 안종화(安鍾和) 함재(涵齋)
 안준(安俊) 노포(蘆浦)
 안중관(安重觀) 가주(可洲)
 안중관(安重觀) 회와(悔窩)
 안중식(安中植) 심전(心田)
 안중(安中) 왕구정(琯龜亭)
 안지(安志) 농애(農厓)
 안지(安止) 고은(皐隱)
 안지(安止) 숙고(肅臯)
 안진(安鎭) 학촌(鶴村)

안진(安震) 상헌(橡軒)
 안진(安震) 상헌(常軒)
 안집(安湊) 상산(橡山)
 안찬(安縝) 치사(痴史)
 안창(安昶) 석천(石泉)
 안창호(安昌浩) 도산(島山)
 안처겸(安處謙) 근재(謹齋)
 안처겸(安處謙) 허재(虛齋)
 안처성(安處誠) 죽계(竹溪)
 안처순(安處順) 기재(幾齋)
 안처순(安處順) 사재(思齋)
 안처순(安處順) 사재당(思齋堂)
 안천기(安千器) 죽옥자(竹屋子)
 안축(安軸) 근재(謹齋)
 안축(安軸) 둔암(鈍菴)
 안치민(安置民) 기암(棄菴)
 안치민(安置民) 수거사(睡居士)
 안치민(安置民) 취수(醉睡)
 안침(安琛) 죽계(竹溪)
 안침(安琛) 죽창(竹窓)
 안태국(安泰國) 동오(東吾)
 안평대군(安平大君) 낭간(琅玕)
 안평대군(安平大君) 비해당(匪懈堂)
 안향(安珦) 회헌(晦軒)
 안현(安珪) 설강(雪江)
 안호겸(安虎謙) 겸재(謙齋)
 안효제(安孝濟) 수과(守坡)
 안후(安垺) 죽애(竹厓)
 안후설(安後說) 검남(劍南)
 안후설(安後說) 재곡(齋谷)
 안후열(安後說) 인남(仁南)
 안후태(安後泰) 월창(月窓)
 안희제(安熙濟) 백산(白山)

약탄(若坦) 영해(影海)
 약휴(若休) 호암(護巖)
 양거안(梁居安) 육화(六化)
 양견(梁堅) 월정(月亭)
 양경우(梁慶遇) 요정(蓼汀)
 양경우(梁慶遇) 점이재(點易齋)
 양경우(梁慶遇) 제호(霽湖)
 양경우(梁慶遇) 태암(泰巖)
 양관(梁灌) 일로당(逸老堂)
 양기탁(梁起鐸) 운강(雲岡)
 양기하(梁基暇) 하산(荷山)
 양대박(梁大撲) 죽암(竹巖)
 양대박(梁大樸) 송암(松巖)
 양대박(梁大樸) 청계(淸溪)
 양대박(梁大樸) 하곡(荷谷)
 양덕록(楊德祿) 회현(悔軒)
 양도(梁燾) 회옹(晦翁)
 양득중(梁得中) 덕촌(德村)
 양득중(梁得中) 매촌(梅村)
 양만고(楊萬古) 감호(鑑湖)
 양만고(楊萬古) 든호(遯湖)
 양만고(楊萬古) 비로(毗盧)
 양만용(梁曼容) 거오(據梧)
 양사기(楊士奇) 죽재(竹齋)
 양사언(楊士彦)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완구(完邱)
 양사언(楊士彦) 창해(滄海)
 양사언(楊士彦) 해객(海客)
 양사언(楊士彦) 해용(海容)
 양사준(楊士俊) 풍고(楓阜)
 양사형(楊士衡) 구담(龜潭)
 양사형(楊士衡) 어계(漁溪)
 양산보(梁山甫) 소쇄옹(瀟灑翁)

양성지(梁誠之) 늘재(訥齋)
 양성지(梁誠之) 성재(誠齋)
 양성지(梁誠之) 송과(松坡)
 양세봉(梁世奉) 벽해(碧海)
 양시진(楊時晉) 구음(龜陰)
 양언진(梁彦鎭) 소쇄원(瀟灑園)
 양여공(梁汝恭) 유정(柳亭)
 양연(梁淵) 설옹(雪翁)
 양우조(楊宇朝) 소벽(少碧)
 양원(梁源) 순수(順受)
 양원(梁榘) 임천(任天)
 양응락(梁應洛) 만수(漫叟)
 양응록(梁應祿) 상촌(橡村)
 양응정(梁應鼎) 송천(松川)
 양응춘(楊應春) 도곡(道谷)
 양응태(梁應胎) 허진당(虛眞堂)
 양의(梁躋) 규현(葵軒)
 양의직(楊懿直) 정세(靖世)
 양자정(梁子淸) 지암(支岩)
 양자징(梁子澂) 고암(鼓巖)
 양재건(梁在健) 죽장(竹杖)
 양재하(梁在夏) 건초(建初)
 양전백(梁甸伯) 격현(格軒)
 양처계(梁處濟) 묵재(默齋)
 양처제(梁處濟) 묵재(墨齋)
 양천운(梁千運) 영주(瀛洲)
 양철견(梁鐵堅) 죽재(竹齋)
 양팽손(梁彭孫) 학포(學圃)
 양한묵(梁漢默) 지강(芝江)
 양홍주(梁弘澍) 서계(西溪)
 양황(梁槐) 진우재(眞愚齋)
 양희일(梁會一) 행사(杏史)
 양희(梁喜) 구졸암(九拙菴)

양희상(楊熙上) 대봉(大峰)
 어득강(魚得江)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혼돈(渾沌)
 어몽림(魚夢濂) 은수당(隱睡堂)
 어몽룡(魚夢龍) 설곡(雪谷)
 어무적(魚無跡) 낭선(浪仙)
 어변갑(魚變甲) 면곡(綿谷)
 어석운(魚錫胤) 일軒(逸軒)
 어석정(魚錫定) 신암(慎菴)
 어세겸(魚世謙) 서천(西川)
 어숙권(魚叔權) 아족당(也足堂)
 어영준(魚泳濬) 송정(松亭)
 어유구(魚有龜) 궁재(兢齋)
 어유봉(魚有鳳) 기원(杞園)
 어유성(魚有成) 과옹(瓜翁)
 어윤적(魚允迪) 혜인(惠人)
 어윤중(魚允中) 일재(一齋)
 어진익(魚震翼) 겸재(謙齋)
 어효침(魚孝瞻) 구천(龜川)
 언기(彦機) 편양당(鞭羊堂)
 열현(孽玄) 취죽(翠竹)
 엄경수(嚴慶遂) 부재(孚齋)
 엄경하(嚴慶遐) 가은(稼隱)
 엄계응(嚴啓應) 연석(燕石)
 엄계응(嚴啓膺) 약오(藥塢)
 엄도(嚴濤) 오서(梧西)
 엄석정(嚴錫鼎) 가당(稼堂)
 엄성(嚴惺) 동강(桐江)
 엄세영(嚴世永) 범정(凡齋)
 엄정구(嚴鼎壽) 창랑(滄浪)
 엄집(嚴緝) 만회(晩晦)
 엄한명(嚴漢明) 만향재(晩香齋)
 엄흔(嚴昕) 십성당(十省堂)

여규형(呂圭亨) 하정(荷汀)
 여대로(呂大老) 감호(鑑湖)
 여성재(呂成齋) 설포(雪浦)
 여성제(呂聖濟) 운포(雲浦)
 여우길(呂祐吉) 치계(痴溪)
 여우길(呂祐吉) 치계(稚溪)
 여운형(呂運亨) 몽양(夢陽)
 여유길(呂裕吉) 춘강(春江)
 여응룡(呂應龍) 송오(松塢)
 여이재(呂爾載) 해옹(海翁)
 여이징(呂爾徵) 동강(東江)
 여준(呂準) 시당(時堂)
 여칭(呂稱) 저곡(樗谷)
 여희림(呂希臨) 원정(圓亭)
 연온(衍崧) 졸암(拙庵)
 연초(演初) 설송(雪松)
 연최적(延最績) 치당(痴堂)
 염국보(廉國寶) 국파(菊坡)
 염국보(廉國寶) 난파(蘭坡)
 염상섭(廉尙燮) 상섭(想涉)
 염상섭(廉尙燮) 횡보(橫步)
 염세경(廉世慶) 양산(梁山)
 염온동(廉溫東) 추정(秋汀)
 염정수(廉廷秀) 흰정(萱庭)
 염제신(廉梯臣) 매헌(梅軒)
 염흥방(廉興邦) 동정(東亭)
 영관(靈觀) 부용(芙蓉)
 영관(靈觀) 연선(蓮船)
 영관(靈觀) 은암(隱庵)
 영규(靈圭) 기허(騎虛)
 영기(永奇) 남호(南湖)
 영오(寧邀) 경월(鏡月)
 영원(靈源) 화담(華潭)

영조(英祖) 양성헌(養性軒)
 영홍(泳泓) 몽월(夢月)
 예가(例珂) 하은(河隱)
 오건(吳健) 덕계(德溪)
 오겸(吳謙) 금양(錦陽)
 오겸(吳謙) 지족암(知足菴)
 오경(吳慶) 계산(溪山)
 오경림(吳慶林) 군정(筠廷)
 오경석(吳慶錫) 역매(亦梅)
 오경석(吳慶錫) 진재(鎭齋)
 오경석(吳慶錫) 천죽재(天竹齋)
 오경원(吳慶元) 수양일민(首陽逸民)
 오광운(吳光運) 약산(藥山)
 오국헌(吳國獻) 어은(漁隱)
 오극성(吳克成) 문월당(問月堂)
 오궁선(吳宮善) 해관(海觀)
 오단(吳端) 동암(東巖)
 오단(吳端) 백암(白巖)
 오달제(吳達濟) 추담(秋潭)
 오대관(吳大寬) 덕양(德陽)
 오대익(吳大益) 설암(雪岩)
 오도일(吳道一) 서파(西坡)
 오동진(吳東振) 송암(松菴)
 오두웅(吳斗雄) 은곡(隱谷)
 오두인(吳斗寅) 양곡(陽谷)
 오명항(吳命恒) 모암(慕庵)
 오명항(吳命恒) 영모당(永慕堂)
 오백령(吳百齡) 묵재(默齋)
 오비(吳庇) 성산(聖山)
 오빈(吳飴) 농재(農齋)
 오상(吳尙) 악남(岳南)
 오상(吳祥) 부원당(負暄堂)
 오상림(吳尙濂) 연초재(燕超齋)

오상순(吳相淳) 공초(空超)
 오상순(吳相淳) 탄운(彈雲)
 오세창(吳世昌) 위창(趨倉)
 오세창(吳世昌) 위창(葦滄)
 오수겸(吳守謙) 춘당(春塘)
 오수영(吳守盈) 춘당(春塘)
 오숙(吳黼) 천파(天坡)
 오시만(吳始萬) 춘헌(春軒)
 오시복(吳始復) 휴곡(休谷)
 오시수(吳始壽) 수촌(水村)
 오억령(吳億齡) 만취(晩翠)
 오언주(吳彦胄) 번천(樊川)
 오운(吳漣) 죽계(竹溪)
 오원(吳瑗) 월곡(月谷)
 오유(吳濡) 죽유(竹圃)
 오윤겸(吳允謙)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 토당(土塘)
 오윤상(吳允常) 영재(寧齋)
 오윤해(吳允諧) 만운(晩雲)
 오응(吳凝) 금남(錦南)
 오응정(吳應鼎) 완월당(翫月堂)
 오이규(吳以奎) 지천(支川)
 오이익(吳以翼) 석문(石門)
 오이정(吳以井) 장계(藏溪)
 오익(吳翊) 묵재(默齋)
 오익(吳翊) 월강(月岡)
 오익창(吳益昌) 사호(沙湖)
 오일영(吳一英) 정재(靜齋)
 오장(吳長) 사호(思湖)
 오재순(吳載純) 순암(醇菴)
 오재순(吳載純) 우불급계(愚不及齋)
 오재홍(吳載弘) 백운(白雲)
 오재희(吳載熙) 휴재(休齋)

오전(吳立專) 인주(麟洲)
 오정길(吳廷吉) 해서(海西)
 오정방(吳定邦) 퇴전당(退全堂)
 오정위(吳挺緯) 동사(東沙)
 오정일(吳挺一) 구사(龜沙)
 오정창(吳挺昌) 용호(龍湖)
 오정坦(吳挺坦) 취옹(醉翁)
 오준(吳竣) 죽남(竹南)
 오중주(吳重周) 야은(野隱)
 오진주(吳晉周) 무명재(無名齋)
 오찬(吳贖) 청수재(淸修齋)
 오찬조(吳贖祖) 영회정(永懷亭)
 오천민(吳天民) 양정당(養靜堂)
 오태주(吳泰周) 취몽헌(醉夢軒)
 오환(吳僊) 수오당(守吾堂)
 오혁(吳翮) 백천당(百千堂)
 오행민(吳行敏) 화암(畫岩)
 오헌(吳憲) 송암(松菴)
 오형(吳詡) 애암(艾菴)
 오화영(吳華英) 국사(菊史)
 오환(吳煥) 설애(雪厓)
 오홍묵(吳弘默) 채원(菴園)
 오효석(吳孝錫) 대명동인(大明洞人)
 오효석(吳孝錫) 생로당(生老堂)
 오희길(吳希吉) 도암(韜庵)
 오희도(吳希道) 망우재(忘憂齋)
 오희상(吳熙常) 노주(老洲)
 옥고(玉沽) 응계(凝溪)
 왕의성(王義成) 서강(西岡)
 왕태(王太) 수리(數里)
 우강(禹綱) 우곡(愚谷)
 우기(祐祈) 지봉(智峯)
 우남양(禹南陽) 운곡(雲谷)

우배선(禹拜善) 월곡(月谷)
 우복룡(禹伏龍) 구암(懼庵)
 우복룡(禹伏龍) 동계(東溪)
 우석규(禹錫珪) 지족당(知足堂)
 우선언(禹善言) 풍에(楓厓)
 우성규(禹成圭) 경도(景陶)
 우성규(禹成圭) 경재(景齋)
 우성부(禹性傳) 연암(淵庵)
 우성서(禹聖瑞) 남곡(南谷)
 우성전(禹性傳) 추연(秋淵)
 우세이(禹世一) 고산(孤山)
 우여도(禹汝度) 만희(晩悔)
 우여무(禹汝楸) 색천(涑川)
 우우(兩友) 환경(幻鏡)
 우유일(禹惟一) 이우당(二友堂)
 우재룡(禹在龍) 백산(白山)
 우정(禹鼎) 갈계(葛溪)
 우정상(禹貞相) 소산(疏山)
 우정심(禹廷深) 사담(沙潭)
 우탁(禹倬) 역동(易東)
 우하영(禹夏永) 취석실(醉石室)
 우현보(禹玄寶) 양호당(養浩堂)
 우홍적(禹弘績) 장곡(長谷)
 운고(雲臯) 제봉(霽峰)
 운고(雲臯) 제산(霽山)
 운묵(雲默) 부암(浮庵)
 운초(雲楚) 부용(芙蓉)
 원개(元凱) 밀암(密庵)
 원개(元凱) 법환(法桓)
 원개(元凱) 충지(冲止)
 원경하(元景夏) 비와(肥窩)
 원경하(元景夏) 창하(蒼霞)
 원계손(元繼孫) 환범재(換凡齋)

원관(元瓘) 퇴옹(退翁)
 원두추(元斗樞) 거업와(居業窩)
 원두추(元斗樞) 장산(長山)
 원두표(元斗杓) 탄수(灘叟)
 원두표(元斗杓) 탄옹(灘翁)
 원만리(元萬里) 청계(聽齋)
 원만석(元萬石) 고산헌(孤山軒)
 원몽린(元夢麟) 죽서(竹西)
 원보륜(元甫崙) 영극당(寧克堂)
 원송수(元松壽) 매계(梅溪)
 원오(圓悟) 만화(萬化)
 원원경(袁遠慶) 송암(松菴)
 원진해(元振海) 장육당(藏六堂)
 원천상(元天常) 응암(登岩)
 원천석(元天錫) 운곡(耘谷)
 원호(元昊) 관란정(觀瀾亭)
 원호(元昊) 무항(霧巷)
 원황(元鏡) 구정(龜亭)
 원효(元曉) 복성(卜性)
 원효(元曉) 소성(小性)
 원휘(圓輝) 송계(松溪)
 월면(月面) 만공(滿空)
 월산대군(月山大君) 풍월정(風月亭)
 위덕의(魏德毅) 청계(聽溪)
 위백규(魏伯珪) 존재(存齋)
 유계(俞槩) 시남(市南)
 유기(有璣) 운객(雲客)
 유기(有璣) 해봉(海峯)
 유기(有璣) 호은(好隱)
 유기창(俞起昌) 서호(西湖)
 유길준(俞吉濬) 구당(矩堂)
 유대기(俞大祺) 첨연(礎淵)
 유대일(俞大逸) 용은(慵隱)

유대진(俞大進)신포(新浦)
 유득일(俞得一)귀와(歸窩)
 유명퇴(俞命賚)자교당(慈教堂)
 유명웅(俞命雄)만휴정(晩休亭)
 유명홍(俞命弘)죽리(竹里)
 유문(有文)추계(秋溪)
 유백증(俞伯曾)취헌(翠軒)
 유상기(俞相基)기초재(祈招齋)
 유성증(俞省曾)요곡(拗谷)
 유성증(俞省曾)우곡(愚谷)
 유세신(庚世信)묵애당(默駮堂)
 유수기(俞受基)일현(逸軒)
 유숙(劉淑)혜산(蕙山)
 유숙기(俞肅基)겸산(兼山)
 유신환(俞莘煥)봉서(鳳棲)
 유양(俞瑒)추담(楸潭)
 유언길(俞彦吉)매호(梅湖)
 유언민(俞彦民)기재(棄齋)
 유언민(俞彦民)석은(石隱)
 유언술(俞彦述)서고(西阜)
 유언술(俞彦述)송탄(松灘)
 유언술(俞彦述)지족당(知足堂)
 유언집(俞彦鑠)대재(大齋)
 유언호(俞彦鎬)즉지현(則止軒)
 유여대(劉如大)낙포(樂圃)
 유여림(俞汝霖)정당(政堂)
 유여주(俞汝舟)임벽당(林碧堂)
 유우기(俞宇基)경도암(景陶菴)
 유원주(劉元柱)묵재(默齋)
 유응부(俞應孚)벽량(碧梁)
 유일(有一)연담(蓮潭)
 유재소(劉在韶)소천(小泉)
 유재소(劉在韶)학석(鶴石)

유정(惟政)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송운(松雲)
 유정(惟政)종봉(鍾峯)
 유진(俞鎭)학촌(學村)
 유진증(俞晉曾)목오(木塢)
 유진태(俞鎭泰)백은(白隱)
 유찬홍(庾纘洪)춘곡(春谷)
 유창(劉敞)선암(仙庵)
 유창(劉敞)우계(羽溪)
 유창(俞場)운계(雲溪)
 유창환(俞昌煥)우당(愚堂)
 유척기(俞拓基)지수재(知守齋)
 유철(俞徹)취옹(醉翁)
 유최기(俞最基)무수옹(無愁翁)
 유최기(俞最基)자락현(自樂軒)
 유치봉(俞致鳳)하산(霞山)
 유하익(俞夏益)백인당(百忍堂)
 유한전(俞漢僞)저암(著庵)
 유한전(俞漢雋)창애(蒼厓)
 유한지(俞漢芝)기원(綺園)
 유해(俞滄)송암(松菴)
 유현(俞櫛)송정(松汀)
 유형(俞炯)도원(桃園)
 유형(有炯)설두(雪竇)
 유호인(俞好仁)뇌계(雷溪)
 유호인(俞好仁)유계(溜溪)
 유호인(俞好仁)임계(林溪)
 유호인(劉好仁)천방옹(天放翁)
 유홍(俞泓)송당(松塘)
 유황(俞槐)봉주(鳳洲)
 유희일(俞晦一)물재(勿齋)
 유희문(柳徽文)호고와(好古窩)
 유희경(劉希慶)촌은(村隱)

윤강(尹絳)무곡(無谷)
 윤강원(尹剛元)기인암(棄仁菴)
 윤강원(尹剛元)기재(棄齋)
 윤개(尹漑)서파(西坡)
 윤개(尹漑)회재(晦齋)
 윤개(尹措)치암(痴菴)
 윤거형(尹居衡)송파(松坡)
 윤결(尹潔)성부(醒夫)
 윤결(尹潔)취부(醉夫)
 윤겸(尹謙)오옹(梧翁)
 윤경(尹綱)기천(岐川)
 윤경교(尹敬敎)장호(長湖)
 윤경남(尹景南)영호(潯湖)
 윤경립(尹敬立)우천(牛川)
 윤계(尹槩)신곡(薪谷)
 윤계(尹槩)임호(林湖)
 윤계(尹楷)하곡(霞谷)
 윤계선(尹繼善)파담(파潭)
 윤계정(尹啓鼎)덕곡(德谷)
 윤관(尹寬)삼휴당(三休堂)
 윤광계(尹光啓)굴실(橋室)
 윤광계(尹光啓)굴옥(橋屋)
 윤광령(尹光齡)나재(懶齋)
 윤광안(尹光顔)반호(盤湖)
 윤광주(尹光周)용문(龍門)
 윤교중(尹敎重)백남(白南)
 윤구(尹衢)굴정(橋亭)
 윤국형(尹國馨)은성(恩省)
 윤규(尹奎)월호(月湖)
 윤규범(尹奎範)남고(南阜)
 윤근(尹根)매음(梅陰)
 윤근수(尹根壽)외암(畏菴)
 윤근수(尹根壽)월정(月汀)

윤급(尹汲) 근암(近菴)
 윤궁(尹兢) 죽재(竹齋)
 윤기(尹琪) 해객(海客)
 윤기(尹祁) 간보(良輔)
 윤기동(尹耆東) 방한(方閑)
 윤기현(尹耆獻) 장빈자(長貧子)
 윤낙(尹洛) 동호(東湖)
 윤담림(尹潭林) 한계(閑溪)
 윤담휴(尹潭休) 한계(寒溪)
 윤대형(尹大衡) 육오당(六悟堂)
 윤덕준(尹德駿) 일암(逸菴)
 윤덕희(尹德熙) 낙서(駱西)
 윤덕희(尹德熙) 연옹(蓮翁)
 윤덕희(尹德熙) 연포(蓮圃)
 윤돈(尹墩) 상포(霜浦)
 윤돈(尹墩) 죽창(竹窓)
 윤동규(尹東奎) 소남(邵南)
 윤동도(尹東度) 남에(南厓)
 윤동도(尹東度) 유당(柳塘)
 윤동로(尹東老) 수심재(水心齋)
 윤동섭(尹東暹) 팔무당(八無堂)
 윤동수(尹東洙) 경암(敬菴)
 윤동야(尹東野) 현와(弦窩)
 윤동원(尹東源) 일암(一菴)
 윤동철(尹東哲) 노운(老耘)
 윤두서(尹斗緒)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종에(鍾厓)
 윤두수(尹斗壽) 오음(梧陰)
 윤득부(尹得孚) 신암(信菴)
 윤득부(尹得孚) 신재(信齋)
 윤면동(尹冕東) 오현(梧軒)
 윤명렬(尹命烈) 석유(石圃)
 윤명은(尹鳴殷) 사정(思亭)

윤문거(尹文學) 석호(石湖)
 윤민일(尹民逸) 지산(芝山)
 윤민현(尹民獻) 태미(苔扉)
 윤발(尹撥) 월오(月梧)
 윤방(尹昉) 치천(稚川)
 윤변(尹忭) 지족암(知足庵)
 윤병정(尹秉鼎) 파강(巴江)
 윤복(尹復) 석문(石門)
 윤복(尹復) 행당(杏堂)
 윤복지(尹復之) 추봉(秋峯)
 윤봉구(尹鳳九) 구암(久庵)
 윤봉구(尹鳳九) 병계(屏溪)
 윤봉오(尹鳳五) 석문(石門)
 윤봉조(尹鳳朝) 포암(圃巖)
 윤비(尹槩) 풍탄(楓灘)
 윤사국(尹師國) 직암(直庵)
 윤사로(尹師路) 과옹(果翁)
 윤사로(尹師路) 주옹(周翁)
 윤사철(尹師哲) 만둔암(晩遯菴)
 윤삼거(尹三擧) 사매당(四梅堂)
 윤삼산(尹三山) 수옹(壽翁)
 윤상(尹祥) 별동(別洞)
 윤상로(尹湯老) 뇌현(懶軒)
 윤석(尹皙) 한송당(寒松堂)
 윤석래(尹錫來) 둔정(鈍靜)
 윤석래(尹錫來) 만회(晩晦)
 윤선각(尹先覺) 달천(達川)
 윤선거(尹宣擧) 노서(魯西)
 윤선거(尹宣擧)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 산천재(山泉齋)
 윤선대(尹善大) 지비현(知非軒)
 윤선도(尹善道)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해옹(海翁)

윤섭(尹暹) 과재(果齋)
 윤세기(尹世紀) 용포(龍浦)
 윤세복(尹世復) 단애(檀崖)
 윤세용(尹世茸) 백암(白菴)
 윤세희(尹世喜) 삼우당(三友堂)
 윤소종(尹紹宗) 동헌(桐軒)
 윤소중(尹紹宗) 동정(桐亭)
 윤수(尹壽) 칠림(漆林)
 윤수(尹燧) 설봉(雪峰)
 윤순(尹淳) 나계(蘿溪)
 윤순(尹淳) 만옹(漫翁)
 윤순(尹淳) 백하(白下)
 윤순(尹淳) 학음(鶴陰)
 윤순거(尹舜擧) 동토(童土)
 윤승길(尹承吉) 남악(南岳)
 윤승임(尹承任) 주일재(主一齋)
 윤승훈(尹承勳) 청봉(晴峯)
 윤시형(尹時衡) 우암(憂菴)
 윤식(尹湜) 취옹(醉翁)
 윤신지(尹新之) 연초재(燕超齋)
 윤신지(尹新之) 현주(玄洲)
 윤실보(尹實甫) 별동(別洞)
 윤심형(尹心衡) 임재(臨齋)
 윤안국(尹安國) 설초(雪樵)
 윤안성(尹安性) 명관(冥觀)
 윤안성(尹安性) 의관(宜觀)
 윤안성(尹安性) 의재(宜齋)
 윤양래(尹陽來) 회와(晦窩)
 윤언이(尹彦頤) 금강(金剛)
 윤엄(尹儼) 송암(松庵)
 윤엄(尹儼) 송암(松巖)
 윤영로(尹榮老) 구산(龜山)
 윤옥(尹玉) 동리(東里)

윤용(尹溶) 청고(靑阜)
 윤용구(尹用求)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 장위(獐位)
 윤용구(尹用求) 해관(海觀)
 윤용선(尹容善) 자유재(自由齋)
 윤우(倫佑) 완호(琬虎)
 윤운손(尹雲孫) 양물당(養物堂)
 윤원거(尹元擧) 용서(龍西)
 윤원지(尹願之) 행명(溟溟)
 윤위(尹威) 벽송(碧松)
 윤유(尹柔) 농아재(龔啞齋)
 윤유(尹楡) 봉계(鳳溪)
 윤유(尹游) 만하(晩霞)
 윤유재(尹楡載) 창주(滄洲)
 윤의립(尹毅立) 월담(月潭)
 윤의중(尹毅中) 낙촌(駱村)
 윤이건(尹以健) 일소재(一笑齋)
 윤이검(尹以儉) 망호(望湖)
 윤이도(尹以道) 오촌(梧村)
 윤이도(尹以道) 용호(龍湖)
 윤이명(尹以明) 취선(醉仙)
 윤이병(尹履炳) 성재(省齋)
 윤인서(尹仁恕) 타괴(打乖)
 윤인함(尹仁涵) 죽재(竹齋)
 윤자덕(尹慈惠) 국헌(菊軒)
 윤자영(尹子滢) 방헌(庌軒)
 윤자운(尹子雲) 낙한재(樂閒齋)
 윤자운(尹子雲) 낙한정(樂閒亭)
 윤전(尹鑄) 하헌(夏軒)
 윤전(尹焜) 후촌(後村)
 윤정(尹程) 서묵재(瑞墨齋)
 윤정(尹程) 지비헌(知非軒)
 윤정(尹程) 혜천(惠泉)

윤정구(尹定求) 하운(下雲)
 윤정기(尹廷琦) 방산(舫山)
 윤정기(尹廷琦) 한금(寒琴)
 윤정립(尹貞立) 매헌(梅軒)
 윤정립(尹貞立) 학산(鶴山)
 윤정현(尹定鉉) 침계(棼溪)
 윤제세(尹濟世) 취암(就巖)
 윤제홍(尹濟弘) 찬하(餐霞)
 윤종섭(尹鍾燮) 온유재(溫裕齋)
 윤종의(尹宗儀) 연재(淵齋)
 윤종지(尹宗之) 백봉(白蓬)
 윤주익(尹周翊) 송음(松陰)
 윤증(尹拯) 명재(明齋)
 윤증(尹拯) 유봉(酉峯)
 윤지(尹遲) 하옹(河翁)
 윤지(尹埤) 도계(陶溪)
 윤지경(尹知敬) 창주(滄洲)
 윤지교(尹知敎) 숙야재(夙夜齋)
 윤지복(尹之復) 용암(勇菴)
 윤지선(尹趾善) 두포(杜浦)
 윤지술(尹志述) 북정(北亭)
 윤지완(尹趾完) 동산(東山)
 윤진(尹摺) 덕포(德浦)
 윤진(尹軫) 율정(栗亭)
 윤집(尹鑠) 몽계(夢溪)
 윤집(尹集) 고산(高山)
 윤집(尹集) 임계(林溪)
 윤징지(尹澄之) 기암(棄菴)
 윤찬(尹贛) 과릉(坡陵)
 윤추(尹推) 농은(農隱)
 윤춘년(尹春年) 창주(滄洲)
 윤춘년(尹春年) 학음(學音)
 윤취동(尹聚東) 응암(凝菴)

윤치정(尹致定) 석취(石醉)
 윤치호(尹致昊) 좌옹(佐翁)
 윤치희(尹致羲) 금범(錦帆)
 윤침(尹琛) 소안재(素安齋)
 윤침(尹琛) 징암(懲菴)
 윤탁(尹倬) 평와(平窩)
 윤탁(尹鐸) 구산(龜山)
 윤탁연(尹卓然) 중호(重湖)
 윤태준(尹泰駿) 석정(石亭)
 윤택(尹澤) 율정(栗亭)
 윤풍형(尹豐亨) 송월당(松月堂)
 윤풍형(尹豐亨) 송월헌(宋月軒)
 윤필병(尹弼秉) 무호암(無號菴)
 윤해거(尹海擧) 불우헌(不憂軒)
 윤행임(尹行恁) 방시한재(方是閑齋)
 윤행임(尹行恁)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 시문재(是聞齋)
 윤헌주(尹憲柱) 이지당(二知堂)
 윤현(尹倪) 창심당(蒼心堂)
 윤현(尹峴) 송만(松巒)
 윤현(尹鉉) 국간(國磻)
 윤현동(尹顯東) 석운(石雲)
 윤현진(尹顯振) 석산(石山)
 윤형(尹洞) 퇴촌(退村)
 윤형로(尹衡老) 계구암(戒懼菴)
 윤형성(尹衡聖) 기기재(棄棄齋)
 윤형언(尹衡彦) 회곡(檜谷)
 윤혜교(尹惠敎) 완기헌(琬基軒)
 윤호(尹皓) 송재(松齋)
 윤혼(尹混) 천서(泉西)
 윤홍(尹泓) 정재(靜齋)
 윤홍규(尹弘圭) 도계(陶溪)
 윤황(尹煌) 노곡(魯谷)

윤황(尹煌) 팔송(八松)
 윤황(尹璜) 후송(後松)
 윤희(尹淮) 청향당(清香堂)
 윤희(尹淮) 학천(鶴川)
 윤횡(尹璜) 노파(老坡)
 윤효손(尹孝孫) 추계(楸溪)
 윤효전(尹孝全) 기천(沂川)
 윤효정(尹孝貞) 어은(漁隱)
 윤훤(允暄) 설곡(雪谷)
 윤훤(尹暄) 백사(白沙)
 윤휘(尹暉) 장주(長洲)
 윤휘정(尹彙貞) 애서(厓西)
 윤휴(尹鑣) 백호(白湖)
 윤흔(尹昕) 도재(陶齋)
 윤흔(尹昕) 청강(晴江)
 윤흠중(尹欽中) 석정(石亭)
 윤희구(尹喜求) 우당(于堂)
 윤희길(尹希吉) 추애(秋厓)
 윤희렴(尹希廉) 매고(梅阜)
 윤희정(尹希定) 과재(果齋)
 윤희평(尹熙平) 분옹(鵠翁)
 은정화(殷鼎和) 백계(栢溪)
 음관(音觀) 수월(水月)
 응준(應俊) 회은(晦隱)
 응준(應俊) 회은(懷隱)
 의선(義璇) 순암(順庵)
 의성(義誠) 설암(雪巖)
 의성(義誠) 영주(靈珠)
 의소(義沼) 인악(仁岳)
 의순(義恂) 초의(艸衣)
 의심(義謹) 풍담(楓潭)
 의천(義天) 환척(幻寂)
 의친왕(義親王) 만오(晩悟)

의한(意閑) 인암(忍庵)
 이가상(李嘉相) 빙헌(氷軒)
 이가환(李家煥) 금대(錦帶)
 이가환(李家煥) 정헌(貞軒)
 이간(李侃) 최락당(最樂堂)
 이간(李柬) 외암(巍巖)
 이갑(李甲) 추정(秋汀)
 이강(李剛) 오산(吾山)
 이강(李岡) 평재(平齋)
 이강년(李康年) 운강(雲崗)
 이개(李埜) 백옥헌(白玉軒)
 이개립(李介立) 성오대(省吾臺)
 이개직(李介直) 역봉(櫟峯)
 이거(李渠) 송주(松洲)
 이거(李蓮) 남촌(南村)
 이거이(李居易) 쌍허당(雙虛堂)
 이거이(李居易) 청허당(淸虛堂)
 이거인(李居仁) 난파(蘭坡)
 이건(李健) 규창(葵窓)
 이건(李鍵) 풍계(楓溪)
 이건명(李健命) 제월재(霽月齋)
 이건명(李健命) 한포재(寒圃齋)
 이건방(李建芳) 난곡(蘭谷)
 이건석(李建奭) 성석(醒石)
 이건창(李建昌) 영재(寧齋)
 이건필(李建弼) 석범(石帆)
 이격(李格) 만오(晩悟)
 이견간(李堅幹) 산화(山花)
 이견기(李堅基) 남정(楠亭)
 이겸(李謙) 손재(遜齋)
 이겸(李謙) 취성헌(醉醒軒)
 이겸지(李謙之) 양촌(陽村)
 이경(李埰) 농암(聾巖)

이경(李暉) 덕봉(德峯)
 이경기(李慶祺) 동곡(東谷)
 이경기(李慶祺) 낙천당(樂天堂)
 이경동(李瓊全) 추탄(楸灘)
 이경류(李慶流) 반금(伴琴)
 이경민(李慶民) 운강(雲岡)
 이경상(李慶相) 묵암(默菴)
 이경석(李景奭)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쌍계(雙溪)
 이경승(李敬承) 울도(栗島)
 이경승(李景曾) 송음(松陰)
 이경안(李景顔) 송석(松石)
 이경암(李景巖) 현기(玄磯)
 이경억(李慶億) 화곡(華谷)
 이경여(李敬與) 봉암(鳳巖)
 이경용(李景容) 계곡(桂谷)
 이경용(李景容) 두곡(杜谷)
 이경용(李景容) 사곡(社谷)
 이경운(李卿雲) 양정당(養靜堂)
 이경운(李慶胤) 낙촌(駱村)
 이경운(李慶胤) 낙파(駱坡)
 이경운(李慶胤) 학록(鶴麓)
 이경의(李敬義) 한사(寒沙)
 이경의(李景義) 만사(晩沙)
 이경일(李敬一) 청헌(聽軒)
 이경장(李敬長) 역헌(櫟軒)
 이경재(李景在) 소은(紹隱)
 이경재(李景在) 송서(松西)
 이경전(李慶全) 석루(石樓)
 이경정(李景鼎) 물암(勿菴)
 이경중(李敬中) 단애(丹崖)
 이경증(李景曾) 미강(眉江)
 이경지(李慶趾) 우옹(愚翁)

이경직(李景稷) 석문(石門)
 이경직(李耕植) 신부(莘夫)
 이경창(李慶昌) 서촌(西村)
 이경최(李景崔) 매헌(梅軒)
 이경함(李慶涵) 만사(晩沙)
 이경헌(李景憲) 지전(芝田)
 이경화(李景華) 풍계(楓溪)
 이경휘(李慶徽) 묵호(默好)
 이경휘(李慶徽) 춘전(春田)
 이계(李階) 현포(玄圃)
 이계(李桂) 명고(鳴臯)
 이계남(李季南) 휴휴당(休休堂)
 이계동(李季冬) 동호(東湖)
 이계맹(李繼孟) 묵곡(墨谷)
 이계맹(李繼孟) 묵암(墨巖)
 이계전(李季甸) 존양재(存養齋)
 이계조(李啓朝) 동천(桐泉)
 이계주(李啓胄) 온재(溫齋)
 이계함(李季賊) 백헌(栢軒)
 이계호(李繼祐) 휴당(休堂)
 이계호(李繼祐) 휴옹(休翁)
 이계호(李繼祐) 휴휴당(休休堂)
 이고(李臯) 망천(忘川)
 이곡(李穀) 가정(稼亭)
 이곤수(李崑秀) 수재(壽齋)
 이공(李珙) 율원(栗園)
 이공량(李公亮) 안분당(安分堂)
 이공수(李公遂) 남촌(南村)
 이곽(李瀟) 노주(鷺洲)
 이관(李寬) 송석(松石)
 이관(李灌) 만은(晩隱)
 이관(李階) 이암(怡菴)
 이관명(李觀命) 명산(屏山)

이관의(李寬義) 울정(栗亭)
 이관징(李觀徵) 근곡(芹谷)
 이광(李洸) 우계(雨溪)
 이광(李珖) 기천(紀泉)
 이광덕(李匡德) 관양(冠陽)
 이광려(李匡呂) 월암(月巖)
 이광문(李光文) 소화(小華)
 이광사(李匡師)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수북(壽北)
 이광수(李光洙) 춘원(春園)
 이광여(李匡呂) 칠탄(七灘)
 이광우(李光友) 죽각(竹閣)
 이광적(李光迪) 은암(隱菴)
 이광정(李光庭) 눌옹(訥翁)
 이광정(李光庭) 눌재(訥齋)
 이광정(李光庭) 해고(海臯)
 이광정(李光靖) 소산(小山)
 이광좌(李光佐) 운곡(雲谷)
 이광준(李光俊) 학동(鶴洞)
 이광직(李光稷) 희암(希菴)
 이광진(李光軫) 금시당(今是堂)
 이광후(李光後) 매헌(梅軒)
 이괴(李繪) 만오(晩梧)
 이굉(李滋) 귀래정(歸來亭)
 이굉(李滋) 귀휴정(歸休亭)
 이굉(李滋) 연생당(戀生堂)
 이교(李峯) 도촌(桃村)
 이교악(李喬岳) 석음와(石陰窩)
 이교익(李敎翼) 송석(松石)
 이구(李久) 후곡(後谷)
 이구(李構) 연경당(燕敬堂)
 이구(李玖) 은헌(恩軒)
 이구(李球) 미산(薇山)

이구(李球) 연방(蓮坊)
 이구(李球) 은와(隱窩)
 이구원(李久源) 월담(月潭)
 이구익(李求益) 퇴휴당(退休堂)
 이구준(李耆俊) 치재(恥齋)
 이구징(李久澄) 백촌(栢村)
 이국형(李國衡) 불사재(不欺齋)
 이군오(李君五) 묵암(陸菴)
 이군오(李君五) 인중(忍重)
 이권(李勸) 두곡(杜谷)
 이귀(李貴) 묵재(默齋)
 이귀(李龜) 사미정(四美亭)
 이규경(李圭景) 소운(嘯雲)
 이규경(李圭景) 오주(五洲)
 이규명(李奎明) 묘헌(妙軒)
 이규보(李奎報) 백운(白雲)
 이규보(李奎報) 삼혹호(三酷好)
 이규보(李奎報) 지헌(止軒)
 이규준(李圭峻) 석곡(石谷)
 이규태(李圭泰) 호은(湖隱)
 이극배(李克培) 매월당(梅月堂)
 이극배(李克培) 우봉(牛峰)
 이극인(李克仁) 송정(松汀)
 이근상(李根湘) 송조오(松祚梧)
 이금익(李肯翊) 연려실(燃黎室)
 이기(李夔) 정헌(靜軒)
 이기(李沂) 해학(海鶴)
 이기(李璽) 간옹(艮翁)
 이기(李璽) 송옹(松翁)
 이기(李岍) 경재(敬齋)
 이기경(李基慶) 척암(瘠菴)
 이기경(李基敬) 목산(木山)
 이기립(李耆立) 의사(義士)

이기발(李起浚) 서귀(西歸)
 이기보(李基普) 팔물재(八勿齋)
 이기복(李基福) 호암(浩庵)
 이기봉(李起鵬) 만송(晩松)
 이기설(李基高) 연봉(蓮峯)
 이기성(李耆聖) 경묵재(景默齋)
 이기수(李驥秀) 원천(原泉)
 이기양(李基讓) 복암(伏菴)
 이기옥(李璣玉) 두암(寶岩)
 이기익(李箕翊) 수은(市隱)
 이기조(李基祚) 호암(浩菴)
 이기준(李耆俊) 부헌(負喧)
 이기지(李器之) 일암(一菴)
 이기진(李箕鎭) 목곡(牧谷)
 이기춘(李起春) 옥산(玉山)
 이기홍(李箕洪) 직재(直齋)
 이남식(李南軾) 남파(南坡)
 이남식(李南軾) 성곡(星谷)
 이내수(李來修) 양은(陽隱)
 이노(李魯) 송암(松岩)
 이노익(李魯益) 탄초(灘樵)
 이능화(李能和) 간정(侃亭)
 이능화(李能和) 무능(無能)
 이능화(李能和) 무무(無無)
 이능화(李能和) 상현(尙玄)
 이단(李檀) 번계(樊溪)
 이단상(李端相) 정관재(靜觀齋)
 이단석(李端錫) 쌍호당(雙壺堂)
 이단전(李宣佃) 인재(因齋)
 이단전(李宣佃) 필재(疋齋)
 이단전(李宣佃) 필한(疋漢)
 이단하(李端夏) 송간(松峒)
 이달(李達) 동리(東里)

이달(李達) 서담(西潭)
 이달(李達) 손곡(蓀谷)
 이달(李達) 운포(雲圃)
 이달존(李達尊) 운와(雲窩)
 이달충(李達衷) 제정(霽亭)
 이담(李禪) 경재(敬齋)
 이담(李愴) 허주(虛舟)
 이담(李湛) 성재(醒齋)
 이담(李譚) 사은당(四隱堂)
 이담명(李聘命) 정재(靜齋)
 이담(李塘) 방촌(芳村)
 이담규(李堂揆) 퇴촌(退村)
 이대(李岱) 방수와(傍隨窩)
 이대(李臺) 둔재(鈍齋)
 이대(李臺) 순재(純齋)
 이대건(李大建) 오촌(梧村)
 이대기(李大期) 설학(雪壑)
 이대방(李大邦) 문송재(聞松齋)
 이대성(李大成) 삼취헌(三翠軒)
 이대순(李大淳) 활수옹(活水翁)
 이대순(李大純) 남포(南浦)
 이대직(李大植) 도현(道軒)
 이대직(李大植) 만회당(晩悔堂)
 이덕무(李德懋) 동방일사(東方一士)
 이덕무(李德懋) 아정(雅亭)
 이덕무(李德懋) 영처(嬰處)
 이덕무(李德懋) 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懋) 형암(炯庵)
 이덕민(李德敏) 송파(松坡)
 이덕성(李德成) 반곡(盤谷)
 이덕성(李德成) 지비자(知非子)
 이덕수(李德壽) 벽계(蘖溪)
 이덕수(李德壽) 서당(西堂)

이덕수(李德洙) 이유당(怡愉堂)
 이덕수(李德秀) 벽산(碧山)
 이덕연(李德演) 이수옹(二水翁)
 이덕영(李德英) 서은(鋤隱)
 이덕온(李德溫) 구촌(龜村)
 이덕인(李德寅) 영옹(永翁)
 이덕일(李德胄) 하정(下亭)
 이덕중(李德重) 결재(潔齋)
 이덕형(李德洞) 죽창(竹窓)
 이덕형(李德洞) 죽천(竹泉)
 이덕형(李德馨) 쌍송(雙松)
 이덕형(李德馨) 포옹산인(抱擁散人)
 이덕형(李德馨) 한음(漢陰)
 이덕홍(李德弘) 간재(良齋)
 이덕흠(李德欽) 동원(東園)
 이도(李導) 방재(方齋)
 이도(李嗣) 하석(霞石)
 이도(李道) 토굴(土窟)
 이도경(李道慶) 노암(老岩)
 이도남(李道南) 월연(月淵)
 이도영(李道榮) 관재(貫齋)
 이도영(李道榮) 면소(芻巢)
 이도영(李道榮) 벽허자(碧虛子)
 이도익(李道翼) 희구재(喜懼齋)
 이도자(李道孜) 복재(復齋)
 이도장(李道長) 낙촌(駱村)
 이도재(李道宰) 심재(心齋)
 이돈(李燾) 수묵재(守默齋)
 이돈(李燾) 호봉(壺峰)
 이돈서(李惇紱) 만사(晩沙)
 이돈오(李惇五) 일죽(一竹)
 이돈우(李敦宇) 신계(莘憩)
 이돈화(李敦化) 야뢰(夜雷)

이동(李東) 추월헌(秋月軒)
 이동규(李同揆) 혼천(混泉)
 이동녕(李東寧) 석오(石吾)
 이동립(李東立) 행원(杏園)
 이동설(李東說) 봉촌(鳳村)
 이동언(李東彦) 삼복재(三復齋)
 이동욱(李東郁) 소암(蘇巖)
 이동욱(李東郁) 한천(寒泉)
 이동운(李東運) 청계(靑溪)
 이동표(李東標) 나은(懶隱)
 이동형(李東亨) 사우당(四友堂)
 이동휘(李東輝) 성재(誠齋)
 이두(李杜) 조해정(照海亭)
 이득원(李得元) 죽재(竹齋)
 이득운(李得胤) 서계(西溪)
 이로(李輅) 동진(東津)
 이만겸(李萬謙) 하산(霞山)
 이만계(李晚燧) 유천(柳川)
 이만도(李晚燾) 향산(響山)
 이만백(李萬白) 자유헌(自濡軒)
 이만봉(李萬封) 죽수(竹瘦)
 이만부(李萬敷) 식봉(息峯)
 이만부(李萬敷) 식산(息山)
 이만상(李萬相) 금곡(琴谷)
 이만선(李萬選) 거재(藎齋)
 이만성(李晩成) 귀락당(歸樂堂)
 이만성(李晩成) 행호(杏湖)
 이만수(李晩秀) 극옹(屐翁)
 이만수(李晩秀) 극원(屐園)
 이만수(李萬秀) 소재(素齋)
 이만영(李晩榮) 설창(雪窓)
 이만영(李晩榮) 설해(雪海)
 이만영(李萬榮) 죽음(竹飲)

이만용(李晩用) 동번(東樊)
 이만운(李萬運) 묵헌(默軒)
 이만웅(李萬雄) 몽탄(夢灘)
 이만원(李萬元) 이우당(二憂堂)
 이만유(李萬維) 은암(恩菴)
 이만익(李晩益) 매학당(梅鶴堂)
 이만정(李萬挺) 은계(銀溪)
 이만형(李萬亨) 삼우재(三友齋)
 이맹균(李孟均) 한소재(漢蘇齋)
 이맹균(李孟均) 한재(漢齋)
 이맹상(李孟常) 이수(頤叟)
 이맹전(李孟專) 경수(耕叟)
 이맹전(李孟專) 경은(耕隱)
 이면구(李勉求) 남하(南霞)
 이면백(李勉伯) 대연(岱淵)
 이면주(李冕宙) 계은(桂隱)
 이면주(李冕宙) 하계(霞溪)
 이면하(李冕夏) 구곡(白谷)
 이명(李溟) 구촌(龜村)
 이명(李莫) 동고(東臯)
 이명(李洺) 임청헌(臨淸軒)
 이명기(李命基) 화산관(華山館)
 이명덕(李明德) 사봉(沙峰)
 이명룡(李明龍) 춘헌(春軒)
 이명민(李命敏) 지지당(知止堂)
 이명부(李明傳) 낙전(樂全)
 이명웅(李命雄) 송사(松沙)
 이명윤(李命允) 안호(安湖)
 이명은(李命殷) 백운(白雲)
 이명은(李命殷) 봉천(鳳川)
 이명익(李溟翼) 반초당(反招堂)
 이명준(李命俊) 잠암(潛庵)
 이명준(李命俊) 잠와(潛窩)

이명준(李命俊) 진사재(進思齋)
 이명환(李明煥) 백주(白洲)
 이명환(李明煥) 해악(海岳)
 이목(李穆) 북계(北溪)
 이목(李穆) 한재(寒齋)
 이목(李穆) 송교(松郊)
 이목연(李穆淵) 소소(笑笑)
 이몽규(李夢奎) 천휴당(天休堂)
 이몽남(李夢男) 구주(白鳥洲)
 이무(李耆) 과암(果菴)
 이문건(李文健) 묵재(默齋)
 이문건(李文健) 휴수(休叟)
 이문보(李文輔) 대관(大觀)
 이문정(李文挺) 황강(黃岡)
 이문정(李聞政) 농수(農叟)
 이문청(李文淸) 낙수(洛叟)
 이문형(李文馨) 졸옹(拙翁)
 이문화(李文和) 오천(烏川)
 이미(李薇) 산북(山北)
 이민각(李民覺) 사병당(四屏堂)
 이민곤(李敏坤) 임은(林隱)
 이민구(李敏求) 관해(觀海)
 이민구(李敏求) 동주(東洲)
 이민배(李民培) 두봉(斗峯)
 이민보(李敏輔) 상와(常窩)
 이민보(李敏輔) 풍서(豐墅)
 이민서(李敏敍) 서하(西河)
 이민선(李敏善) 북봉(北峰)
 이민성(李民成) 경정(敬亭)
 이민적(李敏迪) 죽서(竹西)
 이민환(李民奐) 자암(紫岩)
 이발(李潑) 동암(東菴)
 이발(李潑) 북산(北山)

이방수(李芳秀) 광부(狂夫)
 이방언(李邦彦) 남강(南岡)
 이방운(李昉運) 기야(箕野)
 이방운(李昉運) 심재(心齋)
 이방직(李邦直) 의곡(義谷)
 이방필(李邦弼) 음취(挹翠)
 이배원(李培元) 귀휴정(歸休亭)
 이번(李燾) 몽재(蒙齋)
 이범직(李範稷) 조암(釣庵)
 이별(李臈) 장륙당(藏六堂)
 이병기(李秉岐) 가람(嘉藍)
 이병모(李秉模) 정수재(靜修齋)
 이병상(李秉常) 삼산(三山)
 이병성(李炳星) 두봉(斗峯)
 이병성(李秉成) 순암(順庵)
 이병연(李秉淵) 사천(槎川)
 이병태(李秉泰) 동산(東山)
 이병학(李丙學) 소봉(蘇峯)
 이병화(李炳華) 눌운(訥雲)
 이병화(李炳華) 어산(於山)
 이보(李輔) 남계(南溪)
 이보만(李保晩) 대명(大明)
 이보흠(李甫欽) 대전(大田)
 이복(李僕) 마재(磨齋)
 이복(李馥) 파곡(坡谷)
 이복로(李福老) 쌍봉(雙峰)
 이복선(李復善) 북촌(北村)
 이복원(李福源) 쌍계(雙溪)
 이복현(李復鉉) 석현후(石見樓)
 이봉(李封) 소은(蘇隱)
 이봉로(李鳳魯) 약송(若松)
 이봉상(李鳳祥) 설천(雪川)
 이봉수(李鳳秀) 금계(襟溪)

이봉수(李鳳秀) 대은(大隱)
 이봉조(李鳳朝) 연암(蓮庵)
 이봉징(李鳳徵) 은봉(隱峰)
 이봉징(李鳳徵) 해봉(海峯)
 이봉환(李鳳煥) 우념(雨念)
 이봉환(李鳳煥) 회곡(晦谷)
 이부(李溥) 명신당(明信堂)
 이부(李阜) 행원(杏園)
 이분(李芬) 묵헌(默軒)
 이빈(李彬) 서주(西疇)
 이사경(李士慶) 쌍곡(雙谷)
 이사관(李思觀) 장음(長陰)
 이사구(李思鉤) 눌헌(訥軒)
 이사명(李師命) 포암(蒲菴)
 이사성(李師聖) 귀래정(歸來亭)
 이사성(李師聖) 보진재(葆眞齋)
 이사익(李師益) 송암(松菴)
 이사질(李思質) 흠재(翕齋)
 이사필(李士弼) 수은(睡隱)
 이사호(李士浩) 창해(滄海)
 이산퇴(李山賈) 화천(花泉)
 이산보(李山甫) 명곡(明谷)
 이산중(李山重) 삼산(三山)
 이산해(李山海) 아계(鵝溪)
 이삼달(李三達) 반계(磻溪)
 이삼만(李三晩) 창암(蒼巖)
 이삼석(李三錫) 설월당(雪月堂)
 이삼현(李參鉉) 종산(鍾山)
 이상(李翔) 타우(打愚)
 이상구(李尙龜) 농암(鰲岩)
 이상권(李尙權) 임고자(臨臯子)
 이상급(李尙及) 당부(憊夫)
 이상급(李尙及) 슬한재(瑟憊齋)

이상급(李尙及) 졸부(拙夫)
 이상길(李尙吉) 동천(東川)
 이상길(李尙吉) 만사(晩沙)
 이상덕(李象德) 노촌(老村)
 이상동(李相東) 만진(晩眞)
 이상룡(李相龍) 석주(石洲)
 이상백(李相伯) 상백(想白)
 이상설(李相高) 박재(溥齋)
 이상설(李相高) 부재(溥齋)
 이상수(李象秀) 오당(梧堂)
 이상신(李尙信) 청음(淸陰)
 이상신(李尙信) 호산(湖山)
 이상의(李尙毅) 서산(西山)
 이상의(李尙毅) 소릉(少陵)
 이상의(李尙毅) 오호(五湖)
 이상의(李尙毅) 파릉(巴陵)
 이상일(李尙逸) 용암(龍巖)
 이상재(李尙在) 월남(月南)
 이상적(李尙迪) 우선(藕船)
 이상정(李尙挺) 도빈(陶濱)
 이상정(李相定) 산은(汕隱)
 이상좌(李上佐) 학포(學圃)
 이상주(李相周) 청광(淸狂)
 이상진(李尙眞) 금강(琴岡)
 이상진(李尙眞) 만암(晩庵)
 이상진(李尙眞) 수암(遂庵)
 이상진(李象辰) 하지(下枝)
 이상질(李尙質) 거주(家洲)
 이상태(李尙泰) 청록(淸麓)
 이상현(李尙賢) 두봉(斗峯)
 이상협(李相協) 쾌재(快齋)
 이상협(李相協) 하몽(何夢)
 이상형(李尙馨) 천묵당(天默堂)

이상홍(李尙弘) 춘주(春洲)
 이상홍(李尙弘) 춘호(春湖)
 이상화(李相和) 상화(尙火)
 이상황(李相璜) 동어(桐漁)
 이상황(李相璜) 현포(玄圃)
 이색(李穡) 목은(牧隱)
 이색(李穡) 서산(西山)
 이생인(李生寅) 송과(松坡)
 이서(李蔚) 동호(東湖)
 이서(李曙) 월봉(月峰)
 이서(李舒) 당옹(顛翁)
 이서(李舒) 송강(松岡)
 이서(李澈) 선동(仙洞)
 이서(李澈) 옥금(玉琴)
 이서(李澈) 옥동(玉洞)
 이서구(李晝九) 강산(薑山)
 이서구(李晝九) 석미산인(席眉山人)
 이서구(李晝九) 척재(惕齋)
 이서우(李瑞雨) 송곡(松谷)
 이서하(李瑞夏) 외재(畏齋)
 이석(李湏) 동강(桐江)
 이석(李楮) 옥산(玉山)
 이석(李若) 오재(梧齋)
 이석경(李碩慶) 덕암(德岩)
 이석규(李錫奎) 동강(東江)
 이석손(李碩孫) 돈암(遯菴)
 이석재(李碩載) 담포(淡圃)
 이석형(李石亨) 저현(樗軒)
 이석지(李釋之) 남곡(南谷)
 이석표(李錫杓) 남록(南麓)
 이석훈(李石薰) 금남(琴南)
 이선(李選) 소백산인(小白山人)
 이선(李選) 지호(芝湖)

이선승(李善承) 미곡(薇谷)
 이선직(李先稷) 사천(沙川)
 이설(李揆) 복암(復菴)
 이성(李愔) 동고(東阜)
 이성(李垚) 매헌(梅軒)
 이성계(李成桂) 송헌(松軒)
 이성구(李成九) 우장(又丈)
 이성구(李聖求) 분사(汾沙)
 이성기(李成己) 필재(筆齋)
 이성길(李成吉) 창주(滄州)
 이성렬(李聖烈) 퇴암(退菴)
 이성령(李星齡) 춘과(春坡)
 이성린(李聖麟) 만계와(晩計窩)
 이성린(李聖麟) 소재(蘇齋)
 이성석(李聖碩) 양촌(陽村)
 이성신(李省身) 입암(笠岩)
 이성원(李性源) 호은(湖隱)
 이성운(李誠胤) 매창(梅窓)
 이성운(李誠胤) 매창(梅窓)
 이성운(李誠胤) 오창(梧窓)
 이성운(李誠胤) 호기(互棄)
 이성임(李聖任) 월촌(月村)
 이성중(李成重) 졸옹(拙翁)
 이성중(李誠中) 서암(恕庵)
 이성중(李誠中) 파곡(坡谷)
 이성징(李星徵) 후곡(後谷)
 이세귀(李世龜) 양와(養窩)
 이세백(李世白) 북계(北溪)
 이세백(李世白) 우사(霧沙)
 이세순(李世純) 모정(慕亭)
 이세영(李世永) 고광(古狂)
 이세영(李世永) 석전(石田)
 이세원(李世愿) 고암(顧巖)

이세응(李世應) 수옹(睡翁)
 이세응(李世應) 안재(安齋)
 이세장(李世璋) 금강(錦江)
 이세장(李世璋) 어수(漁叟)
 이세태(李世泰) 동병(東屏)
 이세택(李世澤) 조은(釣隱)
 이세필(李世弼) 구천(龜川)
 이세형(李世珩) 서헌(恕軒)
 이세화(李世華) 쌍백당(雙栢堂)
 이세화(李世華) 칠정(七井)
 이세환(李世煥) 과재(果齋)
 이소한(李昭漢) 현주(玄洲)
 이송(李淞) 노초(老樵)
 이송(李淞) 서림(徐林)
 이송재(李松齊) 죽암(竹菴)
 이수(李隨) 관곡(寬谷)
 이수(李隨) 심은(深隱)
 이수경(李壽卿) 송사(松史)
 이수경(李壽慶) 만성(晩醒)
 이수경(李壽慶) 소성(笑醒)
 이수광(李晔光) 지봉(芝峰)
 이수길(李樹吉) 율원(栗園)
 이수대(李遂大) 송애(松崖)
 이수록(李綏祿) 동고(東阜)
 이수봉(李壽鳳) 화천(花泉)
 이수언(李秀彦) 농계(蠶溪)
 이수언(李秀彦) 취몽헌(醉夢軒)
 이수언(李守淵) 청벽(靑壁)
 이수인(李壽仁) 성암(惺菴)
 이수인(李壽仁) 정계(靜溪)
 이수일(李守一) 은암(隱庵)
 이수장(李壽長) 정곡(貞谷)
 이수정(李守貞) 경담(鏡潭)

이수준(李壽俊) 용계(龍溪)
 이수준(李壽俊) 지범재(志範齋)
 이수택(李壽澤) 일몽(一夢)
 이수형(李秀亨) 국헌(菊軒)
 이숙(李湊) 양정(陽井)
 이숙(李淑) 부계(麒溪)
 이숙(李瀟) 갈촌(葛村)
 이숙(李淑) 만취헌(晩翠軒)
 이숙(李淑) 화암(花岩)
 이숙(李翻) 일휴정(逸休亭)
 이숙감(李淑臧) 몽암(夢菴)
 이숙감(李淑臧) 양원(楊原)
 이숙량(李叔樑) 매암(梅巖)
 이순(李淳) 야로(野老)
 이순민(李舜民) 이봉(伊峯)
 이순악(李舜岳) 죽유(竹淵)
 이순인(李純仁) 고담(孤潭)
 이승인(李崇仁) 도은(陶隱)
 이승일(李嵩逸) 항재(恒齋)
 이승간(李承幹) 석호(石湖)
 이승달(李承達) 수와(守愚)
 이승만(李承晩) 우남(雲南)
 이승벽(李承璧) 분곡(盆谷)
 이승소(李承召) 삼탄(三灘)
 이승연(李升淵) 연재(衍齋)
 이승증(李承曾) 관란(觀瀾)
 이승효(李承孝) 사겸당(思謙堂)
 이승훈(李昇薰) 남강(南岡)
 이승휴(李承休) 동안(動安)
 이승희(李承熙) 강재(剛齋)
 이시격(李時格) 강고(江阜)
 이시담(李時聃) 사우당(四友堂)
 이시득(李時得) 풍천(豐川)

이시명(李時明) 석계(石溪)
 이시모(李是謀) 육은당(六隱堂)
 이시모(李時謀) 장육당(藏六堂)
 이시발(李時發) 벽오(碧梧)
 이시발(李時發) 후영어은(後穎漁隱)
 이시방(李時昉) 서봉(西峰)
 이시백(李時白) 조암(釣巖)
 이시선(李時善) 송월재(松月齋)
 이시성(李時省) 기봉(驪峰)
 이시수(李時秀) 급건(及健)
 이시영(李始榮)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시림(始林)
 이시영(李始榮) 우재(又齋)
 이시원(李是遠) 사기(沙磯)
 이시재(李時材) 일초정(一草亭)
 이시직(李時稷) 죽창(竹窓)
 이시항(李時恒) 만은(晩隱)
 이시항(李時恒) 화은(華隱)
 이시항(李時恒) 화은(和隱)
 이시항(李時恒) 화음(華陰)
 이시해(李時楷) 남곡(南谷)
 이시해(李時楷) 송애(松崖)
 이식(李拭) 손암(損菴)
 이식(李拭) 외암(畏菴)
 이식(李拭) 외재(畏齋)
 이식(李植) 택당(澤堂)
 이식(李湜) 별산(隴山)
 이식(李湜) 사우정(四雨亭)
 이신의(李愼儀) 석탄(石灘)
 이신징(李愼徵) 평량자(平涼子)
 이심(李禱) 가은(稼隱)
 이심도(李審度) 자암(疵菴)
 이심영(李心永) 고도암(古道庵)

이심원(李深源) 성광자(醒狂子)
 이안눌(李安訥) 동악(東岳)
 이안도(李安道) 몽암(蒙庵)
 이안도(李安道) 몽암(夢庵)
 이안도(李安道) 몽재(蒙齋)
 이안유(李安柔) 사과삼우(西坡三友)
 이안인(李安仁) 주봉(酒峯)
 이암(李龔) 녹파(麓坡)
 이암(李龔) 우만(牛灣)
 이암(李品) 행촌(杏村)
 이야순(李野淳) 광뢰(廣瀨)
 이약동(李約東) 노촌(老村)
 이약빙(李若氷) 준암(樽巖)
 이약수(李若水) 우천(牛泉)
 이약우(李若愚) 호거(壺居)
 이양(李諒) 칩암(蟄菴)
 이양(李揚) 춘당(春塘)
 이양(李澆) 죽음(竹飲)
 이양소(李陽昭) 금은(琴隱)
 이양연(李亮淵) 임연(臨淵)
 이양원(李陽元) 남파(南坡)
 이양원(李養源) 도곡(陶谷)
 이양중(李養中) 서천(西川)
 이양중(李養中) 석탄(石灘)
 이억(李億) 삼족당(三足堂)
 이언괄(李彦适) 농재(豐齋)
 이언영(李彦英) 완정(浣亭)
 이언적(李彦迪) 자계옹(紫溪翁)
 이언적(李彦迪) 회재(晦齋)
 이언진(李彦瓊) 상조(湘藻)
 이언진(李彦瓊) 송목관(松穆館)
 이언진(李彦瓊) 창기(滄起)
 이언충(李彦冲) 운재(芸齋)

이언화(李彦華) 거천(巨川)
 이업(李業) 흘봉(屹峰)
 이여(李畬) 송애(松厓)
 이여(李畬) 수곡(睡谷)
 이여(李畬) 수촌(睡村)
 이여(李畬) 포음(浦陰)
 이연(李緣) 죽연(竹淵)
 이연경(李延慶) 탄수(灘叟)
 이연덕(李延德) 지지재(知止齋)
 이연송(李連松) 용계(龍溪)
 이연평(李延平) 탄은(灘隱)
 이연형(李延馨) 지퇴당(知退堂)
 이엽(李琰) 운당(雲塘)
 이영(李瑩) 이환(泥丸)
 이영(李翎) 성재(惺齋)
 이영(李翎) 우송재(友松齋)
 이영(李翎) 칠송(七松)
 이영(李榮) 괘편(掛鞭)
 이영(李瑩) 남계(南溪)
 이영갑(李英甲) 야옹(野翁)
 이영도(李詠道) 동암(東巖)
 이영보(李英輔) 동계(東溪)
 이영서(李永瑞) 노산(魯山)
 이영서(李永瑞) 희현당(希賢堂)
 이영성(李永成) 농서(隴西)
 이영우(李永佑) 야은(野隱)
 이영원(李榮元) 용계(龍溪)
 이영유(李英裕) 운소(雲巢)
 이예(李芮) 눌재(訥齋)
 이예환(李禮煥) 난국재(蘭菊齋)
 이오(李澳) 송재(松齋)
 이오(李俛) 관란정(觀瀾亭)
 이오(李顛) 금강(金剛)

이옥(李沃) 박천(泉)
 이옥(李沃) 반금(伴琴)
 이온(李崧) 화산(花山)
 이온형(李溫馨) 월담(月潭)
 이옹(李邕) 조은(釣隱)
 이완(李完) 두봉(斗峯)
 이완(李浣) 매죽헌(梅竹軒)
 이완(李沅) 백봉(白峰)
 이완용(李完用) 일당(一堂)
 이요신(李堯臣) 율곡(栗谷)
 이요헌(李堯憲) 소소옹(笑笑翁)
 이용구(李容九) 해산(海山)
 이용빈(李用賓) 매곡(梅谷)
 이용우(李用雨) 묵로(墨鷺)
 이용우(李用雨) 춘전(春田)
 이용휴(李用休) 혜환재(惠寶齋)
 이용희(李容熙) 기원(淇園)
 이용희(李用羲) 간재(簡齋)
 이우(李佑) 성암(省菴)
 이우(李瑀) 옥산(玉山)
 이우(李瑀) 죽와(竹窩)
 이우(李堦) 송재(松齋)
 이우민(李友閔) 수졸재(守拙齋)
 이우빈(李佑贊) 월포(月浦)
 이우신(李友信) 문원(文原)
 이우신(李友信) 수산(睡山)
 이우신(李友信) 죽촌(竹村)
 이우신(李雨臣) 십탄(十灘)
 이우직(李友直) 운노자(樗老子)
 이우직(李友直) 저로(樗老)
 이우춘(李遇春) 국은(菊隱)
 이우휘(李遇輝) 청계당(聽溪堂)
 이욱(李穡) 지강(芝江)

이욱(李郁) 팔계(八溪)
 이운(李耘) 음애(陰崖)
 이운근(李雲根) 동은(東隱)
 이운영(李運永) 옥국재(玉局齋)
 이원(李原) 용헌(容軒)
 이원(李媛) 옥봉(玉峰)
 이원(李源) 청향(清香)
 이원(李璠) 모산(茅山)
 이원(李璠) 병사당(屏思堂)
 이원(李璠) 채사당(齋思堂)
 이원경(李元卿) 죽포(竹圃)
 이원경(李遠慶) 송암(松岩)
 이원경(李遠慶) 송암(松巖)
 이원곤(李源坤) 정허와(靜虛窩)
 이원굉(李元紘) 춘곡(春谷)
 이원구(李元具) 가정(稼亭)
 이원록(李元祿) 송담(松潭)
 이원배(李元培) 구암(龜巖)
 이원배(李元培) 영모당(永慕堂)
 이원손(李元孫) 무하옹(無何翁)
 이원심(李源深) 묵재(默齋)
 이원익(李元翼) 오리(梧里)
 이원정(李元禎) 객포(客浦)
 이원조(李源祚) 응와(凝窩)
 이원진(李元鎭) 태호(太湖)
 이위(李葦) 두천(斗川)
 이위국(李緯國) 운포(雲浦)
 이유(李櫛) 하곡(霞谷)
 이유(李濡) 녹천(鹿川)
 이유(李維) 지암(知菴)
 이유겸(李惟謙) 동가(東嘉)
 이유겸(李有謙) 만향당(晚香堂)
 이유겸(李有謙) 송담(松灘)

이유경(李有慶) 오봉정(五楓亭)
 이유눌(李惟訥) 오강(梧岡)
 이유동(李維棟) 일석(一石)
 이유명(李惟命) 동포(東圃)
 이유상(李有相) 동둔(東屯)
 이유수(李幼洙) 오주(梧洲)
 이유순(李幼淳) 행촌(杏村)
 이유원(李裕元) 굴산(橋山)
 이유원(李裕元) 묵농(墨農)
 이유익(李惟益) 돈곡(遯谷)
 이유장(李惟樟) 고산(孤山)
 이유태(李維泰) 초루(草廬)
 이유택(李惟澤) 유곡(柳谷)
 이유필(李裕弼) 춘산(春山)
 이유형(李惟馨) 춘과(春坡)
 이유홍(李惟弘) 간정(良庭)
 이육(李瑄) 보만당(保晩堂)
 이육(李瑄) 원심당(遠心堂)
 이육(李陸) 청과(靑坡)
 이육(李洧) 백아당(白鵝堂)
 이윤(李胤) 쌍매당(雙梅堂)
 이윤경(李潤慶) 승덕재(崇德齋)
 이윤영(李胤永) 단릉(丹陵)
 이윤영(李胤永) 담화재(淡華齋)
 이윤우(李潤雨) 석담(石潭)
 이윤재(李允宰) 한피
 이윤재(李允宰) 환산(桓山)
 이율(李璵) 오휴(五休)
 이은(李闇) 음애(陰崖)
 이은(李澗) 침재(瞻齋)
 이은상(李殷相) 동리(東里)
 이응거(李膺舉) 덕암(德巖)
 이응성(李應星) 신천(新川)

이응시(李應著) 죽창(竹窓)
 이응시(李應著) 취죽당(翠竹堂)
 이응중(李應鍾) 사매당(四梅堂)
 이응천(李應天) 풍애(楓厓)
 이응춘(李應春) 퇴사재(退思齋)
 이응한(李應漢) 신암(新庵)
 이응희(李應禧) 옥담(玉潭)
 이의건(李義健) 동은(洞隱)
 이의경(李毅敬) 오강(梧岡)
 이의길(李義吉) 양곡(亮谷)
 이의무(李宜茂) 연현(蓮軒)
 이의병(李宜炳) 오정(梧亭)
 이의봉(李義鳳) 나은(懶隱)
 이의사(李義師) 취송(醉松)
 이의숙(李義肅) 월주(月洲)
 이의숙(李義肅) 이재(頤齋)
 이의양(李義養) 운재(雲齋)
 이의양(李義養) 팔송관(八松觀)
 이의연(李義淵) 유시재(有是齋)
 이의운(李宜潤) 무침당(無忝堂)
 이의조(李宜朝) 경호(鏡湖)
 이의철(李宜哲) 문곡(文谷)
 이의철(李宜哲) 문암(文菴)
 이의현(李宜顯) 도곡(陶谷)
 이이(李珥) 석담(石潭)
 이이(李珥) 우재(愚齋)
 이이(李珥) 율곡(栗谷)
 이이근(李頤根) 수묵재(守默齋)
 이이만(李頤晩) 오현(晤軒)
 이이명(李頤命) 소재(疎齋)
 이이설(李頤說) 이현(怡軒)
 이이장(李彝章) 수남(水南)
 이이첨(李爾瞻) 관송(觀松)

이이첨(李爾瞻) 쌍리(雙里)
 이익(李翼) 간옹(艮翁)
 이익(李翼) 성호(星湖)
 이익(李翼) 옥포(玉浦)
 이익(李翊) 농재(農齋)
 이익상(李翊相) 국간(國澗)
 이익상(李翊相) 매간(梅山間)
 이익성(李翊聖) 와곡(瓦谷)
 이익수(李益壽) 백묵당(白默堂)
 이익수(李益壽) 자묵당(自默堂)
 이익연(李翼延) 행좌(杏左)
 이익운(李益運) 학록(鶴麓)
 이익태(李益泰) 야계(冶溪)
 이익필(李益秘) 하옹(霞翁)
 이익한(李翊漢) 향파(香坡)
 이익회(李翊會) 고동(古東)
 이인(李瑱) 소옹(素翁)
 이인(李靉) 육휴당(六休堂)
 이인경(李寅卿) 만송(萬松)
 이인경(李寅卿) 만송당(萬松堂)
 이인기(李麟奇) 송계(松溪)
 이인로(李仁老) 쌍면재(雙明齋)
 이인문(李寅文) 고송(孤松)
 이인문(李寅文) 유춘(有春)
 이인병(李寅炳) 번포(樊圃)
 이인복(李仁復) 초은(樵隱)
 이인빈(李寅賓) 수현(睡軒)
 이인상(李麟祥) 능호(凌壺)
 이인상(李麟祥) 보산자(寶山子)
 이인서(李麟瑞) 청계(聽溪)
 이인성(李仁星) 청정(靑汀)
 이인성(李仁省) 구암(耇岩)
 이인손(李仁孫) 풍애(楓崖)

이인숙(李寅火肅) 노포(老圃)
 이인엽(李寅燁) 회와(晦窩)
 이인영(李仁榮) 학산(鶴山)
 이인용(李仁容) 송석정(松石亭)
 이인응(李隣應) 소벽(少碧)
 이인직(李人稷) 국초(菊初)
 이인징(李麟徵) 운강(雲岡)
 이인혁(李寅嬖) 매산(梅山)
 이인현(李仁賢) 쌍침당(雙尖堂)
 이인형(李仁亨) 매현(梅軒)
 이인형(李寅馨) 취은(醉隱)
 이인환(李寅煥) 생곡(生谷)
 이일상(李一相) 청호(靑湖)
 이임(李稔) 남강(南江)
 이자(李耜) 계옹(溪翁)
 이자(李耜) 몽암(夢庵)
 이자(李耜) 몽옹(夢翁)
 이자영(李自英) 일재(一齋)
 이자현(李資玄) 식암(息庵)
 이자현(李資玄) 청평(淸平)
 이자현(李資玄) 희이사(希夷子)
 이잠(李潛) 서산(西山)
 이잠(李潛) 엄계(剡溪)
 이장곤(李長坤) 금재(琴齋)
 이장곤(李長坤) 금현(琴軒)
 이장곤(李長坤) 학고(鶴臯)
 이장영(李長榮) 죽곡(竹谷)
 이장찬(李章贊) 경은(荆隱)
 이재(李栽) 밀암(密庵)
 이재(李緯) 도암(陶庵)
 이재(李緯) 한천(寒泉)
 이재관(李載寬) 소당(小塘)
 이재면(李載冕) 우석(又石)

이재완(李載完) 석호(石湖)
 이재욱(李在郁) 팔공(八公)
 이재의(李載毅) 문산(文山)
 이재학(李在學) 지포(芝浦)
 이재형(李載亨) 송암(松巖)
 이전(李璵) 취금헌(醉琴軒)
 이전(李堧) 월간(月澗)
 이전인(李全仁) 잠계(潛溪)
 이전지(李全之) 구촌(龜村)
 이접(李楫) 효우당(孝友堂)
 이정(李楨) 구암(龜巖)
 이정(李楨) 나와(懶窩)
 이정(李楨) 나재(懶齋)
 이정(李楨) 설악(雪嶽)
 이정(李淨) 모촌(茅村)
 이정(李淨) 풍계(楓溪)
 이정(李霆) 나옹(懶翁)
 이정(李霆) 탄은(灘隱)
 이정(李挺) 삼외(三畏)
 이정(李挺) 불사재(不欺齋)
 이정(李滌) 활와(活窩)
 이정걸(李廷傑) 백과(栢坡)
 이정겸(李廷謙) 내암(奈庵)
 이정귀(李廷龜)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보만당(保晩堂)
 이정귀(李廷龜) 응암(凝菴)
 이정근(李正根) 심수(心水)
 이정기(李廷機) 만옹(漫翁)
 이정기(李廷夔) 귀천(歸川)
 이정로(李正魯) 소미(少溪)
 이정룡(李廷龍) 난곡(蘭谷)
 이정린(李廷麟) 죽우당(竹友堂)
 이정립(李廷立) 계은(桂隱)

이정면(李廷冕) 오재(鰲齋)
 이정민(李貞敏) 옥계(玉溪)
 이정보(李鼎輔) 보객정(報客亭)
 이정보(李鼎輔) 삼주(三洲)
 이정상(李廷祥) 월강(月岡)
 이정섭(李廷燮) 저촌(樛村)
 이정소(李廷燾) 춘파(春坡)
 이정신(李正臣) 송일당(松莖堂)
 이정신(李鼎新) 묵은(默隱)
 이정악(李挺岳) 아은(啞隱)
 이정암(李廷範) 사류재(四留齋)
 이정암(李廷範) 월당(月塘)
 이정암(李廷範) 퇴우당(退憂堂)
 이정영(李廷英) 회현(梅軒)
 이정영(李正英) 서곡(西谷)
 이정운(李鼎運) 오사(五沙)
 이정원(李挺元) 후포(後浦)
 이정은(李貞恩) 설창(雪窓)
 이정은(李貞恩) 월호(月湖)
 이정이(李正履) 순계(醇溪)
 이정익(李廷益) 죽와(竹窩)
 이정작(李庭綽) 회현(梅軒)
 이정제(李廷濟) 죽호(竹湖)
 이정직(李定稷) 석정(石亭)
 이정진(李廷謹) 백회재(百悔齋)
 이정태(李鼎泰) 야은(野隱)
 이정협(李廷謙) 석천(石泉)
 이정형(李廷馨) 동각(東閣)
 이정호(李廷豪) 만각(晩覺)
 이정호(李挺豪) 사심(師心)
 이정홍(李廷弘) 만사(晩沙)
 이정환(李廷煥) 송암(松巖)
 이제(李濟) 성곡(星谷)

이제마(李濟馬) 동무(東武)
 이제만(李濟萬) 수와(守窩)
 이제신(李濟信)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 도곡(陶邱)
 이제익(李濟益) 정암(正菴)
 이제현(李濟賢) 빈국(賓菊)
 이제현(李濟賢) 실재(實齋)
 이제현(李濟賢) 역옹(櫟翁)
 이제현(李濟賢) 율촌(栗村)
 이제현(李濟賢) 익재(益齋)
 이제형(李濟衡) 취수헌(醉睡軒)
 이조(李晁) 동곡(桐谷)
 이조(李照) 동천(東川)
 이조(李肇) 학산(鶴山)
 이조(李槩) 상봉(橡峯)
 이조년(李兆年) 매운당(梅雲堂)
 이조년(李兆年) 백화헌(百花軒)
 이조묵(李祖默) 육교(六橋)
 이조연(李祖淵) 완서(旣西)
 이조원(李祖源) 판교(板橋)
 이조원(李肇源) 옥호(玉壺)
 이조헌(李祖憲) 연사(蓮士)
 이존수(李存秀) 금석(金石)
 이존수(李存秀) 연유(蓮游)
 이존오(李存吾) 고산(孤山)
 이존오(李存吾) 석탄(石灘)
 이존중(李存中) 적암(惕庵)
 이존중(李存中) 적재(惕齋)
 이존중(李存中) 하당(荷堂)
 이졸(李粹) 쌍계(雙溪)
 이종건(李鍾乾) 동산(東山)
 이종검(李宗儉) 효우당(孝友堂)
 이종겸(李宗謙) 안곡(安谷)

이종겸(李宗謙) 효우당(孝友堂)
 이종경(李宗慶) 단구한민(丹丘閔民)
 이종덕(李種德) 삼당(三堂)
 이종린(李鍾麟) 보암(普菴)
 이종린(李鍾麟) 봉산(鳳山)
 이종문(李宗文) 낙포(洛浦)
 이종백(李宗白) 목천(牧川)
 이종성(李宗城) 오천(烏川)
 이종성(李宗城) 오천(梧川)
 이종영(李宗榮) 청단(聽灘)
 이종영(李鍾榮) 일오(一梧)
 이종우(李鍾愚) 석농(石農)
 이종유(李宗蕤) 죽림(竹林)
 이종일(李鍾一) 옥과(沃坡)
 이종준(李宗準) 부휴자(浮休子)
 이종준(李宗準) 상의당(尙衣堂)
 이종준(李宗準) 용재(慵齋)
 이종준(李宗準) 용헌(慵軒)
 이종준(李宗準) 장륙(藏六)
 이종준(李宗準) 태정(太庭)
 이종태(李鍾泰) 소농(筱農)
 이종학(李種學) 인재(麟齋)
 이종훈(李鍾勳) 정암(正菴)
 이종휘(李鍾徽) 수산(修山)
 이주(李澍) 분봉(盆峯)
 이주(李翰) 태암(苔巖)
 이주(李胄) 망헌(忘軒)
 이주국(李柱國) 오백(梧栢)
 이주진(李周鎭) 탄옹(炭翁)
 이준(李僞) 일성(一醒)
 이준(李僞) 청하(靑霞)
 이준(李僞) 해사(海史)
 이준(李僞) 해옥(海玉)

이준(李竣) 유계(西溪)
 이준(李竣) 창석(蒼石)
 이준(李準) 뇌진자(懶眞子)
 이준(李準) 서과(西坡)
 이준경(李浚慶) 남당(南堂)
 이준경(李浚慶) 동고(東臯)
 이준경(李浚慶) 양와(養窩)
 이준경(李浚慶) 홍련(紅蓮)
 이준량(李俊良) 신암(信庵)
 이준민(李俊民) 신암(新岩)
 이준민(李俊民) 신암(新菴)
 이준용(李竣鎔) 석정(石庭)
 이준용(李竣鎔) 송정(松亭)
 이준형(李濬衡) 동구(東邱)
 이중(李中) 명암(明巖)
 이중경(李重慶) 운재(雲齋)
 이중계(李重繼) 송과(松坡)
 이중광(李重光) 창애(蒼厓)
 이중기(李重基) 석강(石江)
 이중량(李仲樑) 하연(賀淵)
 이중명(李重明) 안곡(安谷)
 이중명(李重溟) 구주(白鳥洲)
 이중섭(李仲燮) 대향(大鄉)
 이중연(李重延) 누실(陋室)
 이중열(李中悅) 과재(果齋)
 이중조(李重朝) 백운헌(白雲軒)
 이중하(李重夏) 규당(圭堂)
 이중하(李重夏) 탄재(坦齋)
 이중협(李重協) 삼호(三湖)
 이중호(李仲虎) 이소재(履素齋)
 이중화(李重華) 동운(東芸)
 이중환(李重煥) 청담(淸潭)
 이중환(李重煥) 청화(靑華)

이증(李增) 북애(北厓)
 이지결(李志傑) 금호(琴湖)
 이지결(李志傑) 단애(丹崖)
 이지경(李社慶) 양진당(養眞堂)
 이지굉(李志宏) 동명(東溟)
 이지규(李志遠) 금호(琴湖)
 이지남(李至男) 영웅(永膺)
 이지란(李之蘭) 청해백(青海伯)
 이지렴(李之濂) 치암(恥菴)
 이지모(李至模) 치암(致菴)
 이지무(李枝茂) 수암(壽菴)
 이지번(李之蕃) 구옹(龜翁)
 이지번(李之蕃) 사정(思亭)
 이지번(李之蕃) 성암(省菴)
 이지번(李之蕃) 송계(松溪)
 이지선(李祇先) 일치(一痴)
 이지수(李趾秀) 중산재(重山齋)
 이지시(李之詩) 송암(松菴)
 이지신(李之信) 보진암(葆眞庵)
 이지억(李之億) 성헌(醒軒)
 이지연(李止淵) 희곡(希谷)
 이지영(李之英) 수월당(水月堂)
 이지영(李祉永) 임하(林下)
 이지운(李之鬮) 빈옥(貧郁)
 이지완(李志完) 두봉(斗峯)
 이지완(李志完) 청간당(聽澗堂)
 이지용(李志容) 소송(小松)
 이지용(李止鎔) 향운(響雲)
 이지유(李志裕) 창주(滄州)
 이지익(李之翼) 계촌(桂村)
 이지정(李志定) 청선(聽蟬)
 이지천(李志賤) 사포(沙浦)
 이지충(李之忠) 삼우당(三友堂)

이지함(李之菡) 수산(水山)
 이지함(李之菡) 토정(土亭)
 이지화(李之華) 다포(茶圃)
 이지화(李之華) 부강(浮江)
 이지활(李智活) 고은(孤隱)
 이직(李稷) 형재(亨齋)
 이직보(李直輔) 돈암(遯菴)
 이직보(李直輔) 중주(中洲)
 이직언(李直彦) 추천(秋泉)
 이직언(李直言) 줄암(拙菴)
 이진(李?震) 소은옹(素隱翁)
 이진(李璵) 동암(東菴)
 이진(李珍) 포산(匏山)
 이진(李珍) 화곡(花谷)
 이진(李進) 갈파(葛坡)
 이진검(李眞儉) 각리(角里)
 이진망(李眞望) 도운(陶雲)
 이진망(李眞望) 퇴운(退雲)
 이진백(李震白) 명곡(明谷)
 이진백(李震白) 서암(西巖)
 이진병(李震炳) 둔곡(遁谷)
 이진병(李震炳) 미산(帽山)
 이진병(李震炳) 선일(善一)
 이진상(李震相) 한주(寒洲)
 이진수(李眞洙) 서간(西澗)
 이진순(李眞淳) 하서(荷西)
 이진언(李眞彦) 줄암(拙菴)
 이진유(李眞儒) 북곡(北谷)
 이진은(李震殷) 호와(瓠窩)
 이진형(李鎭형) 남곡(南谷)
 이진휴(李震休) 성암(省菴)
 이진휴(李震休) 성재(省齋)
 이질(李質) 영모당(永慕堂)

이집(李集) 나진재(懶眞齋)
 이집(李集) 취촌(醉村)
 이집(李楫) 수분와(守分窩)
 이집(李洙) 한주(韓州)
 이집(李集) 둔촌(遁村)
 이집(李集) 세심재(洗心齋)
 이집(李集) 수월헌(水月軒)
 이집두(李集斗) 구학(醜鶴)
 이집두(李集斗) 과서(琶西)
 이징(李澄) 허주(虛舟)
 이찬(李燦) 국창(菊窓)
 이찬(李燦) 수곡(守谷)
 이창수(李昌壽) 치재(恥齋)
 이창신(李昌臣) 극암(克菴)
 이창정(李昌庭) 무구옹(無求翁)
 이창정(李昌庭) 화음(華陰)
 이창준(李昌俊) 죽헌(竹軒)
 이창현(李昌炫) 용은(龍隱)
 이창환(李昌煥) 해은(海隱)
 이채(李采) 화천(華泉)
 이책은(李責恩) 월은(月隱)
 이척(李澈) 영정(映亭)
 이척연(李惕然) 동포(東圃)
 이천(李阡) 동암수(東巖叟)
 이천(李蒨) 국당(菊堂)
 이천(李蒧) 불곡(佛谷)
 이천경(李天慶) 일신당(日新堂)
 이천계(李天啓) 괴당(槐堂)
 이천기(李天基) 허주(虛舟)
 이천길(李千吉) 덕촌(德村)
 이천득(李天得) 만암(晩庵)
 이천보(李天輔) 진암(晉庵)
 이천봉(李川封) 백천(白川)

이천상(李天相) 경퇴재(景退齋)
 이천용(李臧用) 동헌(東軒)
 이첨(李詹) 쌍매당(雙梅堂)
 이청겸(李靑謙) 만회(晩晦)
 이충(李摠) 구로(鷗鷺)
 이충(李摠) 서호(西湖)
 이충(李摠) 월창(月總)
 이최응(李最應) 산향(山響)
 이최중(李最中) 위암(韋庵)
 이축(李蓄) 망월암(望越菴)
 이축(李軸) 사촌(沙村)
 이춘영(李春榮) 체소재(體素齋)
 이춘영(李春永) 괴은(槐隱)
 이춘원(李春元) 구원(九晩)
 이충(李冲) 칠택(七澤)
 이충건(李忠健) 늘재(訥齋)
 이충건(李忠健) 목수(木叟)
 이충양(李忠養) 복재(復齋)
 이충양(李忠養) 후계(後溪)
 이충원(李忠元) 송암(松菴)
 이충원(李忠元) 여수(驪叟)
 이충익(李忠翊) 초원(椒園)
 이충작(李忠緯) 낙빈(洛濱)
 이충작(李忠緯) 졸암(拙庵)
 이치(李致) 침정자(添丁子)
 이치(李錙) 구각헌(龜殼軒)
 이탁(李鐸) 동우(東愚)
 이탁(李鐸) 약봉(藥峰)
 이탄(李灘) 용포(龍浦)
 이태(李迨) 월연(月淵)
 이태연(李泰淵) 늘재(訥齋)
 이태좌(李台佐) 아곡(鵝谷)
 이태중(李台重) 삼산(三山)

이태화(李泰和) 단암(丹庵)
 이택(李澤) 운곡(雲谷)
 이택(李澤) 운몽(雲夢)
 이통(李通) 서해(西海)
 이파(李坡) 소계(蘇溪)
 이파(李坡) 소은(蘇隱)
 이파(李坡) 송국재(松菊齋)
 이필경(李必慶) 안분당(安分堂)
 이필영(李必榮) 만향당(晩香堂)
 이필영(李必榮) 회만(晦晩)
 이필중(李必重) 도곡(陶谷)
 이필진(李必進) 수암(守菴)
 이필행(李必行) 천미(天微)
 이하곤(李夏坤) 담헌(澹軒)
 이하영(李夏榮) 금산(琴山)
 이하원(李夏源) 예남(蕊南)
 이하원(李夏源) 정졸재(貞拙齋)
 이하응(李昆應) 석파(石坡)
 이하진(李夏鎭) 매산(梅山)
 이하진(李夏鎭) 육우당(六寓堂)
 이하징(李夏徵) 가호(佳湖)
 이학(李鶴) 쌍매(雙梅)
 이학규(李學逵) 낙하(洛下)
 이학규(李學逵) 문기당(文猗堂)
 이학순(李學純) 회천(晦泉)
 이한경(李漢慶) 제암(霽巖)
 이한복(李漢福) 무호(無號)
 이한복(李漢福) 수재(壽齋)
 이한응(李漢應) 국은(菊隱)
 이한진(李漢鎭) 경산(京山)
 이한철(李漢喆) 송석(松石)
 이한철(李漢喆) 희원(希園)
 이한철(李漢喆) 희원(喜園)

이할(李劼) 노암(魯菴)
 이함(李涵) 묵와(默窩)
 이함(李涵) 운악(雲岳)
 이합(李栻) 대산(垓山)
 이항(李恒) 일재(一齋)
 이항(李沆) 귀천(歸川)
 이항(李沆) 회당(晦堂)
 이항길(李恒吉) 과암(果菴)
 이항로(李恒老) 화서(華西)
 이항복(李恒福) 동강(東岡)
 이항복(李恒福)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소운(素雲)
 이항복(李恒福) 청화(淸化)
 이항복(李恒福) 필운(弼雲)
 이해(李澗) 온계(溫溪)
 이해(李澗) 농옹(農翁)
 이해남(李海南) 고산(孤山)
 이해룡(李海龍) 석봉(石峰)
 이해룡(李海龍) 북악(北嶽)
 이해수(李海壽) 경재(敬齋)
 이해수(李海壽) 약포(藥圃)
 이해조(李海朝) 동농(東濃)
 이해조(李海朝) 명암(鳴巖)
 이해조(李海朝) 열재(悅齋)
 이해창(李海昌) 송파(松坡)
 이핵(李翮) 열헌(悅軒)
 이행(李荇) 어택(漁澤)
 이행(李荇) 용재(容齋)
 이행(李荇) 청학(靑鶴)
 이행(李行) 기우자(騎牛子)
 이행(李行) 백암(白巖)
 이행(李行) 일가(一可)
 이행건(李行健) 기곡(箕谷)

이행원(李行遠) 서화(西華)
 이행진(李行進) 지암(止菴)
 이행태(李行泰) 경암(敬菴)
 이헌경(李獻慶) 간옹(艮翁)
 이헌구(李憲球) 국헌(菊軒)
 이헌국(李憲國) 유곡(柳谷)
 이헌사(李憲四) 유곡(柳谷)
 이헌영(李金憲永) 경와(敬窩)
 이헌영(李金憲永) 동련(東蓮)
 이현(李現) 환성(喚醒)
 이현(李炫) 월탄(月灘)
 이현(李炫) 탄옹(灘翁)
 이현곤(李顯坤) 양오현(養梧軒)
 이현기(李玄紀) 졸재(拙齋)
 이현기(李玄紀) 회헌(梅軒)
 이현달(李顯達) 소성(笑醒)
 이현보(李賢輔)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 설빈옹(雪鬢翁)
 이현서(李賢錫) 서강(西岡)
 이현석(李玄錫) 유재(遊齋)
 이현섭(李鉉燮) 우헌(愚軒)
 이현영(李顯英) 쌍산(雙山)
 이현영(李顯英) 창곡(蒼谷)
 이현영(李顯英) 창석(蒼石)
 이현우(李顯佑) 유음(楡陰)
 이현익(李顯益) 정암(正庵)
 이현일(李玄逸) 갈암(葛菴)
 이현조(李玄祚) 경연(景淵)
 이현조(李玄祚) 임천(林川)
 이협(李挾) 동애(東崖)
 이형(李洞) 어수(漁叟)
 이형만(李衡萬) 백석(白石)

이형상(李衡祥)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순옹(順翁)
 이형성(李亨成) 조옹(釣翁)
 이형수(李馨秀) 사오당(四吾堂)
 이형욱(李馨郁) 난고(蘭臯)
 이형원(李亨元) 남계(南溪)
 이형운(李炯胤) 창주(滄州)
 이형징(李衡徵) 만회(晩悔)
 이형태(李亨泰) 송남(松南)
 이혜(李惠) 단활옹(短豁翁)
 이호(李浩) 남계(南溪)
 이호민(李好民) 수와(睡窩)
 이호민(李好閔) 남곽(南郭)
 이호민(李好閔) 오봉(五峰)
 이호신(李好信) 나진(懶眞)
 이혼(李混) 몽암(蒙菴)
 이혼(李混) 몽암(蒙巖)
 이혼(李混) 몽암(夢庵)
 이홍기(李弘基) 육일헌(六一軒)
 이홍남(李弘男) 급고자(汲古子)
 이홍덕(李弘德) 자하(紫霞)
 이홍량(李弘量) 모재(茅齋)
 이홍로(李弘老) 판교(板橋)
 이홍망(李弘望) 호암(虎岩)
 이홍상(李弘相) 동교(東郊)
 이홍업(李弘業) 포세(浦世)
 이홍업(李弘業) 포세옹(浦世翁)
 이홍업(李弘業) 포옹(浦翁)
 이홍연(李弘淵) 삼죽(三竹)
 이홍우(李弘宇) 용재(容齋)
 이홍유(李弘有) 돈헌(遯軒)
 이홍재(李洪載) 일선(一蟬)
 이홍조(李弘祚) 수은(睡隱)

이홍주(李弘胄) 이천(梨川)
 이홍준(李弘準) 눌재(訥齋)
 이홍직(李弘稷) 개석헌(介石軒)
 이화(李和) 이락정(二樂亭)
 이화보(李和甫) 유심재(有心齋)
 이화진(李華鎭) 묵재(默齋)
 이화진(李華鎭) 묵졸재(默拙齋)
 이환(李煥) 송암(松岩)
 이환(李鑊) 운계(雲溪)
 이활(李活) 육사(陸史)
 이황(李滉) 도수(陶叟)
 이황(李滉) 도옹(陶翁)
 이황(李滉) 청량(淸涼)
 이황(李滉) 퇴계(退溪)
 이황(李滉) 퇴도(退陶)
 이회(李崱) 삼탄(三灘)
 이회(李崱) 송곡(松谷)
 이회보(李回寶) 석병(石屏)
 이회영(李會榮) 우당(友堂)
 이효석(李孝石) 가산(可山)
 이효석(李孝石) 아세아(亞細亞)
 이효석(李孝石) 효철(曉哲)
 이효원(李効元) 장포(長浦)
 이효측(李孝側) 쌍계(雙溪)
 이후(李瑱) 영옹(鷹翁)
 이후(李厚) 주봉(酒峯)
 이후(李厚) 구시헌(求是軒)
 이후(李厚) 남곡(南谷)
 이후(李厚) 낭산(朗山)
 이후경(李厚慶) 외재(畏齋)
 이후근(李厚根) 동촌(東村)
 이후백(李後白) 청련(靑蓮)
 이후산(李後山) 설파(雪坡)

이후원(李厚源) 남항(南港)
 이후원(李厚源) 우재(迂齋)
 이후잠(李後潛) 현암(玄巖)
 이후정(李后定) 만안당(晩安堂)
 이후천(李後天) 백치(白痴)
 이훤(李憲) 도촌(道村)
 이휘(李徽) 송죽헌(松竹軒)
 이휘령(李彙寧) 고계(古溪)
 이휘일(李徽逸) 존재(存齋)
 이휘지(李徽之) 노포(老圃)
 이휘지(李徽之) 노포(鰲浦)
 이휴징(李休徵) 마암(麻庵)
 이훤(李屹) 설정(雪汀)
 이훤(李屹) 노파(蘆坡)
 이훤(李屹) 동곡(桐谷)
 이훤(李屹) 오계(梧溪)
 이훤(李翁) 절사(節士)
 이희(李熹) 울리(栗里)
 이희검(李希儉) 국재(菊齋)
 이희검(李希儉) 동고(東阜)
 이희득(李希得) 청담(淸潭)
 이희득(李希得) 하담(荷潭)
 이희령(李希齡) 약파(藥坡)
 이희맹(李希孟) 익재(益齋)
 이희발(李羲發) 운곡(雲谷)
 이희보(李希輔) 안분당(安分堂)
 이희삼(李希參) 노재(魯齋)
 이희수(李喜秀) 경지당(景止堂)
 이희수(李喜秀) 소남(小南)
 이희안(李希顔) 황강(黃江)
 이희조(李喜朝) 간암(艮菴)
 이희준(李義準) 계서(溪西)
 이희증(李希曾) 월휘당(月暉堂)

이희지(李喜之) 응재(凝齋)
 이희철(李希哲) 송계(松溪)
 이희팔(李羲八) 소비(小芾)
 이희후(李喜后) 월천(月川)
 익종(翼宗) 경헌(敬軒)
 인성(印性) 낙파(洛波)
 인오(印悟) 청매(青梅)
 인조(仁祖) 송창(松窓)
 일선(一禪) 선화자(禪和子)
 일선(一禪) 정관(靜觀)
 일연(一然) 목암(睦庵)
 일연(一然) 무극(無極)
 일옥(一玉) 진묵(震默)
 일휘(一禪) 휴옹(休翁)
 임감(任臧) 수암(羞菴)
 임계(林泊) 월창(月窓)
 임계(林泊) 월창(月滄)
 임경업(林慶業) 고송(孤松)
 임경주(任敬周) 청천(淸川)
 임경한(林景翰) 향천(香泉)
 임계영(任啓英) 삼도(三島)
 임곤(任袞) 당호(棠湖)
 임관(林灌) 습정(習靜)
 임광필(林光弼) 청오헌(聽梧軒)
 임국로(任國老) 운강(雲江)
 임국로(任國老) 죽오(竹塢)
 임권(任權) 정용당(靜容堂)
 임권(任權) 정용재(靜容齋)
 임규(任奎) 석문(石門)
 임규(林圭) 우정(偶丁)
 임난수(林蘭秀) 독락당(獨樂堂)
 임내신(任穉臣) 어은(漁隱)
 임노(任魯) 영서(潁西)

임담(林潭) 청구(淸壘)
 임덕계(林德躋) 삼호(三好)
 임도삼(任道三) 창주(滄州)
 임득명(林得明) 송월헌(宋月軒)
 임득번(任得蕃) 석천(石泉)
 임몽정(任蒙正) 운호(雲湖)
 임방(任望) 송호(松湖)
 임방(任望) 우졸옹(愚拙翁)
 임백경(任百經) 하의(荷漪)
 임백령(林百齡) 괴마(槐馬)
 임병찬(林炳贇) 돈헌(遯軒)
 임보신(任輔臣) 포초(圃樵)
 임복(林復) 풍암(楓巖)
 임봉(林鵬) 귀래당(歸來堂)
 임산원(任相元) 염헌(恬軒)
 임상옥(林尙沃) 가포(稼圃)
 임서(林愔) 석촌(石村)
 임석령(任碩齡) 석강(石江)
 임선미(林先味) 휴암(休庵)
 임성고(任聖皐) 우연옹(偶然翁)
 임성주(任聖周) 녹문(鹿門)
 임세복(任世復) 일신재(日新齋)
 임수간(任守幹) 도와(道窩)
 임수간(任守幹) 돈와(遯窩)
 임수겸(林守謙) 신옹(愼翁)
 임수근(林守謹) 갈곡(葛谷)
 임숙영(任叔英) 소암(疎菴)
 임씨(任氏) 윤지당(允摯堂)
 임억령(林億齡) 석천(石川)
 임연(林堧) 한호옹(閑好翁)
 임열(任說) 죽애(竹厓)
 임영(林泳) 창계(滄溪)
 임예환(林禮煥) 연암(淵菴)

임운(林芸) 금역당(琴易堂)
 임운(林芸) 노동(蘆洞)
 임운(林芸) 침모당(瞻慕堂)
 임원준(任元濬)사우당(四友堂)
 임위(林緯) 동리(東里)
 임위(林緯) 무민당(無悶堂)
 임유후(任有後)만휴당(萬休堂)
 임유후(任有後)휴와(休窩)
 임응준(任應準)담재(澹齋)
 임의백(任義伯)금시당(今是堂)
 임익(任翊) 고애(高厓)
 임익빈(林益彬)농헌(農軒)
 임적(任適) 노은(老隱)
 임전(任鍊) 명고(鳴臯)
 임정(任珽) 치재(扈齋)
 임정주(任靖周)운호(雲湖)
 임제(林梯) 겸재(謙齋)
 임제(林梯) 백호(白湖)
 임제(林梯) 소치(嘯痴)
 임제(林梯) 풍강(楓江)
 임제민(林濟民)의암(義庵)
 임종칠(林宗七)둔오(屯塢)
 임좌(任座) 일궈(一貰)
 임주석(林周錫)매헌(梅軒)
 임준백(任俊伯)묵우(默愚)
 임징하(任徵夏)서재(西齋)
 임창(任敞) 강개옹(慷慨翁)
 임창택(林昌澤)송악(崧岳)
 임천상(任天常)궁오(窮悟)
 임춘(林椿) 서하(西河)
 임치정(林蚩正)춘곡(春谷)
 임탄(林坦) 한정(閑亭)
 임태춘(任泰春)농와(壘窩)

임포(林包) 수호자(睡湖子)
 임필대(任必大)강와(剛窩)
 임한백(任翰伯)남곡(南谷)
 임한수(林翰洙)송석(松石)
 임헌희(任憲晦)고산(鼓山)
 임헌희(任憲晦)전재(全齋)
 임헌희(任憲晦)희양재(希陽齋)
 임현(任鉉) 애탄(愛灘)
 임형수(林亨秀)금호(錦湖)
 임호신(任虎臣)지족당(知足堂)
 임홍량(任弘亮)창추(敞帚)
 임홍망(任弘望)죽실(竹室)
 임희세(任華世)시옹(是翁)
 임환(林權) 백화정(百花亭)
 임희(林檜) 관해(觀海)
 임훈(林薰) 갈천(葛川)
 임훈(林薰) 고사옹(枯查翁)
 임훈(林薰) 자이당(自怡堂)
 임홀(任屹) 용담(龍潭)
 임희성(任希聖)재간(在澗)
 임희재(任熙載)물암(勿菴)
 임희지(林熙之)수월헌(水月軒)
 자수(子秀) 무경(無竟)
 자초(自超) 계월헌(溪月軒)
 자초(自超) 무학(無學)
 장기순(張可順)사재(思齋)
 장건상(張建相)소해(宵海)
 장경세(張經世)사촌(沙村)
 장경우(張慶遇)만회당(晚晦堂)
 장남(蔣喃) 매산당(梅山堂)
 장덕수(張德秀)설산(雪山)
 장덕준(張德俊)추송(秋松)
 장도빈(張道斌)유운(油耘)

장득만(張得萬)수은(睡隱)
 장만(張晩) 낙서(洛西)
 장만(張晩) 운석(雲石)
 장봉한(張鳳翰)개옹(芥翁)
 장사중(張士重)송령(松嶺)
 장석(張瀆) 낙와(樂窩)
 장석룡(張錫龍)유현(遊軒)
 장선징(張善徵)두곡(杜谷)
 장선충(張善沖)난고(蘭阜)
 장세량(張世良)화암(和庵)
 장승언(張承彦)문파(文波)
 장승업(張承業)오원(吾園)
 장언침(張彦忱)모은(暮隱)
 장옥(張玉) 유정(柳亭)
 장운익(張雲翼)서촌(西村)
 장유(張維) 계곡(谿谷)
 장유(張維) 묵소(默所)
 장응일(張應一)청천당(聽天堂)
 장응현(張應賢)오류정(五柳亭)
 장의현(張儀賢)오류정(五柳亭)
 장잠(張潛) 죽정(竹亭)
 장정(張浚) 서호(西湖)
 장지연(張志淵)송양(嵩陽)
 장지연(張志淵)위암(韋庵)
 장지현(張智賢)삼괴(三槐)
 장진(張珽) 모암(茅菴)
 장진(張璠) 금강(錦江)
 장철수(張徹壽)죽암(竹岩)
 장태수(張泰秀)일유재(一適齋)
 장택상(張澤相)창랑(滄浪)
 장학(張學) 남파(南坡)
 장한보(張漢輔)은계(銀溪)
 장한중(張漢宗)열청재(閱淸齋)

장한중(張漢宗) 옥산(玉山)
 장항(張抗) 늘재(訥齋)
 장헌세자(莊獻世子) 의재(毅齋)
 장현광(張顯光) 여헌(旅軒)
 장형(大學) 범정(凡齋)
 장호(莊昊) 용허(容虛)
 장혼(張混) 공공자(空空子)
 장혼(張混) 이기(而已)
 장흥효(張興孝) 경당(敬堂)
 저영순(鄭景淳) 수정(修井)
 전경창(全慶昌) 만오(晩悟)
 전계종(全啓宗) 규암(葵菴)
 전구원(田九畹) 우와(愚窩)
 전귀생(田貴生) 내은(來隱)
 전귀생(田貴生) 너은(未隱)
 전귀지(全貴止) 경은(耕隱)
 전극항(全克恒) 규천(虬川)
 전기(田琦) 고람(古藍)
 전기(田琦) 두당(杜堂)
 전녹생(田祿生) 야은(野隱)
 전덕원(全德源) 호은(湖隱)
 전령(展翎) 해봉(海鵬)
 전명룡(全命龍) 영서(穎西)
 전벽(田闢) 서정(西亭)
 전병순(田秉淳) 부계(扶溪)
 전성호(全盛鎬) 철주(鐵舟)
 전수용(全垂鏞) 해산(海山)
 전식(全湜) 사서(沙西)
 전신(全信) 백헌(栢軒)
 전신(全信) 유헌(柳軒)
 전열(全烈) 휴암(休菴)
 전엽(全燁) 쌍암(雙岩)
 전영(全榮) 매은(梅隱)

전영택(田榮澤) 늘봄
 전영택(田榮澤) 추강(秋江)
 전오륜(全五倫) 채미헌(採薇軒)
 전용선(全用先) 추산(秋山)
 전우(田愚) 간재(良齋)
 전유추(田有秋) 송담(松潭)
 전유추(田有秋) 추담(秋潭)
 전유형(全有亨) 학송(鶴松)
 전윤무(田胤武) 서정(棲亭)
 전익희(全益禧) 망일당(望日堂)
 전조생(田祖生) 경은(耕隱)
 전팔고(全八顧) 원천(源泉)
 전팽령(全彭齡) 송정(松亭)
 전팽령(全彭齡) 송정(松亭)
 전팽수(全彭壽) 송오(松塢)
 전팽조(全彭祖) 송로(松老)
 전형필(全鑿弼) 간송(澗松)
 전후(全厚) 반곡(盤谷)
 전희철(全希哲) 휴계(休溪)
 정가신(鄭可臣) 설재(雪齋)
 정간(鄭幹) 명고(鳴臯)
 정개청(鄭介淸) 곤재(困齋)
 정건(鄭騫) 이우당(二友堂)
 정건조(鄭健朝) 용산(蓉山)
 정경달(丁景達) 반곡(盤谷)
 정경세(鄭經世) 우복당(愚伏堂)
 정경세(鄭經世) 일묵(一默)
 정경세(鄭經世) 하거(霞渠)
 정경흠(鄭慶欽) 육오당(六吾堂)
 정계당(鄭桂堂) 총계당(叢桂堂)
 정곡(鄭穀) 송포(松浦)
 정곤수(鄭峴壽) 백곡(栢谷)
 정곤수(鄭峴壽) 경음(慶陰)

정곤수(鄭峴壽) 조은(朝隱)
 정공권(鄭公權) 원재(圓齋)
 정관(鄭綸) 서계(西溪)
 정관검(鄭觀儉) 학파(鶴坡)
 정광(鄭洸) 송헌(松軒)
 정광경(鄭廣敬) 추천(秋川)
 정광성(鄭廣成) 제곡(濟谷)
 정광적(鄭光績) 남파(南坡)
 정광필(鄭光弼) 수부(守夫)
 정광필(鄭光弼) 수천(守天)
 정교(鄭喬) 추인(秋人)
 정구(鄭構) 영모암(永慕菴)
 정구(鄭球) 괴은(槐隱)
 정구(鄭矩) 설학재(雪壑齋)
 정구(鄭矩) 운학재(雲壑齋)
 정구(鄭逮) 한강(寒岡)
 정구(鄭逮) 한악(寒岳)
 정구하(鄭龜河) 담암(澹岩)
 정규한(鄭奎漢) 운수당(雲水堂)
 정규한(鄭奎漢) 화산(華山)
 정극인(丁克仁) 다각(茶角)
 정극인(丁克仁) 다헌(茶軒)
 정극인(丁克仁) 불우헌(不憂軒)
 정극후(鄭克後) 쌍봉(雙峰)
 정기광(鄭基廣) 토곡(土谷)
 정기룡(鄭起龍) 매헌(梅軒)
 정기명(鄭起溟) 화곡(華谷)
 정기세(鄭基世) 주계(周啓)
 정기수(鄭期壽) 한벽(寒碧)
 정기안(鄭基安) 만모(晩慕)
 정기원(鄭期遠) 견산(見山)
 정기일(鄭基一) 죽하(竹下)
 정기춘(鄭基春) 설청(雪靑)

정난종(鄭蘭宗) 허백당(盧白堂)
 정남일(丁南一) 송은(松隱)
 정내교(鄭來僑) 완암(浣巖)
 정내성(鄭來成) 사헌(思軒)
 정노(鄭魯) 창과(蒼坡)
 정뇌경(鄭雷卿) 운계(雲溪)
 정담(鄭澹) 십죽헌(十竹軒)
 정담(鄭湛) 일헌(逸軒)
 정당(鄭棠) 염재(念齋)
 정대년(鄭大年) 사암(思菴)
 정대수(丁大水) 용서(龍西)
 정대유(丁大有) 우향(又香)
 정대청(鄭大淸) 관재(寬齋)
 정덕기(鄭德祺) 우헌(愚軒)
 정덕린(鄭德麟) 우헌(愚軒)
 정덕휘(鄭德輝) 미와(薇窩)
 정도응(鄭道應) 무침(無忝)
 정도응(鄭道應) 무침당(無忝堂)
 정도응(鄭道應) 우복당(愚伏堂)
 정도전(鄭道傳) 삼봉(三峰)
 정동유(鄭東愈) 현동(玄洞)
 정동후(鄭東後) 송애(松厓)
 정두(鄭斗) 동산(東山)
 정두(鄭斗) 동산옹(東山翁)
 정두경(鄭斗卿) 동명(東溟)
 정두원(鄭斗源) 풍악(楓嶽)
 정두원(鄭斗源) 호정(壺亭)
 정두형(鄭斗亨) 낙전당(樂全堂)
 정만석(鄭晩錫) 과재(過齋)
 정만석(鄭晩錫) 죽간(竹澗)
 정만양(鄭萬陽) 훈수(垣叟)
 정만조(鄭萬朝) 무정(茂亭)
 정만화(鄭萬和) 익암(益庵)

정면(鄭勳) 여우자(如愚子)
 정명설(丁鳴說) 제암(霽巖)
 정명응(丁明應) 징헌(澄軒)
 정몽주(鄭夢周) 포은(圃隱)
 정문부(鄭文孚) 농포(農圃)
 정문승(鄭文升) 미당(美堂)
 정문승(鄭文升) 초천(蕉泉)
 정문익(鄭文翼) 송죽당(松竹堂)
 정문형(鄭文炯) 야수(野叟)
 정미수(鄭眉壽) 우재(愚齋)
 정민교(鄭敏僑) 한천(寒泉)
 정민하(鄭敏河) 가은(歌隱)
 정민하(鄭敏河) 소은(簫隱)
 정밀(鄭密) 삼계(三溪)
 정발(鄭撥) 백운(白雲)
 정백창(鄭百昌) 곡구(谷口)
 정백창(鄭百昌) 대탄자(大灘子)
 정백창(鄭百昌) 천용(天容)
 정백창(鄭百昌) 현곡(玄谷)
 정범조(丁範祖) 해좌(海左)
 정범조(鄭範祖) 규당(葵堂)
 정병조(鄭丙朝) 규원(葵園)
 정보(鄭保) 운곡(雲谷)
 정복시(鄭復始) 계담(桂潭)
 정복시(鄭復始) 계헌(桂軒)
 정복주(鄭復周) 죽당(竹堂)
 정복천(鄭復天) 강재(剛齋)
 정봉(鄭鳳) 양근초부(楊根樵夫)
 정봉(鄭鳳) 초부(樵夫)
 정분(鄭笨) 애일당(愛日堂)
 정봉(鄭鵬) 신당(新堂)
 정사룡(鄭士龍) 호음(湖陰)
 정사성(鄭士誠) 지헌(芝軒)

정사신(丁思愼) 기수(畸叟)
 정사신(鄭士信) 곡신사(谷神子)
 정사신(鄭士信) 매창(梅窓)
 정사웅(鄭士雄) 내암(耐庵)
 정사위(鄭士偉) 병은(病隱)
 정사진(鄭四震) 수암(守菴)
 정사철(鄭師哲) 임하(林下)
 정사호(鄭賜湖) 화곡(禾谷)
 정상기(鄭尙驥) 농포자(農圃子)
 정서(鄭紘) 과정(瓜亭)
 정석(鄭哲) 악남(岳南)
 정석견(鄭錫堅) 한벽재(寒碧齋)
 정석렴(鄭石廉) 북창(北窓)
 정석현(鄭石賢) 내묵(耐辱)
 정선(鄭瑄) 태사(苔查)
 정선(鄭歎) 난곡(蘭谷)
 정선(鄭僑) 상헌(常軒)
 정성경(鄭星卿) 옥호자(玉壺子)
 정세규(鄭世規) 동리(東里)
 정세미(鄭世美) 동와(東窩)
 정세웅(鄭世雄) 호수(湖叟)
 정세호(鄭世虎) 서계(西溪)
 정수강(丁壽崗) 월헌(月軒)
 정수기(鄭壽期) 곡구(谷口)
 정수영(鄭遂榮) 지우재(之友齋)
 정수홍(鄭守弘) 풍천(楓川)
 정숙하(鄭淑夏) 월호(月湖)
 정순명(鄭順明) 성재(惺齋)
 정순봉(鄭順鵬) 성재(省齋)
 정승조(鄭崇祖) 삼성재(三省齋)
 정시(鄭著) 백우(伯友)
 정시성(鄭始城) 만의당(晩依堂)
 정시수(鄭時修) 금천(琴川)

정시술(丁時述) 우은(寓隱)
 정시윤(丁時潤) 두호(斗湖)
 정시한(丁時翰) 우담(愚潭)
 정식(鄭植) 백교(白郊)
 정식(鄭軾) 영모정(永慕亭)
 정식(鄭弼) 명암(明菴)
 정심(正心) 벽계(碧溪)
 정안도(鄭安道) 물계(勿齋)
 정약용(丁若鏞)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삼미(三眉)
 정약용(丁若鏞) 여유당(與猶堂)
 정약용(丁若鏞) 채산(菜山)
 정약용(鄭若鏞) 사암(俟菴)
 정약전(丁若全) 매일재(每日齋)
 정약전(丁若鎔) 손암(巽菴)
 정약전(丁若鎔) 연경재(研經齋)
 정약전(丁若鎔) 일성루(日星樓)
 정양(鄭養) 부익(孚翼)
 정양(鄭養) 외근(畏近)
 정양(鄭養) 포옹(抱翁)
 정양(鄭養) 경외(敬畏)
 정양필(鄭良弼) 추천(秋川)
 정언겸(鄭彦兼) 극복당(克復堂)
 정언삽(鄭彦霄) 총산(葱山)
 정언신(鄭彦信) 나암(懶菴)
 정언충(鄭彦忠) 묵재(默齋)
 정언환(丁彦璜) 묵공옹(墨拱翁)
 정여창(鄭汝昌) 일두(一盞)
 정역(鄭易) 백정(栢亭)
 정연(鄭淵) 송곡(松谷)
 정연경(鄭延慶) 우재(愚齋)
 정연필(鄭演弼) 칠당(七堂)
 정염(丁焰) 만현(晩軒)

정엽(鄭擘) 설촌(雪村)
 정엽(鄭擘) 수구몽(守口夢)
 정영국(鄭榮國) 관포(灌圃)
 정영방(鄭榮邦) 석문(石門)
 정영진(鄭榮振) 평암(平巖)
 정영후(鄭榮後) 매오(梅塢)
 정예남(鄭禮男) 서주(西疇)
 정오(丁午) 무외(無畏)
 정오(鄭顛) 설현(雪軒)
 정오(鄭顛) 추담(秋潭)
 정옥(鄭玉) 우천(牛川)
 정옥견(鄭玉堅) 황계(璜溪)
 정옥량(鄭玉良) 경재(耕齋)
 정옥형(丁玉亨) 월봉(月峰)
 정은(鄭蘊) 고고자(鼓鼓子)
 정은(鄭蘊) 동계(東溪)
 정완(鄭浣) 겸재(謙齋)
 정용(鄭壙) 구곡(龜谷)
 정용(鄭鎔) 오정(梧亭)
 정우량(鄭羽良) 학남(鶴南)
 정우빈(鄭禹賓) 파강(巴江)
 정운경(鄭雲慶) 송운(松雲)
 정운룡(鄭雲龍) 하곡(霞谷)
 정운용(鄭雲龍) 하석(霞石)
 정운희(丁運熙) 고주(孤舟)
 정원(淨源) 상봉(霜峯)
 정유(鄭攸) 수은(睡隱)
 정유건(鄭惟審) 동강(東江)
 정유길(鄭惟吉) 상덕재(尙德齋)
 정유길(鄭惟吉) 임당(林塘)
 정유명(鄭惟明) 역양(嶧陽)
 정유성(鄭維城) 도촌(陶村)
 정유승(鄭維升) 취은(醉隱)

정유악(鄭維岳) 구계(癯溪)
 정유악(鄭維岳) 동촌(東村)
 정유일(鄭惟一) 문봉(文峯)
 정유점(鄭維漸) 곡구(谷口)
 정유중(鄭有中) 조계(棗溪)
 정윤목(鄭允穆) 청풍자(淸風子)
 정윤영(鄭胤永) 석화(石華)
 정윤영(鄭胤永) 후산(后山)
 정윤용(鄭允容) 수암(睡庵)
 정윤해(鄭允海) 서귀자(鋤歸子)
 정유희(丁胤禧) 고암(顧庵)
 정유희(丁胤禧) 순암(順庵)
 정을보(鄭乙輔) 면재(勉齋)
 정응(鄭應) 소우당(素愚堂)
 정응두(鄭應斗) 동해(東海)
 정응창(鄭應昌) 유향(柳巷)
 정의(淨義) 동선(東宣)
 정의번(鄭宜蕃) 백암(栢巖)
 정의경(鄭二經) 기은(機隱)
 정이오(鄭以吾) 교은(郊隱)
 정이주(鄭以周) 성재(惺齋)
 정이호(鄭以吾) 우곡(愚谷)
 정익(鄭楨) 옥헌(旭軒)
 정인경(鄭麟卿) 창곡(蒼谷)
 정인보(鄭寅普) 담원(檀園)
 정인보(鄭寅普) 미소(薇蘇)
 정인보(鄭寅普) 수과(守坡)
 정인보(鄭寅普) 위당(爲堂)
 정인지(鄭麟趾) 학이재(學易齋)
 정인홍(鄭仁弘) 내암(萊菴)
 정일환(鄭日煥) 창주(滄州)
 정자(鄭慈) 청사(淸莎)
 정자건(丁自堅) 역재(易齋)

정자당(鄭子堂) 청송(靑松)
 정자후(鄭子厚) 우곡(遇谷)
 정작(鄭碓) 고옥(古玉)
 정장(鄭樟) 만오(晩悟)
 정장(鄭樟) 사곡(沙谷)
 정재건(鄭在健) 소송(小松)
 정재륜(鄭載崙) 죽헌(竹軒)
 정재소(鄭在韶) 형당(衡堂)
 정재승(鄭載嵩) 송간(松澗)
 정재승(鄭載嵩) 송옹(松翁)
 정재한(鄭載漢) 한계(寒溪)
 정재희(鄭載禧) 양촌(陽村)
 정전(鄭詮) 송오(松塢)
 정전(鄭詮) 팔계(八溪)
 정제(鄭濟) 적송정(赤松亭)
 정제두(鄭齊斗) 하곡(霞谷)
 정조(正祖) 홍재(弘齋)
 정존겸(鄭存謙) 양암(陽菴)
 정존겸(鄭存謙) 양재(陽齋)
 정존겸(鄭存謙) 원촌(源村)
 정종(鄭種) 오로재(吾老齋)
 정종로(鄭宗魯) 입재(立齋)
 정종명(鄭宗溟) 화곡(華谷)
 정종빈(鄭宗賓) 가곡(稼谷)
 정종영(鄭宗榮) 항재(恒齋)
 정준(鄭僞) 용문(龍門)
 정중기(鄭重器) 매산(梅山)
 정중원(鄭重元) 천옹(喘翁)
 정지(正持) 하의(荷衣)
 정지겸(鄭志儉) 철재(澈齋)
 정지상(鄭知常) 남호(南湖)
 정지선(鄭趾善) 긍재(兢齋)
 정지승(鄭之升) 총계당(叢桂堂)

정지연(鄭芝衍) 남봉(南峰)
 정지운(鄭之雲) 추만(秋巒)
 정지운(鄭芝潤) 하원(夏園)
 정지호(鄭之虎) 무은(霧隱)
 정지화(鄭知和) 곡구(谷口)
 정지화(鄭知和) 남곡(南谷)
 정진철(鄭晉哲) 사주옹(沙洲翁)
 정찬휘(鄭纘輝) 궁촌(窮村)
 정창(鄭昌) 죽계(竹溪)
 정창순(鄭昌順) 사어(四於)
 정창연(鄭昌衍) 수죽(水竹)
 정창주(鄭昌胄) 만사(晩沙)
 정창주(鄭昌胄) 만주(晩洲)
 정창주(鄭昌胄) 묵헌(默軒)
 정척(鄭陟) 정암(整菴)
 정척(鄭陟) 창재(暢齋)
 정척(鄭陽) 쌍곡(雙谷)
 정천(鄭沔) 침의당(瞻依堂)
 정철(丁哲) 청은(靑隱)
 정철(鄭澈) 송강(松江)
 정철조(鄭喆祚) 석치(石痴)
 정초(鄭礎) 게헌(桂軒)
 정총(鄭摠) 복재(復齋)
 정추(鄭樞) 원재(圓齋)
 정추(鄭鍾) 줄옹(拙翁)
 정춘(丁春) 송암(松巖)
 정춘수(鄭春洙) 청오(靑吾)
 정충신(鄭忠信) 만운(晩雲)
 정충엽(鄭忠燁) 이곡(梨谷)
 정충엽(鄭忠燁) 이호(梨湖)
 정충필(鄭忠弼) 노우(魯宇)
 정탁(鄭擢) 춘곡(春谷)
 정탁(鄭琢) 백곡(栢谷)

정탁(鄭琢) 약포(藥圃)
 정태구(鄭台耆) 유촌(柳村)
 정태제(鄭泰濟) 국당(菊堂)
 정태제(鄭泰齊) 삼당(三堂)
 정태진(丁泰鎭) 석인(石人)
 정태화(鄭太和) 양파(陽坡)
 정태희(鄭泰熙) 계운(桂雲)
 정택뢰(鄭澤雷) 화강(花岡)
 정포(鄭誦) 설곡(雪谷)
 정필달(鄭必達) 팔송(八松)
 정하언(鄭夏彦) 옥호자(玉壺子)
 정하언(鄭夏彦) 지당(止堂)
 정학교(丁學教) 몽인(夢人)
 정학교(丁學教) 몽중몽인(夢中夢人)
 정학교(鄭學教) 향수(香壽)
 정학유(丁學游) 운포(耘浦)
 정한룡(鄭漢龍) 서파(西坡)
 정한문(鄭漢文) 쌍계정(雙溪亭)
 정향(鄭蕙) 월촌(月村)
 정현(鄭磧) 만죽(萬竹)
 정현(鄭磧) 소요(逍遙)
 정현덕(鄭顯德) 우전(雨田)
 정협(鄭協) 남파(南坡)
 정협(鄭協) 동와(東窩)
 정혜(定慧) 회암(晦庵)
 정호(正浩) 은암(銀巖)
 정호(鄭湖) 장암(丈岩)
 정호(鼎鎬) 석전(石顛)
 정호(鼎鎬) 영호(映湖)
 정호선(丁好善) 동원(東園)
 정훈순(鄭弘淳) 호동(瓠東)
 정홍래(鄭弘來) 국오(菊塢)
 정홍래(鄭弘來) 만향(晩香)

정홍명(鄭弘溟) 기암(畸菴)
 정홍명(鄭弘溟) 기옹(畸翁)
 정홍명(鄭弘溟) 삼치(三癡)
 정홍익(鄭弘翼) 휴암(休菴)
 정홍익(鄭弘翼) 휴옹(休翁)
 정홍익(鄭弘翼) 휴헌(休軒)
 정화제(鄭華齊) 취전(醉全)
 정환(丁煥) 회산(檜山)
 정환직(鄭煥直) 동엄(東廣)
 정항(丁橫) 유헌(遊軒)
 정희(鄭晦) 무막당(撫陌堂)
 정희(鄭晦) 무송당(撫松堂)
 정효성(鄭孝成) 휴휴자(休休子)
 정효준(鄭孝俊) 낙만헌(樂晩軒)
 정후교(鄭後僑) 국당(菊塘)
 정훈모(鄭燠謨) 추산(秋山)
 정휘(鄭暉) 국재(菊齋)
 정휘량(鄭暉良) 남애(南崖)
 정희(鄭熙) 묵은(默隱)
 정희(鄭歎) 겸재(謙齋)
 정희검(鄭希儉) 어은(漁隱)
 정희교(鄭希僑) 학주(鶴洲)
 정희량(鄭希良) 허암(虛菴)
 정희번(鄭姬藩) 고송(孤松)
 정희진(鄭希進) 단포(丹圃)
 정희하(鄭羲河) 취석(醉石)
 조가석(趙嘉錫) 태촌(苔村)
 조간(趙簡) 열헌(悅軒)
 조감(趙槩) 옥천(玉川)
 조건(曹健) 자야당(自夜堂)
 조건(趙狷) 송산(松山)
 조경(趙暲) 서산(西山)
 조경(趙暲) 하서(荷樓)

조경(趙綱) 간옹(簡翁)
 조경(趙綱) 모계(慕溪)
 조경(趙綱) 용주(龍洲)
 조경(趙綱) 주봉(柱峯)
 조경망(趙景望) 기와(寄窩)
 조경명(趙景命) 귀락당(歸樂堂)
 조경보(曹敬甫) 매학(梅鶴)
 조경호(趙慶鎬) 구당(鷗堂)
 조계생(趙啓生) 두곡(杜谷)
 조계원(趙啓遠) 약천(藥泉)
 조공근(趙公瑾) 소옹(梳翁)
 조관(槀冠) 용담(龍潭)
 조관빈(趙觀彬) 회헌(悔軒)
 조광보(趙光輔) 방은(方隱)
 조광익(曹光益) 취원당(聚遠堂)
 조광익(曹光翼) 죽와(竹窩)
 조광조(趙光祖) 정암(靜菴)
 조광좌(趙廣佐) 회곡(晦谷)
 조광진(曹匡振) 구눌(口訥)
 조광진(曹匡振) 눌인(訥人)
 조광현(趙光玠) 금탄(琴灘)
 조구명(趙龜命) 동계(東溪)
 조구명(趙龜命) 동계(東谿)
 조구진(趙九鎭) 청량헌(聽涼軒)
 조국빈(趙國賓) 설죽(雪竹)
 조귀석(趙龜錫) 장육당(藏六堂)
 조귀석(趙龜錫) 칠휴당(七休堂)
 조극선(趙克善) 야곡(冶谷)
 조근(趙根) 손암(損菴)
 조내양(趙來陽) 도산(道山)
 조대수(趙大壽) 지와(止窩)
 조대중(曹大中) 정곡(鼎谷)
 조덕린(趙德隣) 옥천(玉川)

조덕상(趙德常) 저호(樗湖)
 조덕순(趙德純) 호옹(壺翁)
 조도빈(趙道彬) 수와(睡窩)
 조동운(趙東潤) 혜석(惠石)
 조동탁(趙東卓) 지훈(芝薰)
 조두순(趙斗淳) 심암(心庵)
 조득영(趙得永) 일곡(日谷)
 조득중(趙得重) 수정재(守正齋)
 조득중(趙得重) 용촌(龍村)
 조만식(曹晩植) 고당(古堂)
 조만영(趙萬永) 석애(石崖)
 조말생(趙末生) 사곡(社谷)
 조말생(趙末生) 화산(華山)
 조맹선(趙孟善) 원서(圓石)
 조명(趙銘) 인촌(仁村)
 조명교(曹命教) 담운(澹雲)
 조명교(曹命教) 담운재(淡雲齋)
 조명국(趙鳴國) 성암(省菴)
 조명리(趙明履) 노강(蘆江)
 조명신(趙命臣) 만휴정(晩休亭)
 조명옥(曹明勗) 율촌(栗村)
 조명은(趙鳴殷) 구봉(九峰)
 조명이(趙明履) 귀천(歸泉)
 조명익(趙明翼) 긍재(肯齋)
 조명정(趙明鼎) 노포(老圃)
 조목(趙穆) 동고(東阜)
 조목(趙穆) 월천(月川)
 조문명(趙文命) 학암(鶴岩)
 조문수(曹文秀) 설정(雪汀)
 조박(趙璞) 석곡(石谷)
 조박(趙璞) 우정(雨亭)
 조방직(趙邦直) 수죽(脩竹)
 조변(趙忭) 금재(琴齋)

조병걸(趙炳傑) 성산(城山)
 조병기(趙秉夔) 소식(小石)
 조병덕(趙秉惠) 숙재(肅齋)
 조병세(趙秉世) 산재(山齋)
 조병옥(趙炳玉) 유석(維石)
 조병준(趙秉準) 국동(菊東)
 조병필(趙秉弼) 간산(幹山)
 조병헌(趙秉憲) 금주(錦洲)
 조병현(趙秉鉉) 성재(成齋)
 조병현(趙秉鉉) 우당(羽堂)
 조복양(趙復陽) 송곡(松谷)
 조봉암(曹奉岩) 죽산(竹山)
 조봉원(趙逢源) 파서(坡西)
 조봉진(曹鳳振) 신암(愼庵)
 조부(曹溥) 삼청당(三清堂)
 조봉구(曹鵬九) 옥여재(玉余齋)
 조비(趙備) 총계와(叢桂窩)
 조빈(趙贇) 은성(隱星)
 조빈(趙贇) 음성(陰星)
 조사서(趙師錫) 나계(蘿溪)
 조사석(趙師錫) 만회(晩悔)
 조사석(趙師錫) 만휴(晩休)
 조사석(趙師錫) 향산(香山)
 조사수(趙士秀) 송강(松岡)
 조상경(趙尙綱) 학당(鶴塘)
 조상우(趙相愚) 동강(東岡)
 조상우(趙相愚) 동악(東岳)
 조상우(趙相禹) 시암(時菴)
 조상치(曹尙治) 단고(丹臯)
 조상치(曹尙治) 정재(靜齋)
 조서강(趙瑞康) 경은(耕隱)
 조석명(趙錫命) 묵소(墨沼)
 조석억(曹錫興) 하강(荷江)

조석우(曹錫雨) 연암(烟巖)
 조석원(曹錫元) 소운(紹雲)
 조석운(趙錫胤) 낙정(樂靜)
 조석운(趙錫胤) 약정당(藥靜堂)
 조석주(趙錫周) 백야(白野)
 조석진(趙錫晉) 소림(小琳)
 조석형(趙錫馨) 근수재(近水齋)
 조성(趙晟) 양심당(養心堂)
 조성기(趙聖期) 줄수재(拙修齋)
 조성립(趙誠立) 일소재(一笑齋)
 조성복(趙聖復) 퇴수암(退修菴)
 조성하(趙成夏) 소하(小河)
 조성한(趙星漢) 쌍괴당(雙槐堂)
 조성한(趙晟漢) 동산(東山)
 조성환(曹成煥) 청사(晴蓑)
 조세걸(曹世傑) 쾌주(攄洲)
 조세걸(曹世杰) 수천(須川)
 조세걸(趙世傑) 고암(孤菴)
 조세봉(趙世鵬) 봉계(鳳溪)
 조세영(趙世英) 용헌(慵軒)
 조세우(趙世佑) 금포(黔浦)
 조세환(趙世煥) 수촌(樹村)
 조세휘(趙世彙) 북명(北溟)
 조속(趙涑) 창강(滄江)
 조속(趙涑) 창추(滄醜)
 조속(趙涑) 추옹(醜翁)
 조속(趙涑) 취병(醉病)
 조속(趙涑) 취추(醉醜)
 조수(趙須) 만취정(晩翠亭)
 조수(趙須) 송월당(松月堂)
 조수륜(趙守倫) 만귀(晩歸)
 조수륜(趙守倫) 풍옥헌(風玉軒)
 조수만(趙壽萬) 남계(南溪)

조수문(曹守文) 죽림(竹林)
 조수삼(趙秀三) 경원(經院)
 조수삼(趙秀三) 추재(秋齋)
 조수성(曹守誠) 청강(淸江)
 조수익(趙壽益) 만간(晩簡)
 조수익(趙壽益) 만한당(晩閑堂)
 조순생(趙順生) 파서(坡西)
 조송지(趙崇之) 죽촌(竹村)
 조승국(趙承國) 덕곡(德谷)
 조승숙(趙承肅) 덕곡(德谷)
 조식(曹植) 남명(南溟)
 조식(趙軾) 원통(元通)
 조신(曹伸) 적암(適菴)
 조신준(曹臣俊) 무민옹(無憫翁)
 조신준(趙臣俊) 영내(寧內)
 조언수(趙彦秀) 신선당(信善堂)
 조엄(趙嚴) 영호(永湖)
 조여(趙旅) 어계(漁溪)
 조연(趙淵) 내헌(耐軒)
 조열빈(趙烈彬) 관와(寬窩)
 조염(趙廉) 중재(中齋)
 조영(趙嶸) 양호(楊湖)
 조영국(趙榮國) 월호(月湖)
 조영복(趙榮福) 이지당(二知堂)
 조영순(趙榮順) 퇴헌(退軒)
 조영우(趙榮祐) 관아재(觀我齋)
 조영우(趙榮祐) 석계(石溪)
 조완기(趙完基) 도곡(道谷)
 조용화(趙容和) 청소(淸沼)
 조우신(趙又新) 백담(白潭)
 조우인(曹友仁) 매호(梅湖)
 조우인(曹友仁) 이재(怡齋)
 조욱(趙昱) 보진재(葆眞齋)

조욱(趙昱) 세심당(洗心堂)
 조욱(趙昱) 용문(龍門)
 조욱(趙昱) 우암(愚菴)
 조운홀(趙雲佐) 석간(石澗)
 조원(趙援) 운강(雲江)
 조원기(趙元紀) 둔후재(敦厚齋)
 조원기(趙遠期) 구봉(九峰)
 조원길(趙元吉) 농은(農隱)
 조원길(趙元吉) 옥천(玉川)
 조원용(趙元容) 경산(經山)
 조위(曹偉) 남계(藍溪)
 조위(曹偉) 매계(梅溪)
 조위명(趙威明) 송천(松泉)
 조위봉(趙威鳳) 녹문(鹿門)
 조위한(趙緯漢) 현곡(玄谷)
 조위한(趙緯韓) 서만(西禪)
 조위한(趙緯韓) 소옹(素翁)
 조유(曹逾) 우졸당(愚拙堂)
 조유(趙瑜) 건곡(虔谷)
 조유선(趙有善) 나산(蘿山)
 조유수(趙裕壽) 후계(後溪)
 조윤(趙綸) 솔암(率菴)
 조윤대(曹允大) 동포(東浦)
 조윤지(曹胤祉) 남주(南洲)
 조윤형(曹允亨) 송하옹(松河翁)
 조응경(趙應卿) 하치정(下島亭)
 조응록(趙應祿) 죽계(竹溪)
 조응빈(趙應彬) 죽계(竹溪)
 조응인(趙應仁) 도촌(陶村)
 조이수(趙頤壽) 의루(倚樓)
 조이후(趙爾後) 매곡(梅谷)
 조익(趙翊) 가휴(可畦)
 조익(趙翼) 존재(存齋)

조익(趙翼) 포저(浦渚)
 조인(趙寅) 강호(江湖)
 조인(趙遴) 은은당(隱隱堂)
 조인규(趙仁奎) 우암(寓菴)
 조인득(趙仁得) 창주(滄州)
 조인수(趙仁壽) 백분당(百賁堂)
 조인영(趙寅永) 운석(雲石)
 조임도(趙任道) 간송당(澗松堂)
 조재도(趙載道) 인암(仁菴)
 조재호(趙載浩) 농촌(農村)
 조재호(趙載浩) 손재(損齋)
 조재홍(趙載洪) 활암(闊菴)
 조적(趙績) 구촌(臼鳥村)
 조적한(趙績漢) 현주(玄洲)
 조전소(趙全素) 후포(後浦)
 조정(趙挺) 죽천(竹川)
 조정(趙挺) 한수(漢叟)
 조정(趙靖) 금간(黔澗)
 조정견(趙庭堅) 가은(稼隱)
 조정구(趙鼎九) 월파(月坡)
 조정규(趙廷奎) 임전(琳田)
 조정립(曹挺立) 오계(梧溪)
 조정서(趙正緒) 남곡(南谷)
 조정순(趙正純) 석곡(石谷)
 조정위(趙正緯) 일묵헌(一默軒)
 조정융(曹挺融) 호재(湖齋)
 조정익(趙廷翼) 낙도재(樂道齋)
 조정철(趙貞喆) 대릉(大陵)
 조정철(趙貞喆) 정헌(靜軒)
 조정호(趙廷虎) 남계(南溪)
 조존도(趙存道) 수헌(睡軒)
 조존성(趙存性) 용호(龍湖)
 조존성(趙存性) 정곡(鼎谷)

조존세(趙存世) 청호(聽湖)
 조존세(趙存世) 청호(聽湖)
 조존진(趙存埈) 손산(孫山)
 조종경(趙宗敬) 독암(獨菴)
 조종도(趙宗道) 대소헌(大笑軒)
 조종저(趙宗著) 간재(艮齋)
 조종저(趙宗著) 남악(南岳)
 조종현(趙宗鉉) 천은(天隱)
 조주(趙注) 도곡(道谷)
 조주(趙注) 청계(淸溪)
 조준(趙浚) 송당(松堂)
 조준(趙浚) 우재(紆齋)
 조준영(趙準永) 송간(松澗)
 조중려(趙重呂) 휴천(休川)
 조중묵(趙重默) 운계(雲溪)
 조중묵(趙重默) 자산(蕉山)
 조중치(趙重治) 벽암(碧巖)
 조중항(趙重恒) 일재(一齋)
 조지겸(趙持謙) 구포(鳩浦)
 조지겸(趙持謙) 우재(迂齋)
 조지서(趙之瑞) 지족당(知足堂)
 조지서(趙之瑞) 충헌(忠軒)
 조지운(趙之耘) 매곡(梅谷)
 조지운(趙之耘) 매은(梅隱)
 조지운(趙之耘) 매창(梅窓)
 조직(趙汲) 지재(止齋)
 조진(趙振) 농암(農巖)
 조진관(趙鎭寬) 가정(柯汀)
 조진석(趙晉錫) 간죽(看竹)
 조진석(趙晉錫) 성죽(省竹)
 조진석(趙晉錫) 용은(慵隱)
 조진양(趙晉陽) 팔우헌(八友軒)
 조징(趙澄) 송강(松江)

조찬(趙璨) 신재(愼齋)
 조창기(趙昌期) 조암(槽巖)
 조창원(趙昌遠) 오은(悟隱)
 조천경(趙天經) 이안당(易安堂)
 조철산(趙哲山) 구천(龜川)
 조최수(趙最壽) 구계(癸溪)
 조춘경(趙春慶) 승와(升窩)
 조충(趙仲) 동고(東臯)
 조탁(曹倬) 이양당(二養堂)
 조탁(曹倬) 치재(坵齋)
 조태구(趙泰耆) 노봉(露峯)
 조태구(趙泰耆) 소현(素軒)
 조태구(趙泰耆) 하곡(霞谷)
 조태동(趙泰東) 풍계(楓溪)
 조태로(趙泰老) 지산(地山)
 조태억(趙泰億) 겸재(謙齋)
 조태억(趙泰億) 태록당(胎祿堂)
 조태억(趙泰億) 팔곡(八谷)
 조태채(趙泰采) 이우당(二憂堂)
 조평(趙平) 설학(雪壑)
 조평(趙平) 운학(雲壑)
 조평립(趙平立) 수촌(水村)
 조하망(趙夏望) 서주(西州)
 조한보(曹漢輔) 망기당(忘機堂)
 조한영(曹漢英) 회곡(晦谷)
 조행립(曹行立) 태호(兌湖)
 조헌(趙憲) 도원(陶原)
 조헌(趙憲) 중봉(重峰)
 조헌(趙憲) 후율(後栗)
 조현(曹顯) 월헌(月軒)
 조현기(趙顯期) 일봉(一峯)
 조현명(趙顯命) 귀록(歸鹿)
 조현명(趙顯命) 녹옹(鹿翁)

조현소(趙見素) 성강(星江)
 조형(趙珩) 취병(翠屏)
 조형기(趙亨期) 신재(新齋)
 조형기(趙亨期) 졸수재(拙修齋)
 조형생(趙亨生) 손곡(遜谷)
 조혜(趙惠) 시재(施齋)
 조호(趙瑚) 회곡(檜谷)
 조호익(曹好益) 지산(芝山)
 조홍립(曹弘立) 수죽헌(數竹軒)
 조황(曹悅) 구봉(九峰)
 조황(趙冕) 한석(漢石)
 조효박(趙孝博) 고산(孤山)
 조효창(曹孝昌) 계양청은(桂陽淸隱)
 조휘(趙徽) 송파(松坡)
 조휴(趙休) 삼휴당(三休堂)
 조흡(趙洽) 인계(仁溪)
 조흡(趙滄) 서창(曙窓)
 조희룡(趙熙龍) 단로(丹老)
 조희룡(趙熙龍) 호산(壺山)
 조희룡(趙熙龍) 매수(梅叟)
 조희룡(趙熙龍) 석감(石慙)
 조희룡(趙熙龍) 우봉(又峯)
 조희룡(趙熙龍) 철적(鐵笛)
 조희문(趙希文) 월계(月溪)
 조희순(趙義純) 학해당(學海堂)
 조희연(趙義淵) 기원(杞園)
 조희인(曹希仁) 묵계(墨溪)
 조희일(趙希逸) 죽음(竹飲)
 조희일(趙希逸) 팔봉(八峰)
 주국정(周國貞) 과은(果隱)
 주명상(朱明相) 가실(可室)
 주명신(周命新) 기하(岐下)
 주몽룡(朱夢龍) 용암(龍巖)

주비(周槩) 한산(閒山)
 주세봉(周世鵬) 남고(南臯)
 주세봉(周世鵬) 무릉도인(武陵道人)
 주세봉(周世鵬) 손옹(哭翁)
 주세봉(周世鵬) 신재(愼齋)
 주시경(周時經) 한헌샘
 주용규(朱庸奎) 입암(立菴)
 주의식(朱義植) 남곡(南谷)
 주이(周怡) 일락당(一樂堂)
 주재성(周宰成) 국담(菊潭)
 죽서박씨(竹西朴氏) 반야당(半啞堂)
 중원(重遠) 한암(漢巖)
 즉원(即圓) 정암(晶巖)
 지눌(知訥) 목우자(牧牛子)
 지덕해(池德海) 뇌봉(雷峯)
 지석영(池錫永) 송촌(松村)
 지선(智洗) 도헌(道憲)
 지안(志安) 환성(喚醒)
 지엄(知嚴) 벽송(碧松)
 지엄(知嚴) 야로(野老)
 지엄(知嚴) 야로(埜老)
 지운영(池運永) 백련(白蓮)
 지운영(池運永) 설봉(雪峰)
 지인(之印) 영원수(靈源叟)
 지창한(池昌翰) 백송(白松)
 지천(智泉) 축원(竺源)
 지청천(池青天) 백산(白山)
 지칭(智稱) 통소(通炤)
 진극경(陳克敬) 백곡(栢谷)
 진동석(秦東奭) 남옥헌(簣玉軒)
 진동석(秦東奭) 수일재(守一齋)
 진동익(秦東益) 청옹(淸翁)
 진무성(陳武晟) 송계(松溪)

진의귀(陳義貴) 울정(栗亭)
 진익채(秦益琛) 치와(庇窩)
 진재해(秦再奚) 벽은(僻隱)
 진종환(秦鍾煥) 교릉(嶠陵)
 진화(陳淮) 매호(梅湖)
 징엄(澄儼) 복세(福世)
 차상찬(車相瓚) 청오(靑吾)
 차식(車軾) 이재(頤齋)
 차예량(車禮亮) 풍천(風泉)
 차예량(車禮亮) 풍천자(風泉子)
 차운로(車雲絡) 창주(滄州)
 차원부(車原頰) 운암(雲巖)
 차이석(車利錫) 동암(東巖)
 차전곤(車轉坤) 단구(丹邱)
 차좌일(車佐一) 사명자(四名子)
 차천락(車天駱) 청묘(淸妙)
 차천로(車天輅) 굴실(橘室)
 차천로(車天輅) 난우(蘭岬)
 차천로(車天輅) 오산(五山)
 차현규(車憲奎) 석계(石溪)
 차현규(車憲奎) 차룡(車龕)
 찬영(燦英) 목암(木庵)
 채경선(蔡慶先) 죽촌(竹村)
 채광묵(蔡光默) 구연(龜淵)
 채귀하(蔡貴河) 탁영대(濯纓臺)
 채득기(蔡得沂) 우담(霧潭)
 채득기(蔡得沂) 학정(鶴汀)
 채득순(蔡得淳) 기기재(寄寄齋)
 채락(蔡洛) 규정(葵亭)
 채만식(蔡萬植) 백릉(白菱)
 채만식(蔡萬植) 채옹(菜翁)
 채명운(蔡明胤) 오현재(五峴齋)
 채몽연(蔡夢硯) 투암(投岩)

채무(蔡楸) 백포(栢浦)
 채무이(蔡無易) 신촌(新村)
 채무일(蔡無逸) 일계(逸溪)
 채무일(蔡無逸) 휴암(休巖)
 채무일(蔡無逸) 휴암(休菴)
 채무적(蔡無敵) 교헌(僑軒)
 채상덕(蔡相惠) 심호(深湖)
 채석주(蔡錫疇) 만귀당(晩歸堂)
 채성귀(蔡聖龜) 지비재(知非齋)
 채성운(蔡成胤) 구봉(九峰)
 채세영(蔡世英) 임진당(任眞堂)
 채소권(蔡紹權) 졸옹(拙翁)
 채소권(蔡紹權) 졸재(拙齋)
 채수(蔡壽) 나재(懶齋)
 채수영(蔡壽永) 사암(獅巖)
 채수중(蔡壽宗) 인암(忍庵)
 채시경(蔡時鏡) 송곡(松谷)
 채신보(蔡申保) 만계(灣溪)
 채연(蔡璉) 반간(盤澗)
 채연(蔡璉) 반남(潘南)
 채유후(蔡裕後) 호주(湖洲)
 채이항(蔡以恒) 오봉(五峰)
 채제공(蔡濟恭) 번암(樊巖)
 채종길(蔡宗吉) 송촌(松村)
 채지면(蔡之沔) 수암(湫菴)
 채지홍(蔡之洪) 봉계(鳳溪)
 채지홍(蔡之洪)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사장와(舍藏窩)
 채지홍(蔡之洪) 삼환재(三患齋)
 채진정(蔡震亭) 박당(葑塘)
 채팽운(蔡彭胤) 은와(恩窩)
 채팽운(蔡彭胤) 희암(希菴)
 채홍철(蔡弘哲) 중암(中庵)

처능(處能) 백강(白江)
 천만리(千萬里) 사암(思菴)
 천수경(千壽慶) 송석(松石)
 천수경(千壽慶) 송석원(松石園)
 천영(天英) 충경(冲鏡)
 천책(天頌) 진정(眞靜)
 천희(千熙) 설산(雪山)
 철종(哲宗) 대용재(大勇齋)
 청고(靑杲) 울봉(栗峯)
 청안(淸眼) 운파(雲坡)
 청학(淸學) 영월(詠月)
 최강(崔綱) 소계(蘇溪)
 최개국(崔蓋國) 남악(南岳)
 최경(崔涇) 근재(謹齋)
 최경성(崔景星) 희안재(希顔齋)
 최경장(崔慶長) 죽계(竹溪)
 최경중(崔敬中) 암헌(菴軒)
 최경창(崔慶昌) 고죽(孤竹)
 최경행(崔敬行) 이순당(二順堂)
 최경희(崔慶會) 삼계(三溪)
 최경희(崔慶會) 일휴당(日休堂)
 최계성(崔繼成) 처암(處岩)
 최계훈(崔繼勳) 운곡(雲谷)
 최관(崔關) 월과정(月坡亭)
 최광벽(崔光璧) 이우정(二友亭)
 최규동(崔奎東) 백농(白農)
 최규서(崔奎瑞) 간재(良齋)
 최규서(崔奎瑞) 소릉(少陵)
 최규서(崔奎瑞) 파릉(巴陵)
 최균(崔均) 소호(蘇湖)
 최극충(崔克忠) 용호(龍湖)
 최기(崔沂) 서촌(西村)
 최기(崔沂) 쌍백당(雙栢堂)

최기남(崔奇男) 구곡(龜谷)
 최기남(崔起南) 만곡(晩谷)
 최기남(崔起南) 만옹(晩翁)
 최기남(崔起南) 양암(養庵)
 최기백(崔基錡) 동명(東溟)
 최기필(崔琦弼) 모산(茅山)
 최남선(崔南善) 육당(六堂)
 최내길(崔來吉) 이재(頤齋)
 최눌(最訥) 묵암(默菴)
 최당(崔諲) 쌍면재(雙明齋)
 최대립(崔大立) 창애(蒼厓)
 최덕중(崔德重) 동봉(東峯)
 최덕지(崔德之)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 존양당(存養堂)
 최동립(崔東立) 행우(杏雨)
 최동보(崔東輔) 우락재(憂樂齋)
 최동식(崔東式) 울정(栗汀)
 최동오(崔東旣) 의산(義山)
 최동집(崔東山集) 대암(臺菴)
 최두찬(崔斗燦) 강해(江海)
 최린(崔麟) 고우(古友)
 최립(崔昱) 간이당(簡易堂)
 최립(崔昱) 동고(東臯)
 최립(崔昱) 입암(立岩)
 최만리(崔萬理) 강호(江湖)
 최명길(崔鳴吉)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 창랑(滄浪)
 최명룡(崔明龍) 석계(石溪)
 최명창(崔命昌) 송석(松石)
 최명창(崔命昌) 송음(松陰)
 최명춘(崔命春) 송계(松溪)
 최문도(崔文度) 춘헌(春軒)
 최문병(崔文炳) 성재(省齋)

최문식(崔文湜) 성헌(性軒)
 최방언(崔邦彦) 양정당(養正堂)
 최병화(崔秉和) 고접(孤蝶)
 최부(崔溥) 금남(錦南)
 최북(崔北) 거기재(居其齋)
 최북(崔北) 기암(箕庵)
 최북(崔北) 삼기당(三奇堂)
 최북(崔北) 성재(星齋)
 최북(崔北) 호생관(毫生館)
 최사립(崔斯立) 결재(潔齋)
 최산두(崔山斗) 신재(新齋)
 최산휘(崔山輝) 낙남(洛南)
 최삼립(崔三立) 입암(立庵)
 최상중(崔尙重) 말능재(未能齋)
 최상중(崔尙重) 미능재(未能齋)
 최서(崔潛) 추포(秋浦)
 최서림(崔瑞琳) 관곡(寬谷)
 최석순(崔碩淳) 백순(白淳)
 최석연(崔碩連) 계암(桂菴)
 최석정(崔錫鼎)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 존와(存窩)
 최석진(崔錫晉) 추암(秋岩)
 최석항(崔錫恒) 돈와(遯窩)
 최석항(崔錫恒) 손와(損窩)
 최선문(崔善問) 동대(東臺)
 최성(崔誠) 태동(苔洞)
 최성대(崔成大) 두기(杜機)
 최성우(崔誠愚) 묵재(默齋)
 최성지(崔誠之) 송파(松坡)
 최성환(崔醒煥) 어시재(於是齋)
 최수(崔洙) 춘헌(春軒)
 최수경(崔守慶) 봉암(鳳岩)
 최수량(崔守良) 추화당(秋花堂)

최수맹(崔守孟) 고궁당(固窮堂)
 최수성(崔壽城) 경포산인(鏡浦山人)
 최수성(崔水誠) 원정(猿亭)
 최수성(崔壽臧) 북해(北海)
 최수철(崔守哲) 청랭자(淸冷子)
 최숙생(崔叔生) 진재(盡齋)
 최숙생(崔淑生) 고재(蠱齋)
 최숙생(崔淑生) 충재(忠齋)
 최숙정(崔淑精) 사숙재(私淑齋)
 최숙정(崔淑精) 소요재(逍遙齋)
 최승경(崔承慶) 수우당(守愚堂)
 최승태(崔承太) 설초(雪蕉)
 최시옹(崔是翁) 동강(東岡)
 최시옹(崔是翁) 서산(西山)
 최시형(崔時亨) 해월(海月)
 최신(崔愼) 학암(鶴岩)
 최안(崔安) 모암(慕菴)
 최양(崔養) 만륙당(晩六堂)
 최양(崔養) 장륙당(藏六堂)
 최연수(崔彦粹) 삼계(三溪)
 최여설(崔汝僕) 매헌(梅軒)
 최여주(崔汝舟) 삼절당(三節堂)
 최연(崔衍) 성연(星淵)
 최연(崔演) 간재(良齋)
 최연(崔衍) 성만(醒灣)
 최영경(崔永慶) 수우당(守愚堂)
 최영린(崔永隣) 석포(石圃)
 최영호(崔永浩) 염호(恬湖)
 최은(崔蘊) 폼재(砒齋)
 최옹(崔顛) 남강(南岡)
 최옹(崔顛) 남악(南岳)
 최우석(崔禹錫) 정재(鼎齋)
 최운(崔漚) 삼지(三池)

최운부(崔雲溥) 한림(翰林)
 최운우(崔雲遇) 향호(香湖)
 최원훈(崔元勳) 봉암(鳳岩)
 최유경(崔有慶) 죽정(竹亭)
 최유연(崔有淵) 현석(玄石)
 최유연(崔有淵) 현암(玄巖)
 최유원(崔有源) 추봉(秋峰)
 최유원(崔有源) 화암(花巖)
 최유지(崔攸之) 간호(艮湖)
 최유해(崔有海) 감파(紺坡)
 최유해(崔有海) 묵수재(默守齋)
 최유해(崔有海) 수묵당(守默堂)
 최윤덕(崔潤德) 임곡(霖谷)
 최윤목(崔允穆) 죽창(竹窓)
 최윤식(崔允植) 동림(東林)
 최응룡(崔應龍) 송정(松亭)
 최응립(崔應立) 동계(東溪)
 최응현(崔應見) 수현(睡軒)
 최응현(崔應賢) 수일재(睡一齋)
 최응현(崔應賢) 수재(睡齋)
 최익성(崔翼星) 구호(龜湖)
 최익한(崔益漢) 창해(滄海)
 최익현(崔益鉉) 면암(勉庵)
 최인(崔麟) 여암(如菴)
 최일(崔逸) 석헌(石軒)
 최림(崔琳) 외와(畏窩)
 최자(崔滋) 동산수(東山叟)
 최자(崔磁) 동산(東山)
 최자운(崔自潤) 사천(沙川)
 최재서(崔載瑞) 석경우(石耕牛)
 최전(崔澗) 양포(楊浦)
 최정호(崔挺豪) 저곡(槁谷)
 최제묵(崔濟默) 가암(可菴)

최제우(崔濟禹) 수운(水雲)
 최종주(崔宗周) 자봉(紫峯)
 최주악(崔柱岳) 계서(溪西)
 최주악(崔柱岳) 만곡(晩谷)
 최준(崔濬) 창랑(滄浪)
 최종순(崔重純) 토목와(土木窩)
 최지원(崔致遠) 고운(孤雲)
 최진기(崔鎭紀) 긍재(肯齋)
 최진립(崔震立) 잠와(潛窩)
 최진방(崔鎭邦) 송재(松齋)
 최진해(崔振海) 역옹(櫟翁)
 최진해(崔振海) 역촌(櫟村)
 최징후(崔徵厚) 매봉(梅峰)
 최찬(崔纘) 고송(孤松)
 최찬식(崔贊植) 동초(東樵)
 최찬식(崔贊植) 해동(海東)
 최창대(崔昌大) 곤륜(昆侖)
 최창현(崔昌賢) 관천(冠泉)
 최천건(崔天健) 분음(汾陰)
 최철건(崔鐵堅) 몽와(夢窩)
 최철건(崔鐵堅) 몽은(夢隱)
 최청(崔淸) 관가정(觀稼亭)
 최청강(崔井安) 아행(雅行)
 최청강(崔淸江) 아한정(雅閑亭)
 최충(崔冲) 방회재(放晦齋)
 최충(崔冲) 성재(惺齋)
 최충(崔冲) 월포(月圃)
 최충성(崔忠成) 산당(山堂)
 최치운(崔致雲) 경호조은(鏡湖釣隱)
 최치운(崔致雲) 조은(釣隱)
 최탁(崔濯) 죽당(竹塘)
 최하림(崔河臨) 대허당(大虛堂)
 최학령(崔鶴齡) 울정(栗亭)

최학송(崔鶴松) 서해(曙海)
 최한기(崔漢綺) 명남루(明南樓)
 최한기(崔漢綺) 패동(溟東)
 최한기(崔漢綺) 혜강(惠崗)
 최한송(崔漢松) 노곡(老谷)
 최한후(崔漢候) 규암(圭岩)
 최항(崔恒) 태허정(太虛亭)
 최항경(崔恒慶) 죽헌(竹軒)
 최해(崔澗) 송옹(松翁)
 최해(崔澗) 예산(狷山)
 최해(崔澗) 예암(狷岩)
 최해(崔澗) 졸재(拙齋)
 최행(崔行) 아간(丫澗)
 최현(崔現) 인재(認齋)
 최형한(崔亨漢) 영사정(永思亭)
 최혜길(崔惠吉) 유하(柳下)
 최호(崔皐) 월담(月潭)
 최홍도(崔弘渡) 구포(白鳥浦)
 최홍재(崔弘載) 죽은(竹隱)
 최홍진(崔鴻晉) 삼려(三黎)
 최황(崔況) 월담(月潭)
 최황(崔璜) 구암(苟菴)
 최효진(崔孝騫) 하산(何山)
 최후량(崔後亮) 정수재(靜修齋)
 최후상(崔後尙) 동강(東岡)
 최후현(崔後賢) 녹촌(鹿村)
 최희지(崔徽之) 별주(鼈洲)
 최흥림(崔興霖) 계당(溪堂)
 최흥원(崔興源) 송천(松泉)
 최흥원(崔興遠) 백불암(百弗菴)
 최흥원(崔興遠) 칠계(漆溪)
 최흥효(崔興孝) 월곡(月谷)
 최희(崔禧) 남파(南坡)

최희량(崔希亮) 일옹(逸翁)
 최희정(崔希汀) 덕촌(德村)
 추봉(秋鵬) 설암(雪巖)
 추수경(秋水鏡) 세심당(洗心堂)
 추적(秋適) 노당(露堂)
 축원(竺原) 진하(震河)
 충감(冲鑑) 설봉(雪峰)
 충언(冲彦) 임성(任性)
 치익(致益) 해담(海曇)
 탁광무(卓光茂) 경림정(景濂亭)
 탁신(卓愼) 죽정(竹亭)
 탁연(卓然) 법운(法雲)
 탁연(卓然) 운유자(雲遊子)
 탄연(坦然) 묵암(默菴)
 탄영(坦泳) 환응(幻應)
 태능(太能) 소요(逍遙)
 태두남(太斗男) 서암(西菴)
 태선(太先) 함명(函溟)
 태율(兌律) 월과(月坡)
 태흘(泰屹) 천봉(天峯)
 편강렬(片康烈) 애사(愛史)
 평원대군(平原大君) 근행당(謹行堂)
 표빙(表憑) 퇴우(退憂)
 표연말(表沿沫) 남계(藍溪)
 표운(表云) 철우(鐵牛)
 하규일(河圭一) 금하(琴下)
 하낙(河洛) 환성재(喚醒齋)
 하만리(河萬里) 양진재(養眞齋)
 하맹보(河孟寶) 우계(愚溪)
 하빈(河濱) 신희옹(新稀翁)
 하수일(河受一) 송정(松亭)
 하시찬(夏時贊) 열암(悅庵)
 하연(河演) 경재(敬齋)

하연(河演) 경재(警齋)
 하우명(河友明) 연당(蓮塘)
 하위지(河緯地) 단계(丹溪)
 하위지(河緯地) 연풍(延風)
 하운(河崙) 호정(浩亭)
 하운(河潤) 운수당(雲水堂)
 하운원(河允源) 태현(苔軒)
 하운일(河允源) 약현(若軒)
 하응도(河應圖) 영무성계(寧無成齋)
 하응림(河應臨) 청천(菁川)
 하지종(河自宗) 목옹(木翁)
 하진(河潛) 태계(苔溪)
 하진보(河晉寶) 영모정(永慕亭)
 하집(河楫) 송헌(松軒)
 하징(河澄) 창주(滄州)
 하항(河流) 각재(覺齋)
 하홍도(河弘度) 겸재(謙齋)
 학눌(學訥) 효봉(曉峰)
 학린(學璘) 취운(翠雲)
 학밀(學密) 청호(晴湖)
 학조(學祖) 등곡(燈谷)
 학조(學祖) 황악(黃岳)
 한경기(韓景琦) 향설(香雪)
 한경기(韓景琦) 향운당(香雲堂)
 한경의(韓景儀) 치서(菑墅)
 한계순(韓繼舜) 수은(市隱)
 한계원(韓啓源) 초은(草隱)
 한공연(韓公衍) 각성(覺星)
 한광조(韓光肇) 남애(南厓)
 한광조(韓光肇) 남정(南庭)
 한교(韓嶠) 동담(東潭)
 한교(韓曺) 회묵재(晦默齋)
 한구(韓構) 안소당(安素堂)

한권(韓卷) 유선(儒仙)
 한규설(韓圭高) 강석(江石)
 한규직(韓圭稷) 기옥(基玉)
 한극겸(韓克謙) 유은(柳隱)
 한극창(韓克昌) 별주(龍洲)
 한기(韓琦) 봉곡(蓬谷)
 한기악(韓基嶽) 월봉(月峰)
 한덕사(韓德師) 석은(石隱)
 한덕원(韓德遠) 강암(江岩)
 한덕전(韓德全) 회와(晦窩)
 한명(韓鳴) 동담(東潭)
 한명단(韓命丹) 육재(六齋)
 한명상(韓命相) 보만당(保晩堂)
 한명여(韓命興) 천관재(川觀齋)
 한명옥(韓明勗) 율촌(栗村)
 한명옥(韓明勗) 율현(栗軒)
 한명회(韓明澮) 구정(鷗亭)
 한명회(韓明澮) 사우당(四友堂)
 한명회(韓明澮) 압구정(鴨鷗亭)
 한몽린(韓夢麟) 봉암(鳳巖)
 한몽삼(韓夢參) 적암(適菴)
 한몽삼(韓夢參) 조은(釣隱)
 한배하(韓配夏) 지곡(芝谷)
 한백겸(韓白謙) 구암(久庵)
 한백륜(韓百倫) 의암(毅庵)
 한사영(韓士英) 불온재(不溫齋)
 한상경(韓尙敬) 신재(信齋)
 한상질(韓尙質) 죽소(竹所)
 한성(翰醒) 침명(枕溟)
 한세양(韓世襄) 치현(耻軒)
 한수(韓脩) 석봉(石峰)
 한수(韓脩) 유현(柳軒)
 한숙(韓淑) 간이당(簡易堂)

한술(韓述) 도곡(陶谷)
 한시각(韓時覺) 설탄(雪灘)
 한언침(韓彦忱) 성은(城隱)
 한언침(韓彦忱) 성은(誠隱)
 한여두(韓如斗) 독성재(獨醒齋)
 한여유(韓汝愈) 둔옹(遁翁)
 한여직(韓汝稷) 십주(十洲)
 한여해(韓如海) 회현(晦軒)
 한엽(韓喈) 봉두암(鳳頭菴)
 한영기(韓永箕) 상촌(橡村)
 한용귀(韓用龜) 만오(晩悟)
 한용운(韓龍雲)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용운(龍雲)
 한우신(韓禹臣) 정안당(靜安堂)
 한원진(韓元震) 남당(南塘)
 한운명(韓胤明) 형재(炯齋)
 한은(韓瑱) 만은(漫隱)
 한응성(韓應聖) 구와(龜窩)
 한응인(韓應寅) 백줄재(百拙齋)
 한응인(韓應寅) 유촌(柳村)
 한익모(韓翼暮) 정견(靜見)
 한익상(韓益相) 백줄(百拙)
 한익상(韓益相) 자오(自娛)
 한인급(韓仁及) 서석(書石)
 한인급(韓仁及) 현석(玄石)
 한일휴(韓日休) 월포(月浦)
 한장석(韓章錫) 경향(經香)
 한장석(韓章錫) 미산(眉山)
 한재림(韓在濂) 심원당(心遠堂)
 한전(韓璉) 유안(靈岸)
 한종유(韓宗愈) 복재(復齋)
 한준(韓浚) 설산(雪簑)
 한준(韓準) 남강(南岡)

한준(韓準) 남악(南岳)
 한준겸(韓浚謙) 유천(柳川)
 한중엽(韓重燁) 용헌(榕軒)
 한중조(韓重朝) 곡평(曲肱)
 한지(韓祉) 월악(月嶽)
 한지원(韓智源) 청련(靑蓮)
 한진(韓鎭) 색당(穉堂)
 한진(韓鎭) 해천(海川)
 한징(韓澄) 효창(曉蒼)
 한창(韓昌) 관수정(觀水亭)
 한철중(韓哲中) 몽계(夢溪)
 한충(韓忠) 송재(松齋)
 한치운(韓致全) 옥유당(玉蕤堂)
 한태동(韓泰東) 시와(是窩)
 한필구(韓必久) 창일(蒼逸)
 한필명(韓必明) 서강(西岡)
 한필원(韓必遠) 도천(道川)
 한협(韓協) 죽정(竹亭)
 한형길(韓亨吉) 유촌(柳村)
 한호(韓濩) 석봉(石峯)
 한호(韓濩) 청사(淸沙)
 한호성(韓好誠) 계촌(桂村)
 한홍조(韓弘祚) 봉암(鳳岩)
 한확(韓確) 간이재(簡易齋)
 한회(韓懷) 유하(柳下)
 한회(韓懷) 대항(苔巷)
 한효상(韓孝祥) 협소당(愜素堂)
 한효순(韓孝純) 월탄(月灘)
 한효원(韓效元) 오계(梧溪)
 한효운(韓孝胤) 유음(柳陰)
 한효중(韓孝仲) 석탄(石灘)
 한홍일(韓興一) 유시(柳市)
 함대훈(咸大勳) 일보(一步)

함부림(咸傅霖) 난계(蘭溪)
 함재운(咸在韻) 겸窩(謙窩)
 함제건(咸悌健) 동암(東巖)
 함진승(咸鎭嵩) 관향(瓣香)
 함현(咸軒) 칠봉(七峰)
 함화진(咸和鎭) 오당(梧堂)
 해원(海源) 함월(涵月)
 해일(海日) 보응(普應)
 해주(海珠) 용호(龍湖)
 허강(許綱) 일소헌(一笑軒)
 허강(許綱) 강호(江湖)
 허격(許格) 승정(崇禎)
 허격(許格) 아호(鵝湖)
 허격(許格) 창해(滄海)
 허겸(許兼) 성산(性山)
 허경운(許景胤) 죽암(竹庵)
 허계(許啓) 성우(醒遇)
 허계(許繼) 도봉(道峰)
 허광(許礦) 칩금정(滌襟亭)
 허균(許筠) 교산(蛟山)
 허균(許筠) 문산(蚊山)
 허균(許筠) 백월(白月)
 허균(許筠) 성소(惺所)
 허극(許極) 행호(杏湖)
 허금(許錦) 야당(野堂)
 허기(許愔) 매현(梅軒)
 허난설헌(許蘭雪軒) 경번(景樊)
 허난설헌(許蘭雪軒) 난설헌(蘭雪軒)
 허당(許鎬) 구일헌(九一軒)
 허득량(許得良) 상무헌(尙武軒)
 허량(許亮) 동주(桐洲)
 허목(許穆) 대영노인(臺嶺老人)
 허목(許穆) 미수(眉叟)

허백기(許伯琦)삼송(三松)
 허백기(許伯琦)호재(浩齋)
 허복량(許復良)낙암(洛菴)
 허봉(許篈)하곡(荷谷)
 허빈(許濱)각비자(覺非子)
 허석(許擇)석포(石浦)
 허성(許箴)산전(山前)
 허성(許箴)악록(岳麓)
 허실(許實)앵정(櫻亭)
 허양(許亮)풍연(楓淵)
 허억(許億)창강(滄江)
 허언심(許彦深)압호정(壓湖亭)
 허여(許礪)징와(澄窩)
 허엽(許曄)초당(草堂)
 허영(許穎)빙호(氷湖)
 허오(許焜)은사(隱士)
 허옹(許邕)우현(迂軒)
 허완(許玩)낙이재(樂而齋)
 허요(許瑤)동강(東岡)
 허욱(許煜)취남(翠南)
 허욱(許頊)부현당(負喧堂)
 허원(許瑗)집의재(集義齋)
 허위(許葦)왕산(旺山)
 허유(許維)소치(小癡)
 허운(許琬)계주(桂洲)
 허자(許磁)동애(東崖)
 허잠(許潛)학로(壑老)
 허잠(許潛)한천(寒泉)
 허적(許穉)상고재(尙古齋)
 허적(許穉)묵재(默齋)
 허적(許穉)산계(山溪)
 허적(許穉)휴옹(休翁)
 허적(許穉)수색(水色)

허진(許傳)성재(性齋)
 허정(許琯)송호(松湖)
 허정석(許廷奭)근수당(近水堂)
 허조(許稠)경암(敬庵)
 허조(許稠)경재(敬齋)
 허중(許琮)상의당(尙衣堂)
 허직(許稷)백석(白石)
 허진(許震)죽촌(竹村)
 허진동(許震童)동상(東湘)
 허채(許采)농와(龔窩)
 허초(許礎)매헌(梅軒)
 허충길(許忠吉)남계(南溪)
 허침(許琛)이헌(頤軒)
 허필(許泌)연객(烟客)
 허필(許泌)구도(舊濤)
 허필(許泌)초선(草禪)
 허하조(許賀朝)삼수헌(三秀軒)
 허학(許學)제사(霽沙)
 허함(許涵)와옹(窩翁)
 허항(許恒)고산(孤山)
 허홍(許烘)설봉(雪峰)
 허황(許璜)매은(梅隱)
 허회(許淮)어은(漁隱)
 허후(許厚)관설당(觀雪堂)
 허후(許厚)둔계(遯溪)
 허후(許厚)일휴(逸休)
 허휘(許徽)퇴암(退菴)
 현종(憲宗)원헌(元軒)
 현기(玄錡)희암(希庵)
 현덕승(玄德升)희와(希窩)
 현덕운(玄德潤)금곡(錦谷)
 현변(顯辯)침굉(枕肱)
 현상벽(玄尙璧)관봉(冠峰)

현상운(玄相允)기당(幾堂)
 현상운(玄相允)소성(小星)
 현약호(玄若昊)삼벽당(三碧堂)
 현익수(玄翼洙)회당(晦堂)
 현재덕(玄在德)감산(衾山)
 현정경(玄正卿)하죽(河竹)
 현제명(玄濟明)현석(玄石)
 현진건(玄鎭健)빙허(憑虛)
 현징(玄徵)죽림(竹林)
 현채(玄采)백당(白堂)
 현천묵(玄天默)백취(白醉)
 현희운(玄僖運)현철(玄哲)
 형사보(邢士保)지지당(止止堂)
 혜견(慧堅)용악(聳岳)
 혜능(惠能)양성당(養性堂)
 혜명(惠明)혜월(慧月)
 혜심(慧識)무의자(無衣子)
 혜장(惠藏)아암(兒庵)
 혜장(惠藏)연파(蓮坡)
 혜집(惠楫)철선(鐵船)
 혜찬(慧燦)진응(震應)
 혼구(混丘)무극(無極)
 혼수(混脩)환암(幻庵)
 홍가신(洪可臣)간옹(艮翁)
 홍가신(洪可臣)만전당(晩全堂)
 홍간(洪侃)홍에(洪厓)
 홍경모(洪敬謨)관암(冠巖)
 홍경보(洪景輔)창애(蒼厓)
 홍경손(洪敬孫)우국재(友菊齋)
 홍경신(洪慶臣)녹문(鹿門)
 홍계우(洪啟禹)월포(月浦)
 홍계적(洪啓迪)수허재(守虛齋)
 홍계현(洪繼玄)대암(臺岩)

홍계훈(洪啓薰) 규산(圭珊)
 홍계흠(洪啓欽) 경백(敬伯)
 홍계희(洪啓禧) 담와(淡窩)
 홍광일(洪光一) 화서(華西)
 홍구연(洪九淵) 마경현(麻鏡軒)
 홍구행(洪九行) 정수재(靜修齋)
 홍귀달(洪貴達) 함허정(涵虛亭)
 홍귀달(洪貴達) 허백당(虛白堂)
 홍기(洪基) 우담(憂曇)
 홍기신(洪丌臣) 만합(晩合)
 홍기조(洪基兆) 유암(遊菴)
 홍길주(洪吉周) 향해(沆海)
 홍낙명(洪樂命) 신재(新齋)
 홍낙성(洪樂性) 항재(恒齋)
 홍낙순(洪樂純) 대릉(大陵)
 홍낙인(洪樂仁) 안와(安窩)
 홍남립(洪南立) 화곡(華谷)
 홍내범(洪乃範) 동강(東江)
 홍노(洪魯) 경재(敬齋)
 홍대구(洪大龜) 동암(東菴)
 홍대연(洪大淵) 화은(花隱)
 홍대용(洪大容)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홍지(洪之)
 홍대유(洪大猷) 행정(杏亭)
 홍득귀(洪得龜) 창곡(蒼谷)
 홍득기(洪得箕) 월호(月湖)
 홍득룡(洪得龍) 창곡(蒼谷)
 홍득우(洪得禹) 수졸재(守拙齋)
 홍득일(洪得一) 만헌(晩軒)
 홍득일(洪得一) 후포(後浦)
 홍립(洪昱) 독정재(獨靜齋)
 홍만선(洪萬選) 유암(流巖)
 홍만수(洪萬遂) 채봉(彩峯)

홍만식(洪萬植) 호운(湖雲)
 홍만우(洪萬遇) 추헌(楸軒)
 홍만적(洪萬迪) 임호(林湖)
 홍만조(洪萬朝) 만퇴당(晩退堂)
 홍만종(洪萬宗) 장주(長洲)
 홍만종(洪萬宗) 현묵자(玄默子)
 홍만형(洪萬衡) 약헌(藥軒)
 홍명구(洪命耆) 나재(懶齋)
 홍명원(洪命元) 해봉(海峯)
 홍명일(洪命一) 보옹(葆翁)
 홍명하(洪命夏) 기천(沂川)
 홍명한(洪名漢) 수은(市隱)
 홍명형(洪命亨) 무임자(無任子)
 홍무적(洪茂績) 백석(白石)
 홍민구(洪敏求) 죽헌(竹軒)
 홍방(洪磅) 지계(芝溪)
 홍범식(洪範植) 일완(一阮)
 홍변(洪辯) 청우(靑牛)
 홍병기(洪秉箕) 인암(仁菴)
 홍보(洪寶) 월봉(月峰)
 홍봉조(洪鳳祚) 간산(盂山)
 홍봉조(洪鳳祚) 우산(孟山)
 홍봉한(洪鳳漢) 익익재(翼翼齋)
 홍봉(洪鵬) 경재(敬齋)
 홍사용(洪思容) 노각(露雀)
 홍사우(洪思愚) 동강(東岡)
 홍사효(洪思敎) 백호(白湖)
 홍서봉(洪瑞鳳) 학곡(鶴谷)
 홍서익(洪瑞翼) 목옹(木翁)
 홍서익(洪瑞翼) 화옹(禾翁)
 홍석(洪錫) 손우당(遜遇堂)
 홍석구(洪錫龜) 구곡(九曲)
 홍석귀(洪錫龜) 동호(東湖)

홍석귀(洪錫龜) 지리재(支離齋)
 홍석기(洪錫箕) 만주(晩洲)
 홍석모(洪錫謨) 도애(陶厓)
 홍석방(洪碩舫) 낙천(樂天)
 홍석보(洪錫輔) 수은(睡隱)
 홍석주(洪奭周) 연천(淵泉)
 홍섭(洪漚) 인재(忍齋)
 홍섭(洪漚) 인재(認齋)
 홍성민(洪聖民) 상야재(尙雅齋)
 홍성민(洪聖民) 졸옹(拙翁)
 홍성보(洪聖輔) 삼성와(三省窩)
 홍세공(洪世恭) 봉계(鳳溪)
 홍세섭(洪世燮) 석창(石窓)
 홍세태(洪世泰) 유하(柳下)
 홍세태(洪世泰) 창랑(滄浪)
 홍수량(洪受亮) 규헌(葵軒)
 홍수주(洪受疇) 호곡(壺谷)
 홍수주(洪受疇) 호은(壺隱)
 홍수현(洪受濂) 담포(淡圃)
 홍숙(洪塾) 오은(梧隱)
 홍순각(洪純愨) 쌍백당(雙栢堂)
 홍순목(洪淳穆) 분계(汾溪)
 홍순복(洪順福) 고암(顧庵)
 홍승(洪昇) 정애(鼎厓)
 홍승구(洪承壽) 목춘(木春)
 홍승로(洪承魯) 만당(晩堂)
 홍식(洪植) 문산(文山)
 홍식(洪湜) 서호(西湖)
 홍양한(洪亮漢) 미남(嶺南)
 홍양한(洪亮漢) 오서(烏西)
 홍양호(洪良浩) 이계(耳溪)
 홍언박(洪彦博) 양파(陽坡)
 홍언충(洪彦忠) 우암(寓菴)

홍언필(洪彦弼) 묵재(默齋)
 홍여방(洪汝方) 연생당(戀生堂)
 홍여순(洪汝諱) 동성(東城)
 홍여울(洪汝栗) 허주자(虛舟子)
 홍여하(洪汝河)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산택재(山澤齋)
 홍영(洪靈) 추만(楸巒)
 홍영(洪靈) 추악(秋岳)
 홍영식(洪英植) 금석(琴石)
 홍영의(洪永義) 백웅(白熊)
 홍영후(洪永厚) 난과(蘭坡)
 홍오경(洪午璟) 반환(盤桓)
 홍오경(洪午璟) 반환당(盤桓堂)
 홍우길(洪祐吉) 애사(靄士)
 홍우길(洪祐吉) 연탄(研灘)
 홍우길(洪祐吉) 춘산(春山)
 홍우녕(洪禹寧) 정와(靜窩)
 홍우서(洪禹瑞) 서암(西岩)
 홍우원(洪宇遠) 남과(南坡)
 홍우전(洪禹傳) 구만(龜灣)
 홍우정(洪宇定) 계곡(桂谷)
 홍우정(洪宇定) 두곡(杜谷)
 홍원(洪遠) 송암(松菴)
 홍원섭(洪元燮) 태호(太湖)
 홍위(洪璋) 서담(西潭)
 홍위(洪蒧) 창람(蒼嵐)
 홍위(洪蒧) 청계(淸溪)
 홍유(泓宥) 경암(鏡巖)
 홍유(泓宥) 추파(秋波)
 홍유손(洪裕孫) 광노자(狂奴子)
 홍유손(洪裕孫) 소송(篠叢)
 홍응(洪應) 휴휴당(休休堂)
 홍응보(洪應輔) 문주(雯洲)

홍의모(洪義謨) 금시헌(今是軒)
 홍의모(洪義謨) 허우당(何愚堂)
 홍의영(洪儀泳) 간재(良齋)
 홍의호(洪義浩) 담녕(澹寧)
 홍이간(洪履簡) 남헌(南軒)
 홍이상(洪履祥) 모당(慕堂)
 홍익진(洪益晉) 소요당(逍遙堂)
 홍익한(洪翼漢) 운옹(雲翁)
 홍익한(洪翼漢) 화포(花浦)
 홍인모(洪仁謨) 족수(足睡)
 홍인우(洪仁祐) 치재(恥齋)
 홍일동(洪逸童) 마천(麻川)
 홍일순(洪一純) 오곡(鰲谷)
 홍임제(洪任濟) 직재(敬直齋)
 홍적(洪迪) 양재(養齋)
 홍적(洪迪) 하의(荷衣)
 홍적(洪迪) 하의자(荷衣子)
 홍제유(洪濟猷) 애뢰재(愛懶齋)
 홍종록(洪宗祿) 유천(柳川)
 홍종록(洪宗祿) 유촌(柳村)
 홍종운(洪鍾韻) 덕곡(德谷)
 홍종해(洪宗海) 일섭원(日涉園)
 홍주(洪疇) 백와(白窩)
 홍주국(洪柱國) 범옹(泛翁)
 홍주국(洪柱國) 죽리(竹里)
 홍주삼(洪柱三) 월탄(月灘)
 홍주세(洪柱世) 수암(守庵)
 홍주세(洪柱世) 정허당(靜虛堂)
 홍주신(洪柱臣) 취선(醉仙)
 홍주원(洪柱元) 무하당(無何堂)
 홍주원(洪柱元) 무하옹(無何翁)
 홍주익(洪柱翼) 수백재(守白齋)
 홍주일(洪柱一) 현당(玄塘)

홍주진(洪柱震) 매사(梅沙)
 홍주화(洪胄華) 만은당(晩隱堂)
 홍준(洪遵) 괴음(槐陰)
 홍중보(洪重普) 이천(梨川)
 홍중상(洪重相) 송남(松南)
 홍중성(洪重聖) 운와(芸窩)
 홍중우(洪重禹) 만향당(晩香堂)
 홍중인(洪重寅) 화은(花隱)
 홍중주(洪重疇) 쌍백당(雙栢堂)
 홍중진(洪重晉) 여천(黎川)
 홍중징(洪重徵) 오천(梧泉)
 홍중하(洪重夏) 두담(杜潭)
 홍중하(洪重夏) 사담(社潭)
 홍중현(洪重鉉) 천일재(天一齋)
 홍중효(洪重孝) 백서헌(栢西軒)
 홍중효(洪重孝) 소와(疎窩)
 홍직필(洪直弼) 매산(梅山)
 홍진(洪進) 퇴재(退齋)
 홍진(洪進) 퇴촌(退村)
 홍진(洪震) 만오(晩唔)
 홍처구(洪處久) 행곡(杏谷)
 홍처대(洪處大) 역헌(櫟軒)
 홍처량(洪處亮) 북정(北汀)
 홍처운(洪處尹) 안분재(安分齋)
 홍처후(洪處厚) 성암(醒菴)
 홍천민(洪天民) 율정(栗亭)
 홍춘경(洪春卿) 석벽(石壁)
 홍충희(洪忠熙) 우봉(禹峰)
 홍치중(洪致中) 북곡(北谷)
 홍태목(洪泰默) 내재(耐齋)
 홍학연(洪學淵) 임간(林澗)
 홍헌(洪憲) 묵호(默好)
 홍헌(洪憲) 사촌(沙村)

흥헌(洪憲) 은계(銀溪)
 흥헌보(洪憲輔) 벽암(癖菴)
 흥현보(洪鉉輔) 수재(守齋)
 흥현주(洪顯周) 약헌(約軒)
 흥현주(洪顯周) 해거재(海居齋)
 흥호(洪鎬) 무주(無住)
 흥호(洪鎬) 무주당(無住堂)
 흥호인(洪好人) 노포(老圃)
 흥훈(洪渾) 시우당(時雨堂)
 흥확(洪奩) 도담(島潭)
 흥후형(洪後亨) 매헌(梅軒)
 흥흥지(洪興祉) 선암(仙菴)
 흥희(洪熹) 팔곡(八谷)
 환진(喚眞) 환옹(幻翁)
 황감평(黃鑑平) 일재(逸齋)
 황경원(黃景源) 강한(江漢)
 황경원(黃景源) 한강(漢江)
 황경중(黃敬中) 오촌(梧村)
 황계곡(黃啓沃) 초곡(草谷)
 황근중(黃謹中) 월담(月潭)
 황기로(黃耆老)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 매학정(梅鶴亭)
 황기천(黃基天) 능산(菱山)
 황기천(黃基天) 후환(后院)
 황덕길(黃德吉) 하로(下廬)
 황덕일(黃德壹) 공백당(拱白堂)
 황도연(黃道淵) 혜암(惠菴)
 황보인(皇甫仁) 지봉(芝峰)
 황빈(黃羆) 우석당(于石堂)
 황사우(黃士祐) 용헌(慵軒)
 황상(黃床) 만랑(漫浪)
 황석우(黃錫禹) 상아탑(象牙塔)
 황섬(黃暹) 돈암(遯庵)

황섬(黃暹) 식암(息菴)
 황세정(黃世楨) 제곡(霽谷)
 황수신(黃守身) 유부(儒夫)
 황수신(黃守身) 유수(儒叟)
 황수신(黃守身) 채부(惓夫)
 황순승(黃順承) 집암(執菴)
 황시(黃是) 부원당(負暄堂)
 황신(黃愼) 추포(秋浦)
 황신귀(黃信龜) 운계(雲溪)
 황여일(黃汝一) 매월헌(梅月軒)
 황여일(黃汝一) 해월헌(海月軒)
 황여현(黃汝獻) 유촌(柳村)
 황열(黃悅) 정관(靜觀)
 황용한(黃龍漢) 정와(貞窩)
 황우한(黃佑漢) 동산(東山)
 황운조(黃運祚) 도천(道川)
 황운조(黃運祚) 오수(寤修)
 황위(黃暉) 당촌(塘村)
 황위(黃煒) 필곡(筆谷)
 황유중(黃有中) 조대(釣臺)
 황윤길(黃允吉) 송당(松堂)
 황윤길(黃允吉) 우송당(友松堂)
 황윤석(黃胤錫) 이재(頤齋)
 황윤현(黃允獻) 무개정(無蓋亭)
 황윤후(黃胤後) 월저(月渚)
 황응규(黃應奎) 송간(松澗)
 황응규(黃應奎) 송촌(松村)
 황응성(黃應聖) 동고(東阜)
 황응청(黃應淸) 대해당(大海堂)
 황의돈(黃義敦) 해원(海園)
 황익재(黃翼再) 백화재(白華齋)
 황익재(黃翼再) 화재(華齋)
 황인기(黃仁紀) 일수호(一水戶)

황일호(黃一皓) 지소(芝所)
 황재영(黃在英) 대계(大溪)
 황정옥(黃廷彧) 지천(芝川)
 황종해(黃宗海) 후천(朽淺)
 황종흠(黃鍾翕) 운과(雲坡)
 황준(黃濬) 노정(鰲汀)
 황준량(黃俊良) 금계(錦溪)
 황중운(黃中允) 동명(東溟)
 황진(黃璣) 아술당(娥述堂)
 황진(黃進) 서담(西潭)
 황집중(黃執中) 영곡(影谷)
 황집중(黃集中) 비목당(卑牧堂)
 황최(黃最) 독성재(獨醒齋)
 황축(黃紐) 반간(盤礪)
 황치경(黃致敬) 몽죽(夢竹)
 황택후(黃宅厚) 화곡(華谷)
 황필수(黃泌秀) 혜암(惠菴)
 황학수(黃學秀) 몽호(夢乎)
 황혁(黃赫) 독락석(獨樂石)
 황현(黃玃) 매천(梅泉)
 황협(黃陝) 독오(獨梧)
 황형(黃炯) 쌍부(雙阜)
 황효공(黃孝恭) 구석(龜石)
 황효원(黃孝源) 소원(少原)
 황효헌(黃孝獻) 신재(愼齋)
 황효헌(黃孝獻) 축옹(畜翁)
 황효헌(黃孝獻) 현옹(玄翁)
 황희(黃喜) 방촌(彫村)
 효종(孝宗) 죽오(竹梧)
 휴정(休靜) 서산(西山)
 휴정(休靜) 청허(淸虛)
 희안(希安) 설봉(雪峰)
 희연(熙彦) 고한(孤閑)

강원도 영월 장릉을 다녀와서

동두천문화원

이사 김택기

때는 바야흐로 11월이라 산야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낙엽이 하늘하늘 춤추며 날고 있네, 쓸쓸한 겨울을 재촉하며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동두천이여! 동두천이여!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행복한 발전된 도시가 되길 축원을 해주면서 춤추며 날아가고 있네. 천손족인 우리 한민족이 유일하게 한인천제(BC 8936년)의 뒤를 이어 오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네.

어찌하여 세계의 중심지인 한반도에 자리하고 있는가? 광활하고 기름진 고향을 서북에 두고 우리의 글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문화와 유적, 우리의 역사를 버려두고 나홀로 나홀로 이곳에 왔는가?

참가회비는 1인당 10,000원 씩 내고 그리고 08:20분에 문화원 원장님 인사말, “문화가족 여러분이 바쁜 일을 접어두고 우리 문화원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우리 문화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문화원 운영이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원사를 건립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면서, 그리고 “오늘 유적지 답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09:14분에 여주 휴게소에 도착 20분 휴식을 하고 다시 영월로, 영월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는 도중 구리시 주변지역부터 우리 단종묘에 간다고 하니까 슬퍼서인지 눈물의 안개가 끼어 해와 아름다운 산천을 감추어 두고 보여주지 않네. 너무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인지 영월에 도착할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

음성군 지역에 오니 산야가 산수화를 그려놓고 있네. 이곳에서 아직 아름답고 고

운 단풍이 그대로 자랑하고 있었네. 솔거가 그린 산수화처럼 음성군을 한참 지나서 또 안개가 끼기 시작했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사물을 분간 할 수 없네. 산야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구나. 버스 차 안만 밝게 보이는구나. 얼마 동안 달렸을까?

10시 27분 박달재고개 터널을 지나서야 안개가 얇아지기 시작하는구나. 10시 36분 제천시 도착하였으나 안개로 인하여 산야 및 도시가 보이지 않는다. 10시 45분 강원도 영월지역에 도착하니 이제야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였다.

영월 화력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연기는 구름을 이루어 하늘로 올라가 살며시 사라지는구나. 이 지역에 오니 기암괴석이 우뚝우뚝 서서 자기의 몸매를 자랑하고 있네. 10시 59분에 우리의 목적지인 청령포 입구에 도착하여 청령포 있는 곳이 영어알파벳의 U자 형으로 명당 중 명당자리로 보이네. 서강이 U자형을 감싸고 있구나.

우리 일행은 표를 사가지고 청령포를 연결해주는 배를 탔네.

강을 내려다보니 맑고 푸른 강물에 피라미 고기 떼들이 무리를 지어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네. 이것이 정말 고기 반 물 반이란 말이 안성맞춤이구나. 무리를 지어 자유로이 아무방해 없이 놀고 있구나.

이윽고 천혜의 유배지 청령포에 도착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육육봉이란 험한 산줄기 절벽으로 막혀있어 한눈에도 천혜의 유배지임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 청령포에는 금표비와 망향탑, 관음송, 단종어소가 남아 옛 일을 지금도 전해 주고 있네.



청령포에는 강원도 기념물 제 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옛 어소에는 '서묘좌본부시유지'라고 쓰인 비가 우뚝 서있다.

이곳에 있는 소나무가 모두 어소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구나.

"단종(1441~1457)은 열두 살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숙부인 세조에 의해 쫓겨났다. 이에 성삼문을 위시한 이른바 단종의 복위를 죽임을 당하고 단종은 영월 이곳으로 유배되어 열일곱의 나이,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

이곳 관음송(觀音松)은 600년 이상 이곳을 곳곳이 지키고 있으며 내가 이곳에서 제일가는 장수라고 자랑하고 있었네.

12시 12분까지 청령포를 답사하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 12시 20분에 청령포를 출발하여 식사 장소인 청산회관으로 향하였다. 12시 27분에 이곳 식당에 도착하여 점심은 이곳의 특별식인 ‘곤드레비빔밥’을 맛있게 먹었다. 곤드레는 이곳에서 많이 나는 곤드레 나물을 위주로 하여 비빔밥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밥을 이름하여 ‘곤드레밥’이 아닌가 생각 된다.

식당에서 끓주린 배를 채우고 다시 13시 11분에 출발하여 13시 28분에 장릉에 도착했다. 장릉(莊陵)이란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주검은 동강물에 버렸지만 후한이 두려워 아무도 이를 거두려 하지 않았다. 이때 당시 영월 호장(戶長)이었던 엄홍도가 한밤중 몰래 시신을 거두어 산 속으로 암장하려 하다가 노루 한 마리가 앉아 있던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단종의 시신을 묻었다. 이곳이 바로 영월의 동을지산 기슭에 자리한 ‘장릉(莊陵)’이다.

화려하지 않고 단조로우며 허식 없는 능이다. 능 앞에 혼유석이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령포 맞은편에 왕방면의 시조 비가 서 있었다. 1457년 10월 24일 금부도사 왕방면이 단종께 사약을 진언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통한 심정으로 청령포를 바라보면서 시조를 읊었던 곳에 세운 비이다. 그 후 1617년 병조참의 용계 김지남이 영월 순시 때 아이들의 노랫가락에 맞춰 부르는 것을 듣고 한시로 지어 후세에 남겼다. 그리고 장릉 주변 사방 10리가 모두 국유지이다. 백만 평이 넘는 땅이 모두 ‘장릉’의 소유라 할 수 있다.

장릉을 답사하고 내려오는 중간지점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관풍헌(觀風軒)과 자규루(子規樓)쪽으로 내려왔다.

관풍헌은 청령포에 머물던 단종은 홍수로 인해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겼다.

1457년 10월 24일 마침내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은 단종은 17세를 일기로 이곳 관풍헌에서 승하 하였다.

한편, 동편에 있는 지규루는 단종이 이곳에 올라 피를 토하며 운다는 지규새와 자신의 처지를 빗댄 시를 읊은 곳으로 유명하다.

사당에서 참배하고 그 앞에 있는 영천을 보았다. 이 영천은 제사지낼 때 쓰던 물

로 아무리 가물더라도 항상 물이 있다고 하였다. 즉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 그리고 내려와서 엄흥도(嚴興道), 정여각(旌閭閣)을 답사하고 14시 27분까지 장릉에 관한 답사를 마쳤다.

“잠간”

동두천시 향토문화 유적을 소개하자면

제 1호로 : 사패지 경계석이 있고, 사패지는 성종 임금께서 하사 하였다는 표식임.

제 2호로 : 목행선 선생의 묘력이 지행동에 있음.

제 3호로 : 홍덕문 선생 비가 소요산 입구에 있으며 1919년 음력 2월 25일 만세운동을 주관함.

제 4호로 : 어유소 장군 묘력이 있으며, 조선초기의 유능하고 훌륭한 장군이였음.

제 5호로 : 탐동 석불로서 탐동에 있으며 고려말 회암사의 일부의 암자였다고 볼수 있음.

제 6호로 : 정사호선생의 묘력으로 대사헌 형조판서 역임했으며 명필로 유명함.

제 7호로 : 어유소장군 사당은 탐동 동점마을에 있고 제사를 올리는 곳.

제 8호로 : 자재암으로 소요산에 위치하고 있음.

제 9호로 : 삼충단은 단종임금과 관련하여 참살당한 세분의 충신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

제 10호로: 고령신씨 신도비군으로 상패동 마고개에 신도비가 네 개가 서있음.

제 11호로: 암각문으로 동점마을 입구에 이지함이 썼다는 글씨가 있는데 이곳이 한반도의 중심지라고 하였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중심지임.

14시 31분 조선민화 박물관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15시 07분에 민화 박물관에 도착하였다.

산자수려한 곳에 자리한 민화박물관은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고대 민화박물관, 2층에는 현대 민속박물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민화 그림을 해설하는 해설사가 있었다. 이 해설사들이 그림 한 점 한 점을 설명해 줌으로써 시간 가는 줄 몰랐다. 16시 30분까지 관람하고 동두천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윽고 21시에 우리의 아름답고 공기 맑은 동두천에 도착 진골명가에서 우리 문화원 원장님께서 저녁대접을 해주셔서 설렁탕을 맛있게 먹고 각자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으로 돌아갔다.

앞으로 이 답사행사가 계속 되길 빌면서...

영월을 다녀와서

동두천문인협회

白蓮 원 화 윤

입동절기도 지난 이른 아침의 산하, 잔설이 내린 듯 된서리에 덮인 들판은 그렇듯 조용했다. 가끔 내린 찬비에 색조가 좀 변했지만 단풍색깔은 여전히 곱다. 겨우살이 준비에 숙연해진 나무들은 왈차하게 갈아입은 고운 옷을 조용히 벗고 있었다. 앙상해진 감나무 가지에는 주렁주렁한 감들이 연등처럼 곱다. 수북수북 소신공양하는 모습은 더없이 그윽하고 아름다운 전경이다. 상념 깊은 색감은 늦가을만의 특권이 아닌가.

감나무 상가지 끝에서 겨울을 보내는 홍시는 겨울양식을 갈무리 못하는 새들의 먹물거리가 되리라. 그 숙연함 속 청일점 소나무는 겨울 산에 꽃이었다. 왈차한 푸름으로 짝 찼던 발똥기에는 김장김치거리 배추와 무만 군데군데 남아있다. 벗짚에 묶인 만삭인 배추를 보니 김장거리배추를 동여매시던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이 떠오른다.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면 어머니를 도와주시던 매사 자상하시던 아버지, 문득문득 그림던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추억하게 했다.



가을걷이가 끝난 빈 논바닥에는 나락을 다 털어낸 푸석한 짚단만 군데군데 빈 눈을 지키고 있었다. 허허로운 들판은 겨울의 문턱임을 절감케 했다. 감들이 예쁘게 매달린 감나무 옆 뒤뜰 굴뚝에서는 꾸역꾸역 하얀 연기가 핀다. 이른 아침 검푸른 하늘을 수놓는 하얀 연기는 더없이 평화롭다. 초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는 행선지에 다다를수록 산봉우리와 숲바꼭질을 반복하는 안개 띠는 마치 승무춤사위를 연

상케 했다. 비단결 안개에 갇힌 색조의 풍경은 한 폭 추경 운치였다.

더벅머리 가르마 같은 철길이 한눈에 든다. 저 철길을 따라 행선지도 모르는 여행길에 오르고 싶었다. 정겨운 간이역도 만나고 싶었다. 찬비에 흠뻑 젖은 플랫폼을 걸으며 울고 있는 흙 등에서 아스라한 추억을 캐내고 싶었다. 교차하는 만감은 멀어지는 기적소리가 뽕양게 핀다. 동맥 같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물살은 체증이 뚫릴 것 같은 후련함이다. 평화로운 물살을 굽어보는 상념 깊은 늦가를 정취는 한 땀 한 땀 어머니가 지은 조각보를 연상케 했다. 고요 속 단아함은 그렇듯 애련했다.

늦은 오전에 도착한 첫 행선지 청령포. 가을 하늘이 누워 있는 거울처럼 맑은 호수 속에는 이름모를 치어들이 깔려있었다. 잠깐 나룻배로 닿은 청령포. '영월군 남면 광천리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종의 유배지로 1971년 강원도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 청령포는 동·남·북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는 육육봉이라 불리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는 출입할 수 없는 섬과도 같은 곳이다.'유배지 뒤 편 깎아지른 암벽이 병풍을 이룬 요새 같은 청령포!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육지 속 작은 섬이었다.

* 단종 - '단종은 1441년(세종 23) 7월 23일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 權氏)사이에서 원자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홍위(弘暉)였다. 8세가 되던 1448년(세종 30) 왕세손에 책봉(冊封)되었고, 예문관제학 윤상(尹祥)으로부터 한문을 배웠다. 1450년(세종 32) 2월에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하게 되자 그해 7월 20일 왕세손이었던 홍위는 10세의 나이로 왕세자(王世子)로 책봉 되었으며, 1452년 5월 18일 문종이 승하 후 단종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12세의 어린 나이로 제 6대 왕에 즉위하였다. 1454년(단종 2) 1월 22일 14세 때, 여랑군(礪浪君) 송현수(宋珣壽)의 딸을 왕비(정순왕후(定順王后)는 82세에 승하)로 맞이하였다. 계유정난(癸酉靖難)이후 1445년 6월 11일 단종은 세종에 왕위를 물려주고 15세에 상왕(上王)이 되었으며(재유기간 1452년~1455년), 박팽년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육신사건이 일어나 1457년(세조 3) 노산군으로 강봉된 뒤 1457년 윤6월 22일 창덕궁을 출발하여 7일 후인 윤6월 28일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 그해 9월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가 다시 그의 복귀를 꾀하다가 사사되자 단종은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내려지고 결국 죽음을 강요당해 1457년 10월 24일 유시에 17세의 어린나이에 광풍현에서 승하하였다.'

가을비에 젖은 한 폭 그림 같기도 한 청령포에는 위풍당당 위엄을 과시하는 아름드리 노송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한양에 두고 온 왕비 송씨가 그리울 때마다 돌을 주워 눈물 탐을 쌓았다는 단종의 유일한 유작이라는 돌탑, '1988년 천연기념물 제 249호로 지정된 觀音松(관음송), '돌탑이 내려다보이는 산책로에 하늘을 찌를 듯 두 갈래로 뻗은 소나무에 늘 걸터앉아 쉬며 울었다하여 觀音松이라 불렀다는, 그 모래알 같은 세월을 어린 단종은 지독한 외로움에 갇힌 끔찍한 고독감의 무게를 삭혔겠으니 허구한 날 육지 쪽을 바라다보며 얼마나 애통해했을까. 충절의 노송들은 가여운 단종을 호위하며 든든한 등도 되고 포근한 품도 되었으리라.

그렇듯 이끼 낀 세월의 테를 삼킨 노송들은 어린양의 명울진 한을 토닥토닥 보듬으며 웅웅- 같이 울었으리라. 밤이면 밤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기웃거리는 별도 달도 소리죽여 흐느꼈으리라. 낮이면 동무가 되어 준 새들도 청솔모도 다람쥐도 속 울음을 삼켰으리라. 상상만으로도 절규의 그 애처로움은 아, 가슴이 저렸다. 족쇄의 삶에 핏빛 한이 묻혀 있는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 일대를 두루두루 돌아보는 내내 간 간 다녀가는 바람소리도 어린 단종의 처절한 울음소리로 느껴졌다. 나룻배에 오르니 치어들이 마음을 잡는다. 물속을 활보하는 물빛보다도 더 맑은 은빛 치어들은 비련의 삶을 살다 스러진 단종 애사의 눈빛 같았다.

장릉, 장릉은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의 능으로,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이 17세 되던 해에 죽음을 당하여, 그 주검이 동강에 띄워졌으나 호장 엄홍도가 그 시신을 수습하여 현재의 능이 있는 장릉에 암장하였다. '양지바른 능선에 안장된 무덤은 가없이 평화로웠다. 그 지역의 별미라는 곤드레비빔밥, 양념장에 비벼먹는 비빔밥은 담백한 맛이였다. 은빛 물결이 흐드러진 강변로를 따라 약 40여 분 만에 조선민화박물관에 도착했다.

'조선시대 민화 등 3,000여 점이 전시 되어 있는 조선민화박물관, 1988년 5월에 착공해 2000년 7월 29일 개관한 민화박물관은 전시관 등 건물이 330평에 부지가 7,400평이다. '호기심에 찬 생소한 작품에 상세한 해설은 흥미진진했다. 두루두루 심취하노라니 생동감의 그 기교에 빼앗긴 마음은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약 1시간 동안을 돌아본 우리 그림 민화는 돌가루와 천연염료가 빛은 사랑의 결정체였다. 영구적일 것 같은 유형의 귀중한 작품들은 장인정신의 모체였다.

좀 늦은 오후에 민화박물관을 나서니 서산에 걸린 해는 그새 산그늘을 지우고 있었다. 산 속 어둠은 도심 속 어둠보다 빨랐다. 어둠이 내리는 어스름 저녁, 저 만치 민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정겨웠다. 어릴 적 이글거리는 잉걸불에 감자 고구마를 구어 먹던 작은집 사랑방아궁이를 추억케 했다. 짜여진 일정에 코스에서 제외된 김삿갓문학관에 마음 한 자락 내려놓은 일정. '강원도 영월 향토문화 유적답사'는 매사 헛헛했던 삶 그릇에 요소요소 소중한 건문을 넓힌 뜻 깊은 여정이었다. 주최 측 동두천문화원에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2007년 가을에

단종애사

동두천문인협회

이사 이 미 라

17세 소년의 한 이라고 이름 하기에 너무 붉어
고운 빛에 눈시울이 물든다
오도 가도 못하는 오지의 섬에 갇혀
수없이 남겼을 발자국, 고이 덮어 간직한 듯
점점이 발밑에 휘적이는 낙엽은
행랑객의 발길을 돌려 세운다
미처 여물지 못한 소년의 가슴으로
귀먹은 하늘의 뜻을 저스를 수 없었던
애통한 심사
꽃다운 님 멀리 두고 차마
밤인들 눈 붙일 수 없어
날마다 쌓아올린 망향탑
쏟아도 쏟아도 마르지 않았을
눈물로 뒤뜰린 관음송
산줄기도 강줄기도 임 향한 충절에
뒤뜰린 각여진 청령포
시린 듯 비경을 돌아 흐르는 강줄기
넋이라도 임 계신 곳 모셔다 주오.

제 19 회

청소년 백일장 일석작 영년 기림 보년 기

(산문 부문)

고등부

대상_포도밭 그 사나이 / 장덕진
차상_소요산에서 얻은 선물 / 지성현
차상_넌 왜 사니? / 윤승준

중등부

대상_친구 / 정다연
차상_내가 너의 봄이 되어 줄께 / 김정민
차상_진정한 친구 / 허예은

초등부

대상_소중한 친구 / 함현진
차상_지워지지 않는 추억 / 이소미
차상_경원선 / 김아람



포도밭 그 사나이

장 덕 진 (신홍고등학교 2학년)

어머니의 고향인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모도이라는 마을은 과수원과 논이 펼쳐져 있고 무엇보다 여름이면 포도가 보랏빛으로 익어가는 그 마을은 내 유년시절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이다.

초등학교를 막 입학한 그 해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에 갔었다. 자동차만 타면 장난감이고, 과자이고, 다 팽개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던 나는 그저 오랜 시간 차 타는 것이 좋아 어머니를 따라 간 것이다. 차를 타고 시골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미소를 난 지금도 잊지 못한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미소는 꾸밈이 없고, 웬지 마을의 푸근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시골에 오면 항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셨던 것이 생각난다. 그리고 여기서 여름 동안만 학교를 다니라고 하셨다. 동갑내기 사촌 누나는 조그만 마을 초등학교를 한 달 동안 다녔고, 나는 그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스럽다.

할아버지께서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 항상 농사일을 하시기도 바쁘신데 일을 뒷전으로 미뤄 두시고,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셨다. 경운기를 태워 주시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밭에 들어가셔서 아직 채 익지도 않은 포도 열매를 손주들을 위해 하나하나 따셔서 손에 몇 알씩 놓아 주시던 것이 어렵듯이 생각난다. 할아버지께서 따주신 아직 푸르스름한 포도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코 작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사랑만큼이나 매우 컸었다. 포도를 입에 물은 채 타는 경운기의 덜덜거림은 얼마나 재미나던지 놀이동산이 따로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오토바이에 나를 태우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포도밭에 간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포도밭에 들어가셔서 내게 포도가 자라는 과정을 알려

주시고, 직접포도를 봉지에 싸서 따내는 일까지 알려주셨다. 나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 아마 그때부터 나는 차를 타고 여행하는 목적 때문이 아닌 '포도가 잘 자라고 있을까?' 하는 내 걱정스런 마음이 내 발길을 시골로 인도했다.

어느 해 겨울날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 온 손자들을 위해 손수 나무를 자르시고, 다듬고, 니스 칠까지 하셔서 썰매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 생각한다. 그 해 겨울 나는 스케이트장도 아닌 썰매장도 아닌 곳에서 할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약간은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 그 푸른 썰매를 타고서 신나게 내달렸던 것이 생각한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께서 두 손으로 못하시는 것이 없는 무슨 슈퍼맨쯤으로 알았었다. 한번도 스케이트장이나 썰매 장을 가보지 못했던 나로서는 그 보다 멋있는 썰매와 썰매 장은 본적이 없었다. 그 공간은 내 마음속 한 편에서 영원히 녹지 않는 썰매장으로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소중한 간직될 것이다

할아버지께서 농사일을 끝내시고 우리 집에 오실 때 항상 그 먼 길을 버스타고, 또 기차를 타고 오시면서도 양손에 과일과 두부, 파, 깻잎 등을 한 가득 짊어지시고 자식과 손주들을 보기 위해 오신다. 직접 가마솥에서 그 뜨거운 불가마에 앉아 몇 시간이고 정성을 다해 땀 흘리셔서 만드신 두부는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때는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시고 오시나'하는 어린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생이 되고 난 지금에서야 조금이나마 할아버지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겨울 내게 누구보다 강해 보이고 두 손으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슈퍼맨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가족들 모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뭔가 의지하고 우리를 지탱해 주던 커다란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지금 행하니 허전해 보이는 포도밭을 지날 때면 그 때 할아버지가 따주시던 그 달콤하고 푸른 포도 알알을 떠올린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할아버지지만, 내게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분이다. 내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배품과 나눔을 몸소 보여주신 할아버지……. 더운 여름날 일을 뒷전으로 하시고, 손주들을 위해 경운기를 타셨던 할아버지. 아직 채 익지도 않은 포도를 따서 내게 주시던 그 인자한 미소와 사랑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온다. 이번 여름에는 바쁘더라도 꼭 할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다. 내 삶에 잊지 못할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준 포도밭 그 사나이에게 늦었지만 사랑한다고 말이다.

소요산에서 얻은 선물

지 성 현 (동두천외국어고 2학년)

그것은 1년 반 전의 일이다. 내가 외교시험을 치루겠다고 한 것은 당시 나는 입시 학원에 다니는 주변 친구들에 특목고에 대해 말하는 것만 듣고 외교에 막연한 동경심을 가졌었다. 단순히 '그런데 가면 좋겠다.'라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외교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의욕만 있었지 준비는 없었던 나였다. 외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너무 늦게 해버렸던 것이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일까. 외교 고사장에서 받은 시험지는 내게 절망으로 보였다. 내가 뭘 푸는지도 몰랐다. 결국 시험이 끝난 후 난 물먹은 김 마냥 축 처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붙었을까?'라는 희망을 반쯤 포기한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가 멍하게 앉아있자 아빠가 기분 전환을 하자며 소요산으로 차를 모셨다. 그때 나는 솔직히 귀찮았다. 집에 얼른 가서 TV나 보며 모두 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요산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감탄했다. 빨강, 노랑 단풍들이 산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 전체에 비단을 덮은 것 같았다. 그런 환상적인 풍경은 처음 봤었다. 그렇게 소요산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저 나무들 좀 보라. 마치 일 년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산 결과를 뽐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단풍의 화려함은 그 나무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 충실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에 성현이 네가 본 외교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야! 네가 앞으로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단 교훈을 얻었다면 아빠는 합격 보다 그게

더 기쁘단다.”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방긋 웃으셨다. 나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소요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게도 동두천 외고에 합격한 이후, 나는 소요산과 아버지가 주신 선물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부족한 면이 많지만, 계속 최선을 다하며 충실한 삶을 살 고자하면 그 날 소요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그 단풍처럼 언젠가 나도 그렇게 화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넌 왜 사니?

윤 승 준 (동두천외국어고 2학년)

외고에 입학한지 얼마 안되어서 생긴 일이다. 그 당시, 우리 지역에서 이 곳에 온 학생은 나를 포함해서 2명뿐이었다. 그 한명도 나와는 별로 친하지 않은 여자아이였기에 나는 거의 혼자서 학교생활을 해야만 했다. 밥도 혼자 먹고, 교실에서도 혼자 있어야만 했다. 그런 학교생활이 너무 싫고 답답하여 무단외출을 감행한 적이 있었다. 선생님들의 눈을 피하여 교문을 빠져나오자 마음을 조여 오던 자물쇠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막상 바깥으로 나오자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길이 보이는 데로 무작정 걷기로 하였다. 길을 거닐 때 보였던 동두천의 푸른 산, 들과 하늘은 내 마음속 자물쇠의 존재를 잠시나마 잊게 해 주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내 앞에 나무 한 그루가 길을 막았다. 너무나 높고도 크나 큰 나무였다. 나도 모르게, 그 나무의 웅장함에 몇 초 동안 멍하니 정신을 잃었다. 나무 앞에는 안내판이 있었다. 나무의 이름은 보호수였다. 나는 보호수를 그늘 삼아 잠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봐, 거기 앉아있는 아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일어나서 주위를 살폈다.

“이봐,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위를 봐!”

그 목소리에 나는 위를 쳐다봤다. 위에는 보호수만이 보였다.

“설마 보호수가 말을...?”

“그래, 맞아. 내가 말 한 거야! 그냥 한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그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보호수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묻고 싶은 것이 뭔데?”

“……. 넌, 왜 사니?” 어이없는 질문이었다. 갑자기 “왜 사니?” 라니…….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왜 궁금한데?”

“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 몰라?”

너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산소를 만들어 주잖니 그것이면 충분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 아니니?”

“웃기지 마! 그건 말도 안돼! 난 너희를 위해 그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내가 햇빛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늘이 만들어지는 것이야. 또 난 너희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마시는 게 아니야! 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마시는 것뿐이지. 오히려 난 내 친구들을 베어가는 너희들에게 그늘을 주고 산소를 주는 것이 짜증 날 뿐이야! 그런데 이런 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니?”

난 처음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보호수 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 내가 잊으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보호수야! 네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네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지도 몰라!”

“그래? 그럼 한번 이야기 해봐.”

“좋아.”

외고에 들어오기 전, 내가 다니던 중학교의 이야기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 왔던 곳인지라, 모든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와는 친해지기 싫었다. 그 아이는 머리가 조금 떨어지는 아이였다. 그것 빼고는 그 다지 평범한 아이들과 다른 점이 없었지만, 나를 비롯한 반 아이들은 그 아이를 멀리했다. 단지 머리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착한 아이였던 것 같다. 항상 웃고, 순수했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을 몰랐다. 그저 어찌하면 ‘바보 같은 놈하고 섞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선생님이 아끼던 꽃병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모든 아이들은 그 아이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때 나는 그 아이에게 “넌 왜사냐?”라고 말해 버렸다.

다음날부터 그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아이는 매일 일찍 교실에 와서 청소를 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 아이를 무조건 멀리 했었던 것이다.

“이게 내가 겪은 이야기야! 어때?” 내 이야기에 나무는 말을 잊지 못했다.

현 구

정 다 연 (동두천여중 3학년)

“애가 소극적이고 말수도 적어서 잘 적응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걱정스러운 엄마의 물음에 이제 곧 나의 담임선생님이 될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아이들이 다 착해서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짧은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후 교실로 올라갔다. 3학년 1반 앞문 앞에 서서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드르륵 소리를 내며 문을 연다. ‘아 떨려’ 역시나 아이들은 낯설은 나의 등장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교탁 앞에 계신 선생님의 옆에 뺄줄히 섰다. ‘이제 곧 선생님은 나에게 자기소개를 시키겠지? 아, 그래도 혹시 선생님께서 이런 내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대신 내 소개를 해주실지도 몰라!’

“연희야, 네 소개 좀 해보렴.”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재미없는 자기소개를 끝낸 후 내 자리가 된 2분단 끝자리에 앉은 후 교실을 둘러보았다. 연예인 얘기를 하느라 정신없는 아이들, 숙제를 베끼고 있는 아이들,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 등 교실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았다. 우울한 마음에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전 학교 친구들이 생각났다. 개들은 날 그리워할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나를 금방 잊어가겠지? 난 못 잊는데……. 웬지 모를 서글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괜한 마음에 책상을 발로 툭툭쳤다. 친구는 필요 없을거야. 아니, 필요 없어! 어차피 금방 잊혀지는 존재인 걸, 그렇게 전학 첫날을 우울하게 보냈다.

다음날, 학교를 향해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느껴졌다. 핸드폰을 꺼내어 보니 보아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전 학교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 보아였다. ‘보아가 왜?’ 핸드폰을 열어 전화를 받자 곧 핸드폰 너머로 보아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연희! 거기 좋냐? 야 너 보고 싶어 죽겠어!”

그러자 옆에서 “나도! 나도!”라는 여러 친구들의 목소리도 덧붙여 들려왔다. “웬일이냐? 니네가,…… 난 니네가 나 바로 잊고 니들끼리 잘 놀줄 알았는데.”

그러자 섭섭하다는듯한 보아의 목소리가 나를 미안하게 만들었다.

“야! 어떻게 그러냐!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너 모르냐? 애들 다 너 보고 싶어해!” 그렇게 보아의 말을 듣고 코끝이 찡해오고 있을 무렵, 선생님이 오신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린 보아의 행동에 그냥 웃고 말았다. 갑자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빨리 학교를 가고 싶다. 웬지 새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귄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친구란 이런거구나! 자신감을 주고 나를 뒤에서 든든하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이 되어 주는 것!’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친구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한 수단이라는 것, 그 만큼 친구는 인생의 많은 것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심장 박동수 역시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웬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우친 중요한 날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의 봄이 되어 함께

김 정 민 (생연중학교 3학년)

'이 겨울' 평범했던 내 삶에 변화를 준 그 아이의 이름이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추운 겨울이었다. 긴 머리에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아이는 쉽게 다가가기조차 힘든 그런 아이였다. 하지만 난 무언가에 끌리듯 그 아이에게 관심이 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완 정반대의 모습에 끌린 것이 아닌가 한다.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썸, 아직도 혼자 다니고 있던 겨울이에 대한 소문이 전교에 퍼졌고, 나도 곧 들을 수 있었다. "개네 아빠도 없고, 엄마도 알콜중독자래! 그래서 맨날 혼자 산대!"

그 소문 덕에 아이들은 겨울이를 더욱 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그 아이를 없는 듯 할 수 없게 되었다. 점점 더 끌리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흘러가 버렸다. 겨울이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은 겨울이의 옆에 있는 것이 제일 편했다. 우린 하교길을 같이 다녔다. 근데 그날은 왜일인지 다른 길로 들어가는 겨울이……

"겨울아! 어디가?"

"……"

겨울이는 아무런 대답 없이 뒤돌아서 걸어갔다.

"겨울아!"

난 처음으로 무심코 겨울이의 손을 잡았다.

"놔! 내가 뭘데 참견이야?"

짜늘했다. 겨울이의 표정……

"… 우리 친구하면 안돼?"

“친구? 우린 친구가 될 수 없어! 너에겐 곧 이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겠지만, 난 아니야! 내겐 봄은 없어! 우린 너무 달라!”

“.....”

그렇게 겨울인 가버렸다. 눈물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를 가르며 난 울며 집으로 갔다. 밤새 울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겨울이의 표정. 그 속에 담긴 겨울이의 상처들이 나의 모든 피와 살을 눈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았다.

다음날, 겨울이는 전과 같이 없는 듯 날 대했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우린 가까워지는 듯 했다. 그런 날들이 벌써 두달.....

이젠 햇별이 제법 따뜻해졌다. 학교 점심시간에 난 겨울이와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봄바람과 함께 뭐가 그리 좋은지 하하, 호호 뛰어 놀고 있었다.

“겨울아! 봄이 왔다.”

“.....”

겨울인 대답이 없었다

“아직도 겨울이 너에겐 봄이 오지 않았나?”

겨울이는 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까! 그래도 돼?”

겨울인 아무런 표정 없이 날 쳐다봤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까?”

겨울이는 계속 날 빤히 쳐다봤다.

그때 학교 종이 울렸다.

난 일어나 겨울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빨리 가자!”

겨울인 아무 말 없이 일어났고, 얼굴엔 언뜻 미소가 비친 듯 했다.

폴들에게 푸르른 봄빛이 비쳤다. 겨울이 마음속에도 처음으로 따스한 봄빛이 비추오는 듯하다

진정한 친구

허 예 은(동두천여중 1학년)

나에게 있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꽤 많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에도 전학을 두 번이나 했기에 학교별, 학년별로 친한 친구들은 어김없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친구들이 아닌 옛 친구가 그리워지곤 한다. 그 중에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친구 한 명을 조심스레 소개하려 한다.

그 친구의 이름은 선주. 내가 전학을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선주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다. 조금씩 그 학교에 적응을 해 가고 있을 때에 찾아 온 선주의 모습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난다. 또래 아이들보다 큰 키에 유난히도 큰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게 인사하던 그 아이에게 난 끌렸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업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나는 조심스레 다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사탕을 건넸다. 선주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우리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붙어 다녔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었다. 같은 아파트를 살았기에 서로 집을 오가며 우리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져만 갔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던 중 우리는 사진첩까지도 공유하게 되었다.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같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선주와 내가 같은 유치원, 같은 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로를 쳐다보며 한 동안 배꼽을 잡고 웃어댔고, 이 놀라운 인연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4학년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지켜왔지만, 선주는 그 이상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 선주가 전학을 가기 전 날까지 나에게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밝은 모습만 보여줬고 그저 자기 집에서 놀다 가라고 할 때에 조금

슬퍼 보이는 눈빛이 다였다. 선주는 '내가 슬퍼하는 모습도 자신의 괴로운 모습도 모두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선주는 전학 가던 날 아침 짧은 작별 인사만을 남기고 먼 곳으로 가고 말았다. 나는 울지 않으려 두 눈을 부릅뜨고 어설피게 웃었지만, 눈앞이 흐려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그 때문인지 선주의 마지막 표정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뒤늦게 눈물을 건어낸 후 볼 수 있었던 건 차를 타고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뿐…… 그 날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슬픈 날이다.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집에는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하루를 보냈다.

집에 도착해 점점 흐려져 가는 시야 속의 선주가 떠올랐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밀려오는 느낌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게 한 순간의 꿈이기를 바라며……

눈을 뜨자마자 난 또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말았다. 슬펐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어제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고 나는 곧 선주가 없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해갔다.

그리고 3년. 난 언니가 동두천 쪽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기 때문에 같이 전학을 오게 되었고 신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두천여중에 입학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에 난 만족하고 있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때때로 선주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지만 난 이렇게 나를 위로한다. 같은 꿈을 꾸었으니 같은 하늘아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우리가 유치원 때 이후 다시 만난 것처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언젠가 꼭 만날 거라고, 우리의 인연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누가 그랬던가! 친구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선주,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들은 저마다 나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사귀었던 시간에 관계없이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소중한 친구

함 현 진 (동두천초등학교 6학년)

오늘은 소요산에서 글짓기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펼쳐진 자연의 세상을 보니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소중한 자연처럼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

그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은 5년전입니다. 그 아이의 눈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눈을 보면 내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 아이의 코와 입술은 작고 예쁜 방울 같습니다. 그 코로 냄새를 맡고 입술로 오밀조밀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얼굴은 달걀형입니다.

그 양증맞은 입은 활짝 펴집니다. 그래서 더 정이 가는 친구입니다.

그 아이는 여기 소요산에 있는 푸른 멍게구름 같습니다. 그 넓은 마음속에 멍게구름을 품고 따뜻하게 사람을 맞이합니다. 쉽게 마음을 여는 친구입니다.

내 친구는 햇빛 같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 밝고 따뜻한 빛이 납니다.

웃을 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내 친구는 큰 나무 같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고 더울 때 그 큰 나무 밑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친구는 아름다운 꽃 같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과 같이 화를 내거나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저도 얼굴에 저절로 웃음꽃이 피입니다.

내 친구는 항상 그렇듯이 절 챙겨주고 아껴줍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내 잘못을 짚어주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 지까지 가르쳐줍니다.

내가 우울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절 달래줍니다. 한 때는 내가 어린애 취급 받는 것 같아서 화도 냈지만,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금방

화해했습니다.

내 친구는 곧 자연입니다.

내 친구는 자연처럼 소중하고 순수합니다. 자연이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내 친구도 나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 그림자처럼 항상 동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릴 수도 있겠지만, 전 행복합니다.

그 아이는 내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친구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추억

이 소 미 (생연초등학교 5학년)

나는 매일 매일 항상 추억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어~ 저거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하고 말이다. 하지만 추억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나를 항상 밝고,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등대 같으신 부모님과 추억, 나의 뒤에서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언니와 오빠들과의 추억, 또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들과의 추억도……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다. 부모님과 소풍을 갔던 추억, 언니들과 손잡고 놀이기구를 탔던 것, 오빠들과 위험한 붙장난을 했던 것,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짝짜꿍 재미있게 현장학습도 가고, 췌췌췌도 하고, 물론 싸우기도 하고, 싸운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빠치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진정한 우정이고, 추억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웃고, 또 울어도 그것이 모두 모두다 추억이라는 것을……

언제는 내가 아주 슬픈 일을 겪었다. 바로 부모님들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괜찮다.” 하며, 내가 나를 달랬다. 점차 점차 나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였던 그 큰일은 나에게 이제는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나의 경험이었기에, 지금은 정말로 슬프지 않다. 그 일에 충격은 컸지만, 이제는 큰 추억으로 남았을 뿐이다. 그 이후 많은 일들도 일어났다. 내가 가장 즐거웠던 일은 많았었지만, 그 중에서 2가지 있었던 일이 제일 나의 마음속을 두근두근 줄이게 했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제주도를 가기 위하여, 비행기를 탔었던 기억이다. 김포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러 갔었다. 공항이라는 곳도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었기에 나에게서는 외국에 온 것처럼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었다.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그 느낌은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막내 고모가 38세에 뒤늦게 결혼하여, 아기를 가졌다라는 일이었다. 친척을

통틀어 막내였었던 나는 막내에서 해방된다는 그 기쁨에 고모에 임신 소식에 가장 좋아했었다. 그리고 10월 후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쁜 아가가 2006년 5월 24일 “응애~ 응애~”하면 씩씩한 사내대장부가 태어났다. 순간, 내 얼굴에는 해바라기처럼 밝고, 예쁜 미소가 내 얼굴을 덮었다. 이후 몇 달 뒤, 내가 고모 댁에 놀러 갔을 때는 어디선가 쿵! 쿵! 쿵! 쿵!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아기 건우가 걸음마를 하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너무 귀여웠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알미웠었다. “내가 아직도 철부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돌보지?”하고 말이다. 여태까지 보살핌을 받고 자라던 내가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내가 건우의 누나라는 명예를 걸고 꼭! 잘 도와주겠다고 말이다. 그 약속은 잘 지켜졌다. 고모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소미야, 수고했어!”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정말 정말 기뻐다. 내가 힘이 들어도 고생한 보람을 정말 크게 느꼈다. 그 일을 큰 추억으로 깊이~ 아주 깊이 남겨뒀다가 건우가 크면 꼭 얘기해 줄 것이다.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보살펴줬었어!”하고 말이다.

나는 추억을 더 쌓을 날이 몇 십년이고 남았다. 어떠한 추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른다. 그 추억 중 슬프고, 기쁜 일이 섞여있겠지만, 나는 그 추억을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 내가 삶을 대충 살 것 같다. 나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살 것이기에 나는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모두모두 겪으면 힘들겠지만 항상 나의 꿈에 의지하여 진정한 삶을 열심히 살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일이든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의 마음과 다짐을 커서도 절대 잊지 않고, 나의 꿈을 이룰 것이다.

경원선

김 아 람 (이담초등학교 2학년)

삼촌이 싱싱한 게를 사 가지고 오셨다. 식구들이 맛있게 게를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바닷가에 가서 달랑게를 잡아다 동네 친구들이랑 구워 먹었었는데…” 하시며 옛날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함경남도 원산이다. 원산은 바닷가 마을인데, 북한 함경남도에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중에 다른 식구들보다 먼저 피난을 왔다고 하신다. 그리고 왕 할머니랑 서울에 살고 계신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셨는데 나중에 온다고 했던 가족들이 전쟁이 휴전되는 바람에 내려오지 못해 이산가족이 됐다고 하셨다.

어느 날 우리 집 옆으로 지나가는 철도가 할아버지 고향인 원산으로 가는 철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 신기했다. 만약 내가 할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면 정말 슬프고 외로울 것이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고향이야기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뉴스를 보시면 눈물을 보이신다. 빨리 통일이 되어 38선이 없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이어진 경원선을 타시고 원산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얼굴에 눈물 대신 웃음꽃이 활짝 피시겠지! 히히 상상만 해도 행복해진다.

나도 할아버지가 구워 드시던 달랑게를 잡아먹어 보고 싶다.

제 19 회
**청소년 백일장 이서자
영 날 푸름이 비 날 거**

(시 부문)

고등부

대상_봄 빛 / 김성국
차상_소요산에게 / 김성국
차상_G선상의 아리아(5월) / 정진희

중등부

대상_봄빛에게 다가오라 / 박고운
차상_5월의 나 / 강하늘
차상_경원선을 타고 / 박선주

초등부

차상_봄 빛 / 이수목
차상_추 억 / 안슬희
차상_친 구 / 이희수



봄 빛

김 성 국 (신홍고등학교 2학년)

그것은
생명을 아우르는
어머니의 손길

한 겨울의
칼부림을 견뎌낸
작은 생명들에게
새 시작을 알리는
따스한 속삭임

세상에게
소중한 생명과
따스한 기쁨을
안겨주는…….
봄의 사랑

소요산에게

김 성 국(신흥고등학교 3학년)

안녕, 나야
10년이란 긴, 네겐 짧은 시간을 함께 지내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그 때 나는 새싹만한 작은 꼬마였지

계곡 물이 흐르듯 다람쥐가 다니 듯
시간은 인사도 없이 빠르게 떠나가
내가 벌써 작은 나무 같이 커 버렸어
내 성장을 축하해주며 너는
노란 단풍을 훑날려주고 기쁨의 폭포
눈물을 흘려주었지

고마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내가 너에게 갔을 때 넌 듄직한 산이었고,
내가 나에게 왔을 때 넌 조그만 추억이었지.
그래 너와의 기억은 추억이 되었고,
추억은 기억으로 남겨졌어.

축하해!
요즘 너를 향한 즐거운 발걸음들이 많아진 거
근데 있잖아, 소요산아

내 숨소리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산아
나도 그 발걸음 따라 다시 와 봤는데
시끌벅적한 그 속엔 한가로움이 있던
너는 없고, 추억의 온기만 남아있더라…….



G선상의 아리아(5월)

정진희 (중앙고등학교 1학년)

G선상 선율처럼 지나는 오월 풍경
맑은 하늘아래 펼쳐진 구름 꽃들
구름 꽃들 아래는 수채화 풍경이 그려지고
음을 띠는 G선상의 아리아

하늘하늘 날아가는 나비 오면 봄일까
햇빛 쨍쨍한 날을 보면 여름일까
살살 불어오는 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꽃씨에 음표를 띠며
춤을 추는 G선상의 아리아

꽃들이 만발한 오월은 행복의 달
가슴에 꽃을 달고 꿈을 꾸며
마음을 전하는 선물 of 날들
마음 담아 노래하는
G선상의 아리아

G선상의 아리아는 맘속의 오월 처럼
고요히 아주 잠시 인사하고 사라지는
행복의 소리, 나의 소리
G선상의 아리아

봄빛에게 다가오라

박 고 윤 (동두천중앙중학교 2학년)

마음이 시려오는
추운 겨울빛이 싫다면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봄빛에게 다가오라

햇빛이 내리 쏘는
답답한 여름빛이 싫다면
바람이 솔솔 부는
상쾌한 봄빛에게 다가오라

낙엽이 휘날리는
쓸쓸한 가을빛이 싫다면
꽃잎이 날아다니는
생기있는 봄빛에게 다가오라

봄빛에게 다가오라
마음 시리지 않게
마음 녹여 줄테니

봄빛에게 다가오라
햇빛 쬐지 않게

바람 불어 줄테니

봄빛에게 다가오라
낙엽 휘날리지 않게
꽃잎 날려 줄테니

봄빛에게 다가오라.....
봄빛에게 다가오라.....



5월의 나

강 하 늘(보영여자중학교 3학년)

5월
꽃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연 푸른빛 어색한 싱그러움도
더는 없다.

5월
종일 불쾌한 찌는 더위도,
지나치게 강렬한 태양의 빛도
아직 없다.

5월
그저 따스한 엄마 품처럼,
흉내 못내는 고요한 푸른빛만
가득하다.
그렇게 푸르고 따스한,
그 빛이 제일 예쁜 5월의 마지막 즈음에
응애-응애-하고 내가 태어났다.

5월의 눈부신 하늘을 닮아
아빠는 나를 하늘이라고 지으셨나보다
일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많은 기다림의 싹이 드디어 피어나는
마냥 흐르는 계절이지만,
그래도 제일 찬란하고 눈부신 그 계절의
그 하늘을 닮았다고 그러셨나 보다

겨우내 참고 또 참아서
겨우 꽃 피워 "예쁘지?" 자랑하고서는
이내 무더위가 되었다가 허무하게
고독을 품고 또 긴긴 겨울 기다리는

마냥 흐르는 계절이지만
그래도 제일 찬란하고 눈부신 그 계절의
그 하늘을 닮으라고 그러셨나보다

혹여 내리는 장대비에도
아파하지 않고, 되레 더 싱그러운 5월의 꽃
그 꽃마저 내가 닮길 원하셨나보다.

경원선을 타고

박 선 주(중앙중학교 3학년)

우리도 함께였던 시절이 있었잖아
 옛 일도 아닌 바로 엇그제 일이었잖아
 우리 같이 일본도 쫓아냈잖아
 그때는 서로 좋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잖아
 6월 25일 그 날을 시작으로
 내가 얼마나 애태웠는지 아니?
 가족을 잃고, 다치고, 우리 서로 싸우고

결국엔 우리 서로 원수 되었잖아
 언제 전쟁 날지 모를 현실 속에서
 니가 나쁘다 너가 나쁘다
 핵무기로 위협도 했었잖아

그래도 우리는 소도 보내줬잖아
 가끔은 만나기도 했잖아
 편지쓰기 대회도 했는걸!
 너희도 맘 속 깊은 곳에는 통일을 바랄 걸?

여기선 경원선을 복구 한다잖아

남과 북이 자유로이 드나들던 바로 엇그제 같이
여기는 끝났어!
너희만 맘 다잡으면 돼

이제 우리 손잡고 함께 하면 되잖아
경원선이 복구 되었다고 상상해봐
나는 너를 만나러 갈 거야
경원선을 타고 말이야.

봄 빛

이 수 목 (소요초등학교 4학년)

내 마음에
꽃이 피었네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

빨강, 주황, 노랑
색색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

내 마음에
예쁜 나비가 가득
얼룩무늬
하트무늬
세모무늬
여러 모양의
예쁜 나비가
날아다니네

내 마음에
새싹이 돋았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네
들판에 숲 속에
온 가득 새싹이 돋았네

내 마음에
봄빛이 들었네
환한
봄빛이 들었네
모두의
마음속에 들었네
착한사람 나쁜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추억

안 슬 희 (신천초등학교 6학년)

비오는 날이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너와 함께
귀뚜라미 소리를 듣던 그때가

해가 쨍쨍한 날이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너와 함께
매미들의 소리를 듣던 그때가

아~아~
그 때가 좋았지

한적한 시골에서 너와 하루를 보냈던 그때가……

현 구

이 희 수 (생원초등학교 1학년)

삐죽삐죽 내 친구는 나는 싫어요
방글방글 내 친구는 나는 좋아요
괴롭히는 내 친구는 나는 싫어요
같이 노는 내 친구 나는 좋아요

어른이 되어도 내 친구
할머니가 되어도 내 친구
영원히 영원히 내친구

시민의 장 수상자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1	제 1회	'89. 9. 25	문화장		한국국악협회시지부장	남	이윤희	향토문화창달유공	작고
2	"	"	공익장		시위민봉사회장	남	장기묵	시민복지증진유공	작고
3	"	"	체육장		한국자유총연맹시지부지문위원	남	신태룡	체육발전유공	작고
4	"	"	애향장		시정자문위원장	남	안도계	향토발전유공	작고
5	"	"	효열장			여	한계순	부모공양유공	
6	제 2회	'90. 9. 29	문화장		문화원장	남	김성근	향토문화창달유공	
7	"	"	공익장		평통위원	남	이재풍	시민복지증진유공	
8	"	"	체육장		시정자문위원	남	박중양	시체육발전유공	작고
9	"	"	효열장		2/8 반장	여	전옥자	부모공양유공	
10	제 3회	'91.10. 7	새마을장		생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남	강정원	새마을운동활성화	작고
11	"	"	공익장		한국자유총연맹지부장	남	이영락	시민복지유공	
12	"	"	근로장		주미노조지부장	남	김관목	근로자지위향상	
13	"	"	체육장		생연2동 체육회장	남	간두범	체육발전	
14	"	"	애향장		동정자문위원장	남	김관돌	향토발전, 주민화합	
15	"	"	효열장		현대건설 대표	남	김용실	부모공양	
16	제 4회	'92.10. 6	문화장		동두천초교장	남	심상옥	지역교육발전	
17	"	"	새마을장		시새마을부녀회장	여	고순자	새마을운동활성화	
18	"	"	산업장		양곡상연합회시지부장	남	김문규	지역경제활성화	
19	"	"	근로장		주미노조시지부상무	남	박태균	근로복지향상	
20	"	"	체육장		국가대표 빙상선수	남	송재근	국위선양	
21	"	"	애향장		내행동동정자문위원장	남	이기복	지역발전	
22	"	"	효열장		시민	남	임원금	경로효친사상선영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문	주 소	직	성별	성명	공적개요	비고
23	제5회	'93. 10. 6	문화장		시민	여	어경자	지역교육발전	
24	"	"	새마을장		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남	김일태	새마을운동활성화	
25	"	"	근로장		(주)서광 생산부차장	남	최재풍	근로복지향상	
26	"	"	체육장		시축협회 회장	남	고흥기	체육발전유공	
27	"	"	애향장		한마음협의회회장	남	목태신	지역발전유공	작고
28	"	"	효열장		시민	여	전금향	경로효친실천	
29	제6회	'94. 10. 6	새마을장		상괘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남	신현우	새마을운동활성화	
30	"	"	근로장		동안동 자율방범대원	남	이원철	근로복지 증진	
31	"	"	체육장		생연3동 비르케달기운동부회장	남	박도연	체육발전유공	
32	"	"	애향장		생연3동 동정자문위원장	남	함성찬	지역발전유공	
33	"	"	효열장		시민	여	이옥례	경로효친실천	
34	제7회	'95.10. 6	문화장		동두천여상 교장	남	홍경섭	지역교육발전	
35	"	"	새마을장		동안동새마을지도자	남	최광석	새마을운동활성화	
36	"	"	근로장		동두천전화국 직원	남	최원규	근로복지향상	
37	"	"	체육장		전동두천초등학교교사	남	송길원	체육발전유공	
38	"	"	애향장		시민	남	백학중	지역발전	
39	"	"	효열장		광암동 부녀회장	여	최금순	경로효친실천	
40	제8회	'96.10. 5	문화장		동두천문화원 이사	남	이명수	지역문화발전	
41	"	"	새마을장		지행동시설체소작목반장	남	이덕재	새마을운동활성화	
42	"	"	근로장		농어민후계자연협회장	남	이구성	새마을운동활성화	
43	"	"	체육장		동두천시빙상연맹회장	남	김홍수	체육발전	
44	"	"	애향장		통장	남	양학중	지역발전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45	제8회	'89. 9. 25	효열장		주부	남	조금현	경노효친실천	
46	제9회	'97. 10. 6	문화장		사진작가	남	이필성	지역문화발전	작고
47	"	"	새마을장		주부	남	김명임	새마을운동활성화	
48	"	"	근로장		환경미화원	남	정해성	근로복지향사	
49	"	"	애향장		사업가	남	이광성	지역발전유공	
50	"	"	산업장		작목반장	남	안운재	농업발전유공	
51	"	"	체육장		체육위원	남	이강수	체육발전유공	
52	제10회	'98.10. 6	시민봉사장		전시위원	남	김경차	시민봉사	
53	"	"	문화체육장		사업가	남	어운선	문화·체육	
54	"	"	지역개발장		사업가	남	박무하	지역개발	
55	"	"	향토애향장		숙박업	남	이채혁	향토발전	
56	"	"	효행선행장		음식업	남	홍재승	선행부문	
57	제11회	'99.10. 6	시민봉사장		신체장애인복지회장	남	최홍철	시민봉사	
58	"	"	문화체육장		불링연합회장	남	이정식	문화·체육	
59	"	"	지역개발장		중앙동 시의원	남	김택기	지역개발	
60	"	"	향토애향장		중앙동바르게살기협의회장	남	정문석	향토·애향	
61	"	"	효행선행장		보산동새마을금고이사장	남	이종오	효행·선행	
62	제12회	'00.10. 6	시민봉사장		시민	남	남택윤	시민봉사	
63	"	"	문화체육장		임대업	남	차영환	문화·체육	
64	"	"	지역개발장		사업	남	안민규	지역개발	
65	"	"	향토애향장		주부	여	김명자	향토·애향	
66	제13회	'01.10.20	시민봉사장		새마을지도자동두천시협의회장	남	장호순	시민 봉사	
67	"	"	지역개발장		노인대학장	남	홍인기	지역개발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68	"	"	향토애향장		개인택시운영	남	이용섭	향토·애향	
69	제14회	'02.10.5	시민봉사		소요동 주민자치위원	남	이영기	시민 봉사	
70	"	"	문화체육		불현동 6통장	남	김부현	문화·체육	
71	"	"	지역개발		(주)무궁화유지 회장	남	최남순	지역개발	
72	"	"	향토·애향		제2건국추진위원장	남	허의강	향토·애향	
73	제15회	'03.10.6	시민봉사		한국어린이유영회 동두천지회장	여	김군자	시민 봉사	
74	"	"	문화체육		군도협회장	남	목유상	문화·체육	
75	"	"	지역개발		(시)지방행정동두천회 동두천시지부부지부장	남	최석동	지역개발	
76	"	"	향토·애향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장	남	윤상수	향토·애향	
77	"	"	효행·선행		시민	남	강준기	효행·선행	
78	제16회	'04.10.6	시민봉사		시각장애인 동두천지회장	남	김지옥	시민 봉사	
79	"	"	향토·애향		의용소방대장	남	양순중	향토·애향	
80	"	"	문화체육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회장	남	방두영	문화·체육	
81	"	"	효행·선행		시민	남	홍재우	효행·선행	
82	제17회	'05.10.6	시민봉사		약사	남	윤영삼	시민 봉사	
83	"	"	문화체육		이담품물놀이보존회장	남	천재원	문화·체육	
84	"	"	향토·애향		동두천시 숙박·목욕협회 지부장	남	정경철	향토·애향	
85	제18회	'06.10.11	시민봉사		농업	남	홍종서	자연 정화	
86	"	"	효행·선행		시민	남	이상순	지역 경제	
87	"	"	향토·애향		(주)미트코리아닷컴 사장	남	김태열	애향 봉사	
88	제19회	'07.10.6	시민봉사		시민	여	남옥봉	시민 봉사	
89	"	"	문화체육		골프국가대표육성	여	김옥자	시민 봉사	
90	"	"	효행·선행		시민	여	윤정실	시민 봉사	
91	"	"	향토·애향		시민	남	조중택	시민 봉사	

동두천문화원 회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고 문	정 성 호	
	오 세 창	
	형 남 선	
	김 성 근	
	홍 경 섭	
자문위원	최 경 준	
	김 재 만	
	진 양 현	
	김 영 숙	
원 장	안 민 규	
부 원 장	김 춘 경	
	김 임 순	
감 사	이 택 운	
	이 상 용	
이 사	김 성 권	
	김 택 기	
	김 태 학	
	서 은 용	
	어 성 운	
	이 동 규	
	이 상 출	
	이 영 일	
	이 주 영	
	이 미 라	

직 위	성 명	주 소
이 사	정 충 식	
	천 재 원	
	최 석 동	
	최 영 속	
	허 의 강	
	홍 순 식	
사무국장	이 계 흥	
회 원	고 영 철	
	김 근 배	
	김 기 속	
	김 동 순	
	김 문 규	
	김 병 국	
	김 성 연	
	김 성 임	
	김 영	
	김 용 재	
	김 자 경	
	김 장 중	
	김 형 유	
	류 영 선	
	류 호 정	
	박 병 희	
	박 수 동	
박 영 자		

직 위	성 명	주 소
회 원	박 용 철	
	박 재 열	
	박 종 규	
	박 주 연	
	박 진 주	
	박 형 덕	
	신 순 옥	
	안 병 찬	
	안 호 진	
	양 학 종	
	왕 관 속	
	윤 문 희	
	이 균 형	
	이 선 화	
	이 성 규	
	이 신 자	
	이 진 속	
	이 호 정	
	임 상 오	
	장 영 애	
	전 기 호	
	정 경 철	
	정 문 석	
정 영 속		
조 병 선		

직 위	성 명	주 소
회 원	최명순	
	최병춘	
	최재덕	
	한정애	
	홍석우	

☞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직 위	성 명	주 소
소 장	김택기	
부 소 장	이명수	
총 무	이계홍	
연구 위원	김임순	
	김재만	
	김춘경	
	백운하	
	안국승	
	어성운	
	이영일	
	이인규	
	홍경섭	
	홍정덕	

☞ 동두천문화원 보산분원

직 위	성 명	주 소
명예분원장	최 경 준	
전직분원장	이 장 식	
분 원 장	유 정 석	
총 무	김 용 열	
회 원	이 중 오	
	형 남 선	
	강 영 열	
	김 태 훈	
	이 강 현	
	장 세 동	
	조 철 호	
	김 병 준	
	서 순 원	
	김 노 경	
	김 창 수	
	배 정 수	
	홍 오 순	
전 제 국		
정 민 호		

☞ 동두천문화원 여성회 회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회 장	이 선 화	
부 회 장	최 은 숙	
	김 희 자	
재 무	박 명 숙	
감 사	여 화 영	
	김 진 숙	
총 무	장 영 숙	
이 사	장 정 숙	
	박 중 순	
	정 미 숙	
	송 연 화	
회 원	이 향 숙	
	배 남 희	
	오 길 자	
	박 정 례	
	정 경 재	
	신 경 자	
	박 미 경	
	하 미 순	

제 21 집 逍遙의脈

2007년 12월 15일 인쇄

2007년 12월 25일 발행

발행처 / 동두천문화원

동두천시 상패동 121번지 (시민회관 내)

TEL. (031) 865-2923

FAX. (031) 863-1020

발행인 / 안 민 규

편집인 / 이 계 흥

인쇄처 / 도서출판 화신문고

(등록번호 2-1529호)

TEL. (02) 2267-4596

<비매품>

